

博士學位論文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指導教授 丁淳佑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教育學專攻：金紫雲

#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 研究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 9. 30)

韓國學 中央 研究院

韓國學 大學 院

教育學 專攻 : 金紫雲

이 論文을 金紫雲의 教育學博士  
學位論文으로 認定함.

201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韓國學中央研究院  
韓國學大學院

# 目 次

<국문초록> .....	iv
I. 서론 .....	1
I-1. 연구목적 .....	1
I-2. 선행연구 검토 .....	8
I-3. 연구 범위 및 대상 자료 .....	23
II. 주세붕의 서원관과 16세기 居接의 官學的 성격 .....	26
II-1. 주세붕의 서원관 .....	28
II-2. 講學의 경제적 기반 .....	39
II-3. 居接의 운영 방식과 官學的 성격 .....	52
II-4. 16세기 居接의 의미 .....	65
III. 17세기 講學 理念의 확산과 ‘罷格 논쟁’의 교육적 의미 .....	73
III-1. 講學의 경제적 기반 .....	75
III-2. 17세기 초 童蒙教育의 활성화 .....	85
III-3. 居接의 운영과 科業 중심 講學에 대한 비판 .....	93
III-4. ‘罷格 논쟁’의 교육적 의미 .....	100
IV. 18세기 居齋의 心學的 특징과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	104
IV-1. 講學의 성격 변화와 추이 .....	109
IV-2. 養士廳의 설치와 講學의 경제적 기반 .....	114
IV-3. 초·중반기 ‘三冬居齋’의 운영 .....	121
IV-3-1.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居齋의 교육과정 .....	121
IV-3-2. 居齋의 운영 방식과 운영 실제 .....	129
IV-4. 후반기 居齋의 心學的 특징 및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	136
IV-4-1. 居齋節目을 통해 본 居齋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	138
IV-4-2. 『居齋雜錄』·『居齋錄』에 나타난 居齋의 운영 실제 .....	142
IV-4-3. 敬讀·通讀 교재를 통해 본 居齋의 心學的 특징 .....	152

IV-4-4. 居接의 운영과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	168
V. 19세기 『中庸』 講會와 湖學의 계승 .....	174
V-1. 19세기 재정난과 ‘兼院長’ 제도의 활용 .....	176
V-2. 계절에 따른 科業과 道學의 병행 .....	182
V-3. 居齋와 通讀의 특징 .....	184
V-3-1. 居齋·通讀의 운영 실제와 실천적 학문 경향 .....	184
V-3-2. 1827년 『中庸』 講會의 특징 .....	214
V-4.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과 1828년 소백산 유람 .....	227
V-4-1.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	227
V-4-2. 1828년 文會와 소백산 유람 .....	234
V-5. 李象靖 학맥의 등장 배경과 湖學의 계승 .....	240
VI. 요약 및 결론: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의 교육학적 해석 .....	245
參考文獻 .....	254
<中文摘要> .....	264

## 表 目 次

〈표 1〉. 紹修書院 講學 관련 자료 .....	24
〈표 2〉. 16세기 지방관의 재정 지원 현황 .....	47
〈표 3〉. 소수서원 입원유생의 과거 입격연도(1543~1546) .....	52
〈표 4〉. 퇴계 문인 중 16세기 소수서원 입원 유생들의 과거 입격 현황 .....	69
〈표 5〉. 17세기 지방관의 재정 지원 현황 .....	79
〈표 6〉. 入院錄1을 통해 본 17세기 거점의 개설시기(1620~1672) .....	97
〈표 7〉. 入院錄2를 통해 본 17세기 거점의 개설시기(1660~1691) .....	98
〈표 8〉. 17세기 소수서원 입원 유생들의 과거 합격 현황 .....	99
〈표 9〉. 18세기 초·중반기 소수서원 강학 개설 현황과 특징(1720~1760) .....	135
〈표 10〉. 居齋雜錄(1761~1780)의 구성 .....	136
〈표 11〉. 居齋錄(1780~1793)의 구성 .....	137
〈표 12〉. 18세기 소수서원 居齋의 通讀 교재와 通讀 실제 .....	156
〈표 13〉. 近思錄의 체제와 구성 .....	161
〈표 14〉. 18세기 후반 居齋·通讀의 운영 현황 .....	166
〈표 15〉. 18세기 후반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실제 .....	170
〈표 16〉. 19세기 兼院長 및 전현직 관리의 원장 재임 시 활동 .....	178
〈표 17〉. 19세기 강학 개설 현황 .....	183
〈표 18〉. 1810년 거재의 詩賦 製述 榜目 .....	188
〈표 19〉. 1826년 通讀의 製述 試題와 壯元 .....	197
〈표 20〉. 1827년 居齋의 製述 試題와 壯元 .....	205
〈표 21〉. 19세기 居齋·通讀의 운영 현황 .....	212
〈표 22〉. 1827년 中庸 講會 문답 참여 유생 .....	215
〈표 23〉. 19세기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현황 .....	228
〈표 24〉. 1827년 居接의 製述 試題와 壯元 .....	232
〈표 25〉. 戊申 完議 이후 타읍 거주 대산 학맥 중 원장에 임명된 인물 .....	243

## 【국문초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학전공

김 자 운

이 연구는 朝鮮時代 紹修書院을 대상으로, 소수서원 講學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기별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구명하고, 그 교육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최초의 서원은 조선 중기 주세붕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는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그 설립 근거를 ‘남송대 朱子の 白鹿洞書院 故事’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송대에 확립된 중국의 서원제도는 북송과 남송이 각각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지방 官學이 발전되기 이전, 북송의 서원은 관학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慶曆 연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흥학 운동을 통해 관학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자, 북송의 서원은 폐기되거나 관학 체계 속으로 편입되어가며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침체되었던 송대 서원이 다시 부흥하게 된 건 남송의 주자에 의해서였다. 주자는 관료로 있을 때, 당시 科擧 준비를 위한 학문 전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관학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여조겸, 장식 등과 함께 백록동서원, 악록서원, 석고서원 등 서원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때 주자는 張載와 二程이 표방했던 ‘正學’을 서원 교육의 이상으로 제시하며 남송서원에 ‘새로운 私學 정신’을 부여하였다. 주자를 중심으로 한 남송의 서원부흥운동은 ‘張載와 伊洛의 학문을 탐구하는 서원’, 곧 ‘理學書院’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理學을 탐구하는 목적은 바로 ‘道’를 깨달아 실천하는데 있었다. 이제 서원의 교육 목표는 더 이상 ‘문장학이나 과거 대비’가 아니라, ‘理學의 탐구를 통해 道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주자에 의해 탄생한 理學書院은 科擧之學에 얽매었던 북송서원과 달리, 理學과 道學을 자유롭게 강론하는 학문과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理學書院의 등장과 학문풍토가 이후 학과의 형성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원 ‘講學’이 있었다. 주자에 의해 탄생한 남송의 理學書院은 科擧의 구속을 벗어나 ‘道學과 義理之學’을 목표로 ‘자유로운 학설의 전파’ 및 ‘師說의 계승을 통한 학과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곧 각 서원에서 문인들의 ‘講學’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는 문장학과 과거 대비를 목표로 했던 북송의 서원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남송대 주자가 확립한 서원 모델을 따라, 조선에서 道學을 강론하며 강학을 통해 師說을 계승, 전파함으로써 서원이 다양한 학파 형성의 본거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이에 앞서 이미 영남에서는 퇴계 사후인 16세기 말부터 그 문인들이 陶山·易東·廬江·伊山書院 등에서 퇴계를 제향하며 강학을 통해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었다. 퇴계 문인들의 사후에는 다시 그 문인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강학함으로써, 17세기 무렵 영남지역의 퇴계학은 김성일·유성룡·정구 등의 계열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紫雲·紹賢·遯巖·華陽洞·考巖書院 등이 건립되면서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栗谷 李珣로부터 金長生, 宋時烈로 이어지는 畿湖學派의 性理說과 禮說이 분화, 발전하였고, 18세기 石室書院의 강학은 당시 호락논쟁에서 서울 지역 洛論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는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강학은 17세기까지도 ‘道學을 강론하거나 師說을 계승’하는 서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는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의 서원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송대 주자의 백록동서원 제도를 모방하여 백운동서원을 설립한다고 했던 주세붕의 서원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남송보다는 북송 서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다. 북송의 모델을 따라 서원을 ‘科業을 준비시키는 관학의 보조기구’처럼 인식했던 주세붕의 서원관은, 설립 초기 백운동서원 강학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은 17세기 초반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한편 북송의 모델을 따르면서, 그는 왜 백운동서원의 설립 근거를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에서 찾고자 하였을까? 그가 모방했다고 한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그가 따르지 못한 주자의 행적은 과연 무엇인가? II장에서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주세붕이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 그의 서원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의 서원관은 송대 서원제도에 대한 이해 방식 뿐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이해 방식 및 그 지향성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II장에서는 그의 서원관이 16세기 소수서원 강학 실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강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16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과 의미,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남송대 주자가 확립했던 서원관이 조선 사회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주세붕을 지나 퇴계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주자가 남송서원을 부흥할 때 했던 것처럼, 풍기군수

로 부임하여 조정에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함으로써 서원이 국가의 승인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科擧와 祿利의 풍습에 물들어 학문을 오직 과거에 합격하고 녹봉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官學의 폐해를 지적하고, 서원을 설립한 뜻은 오직 ‘道學을 講明’하는 데 있으며, 서원에서 학문하는 방법은 옛 사람의 爲己之學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자의 서원관을 계승하여 이를 조선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科擧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다운 爲己之學을 실천하는 道學 서원의 정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풍기군수 재임 시에도 틈날 때마다 백운동서원을 찾아 ‘道學’을 강론하며, 당시 科業에 치우치고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풍을 쇠신하고, 제생들에게 道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7세기 초반까지도 소수서원의 강학은 여전히 道學이 아닌 科擧에 치우치고 있었다.

이 같은 강학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 무렵이었다. 17세기 소수서원의 운영자들은 과거공부에 치중되어 있던 당시 소수서원의 강학 방식에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드러내면서, 소수서원을 道學을 강명하는 서원 본래의 강학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자격을 두고 벌어진 ‘罷格 논쟁’이었다. 17세기 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이 논쟁에서 퇴계 문인들은,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罷格論’의 입장에서 罷格을 주장하며, 유학교육의 본질과 서원의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파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8세기 초에 이르러 罷格으로 종결된 이 논쟁은,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운영되던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이 18세기에 이르러 ‘道學 중심’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Ⅲ장에서는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이루어진 소수서원 강학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고, 퇴계 문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科業 위주의 강학방식에 대한 비판과, 罷格 논쟁에서 과격을 주장한 이들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통해,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17세기에 이르러 소수서원에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18세기에는 서원의 폭증으로, ‘서원은 본래 선비들의 강학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강학의 實은 없고 제향만 일삼으며, 토지와 양정을 모점하여 사회적 폐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심화되자, 조정에서는 疊設 금지·사액 불허·훼철 등 서원에 대한 각종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관들은 향촌의 교육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였으며, 각 서원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강학을 개설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소수서원은 물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조정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었으나, 서원 건립의 증가는 18세기 소수서원의 경제 기반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곧 강학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18세기에는 ‘三冬居齋’나 ‘輪番居齋’ 등이 전에 없던 강학 운영상의 변통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원의 폭증 외에,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은 바로 17세기부터 시작된 ‘罷格 논쟁’이었다. 1719년 이 논쟁이罷格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17세기까지 ‘科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수서원 강학은 ‘道學’ 위주로 그 성격이 확연히 변화되었다. 이는 17세기까지의 강학이 科業을 목표로 한 ‘居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道學을 목표로 한 ‘居齋’라는 18세기 강학 형태의 변화로 나타났다. 居齋에서는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개별독서·敬讀·通讀’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18세기 초부터 거제의 목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던 ‘道學’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心學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로 한 단계 구체화되고 있었다. 즉, 17세기는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공유,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학의 실제에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과도기였다면, 18세기는 구체적인 강학의 형태와 방식까지 변화된, 서원 강학 이념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17세기 과도기를 거쳐 18세기에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정착되고, 나아가 心學의 탐구와 실천으로 道學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居齋의 교육과정과 운영 실제, 敬讀 및 通讀 교재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18세기 후반 거제의 心學的 특징과 아울러 科業을 내용으로 하는 백일장과 순제가 활성화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도 검토하였다.

18세기에는 寶穀의 재정도 고갈되고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도 사라지자, 四時居接을 三冬居齋로 바꾸고, 輪番居齋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거제 인원과 기간을 단축하며, 원임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불안정하게나마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養土廳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학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사청 역시 중단과 복설을 거듭한 끝에 18세기 후반 폐지되기에 이르자, 19세기에는 ‘三冬居齋’조차 개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서원의 재정난은 심화되었다. 이에 서원에서는 원장의 거주지를 道內로 확대함으로써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고, 동시에 순흥부사에게 소수서원 원장을 겸임시키는 원장부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에 힘입어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19세기 강학의 또 다른 변화는 해마다 계절에 따른 科業과 道學의 병행이 관례로

정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서원의 유생들이 ‘대다수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19세기에는 과거에 응시할 대다수 서원 유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마다 계절별로 科業과 道學을 위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유생들의 과거 응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 소수서원의 가장 큰 변화는, 18세기까지 뚜렷한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을 띄지 않았던 소수서원에 학파적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세기에는 大山 李象靖과 定齋 柳致明의 문인들, 이른바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洞主를 맡아 서원 강학을 주도하고 있었다. 강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인 『朱子書節要』, 聖學과 心學의 요체를 다룬 퇴계의 『聖學十圖』,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한 것으로 이상정과 유치명이 매우 중시했던 주자의 「玉山講義」와 『延平答問』, 未發과 已發, 動靜을 관통하는 通體 공부로서 이상정이 강조했던 戒愼恐懼의 의미를 다룬 『中庸』 등을 강론하며, 19세기 소수서원은 강학을 통해 心學과 일상의 실천을 강조한 湖學의 학문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 소수서원에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이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16, 17세기부터 특정 스승이나 학파의 학설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고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강학을 전개해가던 여타 서원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상과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V장에서는 19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거나 兼院長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강학을 지속하고자 했던 소수서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1827년 중용 강회의 강론 내용을 통해 19세기 강학에서 湖學의 학풍이 계승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1828년 文會 후 李泰淳, 李秉運, 李家淳, 姜樞, 柳鼎文 등 湖學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9일에 걸쳐 이루어진 소백산 유람의 과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때의 소백산 유람은 遊息의 과정이자 동시에 서원 강학의 목표였던 ‘道を 발견하고 체인’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유람의 마지막 4일간 회방사에서 이병운, 이가순, 강운, 유정문 등을 중심으로, 대산의 문인이었던 黃龍漢의 문집을 강독, 교감하고 있는 것을 통해 19세기 소수서원이 대산 학맥의 계승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주로 안동과 예안 출신으로 高山書堂과 虎溪書院을 무대로 활동하던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19세기 소수서원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VI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교육학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서

원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던 당시,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이 겪어야 했던 강학의 변화 과정은 곧 조선 서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세기 이래 道學과 心學을 표방했던 소수서원의 교육과정은 敬의 공부론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엄격한 검속 뿐 아니라, '藏修와 遊息, 詩書禮樂'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결국 '몸과 마음', '세계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식과 덕성이 괴리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순간 존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즉, 소수서원 강학이 추구했던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위한 공부론'은 결국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모든 교육은 '지식과 덕성의 결합' 혹은 '지식과 인성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현재 한국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지식교육만 하고 인성교육을 등한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인성이 서로 관련을 맺지 못한다는 것, 즉, 지식이 학습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관계를 통해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꾀했던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강학 전통은 현대 공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주제어 : 書院, 講學, 紹修書院, 道學, 爲己之學, 科學, 科業, 講會, 居齋, 居接, 旬製, 白日場, 敬讀, 通讀, 藏修, 遊息, 罷格, 復格, 麗澤之力, 心學, 湖學,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 中庸, 玉山講義, 延平答問

# I. 서론

## I-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朝鮮時代 紹修書院을 대상으로, 소수서원 講學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기별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구명하고, 그 교육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최초의 서원은 조선 중기 주세붕에 의해 건립되었다. 그는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그 설립 근거를 ‘남송대 朱子の 白鹿洞書院 故事’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송대에 확립된 중국의 서원제도는 북송과 남송이 각각 그 성격을 달리 하였다. 지방 官學이 발전되기 이전, 북송의 서원은 관학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한·당의 經學·詩賦·文章이나 과거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할 뿐, 학문이나 사상 면에서는 별다른 특색을 지니지 못하였다. 慶曆 연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흥학 운동을 통해 관학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자, 북송의 서원은 폐기되거나 관학 체계 속으로 편입되어가며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sup>1)</sup>

이렇게 침체되었던 송대 서원이 다시 부흥하게 된 건 남송의 주자에 의해서였다. 주자는 관료로 있을 때, 당시 科擧 준비를 위한 학문 전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관학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여조겸, 장식 등과 함께 백록동서원, 악록서원, 석고서원 등 서원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정부가 鄉黨서원을 지원했던 북송 초기의 모델을 근거로 정부의 승인과 지지를 통해 서원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서원의 운영 기반을 위해 관방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런데 북송서원과 구별되는 남송서원의 특색은 국가의 승인이나 관방의 제도를 활용한 것보다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張載와 二程이 표방했던 ‘正學’을 서원교육의 이상으로 제시하며 남송서원에 ‘새로운 私學 정신’을 부여한 것이다. 주자는 백록동서원기문 작성을 위해 여조겸과 왕래한 서신에서, ‘백록동서원의 흥성기였던 북송 초기에는 先王의 大道가 미처 밝혀지지 못하다가, 장재와 이정에 이르러 비로소 밝혀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재와 이정이 출현한 이후에도 당대 학자들은 始終과 本末의 순서를 살피지 못해 학자의 수는 많아졌으나 풍속의 아름다움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선왕의 道 역시 발명되지 못하였다고

1) 朱漢民,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學古房, 2011, 44~45쪽.

보았다. 이에 서원을 세우는 이유는 선왕이 교화를 일으키고 학문을 권장했던 遺澤을 다시 베풀려는 것이니, 장자와 정자의 학문에 힘써 그 궁극을 이해하게 되면, 제나라가 변하여 노나라가 되고, 노나라가 변하여 道에 이르게 될 것<sup>2)</sup>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들이 백록동서원의 부흥을 통해 제창하고 전수하고 싶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伊洛의 학문’이었다. 그리고 그 학문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道’를 향하고 있었다. 이는 불교나 노장사상, 科擧와 같은 俗學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서원교육의 정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즉, 이들은 본래 백록동서원과 전혀 관계없던 張載와 伊洛의 학문을 서원 교육의 이상과 새로운 학문정신으로 부여함으로써, 서원을 부흥시키는 과정에서 서원의 성격을 전환하여 새로운 교학 모델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이후 남송 서원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전범이 되었다.<sup>3)</sup>

이와 같이 주자를 중심으로 한 남송의 서원부흥운동은 ‘張載와 伊洛의 학문을 탐구하는 서원’, 곧 ‘理學書院’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들이 理學을 탐구하는 목적은 바로 ‘道’를 깨달아 실천하는 데 있었다. 이제 서원의 교육 목표는 더 이상 ‘문장학이나 과거 대비’가 아니라, ‘理學의 탐구를 통해 道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리하여 주자에 의해 탄생한 理學書院은 科擧之學에 얽매었던 북송서원과 달리, 理學과 道學을 자유롭게 강론하는 학문과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理學書院의 등장과 학문풍토가 이후 학과의 형성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서원 ‘講學’이 있었다. 주자·여조겸·장식·육구연과 같은 남송의 大儒들은 각각 백록동서원·이택서원·악록서원·상산서원에서 講學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전파하며 많은 문인을 흡수하였다. 그 문인들은 스승의 사후 곳곳에 서원을 세워 스승을 제향하고, 講學을 통해 師說을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비로소 각각의 학과가 형성되었다. 이후 서원의 역사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남송의 주학·육학·절학으로부터 청대의 고증학에 이르기까지 중국 유학의 다양한 학과의 형성과 분화, 발전은 대개 서원 강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주자의 문인들이 세운 서원은 湘, 浙, 閩 등의 지역에 54개나 되었으며,<sup>4)</sup> 명대의 왕양명은 용강서원, 귀양서원, 염계서원, 계산서원 등에서 강학하고, 그의 사후 문인들은 양명서원, 복고서원, 혼원서

2) “建炎中興，程氏之言復出，學者又不考其始終本末之序，而爭爲妄意蠟等之說以相高，是以學者雖多，而風俗之美終亦不迨於嘉祐治平之前，而況欲其有以發明於先王之道乎？今書院之立，蓋所以究宣祖宗興化勸學之遺澤，其意亦深遠矣。學於是者，誠能考於當時之學以立其基，而用力於程張之所議者以會其極，則齊變而魯，魯變而道矣。”(『朱子大全』, 권 34, 「與東萊論白鹿書院記」).

3) 陳雯怡, 『由官學到書院』, 聯經, 2004, 37~40쪽.

4) 정만조, 「서원, 조선 지식의 힘-도산서원과 영남의 지식문화」,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각주 20에서 재인용.

원, 호계서원, 육흥서원, 명경서원 등을 세워 양명학을 전파해갔다.<sup>5)</sup> 그 중에서도 명대 양명학의 말류적 폐단을 수습하기 위해 일어난 東林書院의 강학정신과 淸議의 기풍은 유명하여, ‘사림정신의 진원지이자, 서원제도 가운데 역사상 가장 빛나는 광채를 지닌 곳’<sup>6)</sup>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요컨대, 주자에 의해 탄생한 남송의 理學書院은 科擧의 구속을 벗어나 ‘道學과 義理之學’을 목표로 ‘자유로운 학설의 전파’ 및 ‘師說의 계승을 통한 학파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곧 각 서원에서 문인들의 ‘講學’을 통해 실현되었다. 이는 문장학과 과거 대비를 목표로 했던 북송의 서원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남송대 주자가 확립한 서원 모델을 따라, 조선사회에서 道學을 강론하며 강학을 통해 師說을 계승, 전파함으로써 서원이 다양한 학파 형성의 본거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이에 앞서 이미 영남에서는 퇴계 사후인 16세기 말부터 그 문인들이 陶山·易東·廬江·伊山書院 등에서 퇴계를 제향하며 강학을 통해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었다. 퇴계 문인들의 사후에는 다시 그 문인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강학함으로써, 17세기 무렵 영남지역의 퇴계학은 김성일·유성룡·정구 등의 계열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紫雲·紹賢·遯巖·華陽洞·考巖書院 등이 건립되면서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율곡 이이로부터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성리설과 禮說이 분화, 발전하였고, 18세기 경기도 양주 石室書院의 강학은 당시 호락논쟁에서 서울 지역 낙론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는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의 강학은 17세기까지도 ‘道學을 강론하거나 師說을 계승’하는 서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는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의 서원관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남송대 주자의 백록동서원 제도를 모방하여 백운동서원을 설립한다고 했던 주세붕의 서원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남송보다는 북송 서원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는 주세붕이 제정한 入院 규정 및 설립 초기 백운동서원의 강학과 운영 실제 등에 반영된 그의 서원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송의 모델을 따라 서원을 ‘科業을 준비시키는 관학의 보조기구’처럼 인식했던 주세붕의 서원관은, 설립 초기 백운동서원 강학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은 17세기 초반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한편 북송의 모델을 따르면서, 그는 왜 백운동서원의 설립 근거를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에서 찾고자 하였을까? 그가 모방했다고 한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란 구체적으

5)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문음사, 1990, 55쪽.

6) 丁淳睦, 같은 책, 56쪽.

로 어떤 것이며, 또 그가 따르지 못한 주자의 행적은 과연 무엇인가? II장에서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주세붕이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 그의 서원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의 서원관은 송대 서원제도에 대한 이해 방식 뿐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이해 방식 및 그 지향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아울러 II장에서는 그의 서원관이 16세기 소수서원 강학 실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강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16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과 의미,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남송대 주자가 확립했던 서원관이 조선 사회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주세붕을 지나 퇴계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주자가 남송서원을 부흥할 때 했던 것처럼,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함으로써 서원이 국가의 승인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科擧와 祿利의 풍습에 물들어 학문을 오직 과거에 합격하고 녹봉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官學의 폐해를 지적하고, 서원을 설립한 뜻은 오직 ‘道學을 講明’하는 데 있으며, 서원에서 학문하는 방법은 옛 사람의 爲己之學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서원의 설립 의도와 교육 목표는 관학과는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주자의 서원관을 계승하여 이를 조선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서원의 기문을 짓고 서원 보급운동에 앞장섰으나, 科擧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다운 爲己之學을 실천하는 道學 서원의 정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풍기군수 재임 시에도 틈날 때마다 백운동서원을 찾아 ‘道學’을 강론하며, 당시 科業에 치우치고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풍을 쇠신하고, 제생들에게 道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7세기 초반까지도 소수서원의 강학은 여전히 道學이 아닌 科擧에 치우치고 있었다. 이 같은 강학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 무렵이었다. 서원 운영자들은 과거공부에 치중되어 있던 당시 소수서원의 강학 방식에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드러내면서, 소수서원을 道學을 강명하는 서원 본래의 강학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노력 중 하나가 바로,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자격을 두고 벌어진 ‘罷格 논쟁’이었다. 17세기 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이 논쟁에서 퇴계 문인(혹은 재전문인)들은,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罷格論’의 입장에서 罷格을 주장하며, 유학교육의 본질과 서원의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파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8세기 초에 이르러 罷格으로 종결된 이 논쟁은,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운영되던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이 18세기에 이르러 ‘道學 중심’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III장에서는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이루어진 소수서원 강학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고, 퇴계 문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科業 위주의 강학방식에 대한 비판과, 罷格 논쟁에서 파격을 주장한 이들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통해,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17세기에 이르러 소수서원에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18세기에는 서원의 폭증으로, ‘서원은 본래 선비들의 강학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강학의 實은 없고 제향만 일삼으며, 토지와 양정을 모점하여 사회적 폐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심화되자, 조정에서는 疊設 금지·사액 불허·훼철 등 서원에 대한 각종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관들은 향촌의 교육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였으며, 각 서원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강학을 개설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소수서원은 물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조정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었으나, 서원 건립의 증가는 18세기 소수서원의 경제 기반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6, 17세기까지 주로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존하여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은, 17세기 이후 인근 지역 서원 설립의 증가로 인해 18세기에 이르러 관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곧 강학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18세기에는 ‘三冬居齋’나 ‘輪番居齋’ 등 이전에 없던 강학 운영상의 변통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서원의 폭증 외에,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사건은 바로 17세기부터 시작된 ‘罷格 논쟁’이었다. 1719년 이 논쟁이 罷格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17세기까지 ‘科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수서원 강학은 ‘道學’ 위주로 그 성격이 확연히 변화되었다. 이는 17세기까지의 강학이 科業을 목표로 한 ‘居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道學을 목표로 한 ‘居齋’라는 18세기 강학 형태의 변화로 나타났다. 居齋에서는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개별독서·敬讀·通讀’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18세기 초부터 거제의 목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던 ‘道學’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心學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로 한 단계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운영 실체와 敬讀 및 通讀 교재의 변화를 통해 드러났다. 즉, 17세기는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공유,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학의 실제에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과도기였다면, 18세기는 구체적인 강학의 형태와 방식까지 변화된, 서원 강학 이념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는 17세기 과도기를 거쳐 18세기에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정착되고, 나아가 心學의 탐구와 실천으로 道學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居齋의 교육과정과 운영 실제, 敬讀 및 通讀 교재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18세기 후반 거재의 心學的 특징과 아울러 科業을 내용으로 하는 백일장과 순제가 활성화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18세기에는 寶穀의 재정도 고갈되고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도 사라지자, 四時居齋를 三冬居齋로 바꾸고, 輪番居齋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거재 인원과 기간을 단축하며, 원입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불안정하게나마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養土廳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학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사청 역시 중단과 복설을 거듭한 끝에 18세기 후반 폐지되기에 이르자, 19세기에는 '三冬居齋'조차 개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서원의 재정난은 심화되었다. 이에 서원에서는 원장의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함으로써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고, 동시에 18세기 후반 양사청이 폐지되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겸원장 제도를 19세기에도 꾸준히 활용함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에 힘입어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19세기 강학의 또 다른 변화는 '가을 겨울에는 거재와 통독, 봄과 여름에는 백일장과 거접을 개설하여 제술과 강학을 모두 권장하여 하나라도 폐지되지 않게 한다'고 함으로써, 계절에 따른 科業과 道學의 병행이 관례로 정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서원의 유생들이 '대다수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19세기부터는 과거에 응시할 대다수 서원 유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마다 계절별로 科業과 道學을 위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유생들의 과거 응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 소수서원의 가장 큰 변화는, 18세기까지 뚜렷한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을 띄지 않았던 소수서원에 학파적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세기에는 大山 李象靖과 定齋 柳致明의 문인들, 이른바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洞主를 맡아 서원 강학을 주도하고 있었다. 강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인 『朱子書節要』, 聖學과 心學의 요체를 다룬 퇴계의 『聖學十圖』,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한 것으로 이상정과 유치명이 매우 중시했던 주자의 「玉山講義」와 『延平答問』, 未發과 已發, 動靜을 관통하는 通體 공부로서 이상정이 강조했던 戒愼恐懼의 의미를 다룬 『中庸』 등을 강론하며, 19세기 소수서원은 강학을 통해 心學과 일상의 실천을 강조한 湖學의 학문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 소수서원에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이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16, 17세기부터 특정 스승이나 학파의 학설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고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강학을 전개해가던 여타 서원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상과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V장에서는 19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거나 兼院長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강학을 지속하고자 했던 소수서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1827년 중용 강회의 강론 내용을 통해 19세기 강학에서 湖學의 학풍이 계승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1828년 文會 후 李泰淳, 李秉運, 李家淳, 姜樞, 柳鼎文 등 湖學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9일에 걸쳐 이루어진 소백산 유람의 과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때의 소백산 유람은 遊息의 과정이자 동시에 서원 강학의 목표였던 ‘道를 발견하고 체인’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었다. 동시에 유람의 마지막 4일간 회방사에서 이병운, 이가순, 강운, 유정문 등을 중심으로, 대산의 문인이었던 黃龍漢의 문집을 강독, 교감하고 있는 것을 통해 19세기 소수서원이 대산 학맥의 계승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V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주로 안동과 예안 출신으로 高山書堂과 虎溪書院을 무대로 활동하던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19세기 소수서원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던지도 함께 검토하였다.

VI장 결론에서는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교육학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서원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던 당시,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이 겪어야 했던 강학의 변화 과정은 곧 조선 서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세기 이래 道學과 心學을 표방했던 소수서원의 교육과정은 敬의 공부론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엄격한 검속 뿐 아니라, ‘藏修와 遊息, 詩書禮樂’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육과정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결국 ‘몸과 마음’, ‘세계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식과 덕성이 괴리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순간 존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즉, 소수서원 강학이 추구했던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위한 공부론’은 결국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모든 교육은 ‘지식과 덕성의 결합’ 혹은 ‘지식과 인성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현재 한국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입시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지식교육만 하고 인성교육을 등한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인성이 서로 관련을 맺지 못한다는 것, 즉, 지식이 학습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관계를 통해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꾀했던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강학 전통은 현대 공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I -2. 선행연구 검토

조선 중기에 출현한 이래 서원은 講學, 祭享, 사림의 향촌 자치활동 및 여론 형성 등을 통해 조선사회의 교육·의례·정치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왔다. 조선시대 서원의 이 세 가지 기능은 사실상 서로 연동되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제향은 기본적으로 유학에 공이 있는 현인이나 스승의 학문과 도덕을 본받기 위한 교육적 의도의 발로였으며, 이는 儀禮라는 상징적 행위와 講學이라는 교육 실천으로 표현되었다. 서원에 제향된 현인이나 스승의 학문체계는 강학을 통해 전승·발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다양한 문인집단과 학파가 탄생하였으며, 이는 조선 성리학의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완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당파는 바로 이와 같은 학파별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한 집단이며, 서원 강학을 통해 형성된 학파의 다양한 학문적 해석은 각 당파의 정치이념과 명분을 제공하며 조선후기 봉당정치이념의 토대가 되었다. 이와 같이 ‘修己治人’과 ‘內聖外王’을 통치이념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교육과 정치, 학파와 당파를 이어주는 접점이자 핵심적인 매개체 중 하나는 바로 서원 강학이었다. 이와 같은 서원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교육사,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등의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sup>7)</sup> 그러나 ‘書院 講學’이라는 주제는 역사학은 물론이고, 교육사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교육사 분야에서 서원 강학 연구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와서이다. 2000년대 이후 박종배, 김경용, 김대식, 최광만, 윤희면, 정순우 등을 필두로 연구 성과가 꾸준히 제출되면서 이전에 주목 받지 못했던 ‘서원 강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서원 강학은 비로소 교육사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이하에서는 역사학과 교육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서원 강학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서원 강학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정치사와 사회사 분야에서의 연구는 크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6세기 주세붕에 의해 출현한 서원은 퇴계에 이르러 사림의 講學處이자 藏修處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를 토대로 조선의 학파와 문인

7) 서원에 대한 역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朝鮮 書院·祠宇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高錫奎, 『外大史學』 1, 1987);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鄭萬祚, 『韓國學論叢』 18집, 1995); 「조선시대 교육의 성리학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과제」(황금중, 『한국교육사학』 29권 1호, 2007) 등을 참조.

조직이 형성되어 조선 성리학의 심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sup>8)</sup> 둘째, 선조 대 사림정치의 본격화에 따라 서원도 본격적인 발전을 맞게 되며, 양란 이후에는 유향소 등 기존의 향촌기구를 대신하여 명실상부한 사림들의 향촌사회 중심기구로 부상하였다.<sup>9)</sup> 셋째, 서원을 토대로 형성된 각 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해석을 바탕으로 집권 세력의 道學的 정통성과 정치적 명분을 확립하며 서원은 17세기<sup>10)</sup> 봉당정치 운영의 토대가 되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였다.<sup>11)</sup> 넷째, 조선후기 당쟁 격화에 따라 서원은 점차 당론의 근거지와 정쟁의 도구로 화하여 당파별로 자파 인물을 제항하는 서원이 폭증, 남설되면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원 본래의 강학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제항 위주로 변모하였으며, 18세기 이후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로 그 성격이 변화하면서 문중서원이 출현, 성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강학이나 교화를 통한 향촌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은 축소되고 문중 내부의 결속과 사회적 지위 유지의 수단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면서 각종 민폐를 야기하는 대민착취 기구로 변모하여 19세기에 이르러 결국 훼손의 대상이 되었다<sup>12)</sup>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이 분야의 고유한 연구주제인 조선시대 서원의 ‘정치, 사회적 기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서원을 기반으로 한 향촌사림의 정치 참여, 중앙정계의 권력구조 및 사회구조 변동에 따른 사족 지배체제의 변화와 서원의 역할 등을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정치상과 사회상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도출해내었다. 그 과정에서 서원 강학에 대해서는 ‘17세기 후반 봉당정치의 명분논쟁이 격화되고 정쟁 희생자에 대한 伸冤의 의미를 지닌 서원 건립이 성행하여 서원의 성격이 講學·藏修 중심에서 제항 위주로 전환’<sup>13)</sup>되고, ‘숙종대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와 향촌사림의 현실적 이해가 결합하여 첩설과 남설이 심화됨으로써 서원은 제항의 기능만 남게 되어 점차 사회적 병폐를 자아내는 온상으로 변모해 갈 수밖에 없었다’거나<sup>14)</sup> ‘17세기 중반 이

8) 鄭萬祚, 「朝鮮書院의 成立過程」, 『韓國史論』 8, 국사편찬위원회, 1980.

9) 李泰鎭,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李海濬, 「朝鮮後期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韓國史論』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10) 서원이 본격적으로 봉당정치의 기반을 제공한 시기에 대해 이태진은 17세기 초반, 정만조는 17세기 후반으로 보며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만조의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1975);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韓國學論叢』 18,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5) 및 이태진의 「士林과 書院」(『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을 참조.

11)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韓國史學』,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태진, 같은 글; 薛錫圭,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社會적 기반」, 『국사관논총』 34, 1992.

12) 정만조, 같은 글; 이태진, 같은 글; 이해준, 같은 글.

13)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04쪽.

14) 정만조, 「朝鮮後期の 對書院施策」,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257~258쪽.

후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크게 축소되고 祀賢의 기능만 강조되면서 향촌에서 문중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해 갔으며, 이 같은 교육 기능의 상실은 이 시기 서원의 남설 및 이에 따른 국가의 통제책으로 야기된 경제적 기반 약화에 그 원인이 있다<sup>15)</sup>고 해석함으로써, 17세기 후반부터 서원의 강학 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제향, 문중 중심으로 조선 서원의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서원 강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강학’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조선후기 첩설·남설기에 새로 건립된 서원들의 ‘건립 의도나 경향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시기 서원의 ‘건립 당시의 의도’가 강학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문중의 이해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지만, 건립 이후 강학 기능이 실제로 전혀 없었는지, 혹은 남설기 이전에 건립된 여타 서원들의 강학 기능도 이 시기에 와서 실제로 쇠퇴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sup>16)</sup> 족적 기반의 중심기구와 향촌사회에서의 지위 유지를 목적으로 건립된 문중서원의 경우에도, ‘문중 결속’과 ‘문중’을 단위로 하는 건립 의도나 건립 주체의 변화가 실제로 강학의 성격이나 강학 방식의 변화를 야기했는지, 아니면 강학 기능의 쇠퇴로 이어졌는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건립 이후 실제 강학활동 여부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sup>17)</sup> 즉, 건립 의도를 분석 도구로 삼는 한, ‘강학의 쇠퇴’ 혹은 ‘강학 기능의 상실’은 이 시기 새로 건립되던 서원에만 해당될 수 있는 한정된 해석일 뿐, 같은 시기 존재했던 모든 서원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다. 적어도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 대한 보편적, 정합적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원의 강학사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 대한 역사학계의 이 같은 해석은, 한편 교육사 분야에서 서원 강학에 대한 연구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사, 사회사 분야에서의 서원 연구방법과 분석틀은 ‘중앙 관인, 향촌 사림, 봉당정치, 사회구조, 지배체제, 향권, 문중’ 등 이 분야의 핵심주제와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서원 강학을 연구 대상으로

15) 이수환, 제1장 「서원의 건립활동」, 『朝鮮後記 書院研究』, 일조각, 2001, 40쪽.

16) 정만조 역시 기존의 서원연구가 주로 건립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서원의 기능, 역할, 성격을 밝히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서원 연구는 건립 이후의 서원들이 어떻게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변화해 갔는가를 개별 서원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정만조,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 『韓國學論叢』 18집, 1995).

17) 이해준은 문중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중활동으로 ‘족계 운영, 족보 간행, 선조 추숭사업’ 등과 함께 ‘문중 자체를 위한 서당이나 강학소의 건립과 운영’을 언급함으로써, 강학 역시 문중서원의 주요 활동의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이해준, 제5장 「門中書院의 社會史的 性格」, 『朝鮮後期 門中書院研究』, 경인문화사, 2008, 147쪽).

하여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역사학적 분석틀로는 포섭되지 않는 서원 강학의 흐름과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서원 강학은 서원 교육을 둘러싼 고유한 맥락을 바탕으로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통시적 연구를 통해 그 정합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해준은 서원 연구의 성격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서원의 성격을 중앙의 정치사나 이념적·교화적 측면에만 고정시킬 경우 간과될 수 밖에 없는 향촌사회의 핵심적인 연구주제들을 언급하면서, 향촌사회 지배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문중서원’의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향촌사회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과 연구주제로 문중서원의 존재를 부각시킨 바 있다.<sup>18)</sup> 이 같은 문제의식은 서원 강학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에서 일어난 제반 현상을 ‘중앙정계의 권력 변동, 사족 지배체제, 향권’ 등과 같은 역사학적 시각에만 한정하여 바라보면, 서원 강학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간과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다. 강학을 키워드로 하여 서원을 바라보면, 역사학에서 ‘봉당정치의 파탄기이자 강학 쇠퇴기’로 규정되는 17세기 후반 이후에도 서원 강학이 활발히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의외로 많이 찾아진다. 소수서원의 경우에도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과 ‘爲己之學’으로서의 서원 본연의 강학활동이 실제로 정착, 활성화된 것은 18세기 초반이었다. 또한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科擧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을 두고 수백 년 간 전개된 ‘소수서원의 罷格 논쟁’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 사건은 기존 역사학 연구에서 중앙정계의 권력 변동과 관련하여 영남 지역사회 내 향권의 추이와 양반들의 헤게모니 장악의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어 왔다.<sup>19)</sup> 그러나 서원 교육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주자와 퇴계의 서원 강학 이념이 소수서원에 확립, 정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며, ‘科學에서 道學’으로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을 변화시킨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 논쟁을 ‘향권의 문제와 영남 사족들의 현실적 역학관계’라는 창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처럼 서원 강학 이념이 확립,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강학의 성격 변화 등 소수서원 강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원 교육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포착하기 어렵다. 즉, 조선시대 서원 강학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원에서 일어난 제반 현상을 교육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18) 이해준, 제1장 「書院研究와 門中書院」, 같은 책, 4~12쪽.

19) 윤희면, 제6장 「소수서원 罷格論爭」,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 논문의 Ⅲ장을 참조.

한편, 교육사 분야에서의 기존 서원 연구는 서원 교육제도와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서원 강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서원 교육제도에 대한 연구<sup>20)</sup>는 서원 교육제도의 형성 배경 및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건 과정<sup>21)</sup>, 서원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을 통한 서원의 교육 기능,<sup>22)</sup> 서원의 발전 경로,<sup>23)</sup> 서원 진흥책<sup>24)</sup>과 관련된 연구 등이 있으며,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주세붕 이후 사액과 보급운동을 통해 조선 서원 제도의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퇴계의 서원 교육론<sup>25)</sup>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주세붕의 서원관<sup>26)</sup> 및 주자와 퇴계의 서원관을 비교한 연구<sup>27)</sup>, 서원의 교육사적 의미를 다룬 연구<sup>28)</sup>, 서원 의례에 관한 교육적

- 
- 20) 丁淳睦,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이 책은 송대 서원교육제도에 대한 고찰로부터 퇴계와 율곡의 서원교육관 및 金宇顥, 鄭經世, 奇學敬, 朴齋炯의 서원관, 조선 서원의 교육 환경, 시설, 관리와 운영체계, 재정,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院生과 師長, 서원의 교육사적 의의와 현대 교육적 시사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원 교육제도 및 교육사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으나, 강학 실체는 다루지 않았다.
- 21) 申鐵淳, 「書院 教育의 形成 背景과 實際」, 『教育學研究』 5권 2호, 한국교육학회, 1967.  
 閔丙河, 「朝鮮時代의 書院教育」, 『大東文化研究』 17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3.  
 全在康, 「白雲洞書院의 創建과 周世鵬의 教學 精神」, 『東方漢文學』 15권 1호, 동방한문학회, 1998.  
 김문기, 「書院 교육과 慎齋 주세붕」,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05.
- 22) 渡部學, 「亦樂書齋再再論-陶山書院의 教育的 機能 追究-」, 『退溪學報』 4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74.  
 崔完基, 「朝鮮朝 書院의 教學機能 一考」, 『史學研究』 25호, 한국사학회, 1975.  
 李範稷,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기능」, 『한국사론 8-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국사편찬위원회, 1980.  
 宋楊燮, 「朝鮮時代 書院教育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문태순,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성격 연구」,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04.
- 23) 渡部學, 「亦樂書齋再再論-陶山書院의 教育的 機能 追究-」, 『退溪學報』 4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74. 이 글은 조선 서원의 발전 경로를, 서재, 정사와 같은 서원 설립 이전 및 이후의 교육기구(혹은 교육활동)와의 연관성 속에서 ‘수림형, 확장형, 파생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渡部學, 「韓國의 書院과 初等教育의 發展-陶山書院의 近世教育에 있어서의 原型性에 대하여-」, 『退溪學報』 2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74.
- 24) 정순목, 「周世鵬安玆의 書院振興策-紹修書院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정만조, 「朝鮮後期の 鄉村教學振興論에 대한 檢討」, 『韓國學論叢』 10,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8.
- 25)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昞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정만조, 「退溪學派의 書院(教育)論」, 『南冥學研究』 9권,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9.  
 朴洋子, 「李退溪의 書院觀」, 『退溪學報』 83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94.  
 金장태, 「白鹿洞規圖 와 退溪의 書院교육론」, 『退溪學』 11권 1호, 안동대학교, 2000.
- 26) 全在康, 「白雲洞書院의 創建과 周世鵬의 教學 精神」, 『東方漢文學』 15권 1호, 동방한문학회, 1998.
- 27) 丁淳睦, 「朱晦菴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比較」, 『人文研究』 8집 2호, 1987.
- 28) 정순우, 「韓國 初期 書院의 教育史의 意義」, 『한국학논총』 29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해석을 시도한 연구<sup>29)</sup> 등이 있다. 그 밖에 최근의 연구로는 조선조의 학교가 지닌 사회적 의미와 역할이 근대 학교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종의 ‘학교의 사회사’라는 시각에서 학교로서의 서원이 조선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밝힌 연구<sup>30)</sup>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 교육제도의 형성 배경 및 발전 과정, 관학과 서원의 차이, 서원의 교육 기능과 퇴계의 서원교육론, 서원 의례의 교육적 의미와 학교로서의 서원의 사회적 역할 등 서원교육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측면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론과 제도가 구현되는 장으로서 현실에서의 ‘강학 실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서원교육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추상적 차원의 해석에 머무는 한계를 면치 못했다. 서원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을 통해 서원의 교육 기능을 다룬 연구들도 그 대상 자료가 강학 실제에 관련된 자료가 아닌, 대개 원규나 학규 등 규범적·이념적 차원의 자료에 한정되어 있어 조선 서원의 강학 실재를 구명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규범적 차원의 규약’이나 ‘철학적 차원의 교육이론’을 마치 현실에서 전개된 ‘강학 실제’로 혼동하거나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조선후기 양반의 양적 팽창으로 관료예비군으로서의 양반은 대부분이 지방 서원에 집중하였고, 이에 서원은 이들의 遊食場으로 化하여 결과적으로 敎學的 성격도 변질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서원의 교학적 성격이 변질되고 추락이 극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서원 초기의 교학적 의의는 조선왕조 교육사에서 결코 경시될 수 없는 것이다’<sup>31)</sup>라거나, ‘서원은 17세기 말에 이르러 남설 현상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파탄을 맞게 되었다’<sup>32)</sup>는 식으로,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교육사 분야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어왔다. 이 같은 평가는 조선

29) 정순우,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 「韓國 初期 書院의 教育史的 意義」, 『한국학논총』 29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이 글에서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 ‘도문학’과 ‘존덕성’, ‘學의 세계’와 ‘道의 세계’라는 待對的 관계 속에서 학교의 두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조선시대 향교와 서원이 ‘前學後廟’의 공간구성으로 이루어진 의미를, 유학적 지식체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면서 제향공간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韓國書院學報』 1호, 韓國書院學會, 2011. 이 글은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강학과 함께 시행된 講習禮의 禮敎的 의미와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30)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이 책은 조선의 서원이 과연 어떤 성격의 학교였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주로 서원교육과 사회변동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학교의 사회사’라는 교육사 분야의 또 다른 연구주체의 필요성과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머리말에서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서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이나 강학활동에 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31) 崔完基, 「朝鮮朝 書院의 敎學機能 一考」, 『史學研究』 25호, 한국사학회, 1975, 28쪽.

32) 우용계, 『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교육과학사, 1999, 11쪽.

후기에는 아예 서원 강학이 실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의 서원 강학에 대한 관심 및 자료 발굴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시에 비록 그 지속성과 성쇠의 주기는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강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되었던 조선후기 서원들의 다양한 노력과, 그 결과 실재하였던 수많은 강학 사례마저 연구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서원 강학 연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강학 관련 자료의 미비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학 관련 기관들과 각 서원의 오랜 자료 수집의 결과물들이 간행·공개되면서, 오랜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원 강학’ 연구도 2000년대 전후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 강학에 대한 전모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서원의 강학활동<sup>33)</sup> 및 서원 강학의 구체적 방식에 대한 유형화가 시도되고,<sup>34)</sup> 원규나 학규 등 서원 규약에 나타난 조선 서원의 강학 제도와 변천사가 개괄적으로 밝혀졌으며,<sup>35)</sup> 조선후기까지 실재했던 다양한 양상의 서원 교육활동이 실증적으로 소개되는가 하면,<sup>36)</sup>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로 高山書院(精舍),<sup>37)</sup> 陶山書院,<sup>38)</sup> 遯巖書院,<sup>39)</sup> 屏山書院,<sup>40)</sup> 石室書院,<sup>41)</sup> 紹修書院,<sup>42)</sup> 龍山書院,<sup>43)</sup> 虎

33) 김창욱, 「16세기 初期書院의 講學活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4) 김대식, 「朝鮮朝 書院 講學 活動의 性格-會講과 講會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5)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김해용, 「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6) 윤희면, 제9장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효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37)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권오영, 제2부 II장,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8) 정순우, 제1장 「심학과 이기, 정학을 둘러싼 논쟁들-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권오영, 제2부 II장,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9) 서동수,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40)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41) 李垞丘,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교육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42) 李樹煥, 제4장 「서원의 人的 構成과 운영-院任·院生을 중심으로-」, 『朝鮮後記 書院研究』, 일조각, 2001.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 『歷史教育』 92집, 歷史教育研究會, 2004.

溪書院<sup>44)</sup>의 강학활동 등이 소개되었다.

그 중 김창욱의 연구<sup>45)</sup>는 제목에서는 ‘강학활동 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실제 강학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서원의 성립과 발전, 강학 이념, 목적, 내용, 방법, 조직, 제정 등을 규약류 자료와 정만조, 정순목, 신철순, 최완기, 민병하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대식의 연구<sup>46)</sup>는 서원의 ‘강학 방식’에 주목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성격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원 강학을 비정기적·자발적 방식과 정기적·공식적·의례적 방식에 따라 ‘會講’과 ‘講會’로 구별한 뒤, 會講은 별도의 절차나 儀禮 없이 ‘자기 수양을 위한 개인적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강학 방식이며, 공식적 의례를 포함하는 講會는 ‘성리학적 윤리관을 향촌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실천적 교화활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대별하고 있다. 그러나 ‘會講’과 ‘講會’라는 개념의 전거와 용례, 분류 기준이 불분명하고, ‘회강이나 강회의 방식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명확한 고증에 어려움이 있다’<sup>47)</sup>고 필자 스스로 언급하였듯이, 유형별 예시로 든 실증 사례가 빈약할 뿐 아니라, 각각의 강학 방식과의 유기적 연관관계 역시 분명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강학 방식의 유형화와 그 성격 파악’이라는, 서원 강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연구주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토대로, 다기한 형태의 강학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타당한 분류 체계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박종배의 연구<sup>48)</sup>는 원규나 학규 등 서원 규약을 토대로 각 서원의 科擧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 교육과정의 변화 및 講會 운영 방식, 강학 관련 규약의 체계화 과정 등을 소개함으로써, 조선 서원의 강학 제도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데 기여

43) 정순우,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집문당, 2005.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집, 교육사학회, 2006.

44)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권오영, 제2부 II장,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45) 김창욱, 같은 글.

46) 김대식, 같은 글.

47) 김대식, 같은 글, 16쪽 및 33쪽.

48)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하였다. 특히, 조선후기로 가면서 서원 교육과정이 중국 텍스트 중심에서 조선 학자들의 문집과 자찬 교재로 변화되었다는 분석은, 조선 성리학의 발전 및 학파의 형성과 서원 강학의 관계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나아가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교재들이 서원 강학에서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이 ‘강학 실제’가 아닌, ‘규약’에만 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희면의 연구<sup>49)</sup>는 관찬 사료, 서원지, 문집, 고문서 등 폭넓은 자료를 검토하여 거점, 강회, 순제, 백일장 등 조선후기 서원의 다양한 강학 사례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어 ‘조선후기 서원의 교육 실태를 가리키는 기록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나, 서원들은 나름대로 거점, 강회, 백일장 등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열어 교육기능을 이어나갔다. 따라서 조선시대 서원이 17세기 이후 당쟁과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제례기능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들은 이제는 수정되어야 한다’<sup>50)</sup>고 주장함으로써, 서원 강학 사례에 대한 실증을 토대로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 대한 오랜 편견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개별 서원 강학 사례에 대한 연구 중 18~19세기 고산서원, 호계서원의 講會 및 도산서원 원장 李漢膺이 주도했던 ‘吾山堂 講會’ 등을 다룬 권오영의 연구<sup>51)</sup>는, 강회를 통한 영남 유림의 퇴계학 계승 및 이 시기 강회의 철학적 쟁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서원 강학을 통한 퇴계학파의 계승과 분화 과정을 밝히고, 서원 강회를 통해 형성된 학문적 역량이 조선후기 안동 지역의 향론 및 학계의 주도권 장악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원 강회를 통한 이들의 학문탐구가 19세기 말 영남만민소와 영남지역 의병운동의 이념으로 승화,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진 사실에 대해 ‘19세기 영남유림의 상소운동과 의병투쟁은 퇴계학맥이라는 학문적 연고와 영남이라는 지역적 연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대규모 서원 강회를 통해 다진 학문적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sup>52)</sup>고 평가함으로써, 학문 탐구와 학파 계승에 있어 서원 강학의 역할 뿐 아니라, 향권 장악의 수단 및 학문과 현실 참여의 매개체이자 기반으로서의 서원 강회의 정치적·사회적·실천적 의미를 동시에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강학 사례에 대한 단순한 소개를 넘어, 서원 강학을 통해 ‘李滉-金誠一-李象

49) 윤희면, 제9장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효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50) 윤희면, 같은 글, 같은 책, 388~389쪽.

51)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권오영, 제2부 II장,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52)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231쪽.

靖으로 이어지는 영남 퇴계학파의 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다양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구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18~19세기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다섯 차례의 강회를 다룬 정순우의 연구<sup>53)</sup>는 이 시기 서원 강회가 서원 외부의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사적 변화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1795년의 을묘강회는, 진산사건·문체반정·서학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치제와 서책 하사 등을 통해 도산서원에 주목한 정조의 정국 운영에 도산서원이 기민하게 대응한 정치적 성격의 의미를 지니는 강회였으며, 『大學』을 강론한 19세기 청량강회와 오천강회는 서학에 대한 대응 및 한려학파의 분기,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 제기 등 당시 영남 퇴계학파의 분기로 인한 학문적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 퇴계 학단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논란이 되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학문적 공론을 모으기 위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사회 변화와 서원 강학의 관계를 통찰함으로써, 강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외연을 확장시킨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산서원에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도산강회'라는 범주 안에 역동서원과 청량정사, 오천 향사당에서의 강회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청량정사가 도산서원의 강학소로 활용된 사실은 지적하였으나,<sup>54)</sup> 특히 오천향사당의 강회와 도산서원의 관계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특정 서원의 강학을 주도한 인물들이 서원 외에 개인의 서재나 정사, 인근 사찰에서 동시에 집단적 강학활동을 전개하는 현상은 조선후기에 흔히 발견되는데, 이 때 주도 인물이나 참여자가 일치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서원 강학활동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조선후기 서재나 정사의 강학과 서원 강학이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었는지 등의 문제는 서원 강학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용산서원에 대한 두 편의 연구 중 정순우의 연구<sup>55)</sup>는 18세기 용산서원은 강학 기능이 약화된 하였으나, 거점의 운영을 통해 최소한의 교육기능을 유지하였음을 밝히고, 이 때 거점은 촌락 내부에서 家格을 유지하는 상징적 의미와 용산서원을 하나의 경제적인 단위로 움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소속 면의 公都會 赴學儒生 都目을 서원에서 작성하고, 조정의 朝報나 關文의 전달 통로로 활용된 점 등을 통해, 18세기 용산서원은 강학기능은 비록 약화된 것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며 사회변화에 부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53) 정순우, 제1장 「심학과 이기, 정학을 둘러싼 논쟁들-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54) 정순우, 같은 글, 96쪽.

55) 정순우, 「龍山書院과 教育活動」, 『龍山書院』, 집문당, 2005.

서 발표된 김경용의 후속 연구<sup>56)</sup>는 앞의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 외에 순제, 백일장 항목과 다수의 거점활동 기록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선행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용산서원에서는 거점이나 製述 考課 기록 외에 ‘講會錄’과 같은 강학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현전하지 않으나, 19세기에 大學과 心經의 강론 내용을 장책하여 『大學心經講義』를 남겼다는 기록이나 小學 講義를 정기적으로 개설하였다는 기록 등 간접적인 기록들을 찾아내어, 조선후기 용산서원에서는 거점이나 제술 외에도 ‘대학·심경 강회’, ‘소학 강의’와 같은 강학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단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용산서원은 赴學儒生의 都目 작성 뿐 아니라, 경상감영의 樂育齋와 경주부 育英齋 등의 백일장 시행을 통지하거나, 照訖講·公都會·大小科·雜科 등 과거시행 관련 문건을 유생들에게 하달하고, 陳試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광범위한 교육행정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부거유생도목을 작성할 때는 강학활동의 근거자료인 ‘講案’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講案의 존재를 통해서도 용산서원의 강학활동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폭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용산서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상세히 밝히고,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강학기능의 단서를 제시하며 선행연구를 확대, 발전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학활동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講案’이 실제 강학활동의 산물인지, 아니면 充軍을 목적으로 낙장자를 가려내기 위한 형식적인 考講 명부였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병산서원의 강학활동은 박종배의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sup>57)</sup>에서 18세기 강학 관련 자료가 소개된 바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글은 병산서원 강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자료 소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병산서원 원규를 번역·소개하고, 1781년 4일간의 大學 通讀會에 대한 기록인 「通讀案」의 서문과 참석자 명단, 1781년과 1782년의 「居齋案」 및 1789년의 「講案」에 수록된 명단과 강독 서책, 평가 결과 등 원문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이를 통해 18세기 병산서원에서 전개된 ‘通讀, 居齋, 考講’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강학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향후 이들 자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흔히 강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조선후기 서원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후속 연구를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강학의 세 유형으로 본 ‘통독, 거재, 고강’은 용례에 따라 유형화의 범주나 기준이 전혀

56) 김경용, 같은 글.

57)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강학 방식이다. 그 예로, 거제 중에 통독이나 고강이 시행되기도 하고, 거제와는 다른 범주에서 별도로 통독이 시행되기도 하며, 고강은 강학 유형이라기보다 평가방식에 더 가깝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학 방식의 유형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타당한 분류 체계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을 주제로 한 서동수의 연구<sup>58)</sup>는 돈암서원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돈암서원의 정치적 위치를 부각시키는 데만 집중되고 돈암서원에서 행한 강학내용과 특성은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돈암서원의 강학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암서원의 강학 실제에 관련된 자료나 강학활동 자체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집을 중심으로 돈암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의 학문과 교육사상을 정리한 뒤, 이를 고스란히 돈암서원 강학활동의 내용과 특성으로 환치시키고 있다. 강학과 관련된 언급은 “1654년 2월에 우암, 초려, 미촌은 돈암서원에서 『疑禮問解』를 교정하고, 4월에는 우암, 시남, 미촌, 용서는 고란사에 모여 『心經』을 강론하였으며, 5월에 우암, 동춘은 『近思錄釋義』를 교정하고, 1655년에는 우암과 초려가 『의례문해』를 교정하였다. 1657년에 시남, 미촌, 초려, 용서는 신독재 제사 후 돈암서원에서 「朱子秦狀」을 강론하고, 1674년에 우암과 초려는 『沙溪先生遺稿』를 정정하였다”고 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돈암서원의 배출인물들은 꾸준히 강학활동과 더불어 예서에 대한 교정에 전력하였다<sup>59)</sup>고 한 것이 전부이다. 이어 결론에서는 ‘돈암서원의 강학활동은 기질변화를 위한 爲己之學을 강조함으로써 성리학을 禮學과 道學의 실천적 학문으로 완성시켜 17세기의 공론을 주도한 산림학자를 배출하였으며, 기호학파의 중심지로 돈암서원의 위상을 구축시켰다’고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禮學의 완성과 돈암서원의 위상 확립이 강학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서원 강학은 물론 관련 인물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그 사상이 강학을 통해 어떻게 계승, 변화, 발전하는가는 별도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강학 실제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규약이나 관련 인물의 사상을 그대로 강학 실제로 간주하거나 환치하는 방식의 연구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호계서원의 ‘心經 講會’에 대한 최광만의 연구<sup>60)</sup>는 기존 연구가 학파의 분화 과정

58) 서동수,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59) 서동수, 같은 글, 39~40쪽.

60)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과 향론의 주도라는 사회적 의미를 주로 다룬 것과 달리, 강회에서 전개된 문답의 구체적 방식과 그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강회의 문답 분석을 바탕으로 강학 유형을 ‘1:1식 문답과 평가로 진행되는 일반적 강학’, ‘스승을 중심으로 한 특강 형식의 강학’, 구성원들의 열띤 토론과 적극적 참여로 진행되는 ‘고급 세미나’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그 중 호계서원의 강회는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한 고급 세미나’에 해당하는 최고의 교육적 소통 활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세 가지 강학 유형은 조선후기 역사에서 교육문화의 증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원 강회의 핵심인 ‘토론과 문답’이라는 교육 방식에 주목하고, ‘토론과 소통’을 기준으로 강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강회의 소통 방식과 수준이 교육문화의 증차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강회의 특징은 강회의 목적, 師長의 수준, 구성원의 성격,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 등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강회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서원 강학에 대한 두 편의 선행 연구는 모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이수환의 연구<sup>61)</sup>는 1780년부터 1793년까지 4차례의 강학활동에 대한 기록인 『居齋錄』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 ‘대체로 이 시기 거점은 詩賦와 제술을 주로 한다는 데서 科時에는 유효하였지만 서원이 본래 추구하였던 공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희면의 연구<sup>62)</sup>는 『居齋錄』 외에 『居齋雜錄』(1761~1780)과 『講所雜錄』(1826~1828)을 추가로 검토하여 거재, 강회, 거점, 백일장, 순제 등 32차례의 교육과정, 참여 유생들의 성씨와 인원, 신분, 교육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18세기 후반의 거재는 1732년 勸學節目의 반포를 통한 국가 교육 진흥책의 영향으로, 소수서원도 중단되었던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이후 중단이 거듭되기는 하였으나 19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교육활동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강학의 유형을 ‘讀書 위주의 교육과정’이나 ‘製述 위주의 교육과정’이나에 따라, 독서를 위주로 하는 ‘居齋와 講會’, 제술을 위주로 하는 ‘居接, 白日場, 巡題’로 분류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강학의 유형화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 서원 강학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조선후기 서원 강학의 기능과 의미가 상당부분 밝혀지고, 강학 방식에 대한 다양

61) 李樹煥, 제4장 「서원의 人的 構成과 운영-院任·院生을 중심으로-」, 『朝鮮後記 書院研究』, 일조각, 2001.

62)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 사례」, 『역사교육』 92집, 역사교육연구회, 2004.

한 유형화가 시도되었으며, 다양한 연구 과제들이 도출되는 등 서원 강학 연구는 이전 시기에 비해 일정한 성과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서원 강학은 정치, 사회적 변화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山長·講長 등 강학을 책임지는 師長의 특성, 서원관, 강학 이념, 학과, 서원 구성원의 성격, 수령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장학정책, 교육 재정 및 사회경제적 기반, 지역사회의 특징 등 서원마다 교육을 둘러싼 고유의 맥락과 조건에 따라 강학의 존재나 성쇠가 좌우되고, 강학 방식과 내용이 규정되며, 서원별 강학의 특성과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지역, 그리고 각 서원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기 때문에, 조선시대 서원 강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서원의 강학에 대한 사례 연구의 축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서원 강학 연구는 주로 18~19세기의 특정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구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자료의 한계 때문이다. 최근 관련 자료의 발굴과 소개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서원 강학에 직접 관련된 자료는 그 자체로 희소할 뿐 아니라, 현전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주로 18~19세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자료의 성격 자체가 매우 파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서원 강학 연구는 그 자체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원 강학과 관련된 1차 자료의 지속적 발굴과 더불어, 그 외에도 관련 인물의 문집 등 각종 문헌들에 산견되어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전체상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소수서원의 경우에도 강학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18, 19세기에 한정되어 있다. 소수서원 강학을 다룬 선행연구 두 편도 이 시기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대해 ‘이 시기 강학은 과거공부에는 유효하였지만 서원이 본래 추구하였던 道學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sup>63)</sup>거나 ‘이전에 중단되었던 소수서원의 강학이 지방관의 교육진흥책에 의해 18세기 중후반에 다시 시작된 것’<sup>64)</sup>처럼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사실상 18세기 소수서원의 강학 실체를 일정부분 왜곡하고 있다.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가장 큰 특징은 ‘科學에서 道學’으로 강학의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데 있으며, 지방관의 진흥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이미 강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시기에 생산된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빚은 오류로,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通時的’ 연구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63) 이수환, 같은 책, 152쪽.

64) 윤희면, 같은 글, 100쪽.

즉, 조선시대 서원 강학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와 자료를 대상으로 한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그에 대한 ‘통시적’ 연구가 반드시 요청된다.

이 연구는 이상에서 제시한 기존 학계의 서원 강학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와 편견을 극복하고, 개별 서원의 강학 사례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그 일환으로 소수서원을 대상으로 강학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시기별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구명하고, 그 교육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19세기를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선행 연구 외에,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시대 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소수서원 강학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자, 개별 서원 강학 사례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한 試論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 I-3. 연구 범위 및 대상 자료

이 연구는 朝鮮時代 紹修書院을 대상으로, 소수서원 講學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각 시기별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구명하고, 그 교육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본래 조선시대에 사용된 ‘講學’의 개념은 ‘道學을 탐구하고 강론하는 것’에 그 의미가 한정되어 있을 뿐, ‘科業(과거공부)’은 강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sup>65)</sup> 그러나 실제 공부에 있어, 사실 ‘科業’과 ‘道學’은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四書三經은 성인의 학문을 다루는 경전인 동시에 과거시험의 과목이기도 했다. 또한 科業 자체가 처음부터 道學과 상반되는 공부로 여겨진 것도 아니었다. 科業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道學의 탐구와 德性의 함양은 전혀 도외시한 채, 오로지 과거 합격만을 위해 공부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道를 깨달아 실천하는 데 공부의 목적을 두지 않고, 공부 자체가 수단화되는 순간, 科業은 道學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심각한 폐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科業이 온전히 수단으로 전락하느냐, 道學과 병행되느냐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었으므로, 스스로가 아니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게다가 과거가 아니면 출사할 방법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조선의 대부분의 선비들은 科業을 전적으로 폐하고 道學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서원에서조차 科業과 道學은 대개 병행되고 있었다. 道學을 강학의 첫 번째 목적으로 표방했던 18세기 소수서원에서도 科業은 부차적이긴 하지만 늘 병행되고 있었다. 즉, 道學을 강학의 본령으로 표방한 18세기 이래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 변화는 科業과 道學의 비중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科業의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과 그 변화상은 道學과 科業의 관계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科業에 해당하는 居接, 白日場, 巡題(旬製)를 강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함께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科業 역시 강학의 범주에 포함시켰음을 여기서 명시해 둔다.

한편, 소수서원은 여타 서원에 비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가 비교적 시계열적으로 남아 있어 서원 강학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 강학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18~19세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서원의 역사·운영·제례·강학

65) 조선시대 ‘講學’의 용례는 ‘성현의 글을 읽고 性命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國朝寶鑑』, 권 85, 헌종조 3, 헌종 8년), ‘독서한 것을 강론하는 것’(『國朝寶鑑』, 권 86, 헌종조 4, 헌종 11년), 혹은 ‘居敬窮理를 통해 사욕을 제거하고 실지를 행하는 것’(『己丑錄』 下, 「己丑十二月全羅道幼學喪奠等疏」) 등으로 ‘道學의 탐구와 강론’, 나아가 ‘실천’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謄錄, 雜錄 등의 成冊 古文書 및 입원생과 원임의 명부가 16세기부터 꾸준히 남아 있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강학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정보를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수서원과 직접 관련된 자료 외에 관련 인물의 문집 등에 산견되는 자료들 역시 최대한 수집·검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중 소수서원에서 직접 생산한 원문 자료의 수록 시기와 소장처, 수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紹修書院 講學 관련 자료

제목	수록 연대	내용	소장/간행처	
紹修書院謄錄	1546~1669	安瑋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서원의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작성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sup>66)</sup> 와 실제 물품 조달 및 서원 운영을 위해 관찰사와 경상도내 각 고을에서 수발한 공문서를 등서한 白雲洞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謄錄으로 구성.	국사편찬위원회	
雜錄 67)	雲院雜錄	향사, 강학, 중수에 관련된 각종 기사, 공문서 및 도내 각 고을 인사와 수령들이 보내온 물품목록, 시, 편지 등 서원 운영 과정에서 생산된 제반 기록.	소수서원	
	雜錄a		국사편찬위원회	
	雜錄b		국사편찬위원회	
	雜錄c		국사편찬위원회	
	雜錄d		소수서원	
	雜錄e		소수서원/朝鮮時代 嶺南書院資料	
	雜錄f		국사편찬위원회	
	雜錄g		국사편찬위원회	
	雜錄h		소수서원(박물관)	
	雜錄i		紹修書院故事撮要, 竹溪實記, 白鹿洞事實	소수박물관
	雜錄m		미상(19세기)	1810년 居齋日記 등 수록
居齋錄(入院錄) <sup>68)</sup>	1721~1760	1721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 참여자의 명단.	소수박물관	
居齋雜錄	1761~1780	1761년부터 1780년까지 시행된 居齋, 居接, 巡題, 白日場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居齋錄	1780~1793	1780년부터 1793년까지 시행된 居齋, 通讀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雲院居齋 題名	1792	1792년 11월 한 달간 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雲院齋錄』에 수록.	소수박물관
通讀雜錄	1801	1801년 通讀에 대한 기록.	소수박물관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1813~1815	1813년 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묘우 중수 기사와 1815년 3월과 8월의 巡題榜目 기록.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수록.	소수서원
講所雜錄	1826~1828	1826년부터 1828년까지 시행된 巡題, 居接, 通讀, 文會에 대한 기록.	소수서원/ 朝鮮時代嶺南書院 資料
榜目(入院錄5)	1790~1888	「入院錄」 5(1790~1888)에 수록된 19세기 백일장 방목.	『紹修書院誌』에 수록

그 밖에 16~17세기는 퇴계와 주세붕의 문집 및 『竹溪志』, 朴承任의 『嘯臯集』, 李垞의 『蒼石集』, 曠진의 『丹谷集』, 黃暹의 『息庵集』, 19세기는 徐活의 『邁菴集』, 朴宗堉의 『惺庵遺稿』, 金熙周의 『葛川集』, 金東鎭의 『貞山集』, 柳範休의 『壺谷集』, 柳致明의 『定齋集』, 姜樸의 『松西集』, 柳徽文의 『好古窩集』, 李野淳의 『廣瀨集』, 李泰淳의 『霞溪集』, 李象靖의 『大山集』, 徐昌載의 『梧山集』 등 소수서원 주요 관련 인물의 문집 등도 다수 참고하였다.

66) 이하 「斯文立議」로 약칭.

67) 잡록류 중 운원잡록, 잡록e, 강소잡록은 『소수서원 잡록』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영주시에서 번역, 간행하였다.

68) 이 거재록은 서원지에 ‘표지 결락으로 입원록으로 추정’하여 입원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으나 이는 잘못 추정한 것이다.

## II. 주세붕의 서원관과 16세기 居接의 官學的 성격

16세기 조정에서는 관학의 쇠퇴가 크게 문제되어 여러모로 관학의 진흥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관학은 관리의 기강 해이, 과거제의 문란과 함께 이미 세종대부터 부진의 조짐이 보이다가, 성종 대에는 신하들 사이에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연산군의 폭정에 이르러 관학의 쇠퇴는 물론 儒風의 붕괴까지 초래되어 중종대에 오면 교학 진흥책의 강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공신세력은 師長과 師儒의 확보를 통한 관학 자체의 강화에서 교학 진흥 방안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는 종전과 같이 관리 양성기구로서의 관학의 필요성만 표명하는 고식적인 대책에 그쳐 근본적인 교학책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조광조를 위시한 사림 세력은 도학정치 이념에 기초하여 小學의 장려, 尊賢, 師友之道의 확립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기묘사화로 사림 세력이 몰락하면서 폐지되었다.<sup>69)</sup>

이 같은 상황에서 1542년 공신계 관료였던 魚得江은 상소문을 통해 지방 교육 진흥책의 하나로서 중국 송대의 서원 제도를 소개하였다.<sup>70)</sup> 그는 한, 당을 거쳐 송대의 주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사학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주희의 무이정사와 백록동서원을 소개하며 이를 조선사회에 적용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그의 제안은 학교와 과거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부흥할 때 제시했던 것과 같은 사학으로서의 독특한 건학이념이나 교육철학은 찾을 수 없다.<sup>71)</sup> 또한 1550년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賜額될 때 기문을 써준 당시 대제학 申光漢 역시 서원을 ‘과거제도와 인재등용’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었다.<sup>72)</sup> 즉, 16세기 중반 조선의 관리들은 ‘쇠퇴한 관학에 대신할 인재양성기구’로서 서원을 이해하고 있었다.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1543년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주세붕은 서원의 설립 근거를 주자의 백록동서원의 고사에 두고 있었지만, 그의 서원 이해 역시 16세기 관리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남송대 주자에게서 서원의 설립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서원을 ‘과거 준비와 관리 양성 기구’라는 관학적 속성의 연장선에서 파악함으로써, 그의 서원 인식은 남송보다는 북송 서원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북송의 모델을

69)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12~28쪽.

70) 『中宗實錄』 권 98, 중종 37년 7월 己亥.

71)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2013, 태학사, 27쪽.

72) 『竹溪志』, 行錄後, 「白雲洞紹脩書院記」.

따라 서원을 ‘科業을 준비시키는 관학의 보조기구’처럼 인식했던 주세붕의 서원관은, 설립 초기 백운동서원 강학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영향은 17세기 초반 무렵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한편 북송의 모델을 따르면서, 그는 왜 백운동서원의 설립 근거를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에서 찾고자 하였을까? 그가 모방했다고 한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그가 따르지 못한 주자의 행적은 과연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써, 백운동서원을 세우면서 주세붕이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 그의 서원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의 서원관은 송대 서원제도에 대한 이해 방식 뿐 아니라, 주자학에 대한 그의 독특한 이해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아울러 II장에서는 그의 서원관이 16세기 소수서원 강학 실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강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16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과 의미,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 II-1. 주세붕의 서원관

주세붕은 풍기군수 시절 백운동서원을 창건하면서, ‘흉년을 당한 어려운 시기에, 안향은 이미 문묘에 종사되어 고을마다 사당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당을 다시 세우며, 학교 역시 고을마다 설립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서원을 다시 세우느냐’<sup>73)</sup>는 고을 백성들의 의혹에 직면하였다. 이에 주세붕은 서원 설립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백록동서원의 고사를 본받은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자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백록동서원의 형식은 모방하였으나, 주자가 그 형식 속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따르지 못했다. 여기서 주세붕이 따랐다고 하는 주자의 고사란, 단순히 주자가 남강군수 시절 백록동서원을 복원한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적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주세붕이 모방한 주자의 행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따르지 못한 행적은 과연 무엇인지를 추적함으로써 그의 서원관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세붕의 서원관은 이후 16세기 백운동서원의 실제 강학의 성격과 방식을 규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을 제사하고 선비들이 모여 공부하는 ‘제향과 강학’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sup>74)</sup> 그러나 조선 서원의 전형적인 기능처럼 알려져 있는 이 양대 기능은 조선 서원의 설립 초기부터 구조화된 틀은 아니었으며, 더욱이 조선 서원의 원형인 중국 서원 역시 그러하였다. 唐代에 최초로 출현한 중국 서원은 일부는 강학, 일부는 개인의 독서처이거나 藏書를 위한 곳, 일부는 학자를 기념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처음부터 제향과 강학의 두 요소가 서원 설립의 요건은 아니었다. 송대 서원 역시 사묘 없이 강학 기능만을 가지거나 혹은 강학처로 출발하여 후에 제향공간을 추가로 건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대개의 서원은 제향보다는 강학 위주로 운영되었다.<sup>75)</sup> 조선 중기에도 명종 13년(1558) 영천군에 세

73) “或曰 甚矣 子之迂也 學宮則然矣 至於文成公廟與書院 獨不可以已乎 公既從祀國學 達于州縣 何必立廟 既有學校 何必別立書院 當飢饉不時 居滓賤不信 我國舊無祠若書院 欲由我而始 不亦近於汰乎”(『竹溪志』, 「竹溪志序」).

74) 학교가 제향공간을 처음 갖추게 된 것은 중국 당 태종 때의 廟學制에서 비롯되었으며, 신라 聖德王 16년(717)에 太監 金守忠이 당에서 귀국하면서 공자와 72제자의 畫像을 가져와 國學에 봉안하도록 하였다고 한다(박종배, 「朝鮮時代 學校儀禮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37~46쪽). 그러나 이는 국학의 경우이고, 사학인 서원이 조선에 처음 설립되던 16세기에 제향공간은 서원 설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었다.

75) 唐代에 설립된 서원 중 두릉서원(768)은 두보를 기념하기 위해, 남악서원은 藏書와 제사의 기능을 동시에, 위묘서원, 노변서원, 문산서원은 개인의 독서처, 후일 석고서원의 전신이 된 이관중수재서원 역시 개인의 독서처로서 세워진 서원이었다. 宋代 서원 역시 강학, 제사, 장서의 기능을 갖긴 하였으나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서원 설립의 필수 요건은 아니었다. 당말의 교육기구를 기반으로 송태조 開寶 9

워진 伊山書院과 명종 20년(1565) 달성부에 건립된 研經書院 역시 애초에는 사묘 없이 강학 기능만을 가진 서원이었다.<sup>76)</sup>

조선에서 사묘와 서원을 최초로 결합한 장본인은 바로 주세붕이었다. 그는 중종 37년(1542) 안향의 사묘를 먼저 세운 뒤, “문성공 사당을 세워 그 영정을 모셨는데 생각해보니 사묘가 있으면 서원이 없을 수 없기에 이에 서원을 세웠다.”<sup>77)</sup>고 하며 그 이듬해 추가로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 때 두 가지를 결합하면서 그가 제시한 근거는 바로 ‘교육이란 반드시 尊賢에서 비롯되므로 사묘를 세워 덕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자의 고사를 따른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보건대 주자가 南康을 다스린 1년 사이에 백록동서원을 중수하였고, 또한 先聖과 先師의 사당과 다섯 분 선생의 사당, 그리고 세 분 선생의 사당을 세웠고, 또한 劉屯田을 위하여 壯節亭을 지었다. 그 당시엔 금나라가 중국을 함락하여 천하가 피비린내로 가득하였고, 남강지방은 계속된 큰 흉년으로 벼슬을 팔아 곡식으로 바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 당시 위태로움과 곤궁함이 그토록 심하였는데도 그가 세운 서원과 사당이 한톨이 아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늘이 못 백성들을 낳음에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는 바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고 지아비는 지아비답지 못하고 지어미는 지어미답지 못하고 어른은 어른답지 못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답지 못하게 되어, 三綱과 九法이 없어져서 인류가 멸망한 지 이미 오래 되었을 것이다.

교육이란 반드시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사당을 세워 덕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니, 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다. 그 말에 보면 ‘세속으로 말하면 긴요함이 없는 듯하나 지금 실정으로 보면 인심과

---

년(976)에 세워진 악록서원 역시 처음에는 강당과 기숙사만 있다가 선현의 초상과 畫像을 모신 것은 20여년이 훨씬 지난 뒤였으며, 이관중수재서원의 후신으로 997년에 세운 형주의 석고서원 역시 강학 기능만 있다가 선성, 선사의 초상을 모신 것은 한참 후인 1187년이였다. 즉, 중국서원 역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갖긴 하였으나 그 두 가지가 서원 설립의 전형적인 요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중 더 큰 비중은 오히려 강학에 있었다. 서원이 크게 성행했던 북송 시대 중국 서원의 특징에 대해 주한민은 ‘북송에 이르러 교육기구로서의 서원들이 잇달아 출현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개인들이 초가를 엮어 공부하던 장소가 아니라 수십, 수백 명들이 수업하는 장소로 바뀌었고, 더 이상 선현들에게 제사를 올린던 사당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수업을 받고 의문을 푸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朱漢民, 『湖湘學派와 嶽麓書院』, 學古房, 2011, 29~47쪽 참조). 또한 17세기 조선의 洪汝河 역시 중국의 서원은 강학기능이 우선이고 향사기능은 없거나 향사하더라도 일정한 限式이 있다고 하였다(“後世學宮之血食 蓋以義起 然非先王之制禮也 是以中國書院 猶倣此意 聘名儒聚學徒 日夜講誦其中 或建院聚書 享祀則否焉 或享詒講誦 皆立限式”, 『木齋集』 권5, 「咸寧書院立約文」).

76) 이산서원은 1558년 설립한 뒤 1573년 사묘를 지어 퇴계의 위패를, 연경서원은 1564년 설립하여 1613년 퇴계의 위패를 모셨다(『增補文獻備考』, 學校考, 권 213, 「各道祠院」 慶尙道).

77) “既立文成公廟 奉安影幀 思有廟不可以無書院 於是立書院”(『武陵雜稿』, 권 8 原集, 「竹溪志學田錄跋」).

정사의 체모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오늘날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는 바로 이 교육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다.’ 하였다.

아, 晦翁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죽계는 바로 문성공의 闕里이다. 교육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성공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태평한 세상을 만나 외람되게 이 고을 군수가 되었으니 고을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당과 서원을 설립하고 토지를 마련하고 경전을 소장하기를 한 결 같이 백록동서원의 고사에 따라 하고서, 무궁한 후일에 훌륭한 인물을 기다리게 되었다. 따라서 시기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사람들의 믿음 또한 아랑곳하지 않았다.<sup>78)</sup>

이를 요약하면 첫째, 문성공 사묘와 서원의 건립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고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 둘째, 남강군수 시절 주자가 그랬듯이, 교육은 전쟁이나 기근을 구하는 것보다 급선무라는 것. 셋째, 그 교육은 현인을 존송하는 데서 비롯되며, 죽계는 문성공이 태어난 곳이므로 문성공의 사당과 서원을 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자의 고사라 함은 첫째, 전쟁과 기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때 李渤 형제가 은거하며 독서하던 곳에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증수한 일, 둘째, 동시에 백록동서원에 그 지역 출신 3선생과 5현의 사당을 세운 것,<sup>79)</sup> 셋째, 서원에 藏書와 토지를 마련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백록동서원에 향사한 3선생이란 周濂溪와 二程 형제를, 5현이란 陶淵明, 李擇, 陳瓊, 劉씨父子 등 남강 출신의 다섯 현인을 가리킨다. 주자는 백록동서원이 위치한 여산에 염계서당을 지어 강학했던 주렴계를 3선생 사당에 주향으로 모시고, 주렴계 문하에서 수학한 이정 형제를 배향으로 모셨으며, 도연명 등 남강 출신의 5현은 별도의 사당을 지어 모셨다.<sup>80)</sup>

이 때 주자가 선정한 제향 인물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조선 서

78) “吾觀朱子之爲南康 一年之間 申修白鹿洞書院 又立先聖先師祠 又立五先生祠 又立三先生祠 又爲劉屯田作壯節亭 當是時 金虜陷中夏 天下血肉 加以南康地面連歲大飢 方賣爵取穀 以活流殍 其危如此 其困如此 而其立院立祠不一而止者 何也 天生蒸民 所以爲人者 有教也 人而無教 父不父 子不子 夫不夫 婦不婦 長不長 幼不幼 三綱淪而九法斁 人之類滅久矣 夫教必自尊賢始 故於是 立廟而尙德 立院而教學 誠以教急於已亂救飢也 其言曰 自世俗言之 似無緊要 自今觀之 於人心政體 所係不輕 如今日荒政 便與此事相表裡 嗚呼 晦翁豈欺我哉 今夫竹溪 文成公之闕里 若欲立教 必自文成始 某以無似 當太平之世 忝宰是邦 於一邑 不得不任其責 遂竭心力 乃敢立其廟而架其院 置其田而藏其書 一依白鹿洞故事 以俟來哲於無窮 時亦不暇顧也 信亦不暇恤也”(『竹溪志』, 『竹溪志序』).

79) 이 글에서 주세붕은 3선생과 5현의 사당 외에 先聖, 先師의 사당도 주자가 함께 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白鹿洞志』에 따르면 공자의 사당은 주자가 남강군수에서 浙東提學로 체직된 뒤인 1182년, 남강의 후임 군수 錢文詩가 부임하여 주자가 마련해둔 자금 30萬錢으로 禮成典과 兩廡를 지어 공자와 10철 등의 塑像과 그림을 모셨다(“迨壬寅 文公提學浙東 復遺錢屬後守錢聞詩建禮成典 并兩廡塑繪孔子十哲等像”, “禮成典 淳熙壬寅 文公赴浙東提學 以錢三十萬屬後守錢聞詩創建於書堂之西”, 『白鹿洞書院古志五種』, 『白鹿洞志』 권 2, 書院沿革).

80) 『朱子年譜』 권 2, 淳熙 6년 己亥, “立濂溪周先生祠于學宮以二程先生配又立五賢祠” 및 세주 참조.

원의 향사대상 선정에 기준이 되는 동시에, 중국과 조선 서원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며, 서원 설립의 이념과도 연관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백록동서원에 향사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유학에서 道學의 정통을 계승하였거나 斯文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는 점, 둘째는 지역적 연고를 가진 賢人이라는 점이다. 그 중 주립계는 道統의 계승<sup>81</sup>)과 지역적 연고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때 주자가 향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도통 뿐 아니라 지역적 연고까지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당시 주자는 先聖·先師를 제외하고, 아무리 도통의 계승자라 하더라도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인물을 서원이나 향교에 향사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주자는 주립계를 공맹 이후 끊어진 천년의 도통을 이은 사람이라 칭송하면서도, 주립계와 아무 연고가 없는 徽州 婺源縣의 周侯가 淳熙 8년(1181), 州縣學에 주립계와 이정의 사당을 짓고 처음 記文을 부탁하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3선생의 도는 높고 아름답다. 그러나 이 무원은 그의 고향이 아니고 살았던 곳도 아니며, 일찍이 벼슬살이를 했던 곳도 아니다. 또 나라의 紀典에 序次된 것도 아니다. 그 분들을 향사하는 것이 어떤 예법에 의거한 것이며 어떤 의리에 합당한 것인가?”<sup>82</sup>)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부탁과 설득에 못 이겨 “이제 다행히 어진 대부들의 힘으로 매일 선생의 초상을 뵈고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으나, 그 글을 모두 읽고 그 요지를 구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힘써 행하는 것만 같겠습니까?”<sup>83</sup>) 라고 하면서 사당에 향사

81) 주자는 도통의 전수자로서 주립계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秦漢 이래로 도가 천하에 밝지 못하고 선비들은 학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 연계선생이라는 분이 나온 뒤에 하늘의 이치가 밝아지고 도학의 전수가 다시 이어졌다. 이는 대개 태극과 음양오행의 깊은 이치를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中正과 仁義를 행하는 자는 그 근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聖學의 요지를 말하며 下學을 하는 자는 사심을 이기고 예로 회복하는 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上達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천하가 근본이 있음을 밝혀 다스림을 말하는 자는 마음을 성실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위로 수사(洙泗)의 천년의 도통에 접하고 아래로 하락(河洛)의 백세의 전통을 열었으니, 그 맥락이 분명하고 규모가 크고 멀다. 이로써 인육은 억제되어 방자할 수 없게 되고, 이단은 피하고서 제멋대로 치달릴 수 없게 되었다. 대개 맹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여러 유가가 주고받은 차서를 두루 뽑아 그 흥복(興復)·개창(開創)·신소(汛掃)·평일(平一)의 공을 논한다면, 실로 이보다 높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竹溪志』 권2, 尊賢錄, 「韶州州學濂溪先生祠記」).

82) “熹惟三先生之道則高矣美矣 然此婺源者 非其鄉也 非其寓也 非其所嘗遊宦之邦也 且國之紀典未有秩焉而祀之 於禮何依而於義何所當乎 則具以告 且謝不敢”(『竹溪志』 권2, 尊賢錄, 「徽州婺源縣學三先生祠」).

83) “今幸以賢大夫之力 既得以日見先生之貌象而瞻仰之 則曷若遂讀其書求其指以反諸身而力行之乎”(같은 책, 같은 곳).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학을 통해 그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침내 기문을 지어주었다. 여기서 향사 인물 선정 기준에 있어 조선과 중국의 차이의 일단을 살필 수 있으나, 애초에 주자가 향사 기준으로 도통과 지역적 연고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였음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84)</sup>

이 때 주자를 설득한 周侯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옛 성현의 정통을 잇고, 그 도통을 二程 형제에게 전수한 주렴계의 공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벼슬과 상으로 권면하거나 형벌로 위협하지 않는데도 천하의 선비들이 쏠리듯 호모하여, 수십 년 사이에 그의 고향이 아니고 살았던 곳도 아니고, 벼슬하였던 곳도 아니고, 나라에서 제향하라는 명이 있지도 않았으나, 학교가 있는 곳마다 다투어 사당을 지어 존경하여 받드는 뜻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로써 나라에서 명하는 향사에 끼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엿볼 수 있는 유상을 모셔놓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날마다 우러러보고 흥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sup>85)</sup>

이 글에서 그는 비록 지역적 연고도 없고 국가가 명하는 향사 목록에도 없지만 3선생의 사당을 짓는 것은 그들의 도덕을 본받고자 하는 순수한 교육적 의도와 자발성의 발로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 같은 周侯의 논리에 따라 결국 주자가 무원현학의 3선생 사당 기문을 써준 것은 그 사당 건립의 정당성을 목인해준 것이며, 아울러 주렴계가 이제는 더 이상 지역적 연고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을 초월하여 향사할 가치가 있는, 공맹을 계승한 도통의 전수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도통을 계승한 인물을 학교에서 향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도통을 계승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근거를 밝히고, 그 인물의 도덕을 본받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4) 백록동서원에 향사된 주렴계는 도통과 지역적 연고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만, 남강 출신 5현의 경우는 도통이 아닌 지역 출신의 현인이라는 것이 향사 기준이었다. 조선의 경우 백운동서원에 모셔진 안향 역시 도통과 지역적 연고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었으나, 이후 迎鳳書院의 향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논쟁에서 퇴계가 지역적 연고보다 도통을 중시한 것은, 중국과 조선 서원의 향사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중국과 조선 서원의 차이에 대해 정만조는 ‘중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초창기부터 제향 인물 위주로 서원이 건립되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점과, 제향 인물의 선정과 위치에서도 중국과 달리 도학자를 기준으로 삼은 것을 조선 서원의 특징 중 하나’로 보고 있다(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67~75쪽 참조).

85) “非有爵賞之勸刑辟之威。而天下學士靡然鄉之 十數年來 雖非其鄉非其寓非其遊宦之國 又非有秩祀之文而所在學官爭爲祠堂以致其尊奉之意 盖非敢以是問乎命祀也 亦曰肖其道德之容 使學者日日瞻望而興起焉耳”(『竹溪志』, 같은 곳).

주세붕은 안향이 태어나 공부하던 곳에 사묘와 서원을 세우고, 장서 및 재정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의 백록동서원 고사 세 가지를 모두 실현하였다. 그가 향사 대상으로 안향을 선정한 것은 안향이 단지 풍기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백록동서원에 모신 주렴계처럼, 도통의 계승과 지역적 연고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방에 주자학을 최초로 도입하여 동방 道學의 전수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었으며, 풍기 지역 출신으로서 지역적 연고까지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 즉, 주세붕이 따른 백록동서원의 고사란 단지 서원을 짓고 재정 기반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사묘와 서원의 결합’, 도통과 지역적 연고라는 ‘사묘의 향사 대상 선정 기준’까지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세붕이 서원 설립 근거로 제시한 위와 같은 주자의 고사는 ‘흉년을 당한 어려운 시기에, 안향은 이미 문묘에 종사되어 고을마다 사당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당을 다시 세우며, 학교 역시 고을마다 설립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서원을 다시 세우느냐’는 백성들의 의혹에 충분한 대답이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안향은 바로 전국의 고을마다 문묘에 모셔져 있으며, 풍기에도 관학인 향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을마다 안향을 모시는 사당과 학교가 존재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사당과 서원을 세우느냐’는 백성들의 의혹은, 다시 말해서 官學과는 차별화되는 서원의 교육 이념이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서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향교에서 하는 교육과 어떻게 다르기에 굳이 고을마다 있는 향교를 무시하고 또다시 사묘와 서원을 새로 지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관학과는 구별되는 私學으로서 서원의 교육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주지하다시피, 주자를 포함한 송대의 사대부들이 ‘서원을 일으키고 복원한 목적은, 과거를 통하여 利錄을 구하는 학문에 반대하고, 道學과 義理를 강론하는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당시 官學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官學이 다만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데 있었다.’<sup>86)</sup> 주자는 백록동서원을 복원하면서 「白鹿洞書院揭示」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 주희가 옛 성현들이 사람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뜻을 살펴보니, 모두가 의리를 講明하여 그 자신을 수양한 다음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라는 것이었지, 단지 記覽에 힘쓰고 詞章이나 공부해서 聲名이나 얻고 利祿이나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와는 반대이다. 그러나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던 방법이 모두 경전

86) 陳雯怡, 『由官學到書院』, 聯經, 2004, 43쪽.

속에 보존되어 있으니, 뜻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묻고 밝히고 하며 그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알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어찌 규칙이니 금지니 하는 도구를 남들이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뒤에야 이를 지켜서 따르겠는가.<sup>87)</sup>

여기서 ‘記覽에 힘쓰고 詞章이나 공부해서 聲名이나 얻고 利祿이나 취하는’ 공부란 바로 科學(과거 공부)을 말한다.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교육은 바로 의리를 강명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義理之學, 道學이었지 科學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와는 반대’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수양을 통한 道의 실현과 무관하게 과거 공부만을 일삼던 당시 관학의 세태를 지적한 것이다. 주자는 또 衡州의 石鼓書院을 중수할 때 써준 기문에서도 당시 관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또 지금 군현의 學宮에 博士와 弟子를 두고 있는데 모두 평소 쌓은 덕행과 재능을 따져보지 않아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모두 세속의 책이고 과거 준비일 뿐이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利를 보고 義를 보지 못하도록 하니, 爲己之學에 뜻을 둔 선비는 대개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이 때문에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 배운 바를 함께 講習하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두 공이 이 일에 개연히 뜻을 두고 번거로움도 꺼리지 않았던 까닭이며, 단지 옛날 유적이 황폐해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여 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 일의 본말을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두 분이 뜻을 가졌던 이유를 알고 오늘날 학교에서 科學의 뜻으로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 또 관직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깨우쳐서 오늘날 학교에서 과거 교육에 치우친 폐해가 장차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인데, 이를 적당히 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구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sup>88)</sup>

즉, 주자가 서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관학과는 구별되는 교육적 이상이란 바로 科學이 아닌 爲己之學에 있었다. 그러나 ‘교육은 반드시 尊賢에서 비롯되며,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선무’이므로 주자의 고사를 따라 서원을 건립한다고 주장했던 주세붕은, 官學이 무력화된 당시 조선 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87)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 莫非使之講明義理 以修其身然後 推以及人 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鉤聲名取利祿而已也 今人之爲學者 既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 具存於經 有志之士 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 苟知其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 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而後 有所持循哉”(『晦庵集』, 권 74, 「白鹿洞書院揭示」).

88) “抑今郡縣之學官置博士弟子員 皆未嘗考其德行道藝之素 其所受授 又皆世俗之書 進取之業 使人見利而不見義 士之有志於爲己者 蓋羞言之 是以常欲別求燕閒清曠之地 以共講其所聞 而不可得 此二公所以慨然發憤於斯役而不敢憚其煩 蓋非獨不忍其舊迹之蕪廢而已也 故特爲之記其本末 以告來者 使知二公之志所以然者 而毋以今日學校科舉之意亂焉 又以風曉在位 使知今日學校科舉之教 其害將有不可勝言者 不可以是爲適然而莫之救也”(『竹溪志』 권3, 學田錄, 「衡州石鼓書院記」).

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그가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은 주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서원을 건립한 뒤 제정한 원규에서 유생의 입원 자격을 ‘司馬試 입격자를 1순위, 初試 입격자를 2순위로 하고, 마지막으로 초시 입격자가 아니라도 학문하고자 하는 마음과 操行이 있는 자가 들어오길 원하면 유사가 斯文에 품의하여 맞아들인다’<sup>89)</sup>고 규정한 대목에서,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통해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입원 자격을 과거 입격자 위주로 규정한 것 자체가 과거 준비 기관으로서 서원의 성격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는 입원 자격을 규정한 조항의 세주에서 ‘서원은 현인을 맞아들이기 위해 세운 것인데, 불초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 오게 되면 현인이 찾아오지 않아 결국 서원이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sup>90)</sup>이라며, 입격자를 우선으로 한 것은 서원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그가 우려한 ‘서원의 황폐화’라는 것은, 교육이 아닌 균역 면제를 목적으로 입학하는 교생들이 많아지면서 양반들이 출입을 꺼려 점차 교육 기능이 마비된, 당시 향교의 황폐화 현상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입원 규정은 주세붕이 처음부터 서원을 쇠퇴한 관학의 기능을 대신하는, 科學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인식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 중기의 문신 李濟臣 역시 당시 백운동서원을 科業之所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원의 유생은 참관 주세붕이 당초 규정을 세울 때에 선비들 중에서 초시에 합격한 자를 받아들였고, 비록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문리가 대강 통한 사람으로 보충하였다. 그러므로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였다”<sup>91)</sup>

또한 주세붕의 입원 규정만으로 볼 때, 비록 3순위로 입격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입원 가능성을 열어두긴 하였으나, 현전하는 입원록<sup>92)</sup>을 보면 철저히 입격자 위주로 입록이 허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략한 당시 관학의 폐해와 왜곡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科學이 아닌 爲己之學을 서원의 본질로 천명했던 주자와 달리, 주세붕은 서원을 과거 준비와 국가의 관리를 길러내기 위한 인재 양성

89)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 有司稟于斯文而迎之”(『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 祠院, 紹修書院, 「院規」).

90) “夫開院固欲迎賢 若濫入則不肖者間之 非徒耗廩 將有損於書冊什物 愚者至而賢者必不肯來 亦荒廢廟院之一漸也 其擇尤不可不謹也”(같은 책, 같은 곳).

91) “書院之儒 則周參判始立規 以士子中解額者居之 雖非中舉 必以文理稍可者補之 故非居業者不入”(『大東野乘』, 「清江先生鯁鱗瑣語」).

92) 입원록 2권의 표지 배면에는 “唯大小科入格外 切勿混書姓名”이라 기록되어 있다(『紹修書院誌』, 「入院錄」(1660~1691)).

소리는 관학적 기능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주세붕 뿐 아니라 당시 중앙 관리들의 서원관에서도 확인된다. 중종 37년(1542)에 魚得江이 서원 제도를 소개한 상소문을 통해 당대인들의 서원 인식을 살펴보자.

한 나라 鄭玄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隋나라의 王通은 河汾에서 講學하였으며, 당나라 李渤은 南唐 때 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九經을 내려서 장려했습니다. 周子·張子·程子·朱子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는데 그 문하에서 나온 자는 모두 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李公擇은 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고, 주희는 武夷精舍를 짓고 白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 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는 선비들이 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 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을 얻어서, 생원이나 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名儒들을 불러 모아 1년의 四月中에 상하의 齋도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州郡 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都會 때와 겨울 3개월 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四月中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모아서, 官秩이 높은 수령을 試官으로 삼아 두 教授와 혹은 縣監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勸課하여 製述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의 館試·漢城試·鄉試에 응시하도록 차등 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幼學은 생원·진사시의 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sup>93)</sup>

위에 제시된 어득강의 서원 이해는 修己보다는 科擧를 위한 제술에 치중한 것으로 관학과 다름없는 官人 획득을 위한 조처에 그치고 있다.<sup>94)</sup> 또한 그의 구상에는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통해 구상했던 것과 같은, 사학으로서의 독특한 건학이념이나 교육 철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sup>95)</sup> 이 같은 서원 인식은 명종 5년(1550) 백운동서원이 소수서원으로 賜額될 때 기문을 써준 당시 대제학 申光漢의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서원 교육’을 ‘과거와 인재등용’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차 참다운 학문을 하는 서원이 동방에 많이 설립되어 많은 인재가 등용되면 백성들은 지극한 정치의 은택을 입게 될 것이다. 어찌 송나라 유생처럼 조정에 등용되지 못하고 집에

93) 『中宗實錄』 권 98, 중종 37년 7월 己亥.

94) 정만조, 「朝鮮書院의 成立科程」, 같은 책, 12~28쪽.

95) 정순우, 같은 책, 27쪽.

서 은거하여 몸을 닦는 데 그치겠는가?”<sup>96)</sup>

이상과 같이,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설립할 때의 의도와는 달리, 16세기 중반 주세붕을 포함한 조선의 관리들은 쇠퇴한 관학의 대체물로서 서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백운동서원은 설립된 지 3년 만에 ‘이 서원에서 공부하면 5년도 안되어 모두 과거에 급제한다’고 회자될 만큼, 기존의 관학을 대신하여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과거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키는 科學의 명소로 급부상하였다. 서원 설립의 정당성을 주자의 백록동서원 고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세붕의 해명이 ‘고을마다 문성공의 사당과 학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문성공묘와 서원을 다시 세우느냐’는 백성들의 의혹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교육은 존현에서 비롯된다는 명분 아래, 전쟁과 기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록동서원을 중수하고 3선생과 5현의 사당을 지어 사묘와 서원을 결합한 주자의 행적, ‘도통’과 ‘지역적 연고’라는 사묘의 향사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장서와 토지 등 물질적 기반을 마련한 주자의 고사를 따름으로써 백록동서원의 제도와 형식은 모방하였으나, 주자가 그 형식 속에 담고자 했던 내용과 정신, 즉 관학과 차별화되는 서원의 교육 정신은 따르지 못했다. 주세붕이 백록동서원의 형식을 모방하여 그 속에 담은 것은 주자의 서원 정신이 아니라, 주자가 비판해마지 않았던 科學이었다. 즉, 그는 제도에 있어서는 남송 서원의 모델을 따랐으나,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관학의 보조기구로서 科業을 충실히 수행했던 북송 서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주세붕의 서원관은 주자학에 대한 그의 독특한 해석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정순우에 따르면, 그가 1547년 어린 명종에게 撰進한 『心圖』에는 『心經』에 대한 그의 독특한 해석 방식이 드러나 있다. 『심도』에 드러난 주세붕의 『心經』 해석은, 敬 사상을 중심으로 수양과 공부의 텍스트로 『심경』을 파악한 사림파의 이해방식과는 달리, 『심경』을 일종의 교화서로 이해하고, 왕도론이나 治用論과 결합함으로써 제왕학으로서의 심학서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담고 있다. 즉, 그의 『심도』는 사림파들의 심학이 내향화되고 관념화되는 데 비하여, 심학을 외부 지향적이고 실사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료적 의지를 담고 있는 또 다른 계열의 심학서였다. 이와 같이 『심경』을 실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주세붕의 관료로서의 입장은 그의 백운동서원 창건과 초기 서원의 관학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백운동서원의 창건이 풍기사림이 아닌 군수 신분이었던 주

96) “將見正學書院又建於東方者衆 而人材蔚爲世用 民蒙至治之澤矣 奚只修其身於家 而不得立於朝如宋儒而已哉”(『竹溪志』, 行錄後, 「白雲洞紹脩書院記」).

세봉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후 경상감사 안현의 경제적 지원과 국가의 사액을 통해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과정은, 사림보다는 중앙정부와 관에 의해 주도된 초기 서원의 관학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즉, 『심도』에 녹아 있는 제왕학에 대한 해석, 매우 실사적이며 교화적인 해석의지 등 유능한 관인학자로서의 주세봉의 자세와 노력이 결국 ‘관학 개선적’인 백운동서원의 탄생을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7)</sup>

이렇게 볼 때, 관학의 진흥책이 매우 시급했던 당시, 한편으로는 주자의 고사를 따르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이자 관학의 기능을 대신할 인재 양성소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철저한 관인학자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행동했던 주세봉에게 어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16세기 말까지 소수서원의 居接이 試題의 출제와 고시, 물질적 지원 등 지방관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 아래 철저하게 科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와 같은 주세봉의 서원관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는 백운동서원이라는 형식 안에 비록 주자의 서원 정신을 담지는 못하였으나, 관학의 교육 기능이 쇠퇴한 당시 사회에 서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세워 과거 교육에 실질적인 성과를 올림으로써, 지방관으로서 수령 7사 중 하나였던 ‘學校興’의 임무를 누구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

97) 정순우, 같은 책, 43~64쪽.

## II-2. 講學의 경제적 기반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있던 중종 37년(1542) 文成公 安珦의 사묘를 세우고, 이듬해 사당 앞에 별도로 서원을 세웠으며,<sup>98)</sup> 그 이듬해인 중종 39년(1544) 8월에는 서원의 學田과 寶米를 마련하고 學田錄 跋文을 작성하였다.<sup>99)</sup> 이 때 사묘를 건립하면서 숙수 사 터의 땅을 파다 나온 낫쇠 120여근으로 四書三經과 二程全書, 朱子大全, 大學衍義, 通鑑綱目 등의 서적을 구입하여 서원에 비치하였으며, 學田과 寶米의 마련을 위해 개인 소유가 된 사당 곁의 公田을 다시 환수해서 位田을 만들고, 별도로 寶米 40석을 두어 유생의 공제비용으로 삼았다.<sup>100)</sup> 또 고을 진사 黃彬이 벼 75섬<sup>101)</sup>을 기부하여 일부는 학전, 일부는 보미에 보태면서 ‘봄과 가을의 제향을 지내고 남는 것으로 유생을 공제하기에 족하였다’<sup>102)</sup>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백운동서원의 건립이 완료되고 재정이 마련된 후, 주세붕은 ‘말을 타고 서원에 와 묵으면서 유생들과 경서의 뜻을 강론하니, 현인을 높이고 학문을 흥기하는 그의 지성에 아랫사람들도 감화되어, 아동이나 走卒이라도 향사일에 정성을 다하고, 유생을 만나면 극진히 공경하는 등 교화가 쉽게 행해졌다’<sup>103)</sup>고 한다.

그러나 설립 초기 3~4년간은 강학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원 강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安瑄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경상도 전역에 걸쳐 백운동서원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영속적 시행을 위해 「斯文立議」를 작성한 1546년부터였다. 그는 右水使에게 영구히 제공 받은 웅천의 漁基 3곳 및 각 관아로부터 매년 총 2,520冬音의 청어를 서원에 捧上하게 하고, 울산 관아에서 철염분 2坐를 매입하여 매년 서원에 필요한 식염을 대도록 하였다. 또한 묘원직 자손의 부역을 대대로 면제하고, 서원 근처 전답 30결의 경작인에게도 잡역을 탈급해주었으며, 이어 3월에는 내섬시, 제용감, 내자시 등 풍기관사에 소속된 寺奴婢 5구를 서원으로 이속하여 유생 공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sup>104)</sup>

이어 5월부터는 사묘와 서원 건물을 보수하거나 추가로 조성하여 서원의 규모를 확

98) 『竹溪志』, 「竹溪志序」.

99) 『武陵雜稿』 권8 原集, 「竹溪志學田錄跋」.

100) 『竹溪志』, 行錄後, 「與安牧使瑋書」.

101) 『晦軒先生實記』 권4, 「白雲院創建議」에는 45섬으로 기록되어 있음.

102) 『竹溪志』, 「竹溪志學田錄跋」.

103) 『紹修書院謄錄』,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이하 「斯文立議」로 약칭.

104) 「斯文立議」 및 가정 25년 3월 20일과 5월 초2일 기사.

장함과 동시에 강학을 시작하면서 유생 공궤에 필요한 물자를 도내 각 고을에 수시로 분정하였다. 「雜物分定行移謄錄」에는 1546년부터 1555년까지, 경상감사가 각종 잡물을 분정하기 위해 각 고을에 발송한 關文과 각 관아에서 이를 이행해가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안현이 경상감사에서 체직된 것은 1547년 2월이었으니,<sup>105)</sup> 그의 체직 이후에도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도 10여 년 간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에 따르면, 유생 공궤 및 서원 관리를 위한 관속과 노비로 풍기군의 官屬 4戶, 흥해군 살인강도의 가족으로 속궁된 비 4구, 진주·산음·거창의 물고강도 가족과 노비 7구, 경주부 강도의 딸 1구를 서원에 소속시켰다. 또 예천·산음·동래·함안·진보 등에서 압수한 의복, 면목, 그릇 등의 도적 장물을 수송하여 서원시기와 노비에게 분급하였다. 1547년 2월에는 논 29卜 5束과 밭 13卜 9束을 추가로 매입하고, 1548년 11월에는 관찰사 鄭萬鍾이 靑漁基 4곳을 추가로 배정하여 매 기마다 500동음씩의 청어를 서원에 봉상하도록 하였으며, 1555년 5월에는 관찰사가 영천군에 관문을 보내 봄가을로 감영에 상납하던 종이를 서원으로 이속시켜, 매년 서원의 창호도배지 용도로 注紙 2권과 壯紙 3권씩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거접유생들을 위한 入接房 솥와 전사청, 제기고, 행랑, 차양 등의 건물도 추가로 조성하였다. 또 거접이 개설된 이후 필요한 물품을 안동·의흥·의성·예천·영천·진보·청송·군위 등 인근 고을에 수시로 분정하여 제공하도록 바로바로 조치해주었다.<sup>106)</sup>

이처럼, 경상도 전역의 전폭적 지원 하에 1546년 5월 무렵 백운동서원의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5월 21일 경상감사 안현은 상주훈도와 협의하여 사문입의에서 정한 대로 10명에 준하는 유생을 불러 거접시키도록 서원에 명하고, 우선 영천에 關文을 보내 쌀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생의 규모를 파악하여 필요한 물자를 다른 고을에 추가로 분정하기 위해 거접에 온 유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6월 12일에는 유생 10여명이 와서 거접을 시작하였는데 공궤 물자가 부족하여 안동, 의흥, 의성 등 9개 고을에 백미, 醬太, 등유 등을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1547년 2월에는 ‘서원에 상시 공궤하는 유생을 10명으로 정하였지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름 있는 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공궤할 식염을 마련할 길이 없다’<sup>107)</sup>고 할 정도로 거접이 성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1546년 斯文立議를 통해 경상도 전역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105) 명종 2년 2월 19일 안현은 한성부우윤에 임명되었다(『명종실록』 권 5, 명종 2년 2월 19일).

106) 「雜物分定行移謄錄」; 『嘯臯集』, 권 3, 書, 「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107) “郡書院良中 常養儒生十員以定額爲良置 遠近聞風來接有名儒生 至於數十員爲臥乎等用良 供饋食鹽 出處無由乙 仍于”(같은 책, 가정 26년 2월 18일).

16세기 말까지 소수서원의 강학은 비교적 꾸준히 시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문입의에서 마련된 운영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실제로 채 15년도 되지 못하였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모든 고을의 재정이 거의 고갈되다시피하였고, 웅천·영덕·영해의 어염은 이미 16세기 중반 이후부터 제대로 수납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거접이 개설될 때마다 유생들의 제술 상품, 술과 음식을 수시로 지원하고 심지어 거접 유생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쓸 지필묵까지 마련해주던 초기 관찰사들의 지원과 달리,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관찰사들의 지원도 현저히 감소하여 기껏해야 재임 기간 중 고작 한 차례 인사치레로 약간의 물품을 보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근 고을의 지방관들도 재정난으로 서원에 물품을 지원하기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16세기 후반 풍기군수는 사문입의의 규정대로 인근고을의 물자가 제대로 지원되도록 조처해달라고 관찰사나 호조 등에 수시로 청원하였다. 또 서원에서는 소수서원과 연고가 있는 현직 관리들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강학 비용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560년 11월 의성현령 安澣은 영천군수 安璫의 부탁으로 의성에 있는 둔전의 소출을 서원에 상납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부임하고 보니 둔전이 황무지에다 인가에서도 너무 멀어, 애당초 부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567년 4월에는 관찰사 유창문이 지필묵과 함께 보낸 편지에 영해, 웅천, 영덕에 移文하였다고 알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어염의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서원에서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78년 3월에는 퇴계 문인이자 1574년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던 경기감사 윤근수가 곡식 약간을 보내고, 1594년 8월에는 영덕현령 安璫이 兵亂으로 관아의 어염이 모두 고갈되어 보낼 수 없다고 보고하며 제수로 쓸 약간의 음식만 보내고 있다. 1599년 6월에는 충청감사 金玠이 서원으로부터 물품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고 지필묵 약간을 보내왔다. 충청감사 金玠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 역시 소수서원과 연고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김륵은 영천의 선성 김씨이자, 퇴계 문인으로 1563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64년 생원, 1576년 문과에 급제하고 임진왜란 무렵 경상도안집사와 경상우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600년 6월에는 金九鼎이 포목 2필을 보내며 관청의 물자가 고갈되어 한 번 쓸 종지도 올릴 수 없는 형편임을 언급하고 있다. 김구정 역시 풍기 출신으로 1572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73년 생원, 1582년 문과에 급제하고 1611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1547년 입원하여

그 해 7월 거점에서 관찰사 임호신에게 시상 받은 金希俊의 아들로, 부자가 모두 소수서원 출신이었다.

이와 같이 16세기 후반 소수서원의 재정 상태는 어염 등 물자의 지원이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설립 초기에 주세봉과 안현이 마련한 서원의 토지와 원직, 노비 등에 대해서도 인근 사찰과 고을로부터 16세기 중반 무렵 이미 침탈을 받기 시작하였다. 1554년에는 주세봉이 서원 설립 당시 學田으로 삼았던 屬公田을 聖穴寺의 승려가 寺位田이라 칭탁하며 빼앗아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1554년 12월 25일 서원 유생을 대표하여 풍기군수 韓琦에게 올린 글에서 月川 趙穆<sup>108)</sup>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齋齋 周相公께서 서원을 창설한 뒤) 먼 곳에 살거나 가난한 선비들이 식량을 싸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이 염려되어, 서원 근처 公田 자투리 중에서 한 구역을 떼어주어 해마다 그 수입으로 서원에 거주하는 유생들 숙식비용의 바탕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방에서 온 선비들이 모두 편리한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 뜻에 감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수시로 모이고 흩어진다고는 하나 글을 읽는 소리가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은 지가 지금 까지 십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 제생들이 즐거이 와서 학문하면서 다른 걱정을 할 것이 없는 것은 특히 그들에게 숙식을 도모할 책임이 없이 오로지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창설한 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 유래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에 소백산 僧徒가 寺田이라 칭탁하고서 함부로 文案을 받아 까닭 없이 훔쳐서 가져갔습니다. 아, 십년 동안 경상비로 써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었고 선비들을 양육하던 토지가 異類를 기르는 동산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저희들만이 팔을 걷어붙이고 분개할 일이겠습니까.”<sup>109)</sup>

이러 조목은 ‘선비들의 학업이 성하고 쇠하는 것은 인재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데에 달려 있고, 인재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또한 양육비용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달려 있으므로 양육비용은 곧 서원의 성쇠와 관련된다’고 하며, 말미에서 성혈사에 빼앗긴 속공전이 애초에 개인 소유였다가 속공되어 서원에 소속된 내력을 다시 한 번 설명하며 환수를 요청하고 있다. 이 때 성혈사에 빼앗겼던 공전은, 관찰사가 호조에 啓請하고 호조에서 ‘상고하여 보니 앞의 전답은 성혈사 元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왕조에 서부터 특별히 서원에 소속시킨 것으로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갑자기 인재를 양성할 도구를 가지고 스님들이 쓰도록 옮겨 주었으니 유림이 분개하고 士氣가 꺾여, 성상의 右文興學의 뜻에 누가 될 뿐 아니라 扶正抑邪의 도리에 크게 어긋나 사체가 매우 미안합니다. 관찰사가 계청한대로 정하여 유생들의 숙식 제공에 쓰도록 하

108) 趙穆(1524~1606)은 1544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52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109) 『雲院雜錄』, 「院中儒生上郡守韓侯書」.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뢰어 1555년 4월 29일 立案을 받음으로써 다시 서원에 귀속되었다.<sup>110)</sup> 그런데 실록에 따르면, 조목이 이 글을 올리기에 앞서 당시 서원의 학전을 빼앗아 성혈사에 주도록 허락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풍기군수 한기였다. 이 사건은 후에 조정에서 논란이 되어 ‘사실이 이와 같다면 풍기군수를 어찌 推考하는 데 그치고 말겠는가? 본도 관찰사에게 진상을 조사하여 치계하게 하라’<sup>111)</sup>고 함으로써, 결국 한기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성혈사와의 토지 분쟁 외에, 안현이 관찰사 시절 소수서원의 원직으로 삼았던 영천군 소속의 노비 역시 1557년 무렵 영천 관아로부터 침탈을 받고 있었다. 1547년 2월 24일, 당시 서원 원직이었던 池萬同이라는 노비가 병에 걸리자 관찰사 안현은 영천군과 풍기군에 移文하여 영천군의 관속(日守)이었던 지만동의 조카 池山을 지만동 대신 서원직으로 起送하도록 지시하였다.<sup>112)</sup> 그런데 영천군수가 확인해보니 지산은 당시 日守가 아니라 濟用監에 충정되어 治稅를 상납하고 있었으므로, 지산의 동생 池玉孫을 서원지기로 대신 기송하여 소수서원의 원직으로 삼았다.<sup>113)</sup> 이 때 지옥손은 영천군 소속으로서 관찰사의 지시에 의해 서원지기가 되긴 하였으나, 영천군의 官案에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官案이 발단이 되어 언젠가부터 영천군에서는 官案을 핑계로 지옥손을 데려다 관청에서 자주 부렸던 것 같다. 이에 서원에서도 어찌지 못하고 있다가, 안향의 후손이자 안현의 동생으로 그 전부터 서원 일에 관계하던 安瑞이 1556년 영천군수로 부임하자, 이를 기회로 안상에게 편지를 보내 지옥손의 이름을 영천군의 官案에서 영구히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1557년 11월 29일 영천군수 안상은 서원에 답장을 보내 ‘노비를 영구히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어 官案에서 이름을 제거하는 것은 현재 저의 손에 달려 있으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제거하여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겠습니다.’<sup>114)</sup>라고 하며 관안에서 삭제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어염 수납의 문제가 관찰사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자, 1560년 풍기군수 朴承任은 戶曹에 응천, 영덕, 영해의 어염이 제대로 수납되지 않는 실정을 보고하고 호조에 서 직접 나서 이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10) 「雜物分定行移牒錄」, 가정 34년 4월 29일 立案.

111) 『명종실록』, 권 20, 명종 11년 1월 18일; 1월 22일.

112) 「雜物分定行移牒錄」, 가정 26년 2월 24일.

113) 「雜物分定行移牒錄」, 가정 26년 4월 14일.

114) 『雲院雜錄』, 가정 36년 至月 念九. 이 편지에는 관안에서 삭제하겠다는 노비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雜物分定行移牒錄」에서 서원 노비 중 영천군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노비는 池玉孫 밖에 없으므로 지옥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 서원을 설립할 때 토지와 노비를 두고 해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유생 10명을 공궤 하는 자원으로 삼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饋餉이 이어지지 못하여 선비들이 편안히 모이지 못하게 되자 본도에서 벼슬한 諸賢들이 도모하여 웅천의 어기 세 곳을 營門에서 이속하고, 영해·영덕 등의 관염분 3좌를 贓布를 내어 구입하였으며, 관찰사 정만중이 또 天城堡 어기 4 곳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후로 1년에 수납하여 보낸 것이 청어 3천 5백관, 식염 16 섬 등이며 반찬으로 쓰일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팔아 필요한 것을 사들였으니, 식량, 장, 기름, 반찬, 자리, 집기와 서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이 그것에 힘입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근이 흠모하고 학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사시사철 공궤하는 학생이 많을 때에는 2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어떤 곳에서는 간략하게 보내오고 어떤 곳에서는 절반을 보내왔으며, 심지어는 여러 해가 지나면서도 보내오지 않는 곳도 있어 음식을 제공할 자원이 고갈되어도 보충할 길이 없게 되었고, 심지어 고을 창고에서 꾸어다 쓰면서 근근히 유지하기에 이르러, 10명의 정원도 제대로 공궤하지 못하여 선비들이 편안하게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sup>115)</sup>

또한 서원이 사액될 때에도 성상의 배려로 어염의 수납을 그대로 시행하여 불변의 규례로 삼도록 하였음에도, 역대에 볼 수 없었던 조정의 특별한 배려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어염의 관리 감독이 감사의 손에만 달려 있고 장부 기록이 호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응당 수송해야 할 관청에서 두려워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박승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당 어기와 염분의 소출에 대한 輸稅액을 지방관의 치적을 평가하는 장부에 기록하고, 해마다 수송 여부를 검사하여 관찰사가 이를 殿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항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서원의 토지는 該曹에서 출납을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어염만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납부하는 자가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며 어염 역시 호조에서 직접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7년 뒤인 1567년, 관찰사 柳昌門이 어염 수납 문제로 세 고을에 또 다시 관문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sup>116)</sup> 어염 수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에 앞서 1549년 퇴계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에도 웅천의 어물이 도착하지 않아 거점에 쓸 반찬을 걱정하며 손수 청어 200마리를 마련하여 보낸 것에 따르면,<sup>117)</sup> 1549년 무렵부터 이미 어염의 수납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6세기 말에 이르면, 임진왜란으로 인해 웅천의 어기는 완전히 폐지되고, 영해와 영덕의 염분은 존속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15) 『嘯臯集』, 권 3, 書, 「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116) 『雲院雜錄』, 隆慶元年 4월 초8일.

117) 『退溪續集』, 권 6, 書, 與金仲文.

1599년 관찰사 한준겸은 원래 수납하기로 되어 있는 16섬에서 물량을 반감하여 8섬을 수납하도록 현실적인 타협책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sup>118)</sup>

1573년에는 영천의 伊山書院과 院屬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본래 소수서원에 소속되어 있던 院屬田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산서원으로 이속되고, 영천군에서 소수서원에 수송하기로 되어 있던 종이<sup>119)</sup>까지 이산서원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산서원은 안향의 후손인 안상이 영천군수로 부임하여 1558년에 설립하고 1573년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다음 해에 ‘伊山’으로 사액되었다. 토지 분쟁이 발생한 것은 이산서원에서 퇴계의 위패를 봉안한 직후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소수서원에서는 1573년 12월 9일 이산서원에 통문을 보내, 소수서원은 퇴계에 의해 사액되고 비로소 제도가 갖추어진 서원인데, 퇴계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서원의 토지를 빼앗아 퇴계를 모시는 서원에 귀속시킨다면 이는 퇴계의 뜻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토지가 이곳에 속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며, 한 고을 수령이나 감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계선생께서 이 고을 군수로 부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서원을 중요하게 여겨 감사에게 글을 올려 조정에 전해지게 하여 국학으로 삼아서 제도가 세밀하고 완벽하게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서원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둔전 등에 대해서도 또한 진중하게 여겨 감사에게 보고하고 이로 인해 호조에서 세금을 영구지 면제받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곡식을 보내어 선비를 양육하는 비용으로 삼았으니, 이는 (퇴계)선생께서 처음 주창하신 뜻이 아님이 없습니다. (퇴계)선생께서 이 서원에 대해 그토록 간절한 뜻을 기울이셨는데, 그곳(영천군)에 소속된 토지를 빼앗아 (퇴계)선생을 모신 서원에 귀속시킨다면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sup>120)</sup>

이에 이산서원에서는 이속된 院屬田과 종이<sup>119)</sup>가 소수서원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 싶어도 관청에서 처리할 일이지 서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는 답변을 보내왔다.<sup>121)</sup> 이후 이 분쟁의 결과는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해 당시 향촌사회에서 소수서원의 위상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안현의 사문입의 제정과 국가의 사액 이후 경상도 전역에 걸친 지원과 특혜를 누려오던 소수서원은, 이 시기 영천, 안동, 예안 등에도 연이어

118) 『雲院雜錄』, 「上巡察使書」; 『紹修書院誌』, 「報方伯牒呈」.

119) 1555년 5월에 관찰사가 영천군에 관문을 보내 봄가을로 감영에 상납하던 종이를 소수서원으로 이속시켜, 매년 서원의 창호도배지 용도로 注紙 2권과 壯紙 3권씩을 납부하게 지시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종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34년 5월 초2일).

120) 『雲院雜錄』, 「通伊山書院文」.

121) 같은 책, 「拜上謝狀」.

서원이 건립됨에 따라, 인근 고을과 관찰사의 지원에 있어 예전과 같은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퇴계 사후 이산, 역동, 여강, 도산서원에서 퇴계를 제향하게 됨에 따라, 풍기군수 시절 퇴계의 노력에 의해 사액을 받으면서 소수서원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던 퇴계 문인들의 관심과 지원 역시 점차 분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밖에 1582년에는 서원 典僕에 대한 군졸의 침탈이 심해 서원 일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sup>122)</sup> 1599년에는 서원 곡식의 대부분을 군량미로 납부하면서 16세기 말 서원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sup>123)</sup> 1599년 1월 관찰사 한준겸이 소수서원에서 강학을 개설할 때 숙식을 제공하는 거접 대신 당일로 치르는 백일장의 형식을 취한 것도 당시의 이 같은 재정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문입의를 통해 마련된 재정 기반은 15년도 채 안되어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서원 건립의 증가와 함께 인근 고을과 관찰사의 지원이 점차 약화되면서, 토지와 노비에 대한 침탈을 받는 등 소수서원의 위상도 차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풍기군수는 사문입의의 규정 및 소수서원이 조정의 승인을 받은 최초의 사액서원임을 내세워 관찰사나 호조 등 상부 관청에 끊임없이 지원을 호소하고, 서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소수서원 출신이나 퇴계 문인 출신으로 소수서원과 연고가 있는 현직관리들이나 관직에 진출해 있던 안향 후손들의 지위를 심분 활용함으로써, 흔들리는 서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강학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16세기 소수서원의 거접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풍기군수의 지원과 관심으로 가능하였다. 풍기군수는 거접에서 제술 試題의 출제, 고시 뿐 아니라, 開接과 罷接 시에도 酒饌을 베풀고, 居接 도중에도 유생을 공궤할 음식과 지필묵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보내며, 바쁜 업무의 여가에 직접 서원에 방문하여 과거공부를 격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16세기 소수서원 강학이 철저하게 수령, 관찰사 등 지방관의 물적 지원과 관심에 의존하고, 강학의 운영 방식도 조선후기와 달리 과거공부를 목표로 한 거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 16세기 소수서원은 당시 쇠퇴한 관학의 기능을 실제로 고스란히 대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16세기 소수서원의 관학적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이자 관학의 보조 기구처럼 인식했던 주세붕의 서원관이 반영된 결과였으며, 이러한 서원 인식은 주세붕 뿐 아니라 경상감사 안현을 포함한 16세기 지방관들에게도 여전히 공유되고 있었다.

122) 같은 책, 「萬曆十年二月廿七日立議」.

123) 같은 책, 「上巡察使書」.

사문입의 제정 무렵부터 16세기 말까지 「雜物分定行移謄錄」과 『雲院雜錄』 등에 수록된, 풍기군수와 경상감사, 인근 고을 지방관 등의 제정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16세기 지방관의 제정 지원 현황

날 짜	내 용	수 록 처
1545. 봄	관찰사 권응창이 떡 20홀과 名楮 30장	雲院雜錄
1546. 2. 4	관찰사 안현이 떡 10자루	雲院雜錄
1546. 6. 11	관찰사 안현이 서원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부채, 붓, 묵 각 11점, 종이 5속과 두보를 차운한 시를 써서 보냄	雲院雜錄
1546. 6. 12	관찰사 안현이 유생 10여명이 서원에서 거접하고 있는데 공개할 식량이 부족하여 인근 고을에 분정	雜物分定行移謄錄
1546. 6. 29	관찰사 안현이 龍宮縣에 관문을 보내, 서원의 거접유생들이 가을 시험장(秋場)에서 名紙로 쓸 도련지 30장을 봉상하도록 함(당해 10월 丙午 式年試)	雜物分定行移謄錄
1547. 2. 14	백운동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右兵使 金舜阜가 과메기 30동음, 청어 100동음, 통대구 30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47. 2. 18	거접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음식에 쓸 식염이 없으므로 관찰사 안현이 식염 마련책 주선	雜物分定行移謄錄
1547. 2. 23	관찰사 안현이 試題와 함께 술과 음식을 보내면서 이후 시각을 정하여 製科하는 것을 서원 관례로 삼도록 함	雲院雜錄
1547. 4. 11	관찰사 任虎臣이 거접 유생에게 장지 15첩, 油煙墨 10丁, 松墨 5자루, 고모필 20자루를 보냄	雜物分定行移謄錄
1547. 7. 27	영천군수가 고시한 시권에 대한 시상으로 관찰사 임호신이 名紙 1권, 羔毛筆 18자루, 묵 12丁 등을 보내 가을 시험장(秋場)에 쓰도록 분급(당해 9월 알성시)	雜物分定行移謄錄
1547. 가을	관찰사 임호신이 술 2동이, 생치 5마리, 대구 5마리, 광어 7마리, 잣 2말	雲院雜錄
1548. 11. 11	관찰사 鄭萬鍾이 靑漁基 4곳을 추가로 배정하여 매 기마다 500동음씩의 청어를 서원에 봉상하도록 함	雜物分定行移謄錄
1548. 11. 19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현재 서원에 도착한 인원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묻고 술과 음식을 보냄	雲院雜錄
1549. 4. 4	풍기군수 이황이 詩賦疑義 각 1개씩 試題를 보내며 근래 제생이 송독에 전념하고 제술은 잠시 느슨하게 한다는 소식에 기뻐함	雲院雜錄
1549	풍기군수 이황이 김중문에게 편지를 보내 응천의 어물이 오지 않아 유생들의 반찬 걱정을 하며 우연히 얻은 청어 200마리를 보내고 寶米 수납을 독촉	退溪續集 권 6
1550. 3. 12	관찰사 沈通源 <sup>124)</sup> 이 晦庵 詩文 1건과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종이 등을 보냄	雜物分定行移謄錄
1550. 6. 4	‘紹修書院’으로 사액 받아 예조에서 편액과 운각 및 사서오경과 성리대전 각 1건씩 반사	雜物分定行移謄錄
1555. 5. 28	영천군수로 부임한 安瑋이 술(秋露)을 보냄	雲院雜錄
1555. 6. 6	풍기군수 韓琦가 안부편지와 함께 赤豆 5말을 보냄	雲院雜錄

1556. 1. 22	풍기군수 金慶言이 李秀才에게 홀로 학문하는 정황을 묻고 서원에 오는 이가 없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백지 1권, 常楮 3속을 보냄	雲院雜錄
1557. 5월	예천군수 權鎔이 酒米 6말, 누룩 10장, 소주 3鎰, 禮部韻 <sup>125</sup> 1부	雲院雜錄
1557. 6. 24	감사 俞絳 <sup>126</sup> , 도사 梁喜가 편지를 보내 학문하는 정황을 묻고 초장지 15권, 유묵 15자루, 고모필 20자루를 보냄.	雲院雜錄
1557. 11. 14	감사 金光軫 <sup>127</sup> , 도사 梁喜가 청주 2동이, 생치 2마리, 닭 5마리	雲院雜錄
1557. 11. 16	감사 金光軫, 도사 梁喜가 名紙 14장	
1557. 11. 22	풍기군수 曹淑이 동지라 청주 1동이, 사슴고기 3근, 닭 2마리, 광어 1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58. 6. 15	풍기군수 張文輔가 홀로 공부하며 봉우를 기다리는 玄上솜을 격려하며 술과 닭고기를 보냄	雲院雜錄
1558. 6. 30	풍기군수 장문보가 試題(策)와 함께 청주 1병, 蘇魚 40마리	雲院雜錄
1559. 2월 하순	풍기군수로 부임한 朴承任이 연일 꿈에서는 서원의 講榻 곁에 가 있으나 업무가 바빠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청주 2병을 보냄	雲院雜錄
1559. 12. 9	풍기군수 박승임이 다음날이 臘日이라 술 2병, 돼지고기 생육과 수육 한 상자, 꿩 1마리, 生肉 6근을 보냄	雲院雜錄
1560. 11. 2	의성현령 安濬이 의성의 둔전이 황무지에다 인가에서도 너무 멀고, 흉년으로 소출이 없다고 한탄하며 荒租 3섬, 콩 2斛을 보냄	雲院雜錄
1564. 여름	관찰사 李友閔 <sup>128</sup> 이 박사 徐崦 <sup>129</sup> 의 청으로 쌀 2섬, 콩 1섬, 청주 2병, 닭 3마리, 건어 2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66. 4. 8	풍기군수 趙完璧이 諸君盛會鍊做하니 술과 안주를 보냄	雲院雜錄
1567. 4. 8	관찰사 柳昌門 <sup>130</sup> 이 영해·웅천·영덕에 移文하였음을 알리고, 장지 10권, 고모필 10자루, 유연묵 10자루, 白貼扇 11자루, 油漆扇 11자루를 보냄	雲院雜錄
1567. 6. 18	풍기군수 尹承慶이 소주 1동이, 잣 3말, 닭 3마리, 백지 3권, 草紙 5권	雲院雜錄
1568. 6. 8	풍기군수 李逗春이 부임 당시 서원이 빈 것을 보고 작잡했는데, 지금 諸賢聚會했다고 하니 소주 3鎰, 닭 2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68. 6. 26	풍기군수 이두춘이 數賢加聚했다고 하니 청주와 잣을 다시 보냄	雲院雜錄
1568. 11. 20	풍기군수 이두춘이 학문하는 정황과 안부를 묻고 음식을 보냄	雲院雜錄
1569. 1. 30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2병, 청어 1두릅, 광어 1마리	雲院雜錄
1569. 4. 12	풍기군수 이두춘이 諸賢雅集하니 청주 1동이, 닭 2마리	雲院雜錄
1569. 5. 20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1동이, 肺 1部	雲院雜錄
1569. 5. 28	풍기군수 이두춘이 백지 3권, 常紙 9권	雲院雜錄
1569. 6. 13	풍기군수 이두춘이 羊毛筆 10자루	雲院雜錄
1569. 6. 17	敬差官 徐崦이 청주 1동이, 닭 2마리, 잣 1말	雲院雜錄
1569. 6. 22	관찰사로 부임한 李陽元 <sup>131</sup> 이 왜부채 10자루	雲院雜錄
1569. 10. 21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4병, 닭 2마리, 마른 광어 3마리, 잣 1말 沈柿 30개	雲院雜錄
1569. 12. 17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1동이, 잣 1말, 대구 2마리	雲院雜錄
1570. 1. 1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2병, 닭 2마리, 잣 5되, 碧魚 1두릅	雲院雜錄
1570. 4월	관찰사 이양원이 왜부채 10자루, 떡 10홀, 붓 10자루, 장지 10권, 단양군수 孫汝誠이 떡 6홀	雲院雜錄
1570. 5월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1병, 잣 1말, 광어 2마리	雲院雜錄
1570. 5. 20	풍기군수 이두춘이 큰 떡 14홀	雲院雜錄
1570. 5. 24	풍기군수 이두춘이 合酒 1동이, 광어 2마리, 전어 2마리, 잣 5되	雲院雜錄

1570. 7. 3	풍기군수 이두춘이 秋露 2병, 잣 1말, 건어 2마리	雲院雜錄
1570. 8. 1	군수 이두춘이 秋露 2병, 잣 1말, 건어 3마리	雲院雜錄
1571. 3. 15	풍기군수 이두춘이 藥酒 2병, 잣 1말, 청어 1두릅	雲院雜錄
1571. 3. 25	도사 俞大脩 <sup>132</sup> )가 당일 서원에 참배하고 재군들과 학문을 토론하려 했으나 비와 다른 업무로 가지 못해 미안함을 전하고, 더욱 정진하여 인재를 기르는 기대에 부응하라는 격려와 함께 잣 1말, 獐肉 3근, 닭 2마리, 벽어 1두릅, 청주 1동이를 보냄	雲院雜錄
1571. 4. 25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2병, 닭 2마리, 잣 5되	雲院雜錄
1571. 5. 13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2병, 광어 3마리	雲院雜錄
1571. 5. 29	풍기군수 이두춘이 羔筆 10자루	雲院雜錄
1571. 8. 17	災傷敬差官 許晉이 콩 2말, 쌀 2말	雲院雜錄
1572. 11. 22	풍기군수 이두춘이 청주 2병, 청어 1마리, 잣 1말	雲院雜錄
1574. 6. 4	풍기군수 趙慶蘭이 개 2마리, 소주 2병, 광어 2마리	雲院雜錄
1574. 7. 7	풍기군수 조경란이 角黍 1그릇, 소주 2병, 海魚 2마리, 잣 2말	雲院雜錄
1575. 11. 11	감사 朴謹元이 떡 10홀	雲院雜錄
1575. 11. 22	풍기군수 裴三益이 청주 3병, 떡 1그릇, 잡어 1그릇, 산적 10케미	雲院雜錄
1575. 11. 29	풍기군수 배삼익이 생뽕 2마리, 잣 5말	雲院雜錄
1575. 12. 1	풍기군수 배삼익이 청주 1동이, 청어 3관, 사슴고기 5근, 닭 3마리, 건어 2마리	雲院雜錄
1576. 2. 28	풍기군수 배삼익 소주 3병, 개 2마리, 건어 3마리	雲院雜錄
1576. 11. 2	풍기군수 배삼익이 술 2병, 獐脚 2개	雲院雜錄
1577. 1. 11	풍기군수 배삼익이 바쁜 업무로 학문을 논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전하며 薄酒 2병, 獐脚을 보냄	雲院雜錄
1577. 4. 10	풍기군수 배삼익이 분주하여 서원에서 함께 餘論을 듣지 못함을 한탄하며 청주 2병, 山鷄 2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77. 6. 29	풍기군수 배삼익이 유생들의 제술작품을 칭찬하고, 喪事와 사고로 서원에 참석하여 雅論을 듣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백지 3속을 보냄	雲院雜錄
1577. 7. 7	풍기군수 배삼익이 서원에서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업무로 급히 관청에 돌아감을 안타까워하며 붓과 먹을 보냄	雲院雜錄
1578. 1. 23	풍기군수 배삼익이 쌀 10말, 콩 10말, 누룩 4동	雲院雜錄
1578. 3. 13	경기감사 尹根壽 <sup>133</sup> )가 콩과 쌀 각 5말	雲院雜錄
1578. 4월	풍기군수 배삼익이 잣 4말	雲院雜錄
1578. 10. 9	감사 崔顥 <sup>134</sup> )이 쌀 1곡, 콩 1곡, 청주 2동이, 닭 5마리, 건어 3마리, 과실 1盤	雲院雜錄
1579	풍기군수 배삼익이 유생들의 제술작품을 칭찬하며 술과 돼지고기, 正學紙 2권을 보냄	雲院雜錄
1579. 7. 17	문회가 성대하게 열렸다는 소식에 풍기군수 배삼익이 박주 2병과 잣 3말을 보냄	雲院雜錄
1579. 12. 16	풍기군수 배삼익이 正學紙 5속	雲院雜錄
1580. 4. 16	풍기군수 배삼익이 학문에 정진하여 기대에 부응하라는 편지와 함께 양모필과 황모필 각 6자루, 참떡 2자루를 보냄	雲院雜錄
1580. 11. 16	풍기군수 安鳳이 고모필 8자루	雲院雜錄
1580. 11. 18	풍기군수 안봉이 18일 고모필 6자루	雲院雜錄
1580. 12. 19	풍기군수 안봉이 참떡 3자루	雲院雜錄
1580. 12. 25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1병, 대구 1마리	雲院雜錄
1581. 1. 15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2병, 닭 2마리	雲院雜錄

1581. 2. 3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2병, 닭과 꿩 각 1마리	雲院雜錄
1581. 3. 7	풍기군수 안봉이 고모필 4자루	雲院雜錄
1581. 3. 14	풍기군수 안봉이 참떡 4자루	雲院雜錄
1581. 11. 6	풍기군수 안봉이 술 2병, 고기 3근, 닭 1마리	雲院雜錄
1581. 11. 16	풍기군수 안봉이 고모필 8자루	雲院雜錄
1581. 11	풍기군수 안봉이 분주하여 제술 시권을 채점하지 못해 미안함을 전하고 내일 罷接한다고 하므로 청주 1동이, 生肉 5근, 약과 1그릇, 생치 1마리, 잣 1말, 고모필 6자루를 보냄	雲院雜錄
1582. 2. 6	감사 尹卓然 <sup>135</sup> 이 장지 10권, 쌀 1곡, 콩 1곡	雲院雜錄
1582. 6. 30	풍기군수 안봉이 개 3마리, 청주 2병	雲院雜錄
1582. 7. 6	감사 윤탁연이 참떡 10자루, 續木 10필	雲院雜錄
1582. 7. 15	풍기군수 안봉이 개 2마리, 청주 2병	雲院雜錄
1582. 11. 22	풍기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와서 머물며 공부한다고 하므로 상청주 1병, 중청주 1병, 獐脚 2개를 보냄	雲院雜錄
1583. 11. 30	풍기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모여 공부한다고 하니 양모필 7자루, 청주 2병, 벽어 4마리를 보냄	雲院雜錄
1583. 12. 30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2병, 닭 2마리, 벽어 1동음	雲院雜錄
1584. 1. 5	풍기군수 안봉이 떡 1그릇, 청주 2병, 벽어 2동음	雲院雜錄
1584. 1. 14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2병, 청어 2동음, 건시 1첩	雲院雜錄
1584. 7. 3	풍기군수 안봉이 청주 2병, 乾雉 1마리, 벽어 2마리	雲院雜錄
1585. 9. 20	풍기군수 안봉이 中米 1곡	雲院雜錄
1585. 10. 26	감사 李山甫가 콩과 쌀 각 1곡	雲院雜錄
1585. 11. 21	풍기군수 金大鳴이 청주 1동이, 벽어 4동음	雲院雜錄
1586. 2. 6	풍기군수 김대명이 청주 2병, 鹿豆 1부	雲院雜錄
1587. 1. 10	풍기군수 김대명이 잣 5말	雲院雜錄
1587. 2. 26	풍기군수 김대명이 荒租 10섬	雲院雜錄
1587. 5. 25	풍기군수 金滉이 소주 1병, 개 1마리	雲院雜錄
1587	풍기군수 김황이 쌀 1섬	雲院雜錄
1587. 12. 12	감사 權克智 <sup>136</sup> 가 쌀과 콩 각 1섬	雲院雜錄
1588. 겨울	감사 金暉 <sup>137</sup> 가 쌀과 콩 각 1섬, 『儀禮圖』 10권, 『唐鑑』 5권	雲院雜錄
1589. 11. 19	풍기군수 邊以中이 심신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학문을 하는 여가에 과거공부에도 힘쓸 것을 격려하며 반찬에 쓰라고 快脯, 소고기, 천엽, 간 각 1부를 보냄	雲院雜錄
1594. 8. 24	영덕현령 安璣이 兵亂으로 관아에 축적된 어염 등이 모두 고갈되어 보낼 수 없음을 탄식하며 제향에 쓸 대구 2마리, 광어 2마리, 生鰻 2되, 은어 100마리, 홍합 4되, 식염 5되, 감곽 10단을 보냄	雲院雜錄
1594. 8. 28	金九鼎 <sup>138</sup> 이 제수에 쓸 해물 소금 3섬, 건대구 5마리, 광어 3마리, 麻魚 12마리, 도야미 5마리, 잡어 40마리, 白條 2첩, 전복 1첩, 蚌鵝 200개, 홍합 3말을 보냄	雲院雜錄
1595. 2. 20	풍기군수 李春祺가 황조 3섬	雲院雜錄
1596. 秋	창락찰방 최산립이 서원문회집사에게 酒米 3말, 누룩 2장, 닭 2마리, 대구 2마리, 미역 5속, 가지 10개를 보냄	雲院雜錄
1596. 8월	군수 이춘기가 中米 1섬	雲院雜錄
1599. 1. 16	관찰사 韓浚謙이 金澤龍과 함께 서원에 유생들을 모아 제술을 행함(白日場)	操省堂先 生文集
1599. 4월	호조정랑 李詠道 <sup>139</sup> 가 참떡 10개, 백지 3권, 좁쌀 10말, 콩 5말	雲院雜錄

1599. 6. 20	충청감사 金玠 <sup>140</sup> 이 편지를 받은 즉시 물품을 보내지 못해 미안함을 전하고 참먹 2자루, 松墨 3자루, 黃筆 2자루, 白筆 3자루, 장지 5속을 보냄	雲院雜錄
1600. 6. 26	김구정이 관청의 물자가 고갈되어 한 번 쓸 종이도 올릴 수 없는 형편을 말하고 포묵 2필을 보내며 유생들에게 과거시험이 가까워오니 합격하기를 기원함 <sup>141</sup>	雲院雜錄
1600. 10월	종이 값이 올라 구입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최산립이 백지 5속을 보냄	雲院雜錄

- 124) 1549년 3월 14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어 1550년 4월까지 재임(『명종실록』 권 9, 명종 4년 3월 14일).
- 125) 『禮部韻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禮部韻略』은 당나라 때 과거에 사용한韻을 바탕으로 蘇軾 등이 詳定한韻書. 정조는 科場에 頒行되는 조신의韻書에 소홀한 점이 많다는 이유로 改撰할 것을 명하여, 『禮部韻略』 이후에 나온 몇 종의 운서를 종합적으로 고증하여 단점은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이덕무 등이 편찬, 1796년 『奎章全韻』을 간행하였다(『청장관전서』, 권 24, 편서잡고 4, 「규장전운법례」; 『홍재전서』, 권 183, 羣書標記, 「奎章韻瑞八卷」).
- 126) 1556년 8월 1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명종실록』 권 21, 명종 11년 8월 1일).
- 127) 1557년 8월 27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명종실록』 권 23, 명종 12년 8월 27일).
- 128) 1564년 1월 12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명종실록』 권 30, 명종 19년 1월 12일).
- 129) 徐庵(1529~1573)의 본관은 대구. 자는 鎭之, 호는 春軒. 퇴계의 문인. 1555년 진사, 1560년 문과, 예조상훈, 함경도도사를 거쳐 성균관 司藝를 역임.
- 130) 1566년 윤 10월 3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명종실록』 권 33, 명종 21년 윤 10월 3일).
- 131) 1569년 윤 6월~1570년 4월까지 경상도관찰사에 재임. 퇴계의 문인.
- 132) 경상도도사 俞大脩(1546~1586)의 본관은 기계, 자는 思永, 예조판서 汝霖의 증손, 퇴계 문인.
- 133) 尹根壽(1537~1616)의 본관은 해평, 자는 子固, 호는 月汀, 영의정 윤두수의 동생. 퇴계의 문인. 1558년 문과. 1574년 경상감사, 1589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파견, 1591년 정철 사건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임진왜란 때 예조판서로 다시 기용.
- 134) 1578년 1월 19일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선조실록』 권 12, 선조 11년 1월 19일).
- 135) 1582년 영남에 흉년이 들자 왕이 경상도관찰사로 특채. 퇴계의 문인.
- 136) 1587년 7월 27일 경상도관찰사에 임명(『선조실록』 권 21, 선조 20년 7월 27일).
- 137) 1588년~1590년, 1591년~1592년까지 경상도관찰사로 두 차례 재임. 퇴계의 문인.
- 138) 金九鼎은 풍기 출신으로 1550년생, 본관은 함창, 자는 景鎮. 1572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73년 생원, 1582년 문과, 1611년 소수서원 원장을 지냄. 1547년 소수서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7월 거절에서 관찰사에게 시상 받은 金希俊의 아들.
- 139) 李詒道(1559~1637)의 본관은 진보, 퇴계의 손자.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임진왜란 때는 안도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움. 1594년 충청도관관, 1598년 호조좌랑, 호조정랑, 이후 현풍현감, 청송부사, 영천군수 등을 지냄.
- 140) 金玠(1540~1616)의 본관은 예안. 자는 希玉, 호는 柏巖. 영천 출신으로 퇴계의 문인. 1563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64년 생원, 1576년 문과. 임진왜란 당시 경상도안집사, 이후 경상우도관찰사를 거쳐 1599년 충청감사. 영천 구산서원에 제향.
- 141) 당 해는 庚子 式年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식년시를 행하지 못하여 다음 해 5월로 미루어 시행하였다.

### II-3. 居接의 운영 방식과 官學的 성격

설립 초기 3~4년간 백운동서원 강학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설립 당시 주세봉이 제정한 院規와 안향의 후손인 安玟이 1546년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작성한 斯文立議, 입원 유생의 명단을 기록한 入院錄 등의 자료를 통해 초기 강학의 운영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경상감사 안현 등이 서원 운영의 제반 규정을 기록한 「斯文立議」와 「白雲洞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膳錄」<sup>142)</sup>에서는 초기 백운동서원의 강학 실태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1546년 2월에 작성된 「斯文立議」에서는 “이 서원에 와서 공부한 사람은 5년이 채 안 되어 모두 명사가 되어 연이어 과거에 급제하니, 사람들이 말하길 ‘서원에 들어가는 자는 곧 급제한다’”고 하고, 또 1546년 5월 「雜物分定行移膳錄」에서는 “서원에서의 유생 거접은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 폐지할 수 없고, … 본도는 인재가 많은 고장이라 우리나라의 ‘鄒魯之鄉’이라 부르면서도 유생 양육의 일은 다른 도보다 뒤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이미 지성으로 설립한 일을 폐지하고서 행하지 않고 있으며”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초기 서원 강학이 다수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할 만큼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평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546년 무렵 이미 강학이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기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 서원 강학이 과거교육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입원록에 수록된 입원 유생의 과거 입격 연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1543년부터 斯文立議가 제정<sup>143)</sup>된 1546년까지 입원 유생들의 입원 연도와 과거 입격 연도는 다음 <표 3>와 같다.<sup>144)</sup>

<표 3>. 소수서원 입원유생의 과거 입격연도(1543~1546)

입원연도	성명	과거종류	합격연도	거주지	방목	인원수
1543	朴承健	사마시	1543	順興	수록	1
	申元祿	-	-	義城	수록	2
	金八元	사마/문과	1555	安東	수록	3
1544	李 禔	사마시	1537	豊基	미확인	1

142) 『紹修書院膳錄』, 「白雲洞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膳錄」. 이하 「雜物分定行移膳錄」으로 약칭.

143) 「斯文立議」의 서문은 1547년 2월에 작성되었으나 서문 이하 19개 조항이 작성된 것은 1546년 2월이다. 「雜物分定行移膳錄」의 기사도 1546년부터 시작되므로 여기서는 사문입의 제정 기준을 1546년 2월로 보고 그 이전까지 입격유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44) 『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權應參	사마시	1540	豊基	수록	2
	琴 軻	사마시	1540	榮川	수록	3
	朴 悅	사마시	1543	密陽	수록	4
	朴文斗	-	-	醴泉	수록	5
	閔著元	사마시	1537	榮川	미확인	6
	權好金	-	-	醴泉	수록	7
	趙 肅	-	-	禮安	수록	8
	權叔鸞	-	-	豊基	수록	9
	趙 穆	사마시	1552	禮安	수록	10
權台壽	사마시	1552	醴泉	수록	11	
1545	孫盡孝	-	-	安東	수록	1
	金克一	문과	1546	安東	수록	2
	孫盡忠	사마시	1546	安東	수록	3
	李 愈	사마시	1555	醴泉	수록	4
	文命凱	사마/문과	1552/1568	榮川	수록	5
	權應箕	사마시	1549	仁同	수록	6
	安秀臣	사마시	1549	醴泉	수록	7
	李光彦	사마시	1558	軍威	수록	8
	黃秀良	-	-	豊基	수록	9
李宗仁	-	-	醴泉	수록	10	
太命龍	-	-	醴泉	수록	11	
1546	閔龜瑞	사마시	1531	榮川	수록	1
	李克儉	사마시	1531	豊基	수록	2
	具汝霖	사마시	1537	安東	미확인	3
	金 滉	사마시	1546	榮川	수록	4
	郭 澣	사마시	1549	奉化	미확인	5
	崔 霨	-	-	三陟	수록	6
	李文奎	-	-	安東	수록	7
	黃得謙	사마시	1549	豊基	수록	8
	李文井	-	-	安東	수록	9
	權東美	사마시	1568	安東	수록	10
	張 翼	-	-	龍宮	수록	11
	黃潤奎	-	-	豊基	수록	12
	黃應奎	사마/문과	1543/1569	豊基	수록	13
	朴大任	사마시	1552	安東	수록	14
	李國樞	사마시	1546	榮川	수록	15
安定臣	-	-	醴泉	수록	16	
李 禮	-	-	豊基	수록	17	
裴 淵	-	-	金海	수록	18	
합계	43명					

\*방목란의 ‘미확인’은 입원록에 입격연도가 기록되어 있으나 방목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원에 들어오기 전의 입격자를 제외하고, 사문입의가 작성되기 전(1546년 2월)인 1545년까지 입원한 유생 25명 중 입원한 해를 포함하여 그 이후 과거에 입격한 유생은 총 10명이다. 그 중 사문입의가 작성된 1546년까지 과거 입격 연도를 제한하면,

입원 이후 과거에 입격한 사람은 1543년에 입원하여 같은 해 입격한 朴承健<sup>145)</sup>, 1545년에 입원하여 다음 해에 입격한 金克一<sup>146)</sup>, 孫盡忠 3명으로 전체 입원 유생의 12%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 입격연도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1546년까지 입원한 유생 중 입원 이후 과거에 입격한 사람은 전체 43명 중 18명으로 약 42%가 된다. 즉, 1546년까지는 입원 유생 10명 중 적어도 1명 이상이, 1546년 이후 입격자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적어도 4명 이상이 서원에 들어온 이후 과거에 입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국의 입격자 수를 감안하면 ‘이 서원에 들어가면 곧 급제한 다’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초기 3~4년간 백운동서원의 강학이 적어도 과거교육에 있어서만큼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sup>147)</sup>

그런데 이때의 과거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역시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545년 봄에 관찰사 權應昌이 서원에 떡 20홀과 名楮 30장을 보냈다는 기사<sup>148)</sup>에 따르면, 名楮는 과거 시험에 쓰는 종이이므로, 당시 서원에서 과거공부를 위한 居接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때때로 거접이 시행되긴 하였으나 이 시기 강학은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당시 강학을 위한 제도나 시설, 구체적인 시행 방침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세붕이 서원 건립 당시 제정한 원규에 강학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원규의 서두<sup>149)</sup>에서 ‘제사를 삼가고, 현인을 예우하며, 사우를 수리하고, 창고를 비축하며, 서책을 점검한다<sup>150)</sup>’는 5개 강령을 제시하고

145) 朴承健은 성균진사 朴珩의 4남 중 첫째로, 문정공 安軸의 아우인 安輯의 曹孫이자 서원 설립 시 많은 힘을 쓴 忠順衛 安配坤의 사위이다(『竹溪志』, 雜錄後, 「豊基俗尙記」). 퇴계 문인이자 1559년~1563년 풍기군수로 재임했던 嘯臯 朴承任의 형이며 찰방을 지냈다. 언행록에 따르면, 박승건은 퇴계가 20세 되던 해 영천의 어느 의원에서 퇴계와 함께 공부한 적이 있다(『退溪集』, 言行錄 2, 「類編」, <資品>). 4형제 중 넷째인 朴承倫 역시 퇴계문인으로, 1552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였으며, 1584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146) 金克一(1522~1585)은 안동 출신으로 아우 明一, 誠一, 復一과 함께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특히 守一·明一·誠一·復一 4명의 아우와 함께 5형제가 모두 소수서원에서 공부하여 소과에 입격하였다. 守一은 1551년 입원하여 1555년 생원, 明一·誠一·復一 세 사람은 1560년에 입원하여 1564년 생원이나 진사시에 모두 입격하였다.

147) 이는 물론 입원 유생이 입원 이후 과거를 위한 서원 강학에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입원록 외에 16세기 백운동서원의 강학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나 구체적인 강학 관련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입원록의 기록만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148) “乙巳春 方伯權公應昌 油煙二十笏名楮三十張惠送院中”(『雲院雜錄』).

149)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 祠院, 紹修書院, 「院規」).

150) 서책 점검에서는 수령 자체들이 멋대로 책을 서원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하고, 재계일에 헌관이 서책을 점검하고 햇빛에 말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759년 院中完議에는 ‘관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서책 유실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책 관리가 중시된 것은 유실에 대한 염려 뿐 아니라 당시 서적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세붕은 당시

이하에서는 이 5개 강령에 대한 상술 및 서원의 임원 조직, 수령 자제에 대한 경계, 활쏘기와 잔치에 대한 경계, 守直의 부세 면제, 유생의 입원 자격, 입원록의 작성과 의미 등에 대하여 규정했을 뿐, 강학에 대한 지침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생의 입원 자격을 입격자 중심으로 규정한 대목에서 그가 서원을 건립할 때 구상했던 교육의 성격, 즉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에게 科業을 준비시키는 곳으로 서원을 인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산서원 원규<sup>151)</sup>에서 비록 과거공부를 금하지는 않았으나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본질로, 科業을 말단으로 규정한 퇴계의 서원관<sup>152)</sup>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입격자를 위주로 한 주세붕의 입원 규정에 대해, ‘주자의 백록동서원에서 거인을 받아들였던 것을 본받은 것’<sup>153)</sup>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주자가 백록동서원에 擧人을 받아들인 것은 常規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자가 서원을 일으키고 복원한 목적은 과거를 통하여 利錄을 구하는 학문에 반대하고 道學과 義理를 강론하는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주자는 서원 건립의 제도적 기반에 있어서는 관의 힘을 빌렸지만<sup>154)</sup>, 교육이념에 있어서만큼은 도학과 위기지학을 표방하며 서원이 추구하는 사학의 정신이,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당시 관학과는 명백히 차별화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자도 과거를

---

순흥 안씨 출신으로 관직에 나가 있던 牧使 安璋, 承旨 安玟, 安珽 등에게 편지를 보내, 『朱子全書』와 『朱子語類』를 아직도 구입하지 못해 자나 깨나 갈망하고 있고, 『綱目』은 사고 싶으나 책값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二程全書』는 3년 전 관찰사에게 간행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백발이 다 되도록 구하지 못하다가 한 번 빌려본 후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 간행을 우선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서원의 장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때로는 돈이 있어도 조선에서 미처 간행되지 못했거나 유통이 되지 않아 원하는 책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남의 책을 빌려 수십 권씩 전사하거나, 청탁과 기증에 의존하거나, 관리들에게 서적의 간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晦軒先生實記』, 권 4 부록, 祠院, 紹修書院 條, 「與牧使安璋承旨安玟書」 및 「與安珽然書」).

151) 이산원규에서 퇴계는 ‘과거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땅히 내외·본말·경중·원급의 순서를 알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함으로써, 서원에서도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깥과 말단에 해당하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서원 교육의 본질은 ‘성현의 가르침을 지켜 온갖 خوبی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연으며, 體를 밝히고 用에 맞게 하는 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退溪集』 권 41, 雜著, 「伊山院規」).

152) 주세붕과 퇴계의 서원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만조의 논의 참조(정만조, 같은 책, 23~47쪽).

15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33쪽; 222쪽.

154) 정순우는 중국 서원이 발흥 과정에서 관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며, 송대 서원이 관학제도와 사학정신의 결합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학과 사학의 성격을 중층적으로 함께 갖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세붕의 서원 창설 역시 송대 서원의 특징인 ‘官私合辦’의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순우, 같은 책, 21~25쪽). 그러나 여기서 말한 ‘사학정신’을 주자가 서원을 통해 추구했던 ‘道學’으로서의 강학이념으로 볼 때, 그것이 소수서원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주세붕 때가 아닌 17세기 이후에 와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준비하는 유생들의 서원 출입을 완전히 금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백록동서원에서 한 차례 강회를 마치고 유생들이 모두 귀가하여 서원이 고요하게 비어 있는 시간을 틈타, 鄉試에 입격한 뒤 다음 시험을 준비하거나 발령을 기다리던 고을의 舉子들을 불러 백록동서원에서 공부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畧目’<sup>155)</sup>이라는 문서를 서원에 보내 다음과 같이 허락을 구하고 있다.

삼가 생각건대, 나라에서 과거로 선비를 취하는 것은 대개 前代의 제도를 따른 것이지, 經義, 詩賦, 策論 등의 구구한 것으로서 천하의 선비를 다 얻기에 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선비가 강학하고 修身하여 나라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스스로 근거 없는 말을 외우고 엮어 하루만에 試官의 요구에 부응하고 마는 것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과거에서 향시에 합격하여 省에 나가 補任을 기다리는 선비가 28인인데, 그들은 학문과 행실이 훌륭하여 이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칭송하니, 고을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까닭과 선비가 공부하여 나라의 쓰임을 기다리는 뜻은 앞에 말한 바와 같으니, 이에 制軍과 함께 그것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지금 백록동서원의 제생이 각자 흩어져 귀가하여 산림이 고요하니, 바로 공부하는 자가 생각에 침잠하여 학문에 나아가기 적합한 곳입니다. 制軍이 기꺼이 오면, 마땅히 都養에게 알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게 하자는 일로 이와 같이 말씀드리니, 반드시 可否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sup>156)</sup>

이 글을 통해 당시 관학에 대한 주자의 비판의 핵심은, 과거제도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당시 관학의 왜곡된 실태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학문과 정치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內聖外王과 修己治人은 유학의 정치철학이자 근본이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복원함으로써 실현하고자 했던 서원 교육의 본질은 科學이 아닌 道學에 있었다. 위 畧目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지방관으로서 때때로 백록동서원에 舉子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이는 서원의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 결코 科學을 서원 교육의 본업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즉, 주세붕이 입격자 위주로 입원 자격을 규정한 것은, 주자의 백록동서원 운영 방식을 본받았다기보다는 오히려

155) 『晦庵集』 別集 권6에는 「招舉人入白鹿畧目」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 글이 畧目이라는 형식의 공문서임을 알 수 있다.

156) “恭惟國家以科舉取士 蓋循前代之舊規 非以經義詩賦策論之區區者 爲足以盡得天下之士也 然則士之所以講學修身 以待上之選擇者 豈當自謂止於記誦綴緝無根之語 足以應有司一旦之求而遂已乎 今歲科場解發 赴省待補之士二十有八人 文行彬彬 識者蓋稱之 郡亦與有榮焉 然惟國家之所以取士 與士之所以爲學待用之意 有如前所謂者 是以更欲與諸君評之 今白鹿洞諸生 各以散歸 山林閑寂 正學者潛思進學之所 諸君肯來 當戒都養給館致食以俟 專此咨白 可否須報”(『白鹿洞書院古志五種』, <白鹿洞書院新志> 권4, 「招舉人入白鹿洞書院狀」, 中華書局, 1995).

주자와는 반대로, 서원 교육의 본질을 科業으로 인식한 그의 서원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원 자격 외에 주세봉의 원규에는 강학 관련 지침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학 유생의 정원을 10명으로 처음 규정한 것도 사문입의에 와서였다.<sup>157)</sup> 또한 상시 공궤 유생 10명이 들어와 거접할 기숙사도 1546년에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의 기숙사는 10명의 유생조차 수용하지 못할 만큼 협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58)</sup> 게다가 「雜物分定行移騰錄」에 1546년 5월 거접이 시작되면서 유생을 공궤할 물자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세봉이 건립 당시 ‘춘추 향사를 지내고 남는 돈으로 유생을 공궤하기에 족하였다’고 할 정도로 충분했던 寶米 역시 1546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초기 백운동서원에서는 거접을 중심으로 한 과거 교육이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강학 규정의 미비, 거접 유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과 유생 공궤 비용 등 강학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강학이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원 강학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安珪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경상도 전역에 걸쳐 백운동서원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이 제도의 영속적 시행을 위해 「斯文立議」를 작성한 1546년부터였다. 斯文立議를 통한 경상도 전역의 전폭적 지원을 토대로 1546년 5월 무렵 백운동서원의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거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거접의 목적과 방법, 참여 대상과 인원, 거접유생에 대한 대우, 거접의 개설 시기, 수령·관찰사 등 지방관의 참여와 지원 방식 등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사문입의 제정 직후 관찰사 안현이 ‘시간을 정하여 製科하는 것을 서원의 관례로 삼도록’<sup>159)</sup> 한 것에 따르면, 16세기 거접의 목적은 주로 과거 대비 제술 교육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거접의 방식도 주로 과거시험 과목에 대한 제술 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詩賦·疑義·策 등 과거 문체<sup>160)</sup>로 試題를 출제하고, 유생들이 정해진

157) “儒生十員爲額 四時常養 … 或過額數 誠心供頓”(「斯文立議」).

158) 1546년 6월 진주목에서 적발된 도적장물을 서원에 수송하여 그 비용으로 9월에 유생의 入接房舍를 추가로 조성하였다(“豊基白雲洞常養儒生入接房舍加造成次以 銅鐵價木棉乙良 同郡良中立旨 枚舉輸送 受到付上使向事”; “儒生入接房舍祭器庫隨宜造成”, 「雜物分定行移騰錄」, 가정 25년 6월 26일 및 9월 14일).

159) “今送題脚 使諸秀才定時以製科次 如十二徒先生或遇試急作古事 後亦爲例”(『雲院雜錄』, 가정 26년 2월 23일).

160) 式年試 기준으로 詩賦는 진사시, 疑義는 생원시, 策은 문과 初試와 覆試의 終場 및 殿試의 시험과목이었다(김경용, 『科擧制度和 韓國 近代教育의 再認識』, 교육과학사, 2003. 291~292쪽에서 재인

시간 안에 試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考試하여 성적을 매기고 석차에 따라 시상을 베푸는 방식으로 거접이 시행되었다. 이 때 試題의 출제와 考試는 주로 풍기군수가 담당하고, 때때로 관찰사나 인근 고을의 수령이 맡기도 하였다. 1547년 2월 거접에서는 관찰사 안현이 試題를 출제하고, 7월에는 영천군수가 출제와 고시를 담당하였으며 시상을 위한 상품은 관찰사가 마련해주었다.<sup>161)</sup> 1549년 4월의 거접에는 풍기군수 이황이 詩賦疑義 각각 하나씩을 출제하여 보내고,<sup>162)</sup> 1550년 3월의 거접에서는 관찰사 沈通源이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쓸 종이 등을 監封하여 보내면서, 禮房記官으로 하여금 직접 서원 유생에게 전달하고 물명 하나하나에 대하여 수령했다는 회답을 받아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sup>163)</sup> 이 때 거접에 관찰사 심통원이 제술 상품을 마련하여 보낸 것은, 당시 서원의 賜額을 기념하여 특별히 시상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64)</sup> 1558년 6월 거접에는 풍기군수 張文輔가 策文을 써서 보내는 등,<sup>165)</sup> 거접의 試題로는 詩賦나 疑義 외에 策文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또한 1547년 1월, 주세붕은 ‘여러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할 날도 멀지 않았으니 오직 부지런히 절차타마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sup>166)</sup>라고 하며, 풍기군수에서 체직되어 나간 뒤에도 백운동서원에 편지를 보내 거접유생들의 과거공부를 격려하였다. 즉, 16세기 거접은 내용에 있어서도 科業을 위주로 하고, 試題의 출제와 考試, 시상, 재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풍기군수와 관찰사 등 지방관이 주도함으로써, 거의 官學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거접의 참여 대상과 인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사문입의에서 상시 거접 인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상주훈도<sup>167)</sup>와 상의하여 선발하

용).

161)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6년 7월 27일.

162) 『雲院雜錄』, 己酉 孟夏 4일.

163)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9년 3월 12일.

164) 당시 관찰사 심통원은 퇴계의 요청으로 국가에 啓請하여 그 해 백운동서원은 ‘紹修書院’으로 사액을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1550년(명종 5) 2월 11일,李建 등의 청에 따라 백운동서원에 편액과 서적을 하사하기로 결정하고(『명종실록』 권 10, 명종 5년 2월 11일), 편액을 ‘紹修’로 정하여 대제학 申光漢에게 기문을 짓게 하고 3월에 雲閣으로 장식한 편액과 사서오경, 성리대전 각 1건씩을 반사하였다(『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9년 6월 초4일).

165) 『雲院雜錄』, 戊午 季夏晦日.

166) “諸彥應策且未遠也(…)惟祝切瑳萬重”(『雲院雜錄』, 丁未 新正).

167) 당시 상주는 1596년 대구로 옮기기 전까지 경상도의 관찰사령이었으므로, 거접유생의 선발을 풍기훈도가 아니라 상주훈도에게 맡긴 것은 경상도 전역을 거접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문입의에서 백운동서원의 거접 대상을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윤희면은 ‘유향소와 사마소를 기반으로 향촌질서를 장악해오던 풍기사림들이, 주세붕이 설립한 서원이라는 새로운 향촌기구에 의해 불필요한 영향이나 압력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 하에 서원에 비협조적이며 거부하는 태도를 지닌 결과 서원 강화에도 호응을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대상 지역을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윤희면,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풍기사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도록 하였으며, 1560년 풍기군수 朴承任이 ‘원근에서 흠모하고 학자들이 운집하여 사시사철 공취하는 학생이 많을 때에는 20여 명에 이르렀다’<sup>168)</sup>는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 전역에서 보통 10명 내지 많게는 20명 정도의 유생이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47년 7월의 거첩에서 관찰사에게 시상 받은 유생들의 명단<sup>169)</sup>을 통해, 당시 거첩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입원 자격과는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시상을 받은 사람은 생원 李禔와 權應參, 그 외 南繼李·郭瀚·韓祐·金希俊 등 총 6명이었다. 입원록에 따르면, 그 중 李禔는 1537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1544년 백운동서원에 입원, 1571년 원장을 지내고, 權應參은 1540년 생원시에 입격, 1544년 서원에 입원하였으며, 1554년에는 원장을 지냈다. 金希俊은 1547년에 입원하였으며, 南繼李·郭瀚·韓祐는 입원록에 기록되지 않았고, 네 사람 모두 이후 사마방목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sup>170)</sup> 즉, 입격자가 아님에도 金希俊이 기록된 것은, 아마 주세붕의 입원 규정에 따라 소과 초시에 입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3명이 거첩에는 참여하였지만 입원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초시에도 입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입원 기준과 달리, 당시 서원 거첩은 소과나 초시에 입격하지 못한 유생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첩에 참여한 유생들에게는 숙식 뿐 아니라 거첩에서 제술에 쓰이는 지필묵, 과거에 응시할 거첩유생들이 科場에서 쓸 名紙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물품 일체를 서원에서 제공하였다. 1545년 봄, 관찰사 안응창은 떡 20홀과 名楮 30장을,<sup>171)</sup> 1546년 2월 관찰사 안현은 떡 10자루, 6월에는 부채, 붓, 떡 각 11점 및 종이 5속을 보냈다.<sup>172)</sup> 지필묵 외에, 開接이나 罷接 시, 혹은 거첩 도중에도 풍기군수나 인근고을의 지방관 및 관찰사가 거첩의 개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술과 안주, 음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1547년 2월 14일에는 안현을 통해 백운동서원에서 거첩한다는 소식을 들은 右兵使 金舜臯가 축하한다는 인사와 함께 과메기 30동음, 청어 100동음, 통대구 30마리를 보내 유생들을 격려하였다.<sup>173)</sup> 관찰사 안현도 한성부우윤으로 체직되기 직전인 1547년 2월 23일 청주 2동이, 生雉 3마리, 닭 3마리와 함께 거첩에 쓸 제술 시험문제를 지어 보냈다.<sup>174)</sup> 1547년 4월 11일에는, 안현의 후임으로

2005, 34~45쪽 참조).

168) “遠近欽慕 學子雲集 四時常養 多或至二十餘員”(『嘯臯集』, 권 3, 書, 「代紹修書院有司上戶曹書」).

169)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6년 7월 27일.

170) 『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171) 『雲院雜錄』, 乙巳 春.

172) 같은 책, 가정 25년 2월 초4일; 가정 25년 6월 11일.

173) 같은 책, 丁未 2월 14일.

174) 같은 책, 가정 26년 2월 23일.

은 관찰사 任虎臣<sup>175)</sup>이 부임 직후 거점 유생들에게 壯紙 15첩, 油煙墨 10丁, 松墨 5자루, 羔毛筆 20자루를,<sup>176)</sup> 같은 해 가을에는 술 2동이와 생치 5마리, 대구 5마리, 광어 7마리, 잣 2말을 서원에 보내 거점을 지원하였다.<sup>177)</sup> 거점유생들에게는 심지어 과거 시험장에서 필요한 지필묵까지 서원에서 마련해주었다. 1546년 6월 29일 관찰사 안현은 ‘서원의 거점유생들이 가을 과거 시험장(秋場)에서 쓸 名紙를 마땅히 보내 주어야 하지만 봉상한 것 중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므로 龍宮縣에 關文을 보내 도련지 3장을 서원에 봉상하도록<sup>178)</sup> 조치해주었다. 이 때 ‘가을 科場’이란 그 해 10월에 있었던 丙午 式年試<sup>179)</sup>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후임 관찰사 임호신도 1547년 7월 27일, 영천군수가 출제, 고시한 거점 유생들의 제술 결과를 첩보하자 석차에 오른 유생들에게 역시 가을 과거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상품을 분급한 뒤 감영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때 1등을 한 생원 李禔와 權應參에게는 각 名紙 4장, 고모필 3자루, 유연묵 2자루씩, 2등을 한 南繼李·郭瀚·韓祐·金希俊에게는 각 명지 3장, 붓 3자루, 유연묵 2자루씩을 분급하였다.<sup>180)</sup> 이 때 ‘가을 科場’은, 이 해 9월에 있었던 講聖試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풍기군수와 관찰사는 새로 부임하면 으레 술과 음식, 지필묵 등을 보내 거점을 장려하였으며, 그 외 도사, 찰방, 경차관 및 경기감사, 충청감사 등도 서원에 물품을 보낸 기록이 확인된다.<sup>181)</sup>

16세기 거점의 개설 시기 역시 「雜物分定行移曆錄」과 『雲院雜錄』에 지방관이 試題를 출제하여 서원에 보낸 기록, 罷接과 開接 시 酒饌을 베푸는 기록, 거점유생들에게 제술 상품과 지필묵 등 각종 물품을 수송한 기사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48년 11월 19일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현재 서원에 도착한 인원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술과 음식을 보낸’<sup>182)</sup> 기사와 1581년 11월 풍기군수 안봉이 ‘내일 罷接한다고 하므로 술과 음식, 붓 등을 보낸다’<sup>183)</sup>는 기사에 따르면, 백운동서원의 거점은 16세기부터 상시 거점이 아니라 開接日과 罷接日을 정해두고 일정 기한동안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설 시기는 앞의 <표 2>에서

175) 任虎臣은 명종 2년(1547) 2월 19일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명종실록』 권 5, 명종 2년 2월 19일).

176)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6년 4월 11일.

177) 『雲院雜錄』, 丁未 秋.

178)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5년 6월 29일.

179) 식년시는 보통 3월에 행해지나, 방목에 따르면 이 해(명종 1년) 식년시는 10월에 시행되었다.

180) 「雜物分定行移曆錄」, 가정 26년 7월 27일.

181) 자세한 내용은 앞의 <표 2> 참조.

182) 『雲院雜錄』, 戊申 11월 19일.

183) 같은 책, 辛巳 11월.

볼 수 있듯이, 1546년 6월, 1547년 2월·4월·7월, 1548년 11월, 1549년 4월, 1550년 3월, 1558년 6월, 1581년 11월 등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사계절에 모두 걸쳐 개설되고 있다. 시기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형편에 따라 그때그때 개설되었던 것 같다. 다만, 과거가 있는 해나 상식년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접이 개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개설된 ‘四時居接’은, 겨울 3개월 동안만 居齋를 개설했던 18세기의 ‘三冬居齋’나, 가을과 겨울에는 居齋와 通讀을, 봄과 여름에는 白日場과 居接을 개설했던 19세기와 달리 16세기 강학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 밖에 1549년 4월의 거접에서는 거접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칠 때까지 제술의 試題 출제 뿐 아니라 유생 대우, 음식 접대에 이르기까지 군수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당시 풍기군수 이황은 거접이 시작되기 직전 유사 金仲文에게 편지를 보내 ‘지금 太생원이 거접에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거접에 올 인원이 필시 많을 것입니다. 유생들에게 제반사항을 공급하는 일에 하인이 신중하지 못할까 염려되니, 반드시 시시때때로 살펴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sup>184)</sup>고 당부하고 있다. 또 얼마 뒤 거접이 시작되었는데 웅천의 어물이 오지 않아 반찬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지자 ‘원중의 반찬을 마련하는 고생이 얼마나 심하십니까’라고 위로하며 청어 200마리를 보내고, 더불어 寶米 수납을 독촉하며 서원 재정 관리를 당부하였다.<sup>185)</sup> 4월 4일에는 詩賦와 疑義로 각 하나씩 試題를 출제하여 보내며, ‘근래에 제군들이 誦讀에 힘쓰고 제술은 잠시 느슨하게 한다고 하니 뜻이 매우 좋다’며 반가움을 표하고, 제술 시험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sup>186)</sup>

1558년 6월 15일에는 풍기군수 張文輔가 홀로 서원에 머물며 봉우를 기다리는 玄上舍<sup>187)</sup>에게 술과 닭고기를 보내고, 보름 뒤인 6월 30일에 유생들이 모여 거접이 시작되자 청주 1병, 蘇魚 40마리와 함께 試題로 策文을 출제하여 보냈다.<sup>188)</sup> 1566년 4월<sup>189)</sup> 풍기군수 趙完璧은 ‘諸君盛會鍊做’한다고 하므로 서원에 술과 안주를, 1568년 6월<sup>190)</sup>에도 풍기군수 李逗春이 ‘諸賢聚會喜慰不淺’, ‘數賢加聚喜仰喜仰’이라 하며 술과

184) 『退溪續集』, 권 6, 書, 與金仲文 己酉.

185) 같은 책, 같은 곳, 與金仲文.

186) 『雲院雜錄』, 己酉 孟夏 4일.

187) 이 때 玄上舍는 玄太始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玄太始는 1527년에 태어나 龍宮縣에 거주, 1551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55년 을묘 식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嘉靖三十四年乙卯三月初七日司馬榜目』).

188) 『雲院雜錄』, 戊午 季夏 15일; 戊午 季夏 晦日.

189) 같은 책, 丙寅 4월 초8일.

190) 같은 책, 戊辰 6월 초8일; 6월 26일.

음식을, 1571년 3월 25일<sup>191)</sup>에는 도사 俞大脩가 ‘당일 서원에 참배하고 제군들과 학문을 토론하려 했으나 비와 다른 업무로 가지 못해 미안함을 전하고, 더욱 정진하여 인재를 기르는 기대에 부응하라’는 격려와 함께 술과 고기, 음식을 보냈다. 1577년 1월, 4월, 6월, 7월에는 풍기군수 裴三益이 관청의 업무로 분주하여 매번 강학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술과 음식, 지필묵을 보냈다.<sup>192)</sup> 1577년 6월에는 배삼익이 누차 좋은 작품을 보니 위안이 된다고 유생들의 글을 칭찬하며,<sup>193)</sup> 喪事와 사고로 서원에 참석하여 雅論을 듣지 못함을 한스러워하면서 글 쓰는 데 보태 쓰라고 백지 3속을 보내고, 또 1579년에는 ‘일전에 성대한 작품을 받아보고 여러분의 학문이 더욱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되는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sup>194)</sup>고 하며 고기와 술, 正學紙를 보내왔다. 이 때 ‘좋은 작품’과 ‘성대한 작품’이란 유생들이 거접에서 작성한 시부 제술 시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 배삼익이 이를 考試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79년 7월<sup>195)</sup>에는 文會가 성대하게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배삼익이 술과 음식을, 1580년 4월<sup>196)</sup>에도 배삼익이 학문에 정진하여 기대에 부응하라는 편지와 함께 붓 12자루와 먹 2자루를 보냈다. 1581년 11월<sup>197)</sup>에는 풍기군수 安鳳이 관청의 업무로 분주하여 제술 시권을 미처 채점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전하며 다음날 罷接한다고 하므로 청주 1동이, 生肉 5근, 약과 1그릇, 생치 1마리, 잣 1말, 고모필 6자루를 보내고, 1582년과 1583년 11월에도 ‘諸君來寓院中’, ‘諸君來會院中’한다고 하므로 술과 음식, 붓 등을 보내고 있다.<sup>198)</sup> 1589년 11월에는 풍기군수 邊以中이 심신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학문을 하는 여가에 과거공부에도 힘쓸 것을 격려하며 快脯, 소고기, 천엽, 간 등을 보내 반찬에 보태 쓰게 하였다.<sup>199)</sup>

그 밖에 『雲院雜錄』에 정황에 대한 기록 없이 목록만 수록된 물품 수송 기사 경우 거접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上式年 혹은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 으레 거접이나 백일장을 개설했던 18, 19세기 강학의 관례<sup>200)</sup>에 비추어볼 때, 상식년에 해당하거나 과거가 있었던 해에도 거접이 개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191) 같은 책, 辛未 3월 25일.

192) 같은 책, 丁丑 新正 11일; 4월 10일; 季夏 晦前 1일; 7월 7일.

193) “屢奉佳作 足慰塵想”(같은 책, 丁丑季夏晦前一日).

194) “日昨承盛作 憑想僉勝鍊況益佳 慰沃可言”(같은 책, 己卯)

195) 같은 책, 己卯 7월 17일.

196) 같은 책, 庚辰 淸和 既望.

197) 같은 책, 辛巳 11월.

198) 같은 책, 壬午 11월 22일; 癸未 中冬 既晦.

199) 같은 책, 己丑 至月 念前 1일.

200) 1727년에 작성한 居齋定規에 “若有科擧之年 則大同接及白日場等事 亦不可廢”라 하여 과거가 있는 해마다 거접과 백일장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紹修書院誌』, 「丁未九月 居齋定規」).

있다. 『雲院雜錄』에 수록된 기사 중 上式年에 해당하는 해는 1557년, 1566년, 1578년, 1581년, 1587년이며, 방목의 과거 설행 시기와 일치하는 해는 1569년(9월 알성시·10월 별시), 1574년(9월 별시), 1577년(9월 별시·알성시), 1584년(3월 친시·8월 별시), 1594년(10월 정시·11월 별시), 1596년(10월 정시), 1599년(7월 별시) 등이다. 앞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히 풍기군수와 경상감사가 지속적으로 물품을 보낸 1569년에는 9월 알성시, 10월 별시 등 두 차례나 특별 과거가 설행되었고, 풍기군수 배삼익이 1월부터 7월까지 물품을 보낸 1577년에도 9월에 알성시와 별시가 동시에 설행되었으며, 상식년이었던 1557년, 1581년, 1587년에도 풍기군수가 집중적으로 지필묵과 음식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거점이 시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599년 1월 16일에는 관찰사 韓浚謙<sup>201)</sup>이 소수서원에 유생들을 모아 제술을 행하였다. 金澤龍의 기록에 따르면, ‘기해년 孟春 16일에 소수서원에서 유생들과 모여 제술을 행하기로 方伯 韓益之<sup>202)</sup>와 약속하였다. 이날 아침 출발하여 시내를 따라 말을 타고 가는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고 바위와 골짜기가 기이하여 마치 무우에서 바람을 쏘이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는 기상을 느꼈다. 이에 7언 절구를 지어 益之에게 올리고, 아울러 풍기군수 李埵, 찰방 河受一, 원장 閔興業<sup>203)</sup> 등 제군에게 보여 화답시를 구하였다.’<sup>204)</sup>고 한다. 이 날의 제술은 당일 행한 것으로 보아 거점이 아닌 白日場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澤龍(1547~1627)은 예안 출신으로, 1570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sup>205)</sup> 1576년 생원시, 158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8세부터 月川 趙穆 문하에서 수학하고 장성해서는 南致利<sup>206)</sup>, 權宇<sup>207)</sup>와 퇴계 문하에서 동문수학하였으며, 도

201) 실록에 따르면, 한준겸은 1599년 2월 16일에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며 그 전에는 경기감사로 재직하였다(『선조실록』 권 109, 선조 32년 2월 16일).

202) 益之는 韓浚謙의 자.

203) 閔興業은 영천 출신으로 1549년생. 1569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82년 생원, 1599년부터 1600년까지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아버지 閔應祺는 1549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1570년 생원, 1565년 왕자의 사부를 지냈으며, 퇴계의 문인이었다(『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紹修書院任事錄」 1권). 1550년 퇴계가 심통원에게 사약을 청할 때 쓴 초고를 서원에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민응기편에 보낸 적이 있다(「與白雲書院諸生」, 『退溪集』, 권 35, 書).

204) “己亥孟春十六日 與方伯韓益之約會儒生於紹修書院製述 右日朝自九臯小家蓐食起行 沿溪信馬 而[三字缺] 汨瀾巖壑奇峭恍 然有風舞雲詠歸底意思 吟得七絕呈益之 兼示豐倅李[埵]察訪河[受一]院長閔[興業]諸君求和”(『操省堂先生文集』, 권 2, 詩, 「己亥孟春十六日」).

205) 『紹修書院誌』, 「入院錄」(1543~1696).

206) 南致利(1543~1580)는 안동 출신, 1563년 고종형 琴蘭秀를 통해 퇴계 문인이 되고 1564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였다. 퇴계 사후 이학통록, 계몽전의 등을 교정하고 1578년 학행으로 정구·김장생·이덕홍과 함께 유일로 친거, 사후 1653년 노림서원에 제향되었다.

207) 權宇(1552~1590)는 안동 출신, 퇴계 문인으로 1573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아버지 權大器(1523~1587)도 퇴계 문인으로 1552년 생원, 1553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였다.

산서원과 역동서원에서 함께 성리학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왕을 의주까지 호종하고 세자시강원사서를 거쳐 울산도호부관관, 안동부교수, 강원도도사 등을 지냈다. 1606년 宣武 2등 공신 靖難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 스승 월천의 연보와 草記를 수정하고 도산서원에 월천을 중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208)</sup> 許傳이 묘갈명을 지었으며, 定齋 柳致明의 문인으로 1919년 소수서원 원장을 지낸 柳必永이 묘지명을 지었다.<sup>209)</sup> 大山 李象靖의 문인이자 1790년 소수서원 원장으로 추대된 柳道源<sup>210)</sup>도 그의 旁裔孫이다.<sup>211)</sup> 金澤龍은 이 날 수십 년 전 서원에서 강학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어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고 있다.

말 타고 시내 따라 백운동 찾아오니	信馬沿溪訪白雲
굽이굽이 기암괴석에 잔잔히 물 흐르네	奇巖曲曲水泔泔
옛날에 버들 찾고 꽃 찾던 땅에서	當年問柳尋花地
그 향기 친구들과 다시 접하네	笑領同人更襲芬

208) 『操省堂先生文集』, 권 4, 附錄 師友贈遺, 「遺事」.

209) 『紹修書院誌』, 「紹修書院任事錄」 5권.

210) 같은 책, 「紹修書院任事錄」 2권.

211) 『性齋集』, 권 24, 墓碣銘, 「操省堂金公墓碣銘」.

## II-4. 16세기 居接의 의미

본래 강학의 한 형태로서의 ‘居接’은 고려시대 ‘夏課’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생들이 일정기간 집단으로 유숙하며 과거 대비 제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夏課란 崔沖의 文憲公徒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12도 전체가 매년 여름철 더위를 피해 조용하고 청량한 山寺나 누대에 모여 詩賦와 製述을 겨루던 일종의 하계학교로, 四學이나 향교 등 관학에서도 행하였으며, 가을철에 접어들면 파하였다. 대체로 음력 6월에 鄉中의 名儒, 老士를 초치하여 開接禮로 시작하여 東西接으로 편을 짜서 우열을 경쟁하였다. 또한 罷接할 때는 반드시 知製誥를 하여 試官으로 하여금 諸生의 能否를 考試하기도 하였다. 이 하과의 풍속이 뒷날 서원의 거접으로 전승되었다.’<sup>212)</sup>

조선시대에 와서 거접은 서원 뿐 아니라 성균관, 사학, 향교 등 관학에서도 과거 준비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조선후기 양사재와 향촌의 문중서당에서도 거접이 자주 활용되었다. 16세기에는 연안부사 李廷穉이 存本取息을 통해 연안향교의 거접 비용을 마련하고,<sup>213)</sup> 蒼石 李竣도 지방관으로서 향교의 거접 비용을 마련해주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sup>214)</sup> 17세기 초에는 강릉부사 鄭經世가 강릉향교의 거접에서 ‘제갈공명의 출처’를 試題로 하여 작성된 제술시권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논평 및 諸葛孔明과 伊尹의 출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덧붙여 거접 유생들에게 장문의 답변을 보내는 모습도 확인된다. 그는 마지막에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인바, 말을 수놓아 화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핑계 대면서 이와 같이 논지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科目으로서의 시를 짓는 데 있어서도 화려한 형식보다는 그 속에 어떤 뜻을 담느냐가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sup>215)</sup>

1565년 경상감사 李澤은 관에서 糧饌을 지원하여 안동부의 광흥사와 봉정사에서 都會 유생을 거접시키는 등<sup>216)</sup>, 지방의 향교 외에 관찰사가 실시하는 都會에서도 거접이 활용되었다. 또 옥과현, 순창, 남평, 능주 등 조선후기 군현의 양사재에서도 거접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sup>217)</sup> 1629년에는 예조판서 정경세가, 본래 10명으로 규정되

212) 丁淳睦,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19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쪽 및 76쪽.

213) “今將見存米與租 春而糶 秋而糶 率三分而取息一分 每存其元數 以其息數 用爲諸生飲食之具 寢處之資 逐年如是 積之至於五年之久 則可爲十數人居接之料”(『四留齋集』 補遺, 雜著, 「延安鄉校記」).

214) “前冬居接之日 適因府使遭慘禍 未嘗一往校中叩擊其勤慢 今未知所做之功幾何 正月已拋去 前頭兩朔仍 棲 以補前日不足之數如何 糧米二碩 赤豆五斗 燈油二斗 油墨十笏 薄附忱意 以爲居接之資耳”(『蒼石集』, 권 13, 雜著, 「諭鄉校文」).

215) 『愚伏集』, 권 13, 書, 「與庠中居接士子 甲寅在江陵」.

216) 『명종실록』, 권 31, 명종 20년 3월 13일 및 3월 14일.

217) “대부분의 양사재가 행하던 최대의 행사는 거접과 백일장 및 강회의 실행에 있었다.”(정순우, 「조

어 있던 四學의 거점인원이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이후 2명으로 줄어들자, 국가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도리가 너무 박하니 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면서, 사학에서의 거점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sup>218)</sup> 또한 진성이씨 안동파의 대종손인 松澗 李庭檜가 건립, 운영한 17세기 안동의 서당에서도 열흘 이상 詩賦 제술을 행하여 시권을 거두고 마지막 날 과거례를 행하는 등 문중 자제들의 과거준비를 위한 거점이 시행되고 있다.<sup>219)</sup>

이와 같이 지방의 향교, 도회나 양사재, 서울의 사학 등 관학에서 거점이 적극적으로 장려된 것은, 관학의 교육 목적 자체가 ‘과거 준비와 관리 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문체와 제술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점은 이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었다. 이정회의 서당의 경우 관학은 아니었지만, 문중 서당을 설립한 주목적 중의 하나는 문중 자제들의 科業을 준비시키는 데 있었으므로 거점이 장려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서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16세기의 퇴계 역시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유생들에게 거점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科業을 준비시키는 곳으로 서원을 인식했던 주세붕과 달리, 주자의 서원 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조선 사회에 정착시키고자 했던 퇴계는, 서원에서의 거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국학과 향교가 文詞, 科擧, 祿利의 풍습에 물들어 학문을 오직 과거에 합격하고 녹봉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폐해로 인해, 뜻있는 선비가 발분하여 깊이 개탄하며 책을 지고 깊숙한 산중으로 도망가 道를 강론하기 위해’<sup>220)</sup> 서원을 설립하였으나, 여전히 道學을 講明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 줄 알지 못하며, ‘간혹 서원에 들어온 선비라도 학문하는 방법이 불행히도 옛 사람의 爲己之學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과거시험 과목으로 경쟁하는 일만 숭상하고 힘쓰는’<sup>221)</sup> 당시 조선 서원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서원이 설립된 이후에도 주자의 서원 정신이 계승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공부를 위한 거점만 일삼던 초기 서원의 행

---

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서원의 사회사』, 2013, 태학사, 229~260쪽). 한편, 이 글에서 저자는 남평, 영양, 능주, 함평, 거창 등의 양사재를 통해, 순수한 교육적 의도 외에도, 약화된 사족 세력의 향권 회복을 위한 자구책, 사족의 향촌지배력에 대한 수령의 견제, 향교나 서당과 연방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평민층의 교육 참여 확대와 신분 상승의 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능한 조선 후기 양사재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218) “經世曰 小臣新授禮曹矣 四學儒生居接之數 平時則每學 各置十員 而適變之後 減爲五員 胡變之後 又減而爲二員 在國家養士之道 豈不太狹乎 今雖不得如平時復置十員 而請令加置五員 何如”(『승정원일기』, 인조 7년 7월 11일).

219)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2013, 태학사, 116~117쪽.

220) 『退溪集』 권42, 記, 「伊山書院記」.

221) 『退溪集』 권42, 記, 「迎鳳書院記」.

태를 비판한 것이었다. 그는 1569년 문인 琴應夾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원에서 거절을 행하는 것은 서원의 본의에 어긋나는 일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번에 상의한 서원 거절에 관한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서원의 本意는 과거공부를 익히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닌데, 첫 번째 모인 유생들은 마침 과거시험이 임박한 달에 모여 제생들의 마음이 오직 과거공부에만 전력하니, 형세 상 과거공부를 금하고 독서에 전심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또 날마다 제술만 익히니 이는 서원을 세워 학문을 창도하는 뜻이 아닙니다.”<sup>222)</sup>

이어 그는 우선 거절을 중단하고 과거시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형편을 보아 다시 모이게 하여 유생들이 오로지 독서에만 전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작을 신중히 하여 서원 강학의 규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있다. 퇴계 역시 ‘나라에서 과거를 베푸는 것이 어찌 선비들이 학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이겠는가. 內外와 輕重은 스스로 분별해야 할 것이니, 만일 이것을 판단하여 분명히만 한다면, 성인의 경전을 외워 통하는 것이 어찌 학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sup>223)</sup>라고 함으로써, 과거공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산원규에서도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전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로지 科業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절을 서원의 강학제도로써 공식화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주자가 백록동서원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서원 교육 이념은, 퇴계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원에서 科業을 일삼는 풍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南溪 朴世采에 따르면, 17세기 서원 역시 ‘주자나 퇴계가 서원을 설립할 때 의도한 藏修나 講學의 실질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과거 공부하는 선비들의 居接之所’<sup>224)</sup>에 그치고 있었다. 한편 18~19세기에는, 거절 자체가 재정을 낭비하고 선비의 예모를 손상시키는 폐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金昌協의 문인이었던 松巖 李載亨은 거절에 가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일찍이 들으니 罷接時에 酒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결코 행해서는 안된다’<sup>225)</sup>고 하며 과접례의 술자리를 선비로서의 도리와 예

222) “前議書院居接事 何以定之 今更思之 書院本意 不爲習學業設也 而第一會儒生 適當臨試之月 諸生之心 專力於彼 勢不可禁彼業而專讀書 緣此又令日習製述 非設院倡學之意”(『退溪集』, 권 27, 書, 「與琴夾之」).

223) 『退溪集』, 言行錄 5, 類編, 「論科業之弊」.

224) “常思朱夫子及退溪先生期設書院於鄉學之外者 爲其有補於儒學藏修之實 固非淺鮮 而今則只爲科士居接之所”(『南溪集』 續集, 권 12, 書, 「答安岳鷲嶺院生」) 및 “書院之設 朱子退溪之意 以爲國學鄉校有科舉格令之規 故欲別立書院 以便講學矣 今則書院雖設 而率爲科士居接之所 無一講學之實 故愚於此不敢有說也”(『南溪集』 續集, 권 13, 答問講學論禮, 「答崔漢臣」).

에 어긋나는 행위로 경계하고, 道東書院에서는 17세기부터 과첩례 자체를 폐해로 인식하여 금하기도 하였으며,<sup>226)</sup> 茶山 丁若鏞은 거첩의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거첩이란 것이 큰 폐단이 되고 있다. 수십 명을 가려 뽑아 향교나 절간에 거처하게 하고 날마다 課藝하되 열흘이나 한 달로 끝내는 것을 거첩이라고 한다. 쓸데없이 향교의 재산만 손상하고 또 절에 폐단만 끼치니 할 것이 못된다. 居首한 자가 한 톱 내고 신입자도 한 톱 내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먹고 마셔 떠들고 싸우며 드디어는 난장판을 이루니 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27)</sup>

이상과 같이, 후기로 가면서 점차 거첩의 폐해가 드러나긴 하였으나, 조선시대 관학에서 거첩은 과거공부에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식으로 활용되었다. 퇴계 역시 科業에 있어 거첩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서원에서의 거첩만큼은 서원을 설립한 본의에 어긋나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으로 경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퇴계의 입장은 박세채 등 이후 조선 성리학자들에게도 계승되어 17세기 이후 주자와 퇴계의 서원 강학 이념은 점차 조선 서원에도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세기 소수서원에서는 거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1549년 퇴계가 풍기군수 시절 소수서원의 거첩에 試題를 출제하여 보내면서, ‘근래에 제군들이 誦讀에 힘쓰고 제술은 잠시 느슨하게 한다고 하니 이는 뜻이 매우 좋습니다.’<sup>228)</sup>고 하며 제술 시제를 너무 성급하게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대목에서, 퇴계 역시 지방관으로서 고을 유생들의 과거공부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독서보다 科業에 치우친 당시 서원 강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외 지방관들은 서원에서의 거첩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장려하며 적극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도 확인하였다. 이는 주자나 퇴계와 달리, 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이자 관학의 기능을 대신할 인재 양성소처럼 인식했던 주세붕과 당시 관리들의 서원관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 결과 ‘이 서원에 와서 공부한 사람은 5년이 채 안 되어 모두 명사가 되어 연이어 과거에 급제한다’고 회자될 만큼, 16세기 소수서원은 과거교육의 명소처럼 인식되었다. 입원록을 통해 다수의 퇴계 문인들이 소수서원에 입원한 뒤 과거에 입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원에서의 科業을 비판했던 퇴계의 문인들조차

225) “曾聞罷接時有酒饌 此則決不可行 書中有罷接之語。故並及之也”(『松巖集』, 권 4, 書, 「答涵兒」).

226) “淫媾女色不正之言 干索食物無恥之事 皆不得爲之 干索食物 始今學中所謂後接禮歸家禮等事皆是”(『寒岡集續集』, 권 4, 雜著, 「道東書院院規」).

227) 『牧民心書』, 권8, 禮典六條, 「課藝」.

228) 『雲院雜錄』, 己酉 孟夏 4일.

현실에서는 소수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적극 활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16세기 소수서원의 거점이 실제 과거공부에 그만큼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퇴계 문인 중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들의 과거 입격 연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sup>229)</sup>

<표 4>. 퇴계 문인 중 16세기 소수서원 입원 유생들의 과거 입격 현황

입원연도	성명	입격연도	과거종류
1543	申元祿	1555	소과, 대과
	金八元	-	-
1544	趙 穆	1552	소과
1545	金克一	1546	문과
	李 愈	1555	소과
	文命凱	1552	소과
		1568	문과
	黃秀良	-	-
	李宗仁	-	-
1546	權東美	1568	소과
	郭 澣	1549	소과
	黃應奎	1543	소과
		1569	문과
	李國樑	1546	소과
	李文奎	-	-
1548	金廷憲	1558	소과
1549	康 崙	1549	소과
	閔應祺	1570	소과
	李 宰	1546	소과
	金得礪	1549	소과
	張壽禧	-	-
1551	權 洙	1546	소과
		1552	문과
	具鳳齡	1546	소과
		1560	문과
	金守一	1555	소과
	權文海	1560	문과
南夢鰲(南夢龍) 230)	1573	소과	
1552	朴承倫	-	-
1553	鄭 琢	1552	소과

229) 퇴계문인은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된 인물을 기준으로 하고, 입원연도는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入院錄」(1543~1696)에 의거하였다. 그 외 입원록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院錄謄本」에 수록된 黃俊良, 金富倫, 吳健, 尹卓然, 朴承任, 鄭崑壽, 鄭述, 李德弘 등 다수의 퇴계 문인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그러나 「院錄謄本」은 어떤 의도로 작성한 것인지 자료의 성격이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1558	문과
	權大器	1552	소과
	權好文	1561	소과
	高應陟	1561	소과
	金彦璣	1567	소과
1555	南師古	-	-
1556	李中立	1558	소과
	李克承	1576	소과
1557	李甯	1561	소과
1559	呂世潤	1555	소과
	李闕道	1576	소과
1560	金明一	1564	소과
	金誠一	1564	소과
		1568	문과
	金復一	1564	소과
		1570	문과
	李 憲	1561	소과
		1574	문과
	裴三益	1558	소과
1564		문과	
郭守仁	1585	소과	
1561	安 霽	1561	소과
		1580	문과
	琴蘭秀	1561	소과
	權 宣	1579	문과
	琴鳳瑞	1576	소과
	李 甯	-	-
1563	金 玊	1564	소과
		1576	문과
1563	柳仲淹	-	-
1564	南 潑	-	-
	南致利	-	-
1565	李逢春	1576	문과
	宋福基	1576	소과
	李宗道	1579	소과
1566	鄭士誠	1568	소과
1567	具贊祿	-	-
	金允欽	1567	소과
1568	孫興禮	1567	소과
1569	琴應燠	1570	소과
	白見龍	1609	소과
	孫興慶	1568	소과
1570	金澤龍	1576	소과
		1588	문과
1571	金允明	1568	소과

230) 『도산급문제현록』 과 방목에는 ‘南夢鰲’, 소수서원 입원록에는 ‘南夢鼈’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와 사

퇴계 문인 중 16세기 입원록에 수록된 사람은 총 63명이며 그 중 과거 입격자는 51명, 입원한 해를 포함하여 입원 후 소과나 문과에 입격한 유생은 총 45명이다. 즉, 퇴계 문인으로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 중 71% 이상이 소수서원에 입원한 뒤 입격하였으며, 입격자(51명)의 약 88%(45명)가 입원한 뒤 과거에 입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입원유생이 입원 후 실제 소수서원의 거첩에 참여한 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입원연도와 입격연도만으로 16세기 거첩의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소수서원에서 과거교육을 효과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입원 후 입격 비율이 71% 이상 되는 것을 보면, 퇴계 문인들 역시 대개는 과거 준비를 위해 서원에 입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성 김씨 학봉 김성일 집안은 학봉을 포함한 克一, 守一, 明一, 誠一, 復一 5형제가 모두 소수서원에 와서 공부한 뒤 과거에 합격하였다. 그 중 克一은 1545년에 입원하여 1546년에 문과에, 守一은 1551년에 입원하여 1555년 생원시에, 明一·誠一·復一은 1560년에 입원하여 1564년 생원시나 진사시에 모두 입격하였다. 葛庵 李玄逸이 지은 金明一의 묘표<sup>231</sup>)에 따르면, 이들이 소수서원에 와서 공부한 것은 자제들이 과거에 입격하여 출사하기를 바라는 아버지 金璣의 명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명일은 과거 시험 준비를 그만두고자 하였으나 부친의 명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여 반궁에 나아가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과거에 입격한 퇴계 문인들 역시 대개는 사정이 이와 유사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퇴계 문인 외에 입원록을 중심으로 16세기 전체 입원생의 과거 합격 비율을 보면, 16세기 전체 입원생은 473명, 그 중 소과 입격자는 178명, 문과 합격자는 50명, 소과와 문과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44명이다. 전체 입원생 중 소과나 문과 중 하나라도 입격한 사람은 184명으로 전체 입원생 중 약 39%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16세기 소수서원은 관학이 교육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한 당시 조선 사회에서, 과거에 합격하여 국가의 관리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관학의 교육 기능을 무엇보다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6세기 거첩은 철저하게 수령, 관찰사 등 지방관의 물적 지원과 관심에 의존하고, 거첩의 試題 출제와 考試 역시 풍기군수가 주도하고 있었다. 이는 한편으론, 서원을 科業을 준비시키는 관학적 속성의 연장선에서 인식한 주세붕과 당시 관리들의 서원관으로부터 비롯된 성과이자, 동시에 주자나 퇴계가 서원 설립을 통해 의도했던 道學과 爲己之學이라는 서원 강학 이

마시 입격 연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이다. 입원록의 ‘鼈’가 ‘鰲’의 오자로 보인다.  
231) “嘗以判書公命 讀書紹修書院”(『葛庵集』, 권 23, 墓表, 「成均生員雲巖金公墓表」).

념은 미처 실현하지 못했던, 초창기 조선 서원이 갖는 한계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6세기 소수서원의 강학은 ‘科業에서의 성과’와 ‘道學에서의 한계’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으며, 이는 초기 서원의 관학적 속성에서 야기된 과도기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III. 17세기 講學 理念의 확립과 ‘罷格 논쟁’의 교육적 의미

남송대 주자가 확립한 서원 모델을 따라, 조선사회에서 道學을 강론하며 강학을 통해 師說을 계승, 전파함으로써 서원이 다양한 학파 형성의 본거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였다. 이에 앞서 이미 영남에서는 퇴계 사후인 16세기 말부터 그 문인들이 陶山·易東·廬江·伊山書院 등에서 퇴계를 제향하며 강학을 통해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고 있었다. 퇴계 문인들의 사후에는 다시 그 문인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스승의 위패를 모시고 강학함으로써, 17세기 무렵 영남지역의 퇴계학은 김성일·유성룡·정구 등의 계열로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이후에는 紫雲·紹賢·遯巖·華陽洞·考巖書院 등이 건립되면서 이들 서원을 중심으로 율곡 이이로부터 김장생,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성리설과 禮說이 분화, 발전하였고, 18세기 경기도 양주 石室書院의 강학은 당시 호락논쟁에서 서울 지역 낙론의 사상적 기반을 확립하는 터전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강학은 17세기까지도 ‘道學을 강론하거나 師說을 계승’하는 서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남송대 주자가 확립했던 서원관이 조선 사회에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주세붕을 지나 퇴계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주자가 남송서원을 부흥할 때 했던 것처럼,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조정에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함으로써 서원이 국가의 승인과 지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科擧와 祿利의 풍습에 물들어 학문을 오직 과거에 합격하고 녹봉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官學의 폐해를 지적하고, 서원을 설립한 뜻은 오직 ‘道學을 講明’하는 데 있으며, 서원에서 학문하는 방법은 옛 사람의 爲己之學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서원의 설립 의도와 교육 목표는 관학과는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주자의 서원관을 계승하여 이를 조선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서원의 기문을 짓고 서원 보급운동에 앞장섰으나, 科擧의 구속에서 벗어나 참다운 爲己之學을 실천하는 道學 서원의 정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풍기군수 재임 시에도 틈날 때마다 백운동서원을 찾아 ‘道學’을 강론하며, 당시 科業에 치우치고 있던 백운동서원의 학풍을 쇠신하고, 제생들에게 道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17세기 초반까지도 소수서원의 강학은 여전히 道學이 아닌 科擧에 치우치고 있었다.

이 같은 강학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 무렵이었다. 17세기 초 풍기군수 이준, 원장 광진, 황응규 등 서원 운영자들은 과거공부에

치중되어 있던 당시 소수서원의 강학 방식에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드러내면서, 소수서원을 道學을 강명하는 서원 본래의 강학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풍기군수 李堧은 과거에 응시할 서원의 유생들에게 「諭赴學士子文」이라는 글을 지어 유시함으로써 과거 및 서원교육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는 이전의 지방관과는 서원에서의 과업에 대해 다른 해석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부거유생들에게 과장의 폐단 및 과거에 임하는 자의 용모와 자세, 과거 문체를 짓는 데에도 의리와 이치가 있음을 상세히 일러주고 있다. 평상시의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문예도 성취될 수 있고, 일상의 꾸준한 공부를 통해 덕행이 길러지지 않은 채 문예만 추구해서는 과거 문체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없으며, 문예는 곧 덕행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교육관은, 주자와 퇴계의 서원 강학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 중의 하나가 바로,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자격을 두고 벌어진 ‘罷格 논쟁’이었다. 17세기 초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이 논쟁에서 퇴계 문인(혹은 재전문인)들은,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罷格論’의 입장에서 罷格을 주장하며, 유학교육의 본질과 서원의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파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8세기 초에 이르러 罷格으로 종결된 이 논쟁은,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운영되던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이 18세기에 이르러 ‘道學 중심’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논쟁은 기존 역사학 연구에서 지역사회 내 향권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만, 서원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科業之所’로서의 주세붕의 서원관으로부터, 17세기 이후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之所’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다.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은 애초에 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으로 인식한 주세붕의 서원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는 향후 수백 년 간 지속될 논쟁의 불씨를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

Ⅲ장에서는 17세기 초반까지 科業 위주로 이루어진 소수서원 강학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고, 퇴계 문인을 중심으로 제기된 科業 위주의 강학방식에 대한 비판과, 罷格 논쟁에서 파격을 주장한 이들의 논리가 관철되는 과정을 통해,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17세기에 이르러 소수서원에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 Ⅲ-1. 講學의 경제적 기반

소수서원의 강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주던 16세기 경상감사의 모습과는 달리, 17세기에 이르면 소수서원에 대한 경상감사의 관심과 지원이 현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인근 고을의 지방관 및 색리에 의한 원노 침탈, 원노 자체의 원역 회피도 점차 증가하고, 16세기 사문입의 제정 이후 소수서원에 어물을 수납하던 응천의 어기는 임진왜란 직후 완전히 폐기되었으며, 염분을 수납하던 영해와 영덕 두 고을도 17세 초에는 軍餉 등을 핑계로 폐지되어 염분 수납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서원 내부적으로는 유생 공궤를 위한 寶穀 장리의 미상환, 서원 전답 도조의 미납, 빈객 접대를 위해 조두의 법식에 없는 유밀과를 쓰고 술과 음식에 지나치게 재정을 낭비하는 것 등이 서원의 재정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17세기 초부터 소수서원과 풍기군수는 원노 침탈 및 영해, 영덕의 염분 미수납 문제 등을 관찰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寶穀 미상환자에게는 과거 시 都目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서원 재정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재정난에도 17세기 후반까지 소수서원의 거점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은, 역시 풍기군수의 꾸준한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16세기와 비교할 때, 경상감사의 지원은 확연히 감소하였지만 풍기군수는 16세기와 마찬가지로 강학이 개설될 때마다 곡식과 주찬, 지필묵 등을 17세기 후반까지 비교적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17세기 초 신임 감사가 부임해올 때마다 소수서원의 負木 전결을 거둬 삭감한 사건은, 16세기 경상도 전역에 걸쳐 혜택을 누렸던 소수서원의 특권적 지위가 사라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602년 경상감사 金信元이 서원의 부목 전결 30결이 많다고 하여 절반을 삭감하자 서원에서는 부목 30결은 6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조정에 계품하여 윤희를 받은 것임을 진달하여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감사는 옛 규례를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하며 원래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sup>232)</sup> 그러나 4년 뒤인 1606년 2월, 또다시 후임 감사 柳永詢이 부임하여 부목 전결 30결이 많다고 하며 이번에는 25결을 삭감하고 5결만 남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서원에서는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곳으로 그 규모와 제도가 여타의 서원과는 자별하며, 난리를 겪은 뒤 고을의 학교는 모두 잿더미가 되었으나 이 서원만 폐지되지 않아 교육의 유풍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부목을

232) 『雲院雜錄』, 「上方伯柳永詢書」.

폐지하면 서원과 함께 고을의 교육도 보존되지 못할 것임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곳이기 그 규모와 처치가 다른 고을의 서원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비를 대우하고 노비를 보살피는 제도가 평범한 규례와 특별히 달라 모든 節目이 애당초 사림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일체를 조정에 계품하여 성상의 윤험을 받은 뒤에야야 불변의 법칙으로 정하여 감히 증감하지 못하였으며, 그 사실은 서원의 등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목 전결은, 서원에 소속된 노비가 잔약하고 수효가 적어 서원에서 부리는 일에도 부족하여 선비들이 모이게 되면 뿔나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경작하는 토지의 잡역을 면제하여 뿔나무를 마련하는 자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 대저 이 서원은 신재 선생이 창건하고 퇴계 선생이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선왕이 내린 교지에도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 부목을 삭감하는 것은 백성들의 힘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매우 미세하고, 부목을 그대로 완전하게 두어 세상의 風化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매우 지대합니다. 한 번 난리를 겪고 나서 선비 교육이 쓸어버린 듯이 없어지고, 고을의 학교는 모두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의 습속이 변하여 마을에 책을 끼고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 서원이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어 건물이 우뚝하고 독서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옛날 선현이 인재를 교육한 유풍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지금에 만약 부목을 폐지하여 서원 노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이 서원은 계속 보존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생각이 미치면 서글픈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부디 합하게서 특별히 옛날 선현이 선비를 육성하려 한 성의와 선왕이 교화를 숭상한 뜻을 생각하시어, 전날과 같이 시행하여 고치지 말고 이미 정해진 규례를 따르게 하신다면, 斯文의 한 맥이 어느 정도 의탁할 곳이 있게 될 것입니다.”<sup>233)</sup>

이에 경상감사 柳永詢<sup>234)</sup>은 소수서원의 부목 30결은 옛날부터 내려온 규정이라고 하므로, 전과 같이 30결로 시행하도록 다시 조처해주었다.

서원 노비에 대한 침탈은, 원노의 일족을 관노나 군사의 일족이라 하며 침징하거나 원노 스스로 색리와 결탁하여 서원의 부역을 피하기도 하였다. 1606년에는 본래 院案에 소속되어 있던 손응경이 영천군의 색리와 결탁하고 招辭를 위조하여 軍案에 넣기도 하고,<sup>235)</sup> 풍기군수에 의해 향교에서 서원으로 이속된 원노 말대는 공조의 장인이라 칭탁하며 서원의 부역을 피하기도 하였다. 이는 서원의 부역은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공조의 부역은 1년에 고작 배 몇 필만 바치면 되었으므로,

233) 같은 책, 같은 곳.

234) 실록에 따르면, 당시 경상감사 유영순은 ‘불법으로 백성을 침탈하여 쌓은 재정으로 營軒을 화려하게 건립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여 기생에게 백미 80여석을 바치는 등, 감영의 재정을 모두 고갈시키고 전용하여 영남의 고을이 마치 병화를 겪은 듯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선조실록』, 선조 40년 4월 23일).

235) 『雲院雜錄』, 「上方伯柳永詢書」.

당시 연줄을 대어 서원의 부역을 피하려고 하는 풍속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sup>236)</sup> 그 밖에 예천, 영천, 풍기 등에서도 원복과 색리들이 서로 결탁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서원의 부역을 피하였다. 院僕 閔方과 申守는 예천과 영천의 軍案에, 金德文과 李彭得은 풍기 軍案에 몰래 등록하여 원역을 피하려고 하였다.<sup>237)</sup> 이에 서원에서는 관찰사와 해조 등에 원노의 환속과 색리의 처벌을 요청하였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영천의 어기는 완전히 폐지되고, 영해와 영덕의 염분은 존속되기는 하였으나 수납이 여의치 않게 되자 1599년 관찰사 한준겸이 물량을 8섬으로 반감하여 수납하도록 하였는데, 그 뒤에 調度官이 와서 그 염분을 빼앗아 軍餉으로 넣어버렸다. 이후 1607년에 순찰사 鄭賜湖가 다시 옛 규례를 회복시켜 주었으나, 1610년에 영해, 영덕 두 고을의 관아에서 다시 호조에 소속되었다고 칭탁하며 서원에 염분을 수납하던 규례를 폐지하여 1615년 무렵까지 염분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하여 1615년, 소수서원 원장 광진은 41명의 유생과 함께 연명으로 풍기군수에게 上書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본원은 열읍의 서원중에서도 피폐함이 유독 더 심하여 소금 반찬의 음식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우니, 이는 선비들만이 탄식할 일이 아니라 방백 또한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런 곡절을 방백에게 전달하여 영해와 영덕 두 고을로 하여금 옛날 규례를 다시 따르게 해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하며, 풍기군수로 하여금 서원을 대신하여 관찰사에게 청원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sup>238)</sup> 이에 1615년 4월 20일 풍기군수 車雲輅는 관찰사에게 牒모을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수서원 원장 광진 등 41인이 연명한 上書を 상고해보니, 이른바 서원에 소금을 보내는 것은 그 제도가 설치된 지가 10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영해·영덕 두 관소는 병화를 입지 않았고 본원에서 주조한 염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조도관이 소금을 빼앗은 것은 실로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관소에서 해조(호조)에 맡기고서 소금을 거두는 규례를 폐지하여 선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소금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있으니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후로 공문을 보내 상고하라고 분부하신 것과 같이 기한에 맞추어 수납하고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보고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sup>239)</sup>

이 때, 원장 광진 등이 풍기군수 차운로에게 올린 상서에 41명에 이르는 유생이 집단으로 연명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상서를 올린 시기는 소수서원의 동

236) 같은 책, 「上工部書」.

237) 같은 책, 「上巡察使書」.

238) 『紹修書院誌』, 「報方伯牒呈」.

239) 같은 책, 같은 곳.

몽재와 유생 거접이 모두 성황을 이루어, 원장 광진은 공궤 비용의 부족으로 동몽과 거접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그대로 수용해야 할지의 문제를 두고 매우 난감해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상서에 41명의 유생이 연명한 것은 강학 재정의 마련이 그만큼 절실했던 당시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원은 열읍의 서원중에서도 피폐함이 유독 더 심하여 소금 반찬의 음식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우니, 이는 선비들만이 탄식할 일이 아니라 방백 또한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호소하는 대목은, 지방관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최초의 서원임과 동시에 사액서원으로서 과거에 누렸던 소수서원의 특권적 지위를 내세워 이전 제도의 회복을 요청하곤 했던 16세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즉, 41명이나 되는 유생들이 집단으로 연명한 이 상서는 한편, 이 시기 소수서원의 사회적 위상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소수서원의 寶穀은 본래 유생 공궤 비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금은 보존하고殖利를 통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7세기 초부터 원금조차 거둬들이지 못하여 강학 재정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보곡의 대여는 애초에 上下 구분 없이 양반과 평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특히 양반들에게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점차 제재를 가하다가 결국 양반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625년 8월<sup>240)</sup>에는 보곡을 상환하지 않는 양반들이 더욱 많아지자 미상환자에게는 과거 시험이 있을 때 都目的 발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발급한 경우 재임은 停擧, 유생이나 품관은 처벌하며, 원입은 원적에서 삭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元穀조차 모두 장부상에만 남을 지경이 되었다. 이에 1626년 12월<sup>241)</sup>에는 향후 미수자에게는 절대 보곡을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1629년 1월<sup>242)</sup>에는 보곡 미수자 및 서원에서 5리~7리에 사는 자는 보곡유사로 천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立議를 작성하였다. 이후 8년 사이에는 원곡이 다시 어느 정도 확보되고, 1637년 9월 2일<sup>243)</sup>에는 병자호란 때 서원의 寶米 元數 30섬 중 28섬을 義糧으로 지출하여 유생 공궤 비용이 없으므로 무명 10필로 쌀을 사들여 유생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반들의 미상환이 계속되자 결국 1662년 12월<sup>244)</sup>에는 매달 말일에 원장과 별유사 3인이 모여 서원의 회계를 일일이 점검함으로써 유실을 막고, 長利 곡식의 분급은 서원 하인에게만 하고 한 되라도 고

240) 같은 책, 「年表」, 1625년 8월 1일.

241) 같은 책, 「天啓 6년 12월 立議」.

242) 같은 책, 「崇禎 2年 정월 초5일 士林立議」.

243) 같은 책, 「丁丑 9월 초2일 院中立議」.

244) 같은 책, 「壬寅 12월 22일 立議」.

을 유생이나 품관에게는 분급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서원 유사 3인을 물러나도록 규정하면서 立議를 작성하고 있다. 그 밖에 서원 전답의 도조 미납,<sup>245)</sup> 석전제에 조두의 법식에 없는 유밀과를 쓰고 주찬을 성대하게 마련하여 빈객 접대에 재정을 낭비하며,<sup>246)</sup> 관아에 출입하는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데 공공 재정을 허비하는 것<sup>247)</sup> 등도 17세기 서원 재정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이 어염의 수납도 폐지되고, 강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보곡의 운영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17세기 소수서원에서 거접과 동몽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던 건 그나마 풍기군수의 지속적인 지원 덕택에 가능하였다. 잡록류의 기사에 따르면, 비록 관찰사의 지원은 현격히 감소하였으나 17세기 초부터 말까지 풍기군수와 순흥부사는 소수서원에 지속적으로 곡식과 주찬, 지필묵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雲院雜錄』과 『雜錄』류 자료에 수록된 17세기 지방관의 소수서원 재정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17세기 지방관의 재정 지원 현황

날 짜	내 용	수 록 처
1604. 2. 10	풍기군수 李必榮이 백미, 벼, 콩 각 2섬	雲院雜錄
1605. 4. 26	巡相 李時彦이 쌀 7섬, 콩 1섬, 正木 10필	雲院雜錄
1605. 4. 26	풍기군수 盧景任이 大米 10말	雲院雜錄
1605. 4월	예천군수 李忠可가 벼 2섬, 쌀 5말, 누룩 5장	雲院雜錄
1605. 4월	창락찰방 安崇儉이 정목 2필, 休紙 2근	雲院雜錄
1605. 4월	풍기군수 노경임이 쌀 7섬, 米牟 3섬, 콩 2섬, 正租 5섬, 황조 6섬을 동몽재에 보냄	雲院雜錄
1605. 4월	풍기군수 노경임이 屬公 암말 1필, 식모 玉卜과 재직 5명을 동몽재에 보내 소속시킴	雲院雜錄
1605. 9. 9	경차관 柳湊이 벼 2섬, 콩 1섬	雲院雜錄
1605. 9. 9	풍기군수 윤길이가 쌀과 벼 각 1섬	雲院雜錄
1605. 9월	풍기군수 윤길이가 쌀과 콩 각 1섬, 벼 2섬을 보내고, 동몽재에 백지 1권을 보냄	雲院雜錄
1605. 12	창락찰방 안승검이 정목 8필	雲院雜錄
1607. 4. 1	김구정이 부채 20자루	雲院雜錄
1607. 8. 25	순찰사 鄭賜湖가 백미 3섬, 黃豆 2섬	雲院雜錄
1607. 8월	안동판관 安夢尹이 正租 1섬, 荒租 1섬, 皮牟 1섬, 黃豆 1섬	雲院雜錄

245) 같은 책, 「庚寅 9월 초6일 立議」.

246) 같은 책, 「天啓 5년 2월 초8일 立議」.

247) 같은 책, 「庚辰三月享祀時完議」.

1607. 9월	안동판관 안몽윤이 花文席 7, 登母席 2, 方席과 次一 도합 10장, 벼루집 1권	雲院雜錄
1607. 10. 13	풍기군수 高尚顔이 正租 3섬, 황두 1섬	雲院雜錄
1607. 11. 2	黃暹이 乾柿 1첩	雲院雜錄
1609. 11월	풍기군수 成以敏이 正租 2섬, 酒米 5말, 泡太 5말, 누룩 5圓	雲院雜錄
1609. 12. 6	풍기군수 성이민이 쌀, 콩, 벼 각 2섬	雲院雜錄
1610. 4. 10	풍기군수 성이민이 松墨 20자루	雲院雜錄
1610. 4. 20	영천군수 姜緹이 장지 1속	雲院雜錄
1613. 1월	순찰사 尹暉가 백미 1섬	雲院雜錄
1613. 3. 1	풍기군수 李振先이 백미 1섬, 기와 500장, 백지 1권	雲院雜錄
1613. 3월	창락찰방 李大約이 白紙 1권, 草紙 1권	雲院雜錄
1613. 6. 10	풍기군수 李竣이 관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복 2그릇과 술 1병을 보냄	雲院雜錄
1613. 9. 23	풍기군수 李竣이 술(秋露)과 잣(柏子)	雲院雜錄
1614. 3. 7	풍기군수 이준이 탁청지를 파고 나무 심는 일에 대한 편지와 함께 술과 안주를 보냄	雲院雜錄
1614. 4. 7	풍기군수 이준이 편지와 함께 술을 보냄	雜錄a
1614. 7. 10	풍기군수 이준이 문안 편지와 椒酒 1병, 닭을 보냄	雜錄a
1615. 3월	黃暹이 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강학이 계속되는 것을 축하하고, 제사에 蜜果를 쓰는 것을 없애고 죽계지에 따를 것을 요청	雜錄a
1615. 4. 20	풍기군수 車雲輅가 방백에게 수납이 중단된 웅천·영해·영덕의 어염을 보내주도록 청함	雜錄a
1615. 5. 30	黃是가 원장 곽진에게 동몽재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편지를 보냄	雜錄a
1616. 2. 23	영천군수 趙繼韓이 문안 편지와 백지 3권	雜錄a
1617. 1월	풍기군수 李尙伋이 松墨 10자루	雜錄a
1617. 2. 18	정선군수 金九鉉이 쌀 4말, 眞米 2말, 누룩 5개, 訥魚 4마리	雜錄a
1617. 3월	제천현감 申益慶이 백지 3권	雜錄a
1617. 3. 12	풍기군수 이상급이 백지 2권, 초지 5권, 白筆 3자루	雜錄a
1618. 4월	풍기군수 이상급이 떡 4자루, 백지 3권, 소주 2병, 대구 2마리	雜錄a
1619. 3월	풍기군수 이상급이 송묵 7자루	雜錄a
1620. 6. 19	풍기군수 李堦이 秋露 한 그릇과 桃林 한 덩이	雜錄a
1623. 12. 19	풍기군수 金憲가 청주 2병, 대구 2마리, 청어 2두름, 떡 4자루	雜錄a
1625. 3월	관아에서 춘향 제수를 보냄	雜錄a
1625. 7. 13	풍기군수 宋錫慶이 송묵 5자루	雜錄a
1625. 8. 1	寶穀을 상환하지 않은 이에게는 시험 시 都目을 발급하지 않고 무단 발급한 제입은 停舉, 유생이나 품관은 처벌하며 원입 등은 삭적하기로 함	雜錄a
1626. 11. 6	풍기군수 丁好善이 쌀 1섬, 租) 2섬, 송묵 4자루	雜錄a
1628. 11. 15	풍기군수 朴王阜 이 함께 송묵 20자루	雜錄a

1629. 3. 3	풍기군수 박한이 벼 1섬, 콩 1섬	雜錄a
1629. 3. 7	순찰사 洪霧이 백미 1섬, 소금 1섬, 白筆과 떡 각 5자루	雜錄a
1631. 4월	풍기군수 박한이 쌀 1섬	雜錄a
1631. 11. 18	풍기군수 金相潤이 청주 1병, 고기 2근	雜錄a
1632. 11월	풍기군수 김상윤이 還上米 1섬, 콩 1섬, 들깨 7두, 참깨 1두	雜錄a
1633. 12. 9 (주세붕 배향일)	순흥동내 木 4필, 愚叟洞內에서 벼 2섬, 浮石洞內 목 1필, 登中央洞內 벼 1섬, 龜尾洞內 벼 2섬, 白也洞內 벼 2섬, 西部洞內 목 1필, 日彦洞內 목 1필, 丹溪洞內 벼 1섬, 往古介洞內 목 1필, 臥龍洞內 벼 2섬, 大龍山洞內 목 2필, 奴佐里洞內 목 2필, (殷豐下里 목 1필, 漆原鄉校에서 목 2필을 보냄	雜錄a
	순흥 향중에서 벼 30섬	雜錄a
	순흥향교에서 쌀과 콩 각 2섬	雜錄a
	순흥부에서 쌀 1섬, 콩 1섬, 참깨 3말, 들깨 3말, 甘醬 5말, 馬草燒木都色 5인, 사령 1인, 小童 4인을 보냄	雜錄a
1636	풍기군수 金尙賓이 中米와 콩 1섬을 증수 때 양식에 보태라고 보냄	雜錄a
1636. 4. 1	감사 沈演이 경령정 증수에 양식으로 쌀 2섬, 유생들에게 떡 1동	雜錄a
1637. 4월	풍기군수 羅緯素가 송묵 5자루	雜錄a
1637. 9. 2	당회에서, 자본이 축난 寶穀에 대하여 목 10필로 쌀을 사들여 유생을 공제하기로 함	雜錄a
1637. 10월	풍기군수 나위소가 송묵 10자루	雜錄a
1638. 9. 18	순찰사 李景曾이 장지 2권, 백지 3권, 소금 1섬	雜錄a
1638. 10월	풍기군수 나위소가 송묵 10자루	雜錄a
1639. 3. 10	寶穀에서 벼 40섬을 떼어 사우의 기와를 보수	雜錄a
1639. 8월	영춘현감 李重國이 백지와 초지 각 1권	雜錄a
1639. 11. 1	풍기군수 나위소가 中墨 2자루, 小墨 3자루	雜錄a
1640. 4월	풍기군수 나위소가 송묵 10자루	雜錄a
1640. 7월	풍기군수 나위소가 쌀 1섬, 벼 2섬, 콩 1섬	雜錄a
1645. 1월	풍기군수 李莆가 서원 거점에 벼 2섬, 들깨 5말, 眞麴 10개, 청어 10관, 송묵 5자루	雜錄a
1646. 2. 25	울진현령 黃益淸이 장지 1권, 백지 1권, 초지 3권, 소금 20말, 건문어 1마리, 早藿 20속, 건대구 10마리, 건연어 3마리, 沈連魚 3마리, 연어알 3되, 건홍합 5되, 鯨油 4되	雜錄a
1647. 2. 12	金化현감 安應昌 <sup>248</sup> 이 목 2필, 대구 2마리, 생치 2마리, 건치 1마리, 꿀 2되, 소주 1병	雜錄a
1647. 11. 23	풍기군수 李爾松이 위문편지와 함께 송묵 1동	雜錄a
1648. 5월	풍기군수 이이송이 송묵 7자루	雜錄a
1649. 6. 7	풍기군수 이이송이 들깨 3말, 石衣 2말, 송묵 1동	雜錄a
1649. 11월	순찰사 李冕이 『朱文酌海』 8권, 『小學』 4권, 『書大文』 2권, 眞墨 1동, 송묵 1동	雜錄a

1650. 4. 27	풍기군수 許穉이 백지 2권을 보내 사당 문과 대청 서창 도배	雜錄a
1650. 6월	풍기 관아에서 참깨 2말, 들깨 3말, 누룩 2동	雜錄a
1650. 8. 29	풍기군수 허색이 9월 제향 때 창호 도배를 위해 백지 2권	雜錄a
1650. 11월	풍기군수 허색이 송목 10자루	雜錄a
1651. 5. 27	풍기군수 金玉鉉이 위문편지와 백지 2권, 烟墨 1동, 紅露 1병, 泉魚 10마리, 들깨 2말	雜錄a
1651. 7. 20	풍기군수 김옥현이 명륜당 중수 양식으로 쌀 2섬, 콩 1섬, 벼 2섬(명륜당, 지락재 보수를 10월 13일 완성)	雜錄a
1656. 2. 12	의성현령 안응창이 문안편지와 碧魚 2編	雜錄a
1656. 2. 30	의성현령 안응창이 향후 춘추 향사에서 닭 대신 돼지를 쓰도록 춘향에 쓸 1마리와 양육할 암수 3마리	雜錄a
1656. 3월	의성현령 안응창이 사당 창호 도배용 큰 장지 2권, 축문용 붓 2자루, 먹 4자루, 청어 3동음	雜錄a
1656. 3. 3	풍기군수 尹益亨이 춘향에 쓸 돼지 1마리를 차용(의성에서 보내기로 한 돼지는 기일이 촉박하여 운반하지 못함)	雜錄a
1656. 4. 6	안응창이, 춘추향사에 쓸 돼지 2마리와 춘향 때 쓰고 상환할 돼지 1마리를 보냄	雜錄a
1656. 4. 27	사근찰방 安弘靖이 문안 편지와 종이 3속	雜錄a
1656. 5. 17	풍기군수 윤익형이 송목 1동	雜錄a
1656. 5. 25	안응창이 제수로 祭酒 4병, 향 1봉, 稻米 1두 2승, 黍米 1두 2승, 稷米 1두 2승, 粱米 1두 2승, 鹿脯 1첩 2조, 魚鱸 4마리, 魚醢 4승, 鹿醢 4승, 黃栗 4승, 栢子 4승, 薤菹 4승, 菁菹 4승, 초 4자루, 油龍 20자루, 축문지 1장, 먹 1자루, 돼지 1마리, 茶食 5백 28개, 籩下紙) 1권, 油紙 5장	雜錄a
1656. 윤5. 4	풍기군수 윤익형이 소주 2병, 닭 2마리, 들깨 2말, 콩 1섬	雜錄a
1656. 윤5. 14	안응창이 의성에서 鄉閭碑 족자 1벌, 참깨 1말, 대구 2마리	雜錄a
1656. 9월	의성현령 안응창이 사당 내 地衣를 보냄	雜錄a
1656. 11월	안응창이 의성에서 백지 1속, 장지 1속	雜錄a
1657	의성현령 안응창이 공사 부조로 목 5필	雜錄a
1657	풍기군수 金夏鉉이 새 기와 1늘	雜錄a
1657. 3월	풍기관아에서 참깨 2말, 들깨 3말, 명륜당 도배용 落魂紙 10폭	雜錄a
1657. 5월	풍기군수 김하현이 송목 1동	雜錄a
1657. 8. 1	의성에서 벼룻집과 靑石硯 1좌	雜錄a
1658. 2. 20	黃中衍이 위문편지와 장지 2속, 청어 2편	雜錄a
1658. 4월	풍기군수 盧尙賢이 작은 송목 10자루	雜錄a
1658. 6. 15	서원 요청으로 관아에서 들깨 3두, 참깨 1두, 누룩 1동	雜錄a
1658. 8월	新寧縣監 黃中衍이 백지 3권	雜錄a
1658. 10. 10	의성현령 안응창이 院中雜錄을 다시 쓸 공책 3권	雜錄a
1659. 윤3. 10	서원 요청으로 풍기군수 申弘望이 참깨 2두, 들깨 3두, 누룩 1동	雜錄a

1659. 5. 26	풍기군수 신흥망이 송묵 中 5자루, 小 5자루	雜錄a
1659. 6월	의성현령 안응창이 함과 버루	雜錄a
1659. 6. 15	풍기군수 신흥망이 중미 2석, 참깨 3두, 들깨 3두	雜錄a
1659. 12. 21	풍기군수 신흥망이 송묵 8자루	雜錄a
1660. 5. 11	풍기군수 신흥망이 송묵 10자루	雜錄a
1661. 4월	풍기군수 신흥망이 참깨 3두, 들깨 3두, 누룩 2동	雜錄a
1661. 4. 20	풍기군수 신흥망이 송묵 7자루	雜錄a
1662. 5. 10	풍기군수 金以鏡이 송묵 8자루	雜錄a
1663. 4월	풍기군수 김이경이 서원 요청으로 참깨 1두, 들깨 2두, 누룩 2동, 콩 1섬 및 疏廳에서 쓸 백지 2권, 황필과 백필 각 1자루, 송묵 3자루	雜錄a
1663. 5월	풍기군수 김이경이 송묵 中小 각 4자루	雜錄a
1663. 8월	풍기군수 吳燾가 백지 2권, 들깨 2두, 송묵 중소 각 2 자루	雜錄a
1664. 3월	향사 때 평릉찰방 安弘靖이 대구 10마리, 中蟹 20마리, 申三魚 70마리, 魴魚 2마리, 명태 50마리	雜錄a
1664. 4월	풍기군수 오소가 송묵 중소 각 5자루, 들깨 2두, 참깨 5승, 누룩 1동	雜錄a
1664. 5월	풍기군수 오소가 장지 1권	雜錄a
1664. 12월	풍기군수 오소가 송묵 중소 각 4자루	雜錄a
1665. 6월	풍기군수 오소가 송묵 중소 각 4자루	雜錄a
1665. 11월	풍기군수 魚尙儁이 송묵 중소 각 5자루, 들깨 2두	雜錄a
1666. 1월	풍기군수 어상준이 新曆 1부	雜錄a
1666. 3. 4	풍기군수 어상준이 백지 3권, 들깨 3두	雜錄a
1666. 9. 1	풍기군수 어상준이 들깨 2두, 참깨 1두	雜錄a
1667. 2. 25	풍기군수 어상준이 중미 1석, 누룩 1동	雜錄a
1667. 6월	풍기군수 어상준이 들깨 2두, 송묵 중소 각 2자루	雜錄a
1667. 7월	풍기군수 어상준이 정조 3석, 들깨 5두	雜錄a/b
1668. 8월	풍기군수 어상준이 송묵 중소 각 10자루, 묘문 도배지 2권	雜錄a/b
1669. 5월	풍기군수 金啓光이 송묵 중대 각 5자루	雜錄a/b
1669. 8월	풍기군수 김계광이 들깨 2두	雜錄a/b
1672. 9. 8	풍기군수 김계광이 송묵 중대 각 8자루	雜錄a/b
1673. 2월	풍기군수 김계광이 백미 1섬	雜錄a/b
1673. 8월	풍기군수 張世良이 백미 6두, 장지 1권, 백지 1권	雜錄a/b
1675. 5월	풍기군수 李彙晉 작은 송묵 1동	雜錄a/b
1676. 여름	풍기군수 朴千榮이 송묵 1동	雜錄a/b
1676. 6월	풍기군수 박천영이 문선왕 화상과 족자를 보관할 례 2건을 관아에서 만들어 보냄	雜錄a/b
1677. 1. 18	풍기군수 崔鎭南이 백지 7권, 누룩 1동, 들깨 5두	雜錄a/b
1677. 11. 21	풍기군수 金是榮이 큰 떡 2동	雜錄a/b
1677. 12. 11	경차관 嚴緝이 백지 2권, 떡 9자루	雜錄a/b

1678	풍기군수 沈極이 중형 먹 2자루	雜錄a
1678. 3월	풍기군수 심극이 장지 2권, 참깨 3두, 들깨 5두	雜錄b
1678. 6월	군수 金千鎰이 중형 먹 2자루	雜錄a/b
1679. 5월	풍기군수 李雲林이 송묵 4자루	雜錄b
1680. 2월	봉화현감 安重이 잣 5승, 土醬 1두	雜錄b
1680. 7. 19	풍기군수 權尙任이 중형 송묵 1자루, 소형 1동, 묘문 도배용 장지 2권	雜錄b
1680. 8월	봉화현감 안중이 백지 2권, 柳器 2부	雜錄b
1682. 봄	풍기군수 任弘亮이 송묵 1동	雜錄b
1682. 10월	풍기군수 임홍량이 송묵 1동	雜錄b
1683. 4월	풍기군수 南宮鈺이 송묵 1동, 누룩 1동	雜錄b
1686. 3월	문성공 위판 봉안 때 순흥부사 朴時璟이 장 1단지, 누룩 1동	雜錄b
1688. 9월	명륜당·직방재·지락재·동몽재·원장방·유사방 새로 도배	雜錄b
1688. 11. 25	순흥부사 洪得禹가 위문편지와 碧魚 3편, 건시 2첩	雜錄b
1690. 3월	순흥부사 尹梅가 사당 문 도배용 장지 2권	雜錄b
1692. 11. 13	관찰사 李玄紀가 백미 2섬	雜錄b
1694. 11월	순흥부사 정중창이 백미 2두, 콩 3두, 생치 1마리	雜錄b
1696. 7월	거집 때 순흥부사 鄭重昌이 청주 15병, 개 2마리, 角黍 1그릇, 米食 1그릇	雜錄b
1699. 9. 21	감사 李世載가 순행 차 와서 진묵 3동, 황필, 백필 각 15자루	雜錄b
1699. 11. 3	순흥부사 成碩薰이 사슴고기 4근	雜錄b

248) 安應昌(1593~1673)은 순흥 안씨, 자는 愚拙齋, 인조 때 振武功臣 順陽君 安夢尹의 아들이며 장현 광의 문인.

### Ⅲ-2. 17세기 초 童蒙教育의 활성화

17세기에도 소수서원의 강학은 여전히 과거 준비를 위한 居接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科業 중심의 강학방식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17세기 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도 17세기 초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藏修游息’의 강학 이념을 토대로 교육과 강학의 연장선에서 ‘遊息’을 바라보며 유식공간의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유학에서 교육이란, 단순히 경전을 읽고 외는 문자 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것으로, ‘藏修’의 과정 뿐 아니라 ‘遊息’의 과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서원을 더 이상 과거 준비 기관에 머물지 않고, 마음과 性情까지 함양하고 성찰하는 수양과 道學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즉, 17세기에는 강학의 실체는 여전히 科業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소수서원 운영자들 사이에서 서원은 科業이 아닌 道學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소수서원의 동몽교육은 16세기 말 黃應奎에 의해 동몽재가 건립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황응규(1518~1598)는 퇴계의 문인으로, 1543년 생원시에 입격, 1546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공부하였으며, 1569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한 뒤 1588년 사직하고 고향인 풍기에 돌아와 은거하며 소수서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庚戌년(1730)에 작성된 「院宇修理時記事」에 따르면, 소수서원의 동몽재는 1677년에 창건되었다가 이후 방치되어 무너지고, 1730년 중건하여 ‘學求齋’로 당호를 바꾼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49)</sup> 그러나 『雲院雜錄』에 의하면 1605년부터 동몽재에 식모와 재직, 곡식, 백지 등을 보낸 기록이 확인되고,<sup>250)</sup> 1607년에는 ‘동몽재는 애당초 동몽으로서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나 공부할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며,<sup>251)</sup> 또 1615년 무렵까지 동몽의 인원이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는 기사가 여러 차례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1605년 이전에 이미 동몽재가 건립되었으며, 17세기 초에 이르러 동몽재가 성황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몽재가 1677년에 창건되었다는 「院宇修理時記事」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1677년은

249) “童蒙齋三間 舊在於今之霽月樓基 至本府復設前丁巳年間 以朶至樂齋北畔 僻在東牆之一隅 房室卑窄 人迹罕到 多年曠廢 大半頽壓 迺於至樂齋新房之間 向南拓址 斫新椽移建 而稍變舊制 西二間爲房 東一間爲堂 童蒙居齋 今無此規已久 僉曰改扁 可也 遂模得朱夫子筆學求二字 至樂齋齋字一字揭板曰學求齋” (『紹修書院誌』, 「院宇修理時記事」).

250) 『雲院雜錄』, 乙巳 4월.

251) 같은 책, 丁未 復月 上旬.

창건이 아니라 동몽재를 증건한 연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1605년 이전에 동몽재가 건립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소수서원 관련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산해가 지은 황응규의 묘비명에 따르면, 소수서원의 동몽재는 황응규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묘비명에 따르면, 황응규는 당시 소수서원의 거점이 단지 과거 입격만을 위주로 하고 동몽 교육을 등한시 하는 것을 커다란 흠으로 여겨 동몽 교육을 위하여 別齋인 동몽재를 지었다.<sup>252)</sup> 황응규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 풍기에 낙향한 것은 1588년이며 그가 졸한 것은 1598년이니, 동몽재는 16세기 말, 1588년에서 1598년 사이에 건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황응규 사후에도 당시 소수서원 원장 광진이 황응규의 아들 黃暹, 黃是 형제에게 동몽재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소수서원 동몽재가 그들의 부친이 건립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소수서원 동몽재는 16세기 소수서원의 강학이 과거 입격을 위한 거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동몽교육을 등한시 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나 공부할 곳이 없는 동몽들에게 강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6세기 말에 설립되어 17세기 초에는 매우 활발히 운영되었다. 즉 16세기 말 동몽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동몽들은 소수서원의 강학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건립 이후 17세기 초까지 동몽재의 운영 상황은 『雲院雜錄』에 수록된 기사를 통해 대략 확인할 수 있다. 1605년 4월에는 풍기군수 노경임이 屬公 암말 1필, 식모 玉卜과 齋直 5명을 동몽재로 보내 소속시키고, 쌀 7섬, 米傘 3섬, 콩 2섬,租 5섬, 荒租 6섬도 함께 보냈으며, 5월에는 풍기군수 윤길익 백지 1권을 동몽재에 보내왔다.<sup>253)</sup> 동몽재의 건물은 16세기 말에 건립되었으나, 동몽재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과 재정 등의 실질적 기반은 1605년 무렵 비로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07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동몽재의 인원이 너무 많아져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두고 당시 원장 郭暻은 黃暹 등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차례 품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에 없었던 동몽 교육제도가 소수서원에 처음 생기자 동몽재가 매우 성황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동몽재의 운영은 서원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동몽들의 양식은 서원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식을 직접 부담하는 동몽들만 받아들여 숙식을 허락하였다.<sup>25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몽재에 찾아오는 동몽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지자 원장

252) “郡有紹脩書院 是文成故里 愼齋公所建 久而寢弛 公慨然志脩復 且以舊制 院接只聽場屋入格 大欠蒙養 於是作童蒙別齋”(『鵝溪遺藁』, 권 6, 「嘉善大夫同知敦寧府事黃公墓碑銘」).

253) 『雲院雜錄』, 乙巳 4월; 5월.

곽진은 황응규의 아들 黃暹, 黃是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상의하였다. 황섬의 연보에 따르면, 곽진은 황섬과 같은 고향 풍기 사람으로 황섬과 매우 두터운 교분을 맺고 있었으며, 당시 소수서원의 동몽재 운영에 대해 황섬에게 편지를 보내 여러 차례 稟質하고 있다.<sup>255)</sup> 이에 1610년 황섬은 곽진에게 답장을 보내 “加冠의 조만은 논할 것도 없고, 책보를 싸가지고 오면, 귀하게 여길 것은 그 뜻이 얼마나 학문에 독실한가입니다. 別齋(동몽재)로 맞아들여 아름답게 문채를 이루게 된다면 덕을 완성한 선비가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구애할 것이 있겠습니까”<sup>256)</sup>라고 하고, 1615년 황섬의 동생 黃是 역시 곽진에게 보낸 편지에 “동몽의 정원이 너무 많은 문제는 혹시 변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되지 못하면 어쩔까를 걱정하겠습니까”<sup>257)</sup>라고 하며, 동몽의 인원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洞主로서 서원의 재정을 잘 도모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책을 강구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당시 동몽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615년 원장 곽진이 당시 풍기군수 李掞에게 보낸 편지에 “멀리서 찾아오는 제생들이 전보다 더 많아져 書齋 문 앞에 늘 신발이 가득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공부가 내면을 수양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다수 燕許楊劉의 餘習이니 이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sup>258)</sup>라고 하면서 독서보다 科業에 치우친 유생들의 공부 방식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 황응규가 당초 동몽재를 건립할 때의 의도와 달리, 17세기 초 소수서원의 동몽교육 역시 과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초 동몽재 강화에 참여한 동몽의 연령과 이후 성인이 된 이후 강화 참여의 지속성 여부 등은 17세기에는 동몽의 명단이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예로 18세기 居齋錄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20년부터 1760년까지 居齋錄<sup>259)</sup>에 수록된

254) 『雲院雜錄』, 丁未 復月 上旬.

255) “庚戌 先生六十七歲 春 答紹修山長郭上舍書 童蒙入院者有限年之議 時山長郭上舍裁書稟質于先生 先生答以毋拘年限 許入成就. 郭上舍名嶠 先生鄉人也 有文章氣節 隱居不仕 自號丹谷居士 先生與之契深 南歸之後 日相從游 交誼尤密”(『息庵集』, 「息庵先生年譜」, 庚戌).

256) “加冠之早晚 有不足論 而負笈而來 所貴其志之篤學 迎入別齋 斐然成章 則不難爲成德之士 何拘之有”(『雲院雜錄』, 庚戌 暮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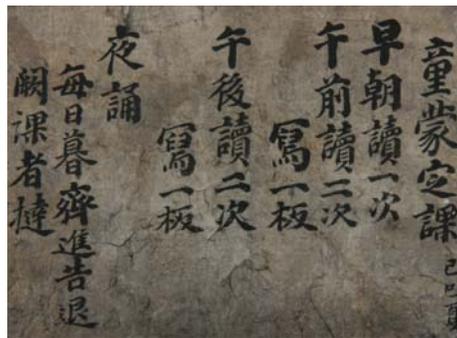
257) “童蒙之額過逾 則容或有變通之道 上齋則多多益辦 豈有權與不承之慮乎”(같은 책, 乙卯 5월 晦).

258) 『丹谷集』, 권3, 「上蒼石」.

259) 『紹修書院誌』, 「入院錄」3(1720~1760). 소수서원지에서는 표지가 낙장이라, 이를 입원록으로 추정하였으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실체는 입원록이 아니라 거재록이다. 소수서원지에는 총 5편의 입원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3편만 입원록이고 나머지 2편은 입원록과는 다른 성격의 자료이다. 소수

인원 총 569명 중 동몽은 36명, 그 중 생년이 확인되는 동몽은 23명이다. 동몽 23명의 연령은 (53세를 제외하면) 13세에서 26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13세 1명, 14세 2명, 15세 3명, 17세 2명, 18세 5명, 19세 3명, 20세 1명, 21세 3명, 23세 1명, 26세 1명, 53세<sup>260)</sup> 1명이다. 대개 10대에서 20대 전후까지를 동몽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18세를 冠者로, 26세를 동몽으로 수록한 경우 등에 따르면, 동몽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꼭 연령 뿐 아니라 개인의 학문 성취 정도까지 동시에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몽으로서 거재에 참여했던 이들 중 일부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강학에 참여하거나 소수서원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1744년 거재에 참여한 13세 동몽 李可畏는 1749년 거재에 冠者로 참여하고, 1754년 거재에 참여한 동몽 柳喜湜(생년 미상)도 1760년 거재에 冠者로 참여하고 있으며, 1760년 거재에 참여한 15세 동몽 朴坡은 1777년 생원시에 입격한 뒤 1781년 冠者로 당회에 참석, 1778, 1779, 1780, 1783년에는 별유사에 임명되었으며, 1760년 거재에 참여했던 21세 동몽 黃尙祖(후에 濬孝로 개명)도 1783년 별유사에 임명되고 있다.

그 외 동몽들의 구체적인 교육방식이나 하루 일과 등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여타 강학 사례의 동몽교육 방식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세기 화서학과의 강학에서 시행된 동몽들의 하루 일과를 규정한 「童蒙定課」라는 문서를 살펴보자.



<그림 1>. 화서학과의 강학에서 시행된 동몽들의 하루 일과<sup>261)</sup>

서원지에서는 2편 모두 표지가 낙장이라 입원록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원지에 수록된 5편의 입원록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뒤의 IV장에서 상세히 분석하겠다.

260) 그 중 1760년 10월 24일 거재에 동몽으로 참여한 李增慶은 생년이 戊子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연령이 53세인데, 아마 간지를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261) 「童蒙定課」, 춘천 高興 柳氏 寄贈 유물, 강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위의 「童蒙定課」에 따르면, 동몽들은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고, 독서한 뒤에는 반드시 독서한 내용을 한 차례씩 베껴 쓰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독서와 베껴 쓰기를 마치고 밤에는 당일 공부한 내용을 암송하여 통과하지 못하면 회초리를 맞는 체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독서한 내용을 ‘베껴 쓰는 것’이 매일의 동몽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과제였다는 사실은, 유학 교육에서 ‘몸 공부와 마음공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후기의 李德懋도 『士小節』에서 “무릇 글이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이 결국은 손으로 한번 써보는 것만 못하다. 대개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므로 비록 20번을 읽어 윈다 하더라도 한 차례 힘들여 써보는 것만 못하다.”<sup>262)</sup>고 함으로써, 독서한 글을 손으로 베껴 쓰는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학에서 몸의 훈련과 검속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몸은 사유한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학에서 몸의 검속이 그토록 강조되는 것은 ‘모든 손동작에는 사유의 요소가 들어 있으며, 모든 손일은 사유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발상에 기인한 것이었다.<sup>263)</sup>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반드시 따른다’는 이덕무의 생각은 바로 ‘몸은 사유한다’는 생각과 상통한다. 이처럼, 손이 움직이면 반드시 마음이 따르므로 매일 공부한 내용을 베껴 쓰는 것을 중요한 교육과정의 하나로 부과하며, 몸의 검속이 강조되는 이유가 몸은 사유한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인식은 유학에서 교육의 의미와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머릿속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이나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맹목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작동함으로써 ‘의지를 기르고 발달시키는 교육’이다. 유학에서는 이 의지 교육을 통해 경전 속 지식의 내면화, 즉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꿈꾸었다. 이는 ‘손이 움직이면 반드시 마음이 따른다’는 몸과 마음의 조응관계에 대한 믿음, 즉 ‘몸은 사유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초학자의 경우, 문제는 손이 가는 데에 마음이 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 때 몸과 마음이 괴리되지 않고, 몸 가는 곳에 마음이 반드시 함께 가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유학에서의 ‘敬의 공부법’이다. 주자와 퇴계는 경 공부를 통해 항상 집중력을 훈련하도록 강조하였고, 18세기부터는 소수서원 강학에서도 일상의 시공간에서 몸과 마음의 검속을 통해 敬을 유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敬齋箴」과 「夙興夜寐箴」을 날마다 敬讀함으로써, 敬의 공부론을 매우 중시하였다. 위에 언급한 이덕무의 사소절과 화서학과의 강학에서 매일 공부한 내용을 베껴

262) 『士小節』, 권 3, 士典 3, 「教習」.

263) 정순우, 『공부의 발견』, 2007, 현암사, 178쪽.

쓰도록 하는 것 역시 동몽들에게 부과된 일종의 경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한 내용을 베껴 쓰되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드시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 날마다 학습한 경전 속 지식이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실천의 힘을 갖춤으로써, 지식과 덕성의 결합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17세기 道東書院의 동몽 교육을 통해서는 교육과정 및 학습방법에 있어 유생과 동몽이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동서원에서는 소수서원과 달리 연령을 기준으로 20세 미만은 동몽, 20세 이상은 유생으로 구분하여 동몽은 별제인 양몽재에 거처하며 강학하도록 하였다. 유생에게는 경전·성리서·역사서·자서·문집을, 동몽에게는 소학을 읽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습방법에 있어서도 유생에게는 표준화된 학습량을 부과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각자의 진도에 자율적으로 맡긴 반면, 동몽에게는 의무적으로 소학을 암송하게 함과 동시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학습과정을 일일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유생과 동몽의 학습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sup>264)</sup>

17세기 초, 檜淵書院의 전신이었던 회연초당에 寒岡 鄭述가 만든 강학조직인 通讀會의 동몽교육 방식도 주목된다. 통독회의 교육과정은 크게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으로 구별되었다. 개별학습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모든 동몽은 소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그 외 각자 수준에 따라 경서 1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여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강장 앞에서 考講을 시행하여 通-略-粗-不의 4단계로 평가하되 불통한 자에게는 회초리를 때리는 楚罰이 가해졌다. 개별학습 과정에 대한 고강과 체벌이 끝나면 식사 후 강장의 지도하에 다함께 모여 소학, 여씨향약, 동몽수지 등을 通讀하고 토론하는 공동학습이 이루어졌다.<sup>265)</sup> 이와 같은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의 병행’은 조선시대 서원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된 교육방식으로, 근대의 획일화된 교육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특질 중 하나이다. 연령과 수준에 따라 동몽과 유생으로 나누어 각자 개별적으로 독서하던 이들이, 연령과 수준을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두 모여 함께 공부하는 공동학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通讀’이나 ‘講會’이다. 혼자 독서하던 유생들은 통독이나 강회의 장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선배나 스승의 통찰을 배우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群居講學’과 ‘麗澤之力’이라는 서원 강학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었다. 18세기 소수서원의 居齋에서도 개별학습과 공동학습이 병행되고 있으며, 동몽들도 유생들과 함께 통독에 참여하는 것을 볼

264) 『寒岡續集』, 권 4, 雜著, 「道東書院院規」.

265) 『寒岡續集』, 권 4, 雜著, 「通讀會儀」.

수 있다. 寒岡 鄭述의 언행록<sup>266</sup>)에 따르면, 당시 이 통독회에는 보통 70여 명씩 참여하였고, 통독회가 개설된 지 2년 만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문자를 알게 되었으며, 학문을 성취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동몽 교재는 도동서원과 정구의 통독회에서 볼 수 있듯이, 小學이 가장 보편적이며, 한강의 통독회에서는 呂氏鄉約, 童蒙須知도 활용되고 있다. 그 외 동몽 교재로는 16세기 말 한강 정구의 講會契<sup>267</sup>)에서는 遣子帖, 訓蒙十訓, 呂氏格言이, 19세기 화서학과의 柯亭書社<sup>268</sup>)와 長潭書社<sup>269</sup>)에서는 白首文(천자문), 擊蒙要訣, 童蒙先習, 啓蒙篇, 通鑑, 唐音, 孝經, 史略 및 다산 정약용의 兒學篇 등이 쓰이고 있다.

18세기 중반 三溪書院에서는 보름씩 기간을 정해놓고 ‘居接’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상시 유생의 수는 10명으로 한정하되 冠者 8할, 童子 2할로 하여 거접에 참여하는 동몽 인원의 비율을 아예 규정으로 정해두어, 서원 교육에서 동몽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계서원의 거접은 머무는 기간은 15일로 한정하고, 매 월 초하루와 보름에 10명씩 조를 짜서 순번에 따라 교체하는 分番 강학의 형태를 취하였다.<sup>270</sup>)

1615년 이후 소수서원 동몽제의 구체적인 운영상황은 기록이 없어 더 이상 알 수 없다. 다만 「院宇修理時記事」에 1677년 동몽제를 중건하고, 1730년에 동몽이 거제하는 제도가 없어졌다는 기록에 따르면, 17세기 후반까지는 동몽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동몽 교육이 점차 쇠퇴하여 1730년 무렵 동몽이 거제하는 제도가 아예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30년에는 여러 해 방치되다가 무너진 동몽제를, 지락재와 新房 사이 남향으로 터를 잡고 이건하면서, 동몽이 거제하는 제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편액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주자의 글씨를 모사하여 ‘學求齋’라 편액을 바꾸었다.<sup>271</sup>) 이후 18세기에는 동몽제를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일정 수준의 학문에 도달한 동몽 일부를 받아들여 冠者들과 함께 居齋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였다. 18세기부터 學求齋는 거제할 때 直方齋와 함께 유생들의 기숙사로 활용되었으며, 1805년과 1854년 다시 중건되었다. 1854년의 중건은 문성공 안향의 외손이자 당시 순흥부사로서 소수서원의 원장을 맡은 金曾鉉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때 서원 유생들은 겸원장 金曾鉉에게 學求齋의 중건을 중용하면서 “小學의 灑掃應

266) 『寒岡先生言行錄』, 권 1, 「類編」, <教人>.

267) 『寒岡集』, 권 9, 雜著, 「契會立議」.

268) 『柯亭講錄』, 춘천 高興 柳氏 寄贈 유물, 강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269) 『長潭講錄』, 춘천 高興 柳氏 寄贈 유물, 강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270) 『訥隱集』, 권 6, 雜著, 「居齋節目」.

271) “童蒙居齋 今無此規已久”(『紹修書院誌』, 「院宇修理時記事」).

對에서부터 大學의 誠正治平의 공효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童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집을 지어 마음을 수양하게 하였으니, 이 땅에 훌륭한 인재가 많고 풍속이 아름답고 성대한 것이 대개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번 이런 뜻이 강명되지 않고부터 살아서는 학문을 알지 못하고 학문을 하더라도 교육을 알지 못하여, 황폐해지고 멀렬되어 성취되는 바가 없었고, 이에 집도 따라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sup>272)</sup>라고 하며 동몽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1854년 가을 金曾鉉은 소수서원 원임 琴舜圭, 朴顯道 등과 함께 물자를 모아 수개월에 걸쳐 學求齋를 증건한 뒤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증건 이후에도 동몽재가 다시 운영되거나 동몽 교육이 별도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

272) 『紹修書院誌』,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 Ⅲ-3. 居接의 운영과 科業 중심 講學에 대한 비판

17세기 초에는 동몽재 뿐 아니라 유생들의 居接 역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거점에서 유생들의 공부가 지나치게 과거공부에만 치우치자, 당시 원장 곽진과 풍기군수 이준은 科業에 치우친 유생들의 공부에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이래 지속된 科業 중심의 강학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17세기 초 풍기군수 李竣은 과거에 응시하는 서원의 유생들에게 「諭赴學士子文」이라는 글을 지어 과거 응시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침으로써, 서원에서의 과거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 응시할 서원 유생들에게 과장의 폐단 및 과거에 임하는 자의 용모와 자세, 과거 문체를 짓는 데에도 의리와 이치가 있음을 상세히 일러주고 있는 지방관의 모습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풍기군수 李竣의 「諭赴學士子文」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제 가을 시험 날짜가 임박하였으니 시험 삼아 근래 科場의 폐단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선비가 시험에 응시한다고 모두 신실하고 중후하지는 않습니다. 더러는 나이가 적으면서 기질이 날카로우며 하루아침에 시험장에 나아가기를 마치 적진에 돌진하듯이 하여, 혹은 같은 무리를 물리치고 혹은 試題를 고쳐달라고 청하면서 경솔하게 다툼의 단서를 만들고 경박한 말로 선동하고 떠들썩한 말에 휩쓸려 국법을 범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개 四民 중에서 선비가 가장 귀한데, 선비가 지키는 것이란 禮讓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양이란 자신의 몸가짐을 중후하게 하고 남을 공손하게 대하며 성내는 것을 경계하고 읊을 하며 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몇 건의 일은 모두 이와 상반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선비 된 자의 아름다운 풍습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시험에 응시하는 날 이 말을 명심하여 걸음걸이를 절도 있게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용모를 바르게 하고 몸을 단속하여, 반드시 조용하고 중후하게 처신하고 시끄럽게 몰려다니면서 선비의 자세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생각건대, 무릇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義理를 주로 하여, 정신을 온전하게 기르고 志氣를 화평하게 가져야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고 붓과 손이 서로 응하여 맥락이 두루 통하고 精華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글만 볼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텁고 차분한 기상도 모든 선비들이 우러르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주히 준비하고 진중일 고생하더라도 이미 혈기와 심신이 혼란하여 붓을 들면 생각이 엉키고 붓 가는 길이 거칠게 됩니다. 차분함과 조망함이 이미 달라 득실이 절로 갈리니, 지금에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으면서도 왕왕 합격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 거의 이런 사유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어찌 응시자로서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내 비록 불민하여 학력은 비록 없지만, 일찍이 시험장에서 겪어 알고 있어 이것으로 스스로 면려하였는데, 지금에 사우들이 응시하기에 감히 스스로 숨기지 않고 들은 대로 알려드리니 제군들은 힘쓰기 바랍니다.”<sup>273)</sup>

이 글에서 이준은 부거유생들에게 과장의 폐단과 경계할 바를 말하고 있지만, ‘과거 문체를 짓는 데에 있어서도 형식만 화려한 글을 지어서는 안되고, 義理를 주로 하여 정신과 志氣가 화평해야만 마음과 이치가 하나 되어 맥락이 통하고 精華가 빛나는 글을 지을 수 있으며, 지은 글만 화려해서도 안 되고 글을 지은 사람의 기상까지도 모범이 되어야만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사실상 서원 강학에 대한 평소 그의 교육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義理와 정신의 함양, 화평한 志氣와 모범이 되는 기상, 마음과 이치의 결합’이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꾸준한 공부와 수양이 전제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평상시의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문예도 성취될 수 있고, 일상의 꾸준한 공부를 통해 덕행이 길러지지 않은 채 문예만 추구해서는 과거 문체조차도 제대로 지을 수 없으며, 문예는 곧 덕행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교육관은, 과거공부뿐만 점철된 당시 소수서원의 강학 방식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으며, ‘서원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교육관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원 교육에 대한 이 같은 신념은, 이후 100년 넘게 지속된 소수서원의 입원자격 논쟁에서 최초로 ‘罷格’을 주장한 풍기군수 이준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였다.

17세기 소수서원 居接의 운영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雲院雜錄』과 문집 등의 기록에 17세기 초 거점인원이 너무 많아 유생 공제 비용을 걱정하는 기사와 17세기 중후반까지 풍기군수가 거점에 물품을 보낸 기사 등에 따르면, 17세기 후반까지 거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入院錄』 1(1543~1696)과 『入院錄』 2(1660~1691)에 입원 유생들이 강학에 참여한 월일에 대한 기록을 통해 17세기 거점의 개설 시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雲院雜錄』과 『息庵集』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17세기 초에는 동몽재 뿐 아니라 冠者들의 거점 역시 성황을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점인원의 다소에 있어서는 문 밖에 늘 신발이 많지 않은 것을 걱정할 것이지 어찌 그 숫자를 한정하겠습니까?”<sup>274)</sup>(1607. 11. 10)

“미곡이 줄어든 것은 애당초 흉년이 들고 인심이 신실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원장이 잘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도들이 많이 몰려왔으니 누가 그들을 막겠습니까. 먹을 자가 적어 쌀이 쓸데없이 쌓여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쌀은 날로 줄어들더라도 날마다 문 밖에 신발이 가득한 것을 보고 글 읽는 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는 것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대처하

273) 『蒼石集』, 권 13, 「諭赴舉士子文」.

274) 『雲院雜錄』, 丁未 復月 上旬.

는 도리는 모두 자신의 정성에 달려 있으며, 정성을 다한 뒤에 혹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비들이 다 헤아려줄 것입니다. 어찌 양식 때문에 물러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충족하지 못하는 수량은 가을건이가 다가왔으니 힘쓸 곳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선 머물러 잘 계획하고 주선하여 마음을 다하여 도모하시면 어지간히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선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sup>275)</sup>(1615)

“근래에 들으니, 선비들이 더욱 성대하게 모여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문 밖에 신발이 가득한 것이 참으로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어찌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더욱이 잘 도모하여 기필코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洞主가 유능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어찌 이전에 잘하다가 이후에 잘하지 못하겠습니까. 密果는 변두에 쓰지 않는데, 폐습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행해져 낭비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괴이하게 여깁니다.”<sup>276)</sup>(1615)

이와 같이 17세기 초에는 동몽교육 뿐 아니라 관자들의 거접에도 유생들이 많이 몰려 공궤 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당시 원장 궐진은 거접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모두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황섬 등에게 편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황섬은 그 때마다 양식 때문에 인원을 제한하기보다는 서원의 재정을 잘 관리하여 선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洞主의 도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16세기 斯文立議에서는 거접 인원을 10명으로 규정하였지만, 17세기까지는 규정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거접 인원이 많아져 당시 直方齋 하나로는 거접유생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17세기 초 유생들의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14년 풍기군수 李俊은 서원의 동쪽 뜰 모퉁이에 작은 서재를 추가로 짓고 ‘지극한 즐거움으로는 독서만한 것이 없다(至樂莫如讀書)’는 구양수의 글귀를 따서 ‘至樂齋’라 이름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소수서원의 서재는 직방재와 동몽재, 지락재를 합하여 3개가 되었다. 이 때 이준은 지락재를 지으면서 단지 건물 하나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서재 앞에 臺를 쌓고 臺 아래 또 못을 파고 못에는 다시 연꽃을 심으면서 ‘藏修’와 ‘遊息’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강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연못과 대가 모두 완성되자 연못은 ‘濯淸池’, 대는 ‘仰高臺’라 이름하였으며, 지락재의 의미를 묻는 서원 유생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75) 『息庵集』, 권 4, 「答院長郭靜甫」.

276) 『息庵集』, 권 4, 「答白雲院長」.

“긴 날 밝은 창 아래 정결한 책상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단정하게 앉아 정신을 맑게 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여 책을 펼쳐놓고 읽으며 義理에 침잠합니다. 마치 丹藥을 만들듯이 부지런히 하고, 마치 불고기를 즐기듯이 열심히 하여, 반복하여 익히고 두루 이해하여 관통하여, 진수를 맛보아 欲罷不能의 상태가 되면, 덕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하여 전날에는 혼미하였다가 지금에 깨닫고, 도로 나아가는 방도에 대하여 전날에는 어두웠다가 뒤에 깨닫게 됩니다. 마치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과 같고 마치 배고픈 중에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뒤에 스스로 체득하여 기쁨에 고무되면 이는 맛있는 고기가 입을 즐겁게 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맛을 즐겁게 할 수 없고 鍾鼓管絃으로도 그 음조를 즐겁게 할 수 없고, 千駟萬戶도 그 富를 즐겁게 할 수 없고, 金袋銀章도 그 貴를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도 나의 즐거움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릇되고 편벽된 생각이 절로 없어지고 외물의 유혹이 절로 끊어지며, 즐거움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서 천지사방에 넘쳐흐릅니다. 때때로 臺 위에서 바람을 쏘이면서 우러를수록 더욱 높은 道體를 보고 연못가에서 소요하면서 물의 근원이 있는 것을 깨닫고, 지극한 이치를 읊어 천 년 전의 안회와 증점의 가락에 화답한다면, 즐거움이 지극함에 이를 것입니다. 孔夫子가 말하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않겠는가?’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이룬 것입니다. 혹시 이 서재에서 글공부를 하고 시를 지으면서 문자의 말단에 힘을 기울이고 名利 속에 마음을 쓰고서 자신이 독서하는 본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보잘 것 없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 至樂에 대하여 함께 논할 수 있겠습니까.”<sup>277)</sup>

이와 같이 17세기까지는 거점 인원이 규정을 초과하더라도 강제로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최대한 많은 유생들에게 강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후 서원 재정이 점차 열악해지자 18세기부터는 蓄을 나누어 교대로 참여하는 輪番 강학을 시행함으로써 인원의 과다 문제와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윤번강학 제도는 소수서원 외에도 17세기 옥산서원 居齋에서는 30일 간 5명씩 5일 단위로 輪回入學을 시행하고,<sup>278)</sup> 18세기 병산서원 居齋에서는 보름단위로 4巡으로 나누어 순마다 8명에서 17명씩 참여하는 윤번 거재를,<sup>279)</sup> 18세기 삼계서원 居接에서도 1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는 分番 강학을 시행하는 등<sup>280)</sup> 조선후기 서원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된 강학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서원에서는 재정을 감축함과 동시에 정해진 기간에 좀 더 많은 유생들의 강학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雲院雜錄』의 기록은 1615년에서 끝나고, 이후 17세기 소수서원 거점에 대한 기록은 1645년과 1696년 잡록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45년 1월<sup>281)</sup>에 풍기군수

277) 『丹谷集』, 권 4, 「至樂齋記」.

278) 『玉山書院誌』, 「入學記」(1649),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79) 『古文書集成』 20, 「居齋案」(1781~178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80) 『訥隱集』, 권 6, 雜著, 「居齋節目」(1746).

李莆가 거접 때 쓰도록 벼 2섬과 들깨 5말, 眞麴 10개, 청어 10관, 송묵 5자루를 보내고, 1696년 7월<sup>282)</sup>에 순흥부사 鄭重昌이 서원 거접에 청주 15병, 개 2마리, 角黍 1그릇, 米食 1그릇을 보냈다는 기록에 따르면, 1645년 1월과 1696년 7월에 각각 거접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 이어 17세기에도 역시 거접이 개설될 때마다 지방관이 술과 음식, 지필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밖에 『入院錄』 1(1543~1696)과 『入院錄』 2(1660~1691)를 통해 17세기 거접의 개설 현황을 대강 파악할 수 있다. 『入院錄』 1은 1543년부터 1696년까지 입원 유생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1543년부터 1619년까지는 입원 유생의 성명, 자, 거주지, 登科 연도를 기록하고, 1620년부터 1672년까지는 성명, 자, 거주지, 등과 연도와 함께 월일도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월일을 기록한 것은, “별도로 입원록을 두어 스스로 성명을 기록하고 아울러 와서 기숙한 연월을 기록하였다. ‘입원’과 ‘와서 기숙했다’고 한 것은 아마도 거재하며 강학한 것을 말한 것 같다”<sup>283)</sup>는 기록에 따르면, 강학에 참여한 월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를 통해 1620년부터 1672년까지 거접의 개설 시기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록에는 초시 입격자 이상만 입록할 수 있었고, 한번 입록된 사람은 이후 강학에 참여하더라도 다시 기록하지는 않았으므로, 실제 거접의 참여 인원은 입원록에 수록된 인원수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1620년부터 1672년까지 입원록에 기록된 날짜를 통해 거접의 개설 시기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入院錄』 1을 통해 본 17세기 거접의 개설시기(1620~1672)

연도	날짜	인원(명)	연도	날짜	인원(명)
1620	4월 23일	3	1631	4월	2
1621	2월 15일	8		8월	2
1622	3월	1	1632	4월 10일	6
	7월 6일	1	1633	9월 13일	5
	10월 15일	2	1635	1월	1
	10월	2	1636	2월	1
1623	7월	5		8월	8
	11월	5		9월	3
1624	3월 5일	8	1638	10월	1
1625	-	4		12월	3
1626	-	9		1639	10월

281) 『紹修書院誌』, 「年表」, 1645년 1월(『雜錄』 a).

282) 같은 책, 같은 곳, 1696년 7월(『雜錄』 b).

283) “別置入院錄 自錄姓名 并記來寓年月云 其曰入院 曰來寓云者 恐指齋居講業之謂也”(『紹修書院誌』, 「題居齋錄」, 1720년 11월).

1627	4월	4	1640	閏1월 10일	1
	10월	1		1641	6월
1628	7월	1	1644		7월
	10월	1		-	5
1629	3월	2	1651	4월	2
	12월	4		9월	2
1630	1월 22일	6	1654	2월	1
	3월	2	1672	10월 16일	5

『入院錄』 2는 1660년부터 1691년까지 입원 유생의 명단을 수록하고 있는데 『入院錄』 1과 1672년의 기록이 중복된다. 『入院錄』 1에는 5명, 『入院錄』 2에는 4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2명<sup>284)</sup>은 일치하고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아마 거점에 참여한 날짜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1660년부터 1689년까지는 연월일과 성명, 자, 거주지, 등과연도(혹은 등과여부), 관직을 기록하고, 1689년 8월부터 1691년까지는 연월일, 성명, 자, 생년만 기록하였다. 그 중 1690년 1월 5일은 居齋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完議를 작성한 날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거점에 참여한 인원을 수록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660년부터 1691년까지 입원록의 수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入院錄』 2를 통해 본 17세기 거점의 개설시기(1660~1691)

연도	날짜	인원(명)	연도	날짜	인원(명)
1660	-	9	1683	-	13
1662	-	5	1684	-	2
1665	-	2	1685	-	11
1669	-	2	1686	-	7
1672	-	4		8월 1일	13
1673	4월 1일	4	1689	-	2
1675	10월 9일	5		8월 8일	48
1677	2월 29일	8	1690	1월 5일	91
1679	-	7	1690	9월 10일	16
1681	-	2	1691	3월 1일	45
1682	-	3			

마지막으로, 17세기 입원록에 수록된 유생들의 과거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17세기 입원록에 수록된 유생은 총 371명이며 그 중 과거 합격자는 127명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한다. 그 중 입원 전 합격자는 41명, 입원 후 합격자는

284) 입원록 1에는 黃世燾, 黃世燾, 입원록 2에는 黃廷燾, 黃廷燾로 기록되었으나 자와 거주지가 같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8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약 65%가 입원 후에 합격하고 있다. 입원 후 합격자 중 소과 합격자는 78명, 문과 합격자는 36명으로, 합격자의 95% 이상이 소과 합격자이다. 그 중 8명은 먼저 소과에 합격하고 나서 서원에 입원한 뒤 문과에 합격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거절에 참여한 유생들은 대개 소과를 준비하는 유생들이 대다수였고, 16세기에 이어 17세기의 거절 역시 과거 공부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17세기 소수서원 입원 유생들의 과거 합격 현황<sup>285)</sup>

분류	전체 합격자	소과	문과	소문과 동시 합격자	합격자 내 비율	전체 입원 유생 (371명) 내 비율
입원 전	41명	39명	7명	5명	32%	11%
입원 후	82명	78명	36명	32명	65%	22%
미확인 <sup>286)</sup>	4명	4명	1명	1명	3%	1%
총계	127명	121명	44명	38명	100%	34%

285) 그 중 입원 전 문과에 합격한 7명은 강학을 위해 입원한 유생이 아니라 소수서원에 방문하였다가 입원록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7명의 명단과 과거 합격 및 입원 연도는 鄭世美(1608 문과, 1621 입원, 京), 全益禧(1624 문과, 1625 입원, 영천), 宋光心(1639 문과, 1641 입원, 영천), 李達憲(1657 문과, 1673 입원, 영천), 都處亨(1675 문과, 1677 입원, 성주), 安圭(1675 문과, 1679 입원, 京), 李東標(1683 문과, 1686 입원, 예천) 등으로, 2명은 거주지가 서울, 나머지는 영천, 예천, 성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문과 합격 후 인근 고을의 지방관으로 부임하거나 관리로서 업무상의 이유로 잠시 서원에 방문하였다가 입원록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286) 입원록에는 합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방목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Ⅲ-4. ‘罷格 논쟁’의 교육적 의미

1690년 1월 5일에 작성한 完議에는 소수서원의 ‘居齋’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87)</sup> 그러나 거재 참여자의 자격과 숙식 제공 기준 정도만 제시하고 거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 당시 거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확인할 수 없다. 16세기에는 입원록에 수록되지 않은 유생들에게도 거접에서 숙식을 제공하였으나, 이 완의에서는 입원하지 않은 유생에게는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원록에 수록되지 않은 유생 및 동몽은 양식을 지참하고 오는 경우에만 기숙을 허락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1700년 3월에도 향사를 마친 이후 거재 및 서원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完議를 작성하고 있다.<sup>288)</sup> 윤번 거재에 대한 규정은 이 완의에서 처음 마련되었다. 거재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10명을 초과할 경우 날짜의 선후를 따져 윤번 교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690년 완의에서는 입원록에 수록되지 않은 유생도 양식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거재를 허락하도록 하였으나, 1700년 완의에서는 입원록에 수록되지 않은 유생들의 숙식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동몽의 경우에만 양식을 가지고 오면 거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본원에서 선비를 취하는 데에는 이미 입격을 기준으로 하니, 춘추 향사와 모든 모임에서도 일체 옛날 규례에 따라 出文하는 것 외에 절대 잡다하게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입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잡다하게 거재에 참여시킬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0년 상간으로 작성된 두 완의에서 거재 참여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설립 초기 주세붕이 정한 과거 입격자 중심의 입원 자격을 두고 당시 소수서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690년 완의에서 입원하지 않은 유생들에게 양식을 지참할 경우 거재 참여를 허용한 것은, 당시 진행되던 논쟁에서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이 罷格으로 개정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또 1700년 완의에서 입원하지 않은 유생에게 다시 거재 참여를 금지한 것은 주세붕이 정한 입격자 중심의 입원 자격이 다시 회복된 직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원 자격에 대한 논쟁에서 罷格과 復格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는 소수서원의 강화 규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논쟁은 17세기 초에 시작되어 1689년의 罷格, 1699년의 復格을 거쳐 결국 1719년 1월에 파격으로 마무리되었다.

287) 『紹修書院誌』, 「庚午正月五日完議」.

288) 같은 책, 「庚辰三月享祀時完議」.

윤희면은 이 논쟁의 경과에 대해, 당시 순흥과 풍기 지역에서 소수서원과 옥양서원, 순흥 안씨와 평해 황씨,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확대되던 가운데, 숙종대 중앙정계의 권력 변동에 영향을 받아 소수서원에서도 ‘罷格’과 ‘復格’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소수서원에서도 기사환국 이후에는 남인 세력이, 갑술환국 이후에는 서인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함에 따라 남인 중심의 罷格론과 서인 중심의 復格론이 차례로 우세해지다가, 결국 영남지역 내 서인세력 침투에 대한 남인세력의 결집 요구, 순흥 지역의 미입격 양반사족들이 서원에 입원함으로써 약화된 향촌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해 등이 겹쳐 결국 파격으로 확정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sup>289)</sup>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향권의 문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논쟁은 서원 교육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16세기 科業之所로서의 주세붕의 서원관으로부터, 17세기 이후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之所로서의 서원 강화 이념이 확립되어가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격자 중심의 입원 규정은 애초에 서원을 과거 준비 기관으로 인식한 주세붕의 서원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는 향후 수백 년 간 지속될 논쟁의 불씨를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 즉, 이 논쟁은 ‘科業之所’에서 ‘道學之所’로 소수서원 강화의 이념과 성격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17세기 초 소수서원의 입원 규정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로 풍기 군수 李堧이었다. 이 때 파격을 주장한 이준의 논리를 살펴보자. 당시 이준이 소수서원 원장에게 보낸 「諭白雲洞院長文」<sup>290)</sup>에는 이준이 주장한 파격의 근거가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며, 함께 모여 서로 장점을 키우고 피차의 한계를 두지 않아, 비록 병영의 군사나 변방 오랑캐의 아들이라도 모두 입학을 허락하여 서로 좋은 것을 본보기로 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선왕이 학교를 설치한 뜻이다.

2. 학교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규정은 본래 德行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德行은 시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藝業을 상고하여 권면하였다. 藝業이란 ‘책읽기, 글짓기, 글씨 쓰기’ 세 가지로, 이는 한 걸 같이 중급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 암송(背書)하는 것이 2백 자에 불과하고 글씨 쓰기도 그러하며, 글짓기도 학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르고 어려운 수준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3. 그런데 유독 이 백운동서원은 學式이 다른 학교와 같지 않아, 입격자가 아니면 비록 출

289) 소수서원 입원 자격에 대한 논쟁의 경과 및 이를 둘러싼 영남지역 향론의 추이는 「소수서원 罷格論爭」(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221~248쪽) 참조.

290) 『蒼石集』, 권 13, 「諭白雲洞院長文」.

중한 인재라 하더라도 입학할 허락하지 않으니, 과목을 설치하고서 오는 것을 물리치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인재를 다 쓰지 않는다면, 이는 장인이 侏儒를 버리고 의사가 병자를 내치는 것과 같다.

4. 德行은 근본이고 文藝는 말단이므로, 형식만 화려한 글로 시험하고 利祿의 길로 유인하는 것은 옛날 의리에도 이미 어긋난 일이다. 狂狷한 선비나 互鄉의 동자, 꼴을 깊어진 자나 여관에서 신발을 훔친 자도 모두 공자, 증자, 맹자에게 거절당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장의 試券이 없다는 이유로 고을의 뛰어난 선비가 유독 이 서원에서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미 삼대에서 학교를 설치할 때의 법도가 아니다.

5. 道라는 것은 만세에 폐단이 없지만 그 밖의 제도는 때에 따라 증감하는 것이니, 삼대의 학령도 큰 성인에게서 나왔지만 역시 시대에 따라 바뀌었다. 더욱이 잘못된 규정이라면 옛날 제도라는 사실에만 구애되어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院中에서 두루 논의하여 학식을 고쳐 원근의 선비들에게 입격 여부를 논하지 않고 모두 입학할 허가하길 바란다.

이 글에서 이준은, ‘본래 학교를 설치한 목적은 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예부터 차별 없이 학생을 받아들였다. 학교의 인재 선발 기준은 본래 덕행이 우선이지만 덕행은 시험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읽기, 글짓기, 글씨 쓰기의 藝業으로 선발하였고, 그 기준도 중급 이하의 기본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 유학 교육에서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인데, 소수서원에서는 덕행이 아닌 문예로 학생을 뽑고 과거와 이록의 길로 학생을 인도하니 이는 이미 덕행을 근본으로 삼는 유학의 의리에 어긋나며 삼대의 학교를 설치한 법도에도 벗어난 것이다. 道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는 시대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니, 덕행보다 문예를 우선하는 잘못된 입원 규정을 주세붕이 만든 제도라고 해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입격 여부에 상관없이 입학할 허가하여 고을의 뛰어난 인재들이 試券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서원에서 거절당하여 뜻과 정성이 좌절되고 수치심을 겪는 일이 없도록 원중에서 논의하여 규정을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풍기군수 이준이 罷格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유학교육에서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서원을 쇠퇴한 관학을 대체할 과거 준비 기관처럼 인식하며, 당시 科業의 명소로 급부상한 소수서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기군수 주세붕을 포함한 16세기 지방관들의 시각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德行은 근본이고 文藝는 말단인데, 형식만 화려한 글로 시험하고 利祿의 길로 학생을 유인하는 것은 유학의 의리에도 이미 어긋난다’는 그의 지적은, 입원자격 뿐 아니라 당시 科業에 치우친 소수서원의 강학 방식에 대한 비판도 간접적으로 포함하

고 있으며, 이는 道學과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본질로, 科業을 말단으로 규정한 퇴계의 서원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준의 이와 같은 파격 주장 이후 치열한 논쟁을 거쳐 100년 이상 파격과 복격이 거듭되다가 결국 이 논쟁이 1719년에 파격으로 마무리된 것은, 17세기 초 영남 지역 내에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관이 점차 확산, 공유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며, ‘덕행은 근본이고 문예는 말단’이라는 이준의 위와 같은 논리가 중국에는 관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윤희면의 분석대로, 이 논쟁을 ‘영남 지역사회 내 향권의 문제와 양반 사족들의 현실적 이해’라는 역학관계의 창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처럼 주자와 퇴계의 서원 강화 이념이 조선 서원에 확립,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서원 교육 내부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포착하기 어렵다. 즉, 17세기에 시작된 소수서원의 입원자격 논쟁은 서원 교육 내부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교육이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科業之所’에서 ‘道學之所’로서의 서원 교육이념의 변화는 이후 18세기 소수서원의 강화 실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17세기까지 과거 준비를 위한 居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수서원 강학이 18세기 들어 道學을 목표로 한 ‘居齋’로 그 비중이 확연히 변화되는 현상은, 이 같은 서원 교육이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 IV. 18세기 居齋의 心學的 특징과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18세기에는 서원의 폭증으로, ‘서원은 본래 선비들의 강학을 위해 설립한 것인데 강학의 實은 없고 제향만 일삼으며, 토지와 양정을 모점하여 사회적 폐단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심화되자, 조정에서는 서원에 대한 각종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지방관들은 향촌의 교육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였으며, 각 서원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절목을 마련하여 강학을 개설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17세기 후반 당쟁이 격화되면서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와 향촌사림의 현실적 이해가 결합하여 서원의 첩설과 남설, 사액이 남발되어 사회적 폐단이 심해지자, 18세기 조정에서는 서원에 대한 다방면의 통제책을 시행하였다. 동일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疊設을 금지하고 첩설처에는 사액을 불허하며, 조정의 허락 없이 건립한 서원은 훼손하기로 하는 한편, 피역 문제와 관련하여 원생에 대한 정례적인 考講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숙종과 영조는 실제로 서원 훼손을 강행하여 숙종 40년(1714)에는 일부 서원이 훼손되고, 영조 17년(1741)에는 170여개의 院祠가 훼손되기도 하였다.<sup>291)</sup>

한편, 향교교육의 쇠퇴와 서원제도의 문란에도 불구하고 ‘學校興’의 임무를 진 지방관들은 향촌의 교육을 되살리고, 조선후기 향촌의 사회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시된, 18세기 지방관의 향촌교학진흥책 중 대표적인 것으로 趙顯命의 ‘勸學節目’을 들 수 있다. 勸學節目은 1731년 경상감사 조현명이 道内の 흥학과 풍속을 돈독히 하기 위해 작성하여 조정에 아뢰던 뒤 이듬해 영조에 의해 정식화되어 8도에 시달되었다. 권학절목에서는 지방의 교학체제를 지방관의 적극적인 주관 하에 官學 중심으로 조직하고, 道-邑-面에 각각 都訓長, 校任, 面訓長을 두어 행정체계와 학제를 결부시킴으로써 교학체제의 일원화를 관학 중심으로 도모하고 있었다. 生徒는 향교에 거재하는 居齋儒生과 各面學徒로 나누어 거재유생은 면의 규모에 따라 사족 자체 중 5~15명씩 선발하여 향교에서 강학하게 하고, 각 면의 학도는 평소에는 각자 家塾이나 부형에게서 수학하다 매 달 삭망에 서원이나 山堂에 모여 면훈장의 지도하에 경서를 강론하며 학습결과를 평가받도록 하였다. 또한 향교의 거재유생은 매달 수령과 都訓長 앞에서 科文을 제출하고 그 중 우수

291) 조선후기 국가의 서원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朝鮮後期の對書院施策」을 참조(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자는 연말에 다시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경상감영에서 운영하는 樂育齋에 입학하도록 하였다.<sup>292)</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학절목의 교학체계가 道 단위의 樂育齋를 정점으로 ‘낙육재-향교-서원-면’으로 연계되어 면 단위 교육을 담당할 면훈장의 존재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면훈장 제도가 이 때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 면훈장제는 명종 때 「京外學校節目」에도 제시되어 16세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sup>293)</sup> 1556년 진주목사 朴承任은 4개의 면에 서재를 세워 수호인을 두고 學田을 설치하였으며,<sup>294)</sup> 1580년 상주목사 柳成龍은 각 면·리에 훈장을 두고 동몽을 가르치게 하였고,<sup>295)</sup> 17세기에도 의성현령 張顯光, 전주관관 申達道, 현풍현감 金世濂, 울진현령 吳道一 등 지방관들에 의해 면훈장제가 시행되고 있었다.<sup>296)</sup> 이처럼 면훈장제는 조선전기에도 이미 그 기틀이 제시된 이후 부분적으로 시행되어왔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대부분의 서당이 촌락 단위의 경제권하에 편입되어 관권의 실제적인 간섭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국가와 관이 촌락 사회를 통제할 새로운 대안으로 면훈장제를 주목하게 된 18세기에 이르러서였다.<sup>297)</sup> 즉,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면훈장제는 유교교화 통치의 한 방법이자 조선후기 사회 변화에 대한 수령의 적극적인 대응책 중 하나였다.<sup>298)</sup>

이와 같이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관학 중심으로 교학체제를 일원화하고자 한 의도가 실제로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권학절목 반포 이후 이와 유사한 지방관의 교육진흥책은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군현마다 각 고을의 실정에 맞게 변용되며 18세기 이후 지방 교육의 활성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고, 서원 강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조현명이 경상도에 권학절목을 반포한 1731년, 풍기에서는 군수 朴弼正이 이를 시행하여 옥양서원 원장 金靑弘을 도훈장으로 임명, 6개 면에서 면훈장 6인을 선발하고 각 면마다 거재유생 5인씩을 뽑아 관에 보고하여 교육하도록 하였으며,<sup>299)</sup> 1732년 訥隱 李光庭은 안동부의 도훈장이 되어

292) 조현명의 권학절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朝鮮後期の 鄉村教學振興論에 대한 檢討」를 참조(정만조, 『韓國學論叢』 10,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8).

293) “外方則每鄉置學長, 依右例教誨, 陞之鄉校”(『명종실록』 권 3, 명종 1년 6월 16일).

294) 金武鎭, 「朝鮮後期 教化體制的 整備와 面訓長制의 性格」, 『역사교육』 58, 1995, 63쪽.

295) 『輿地圖書』, 慶尙道, 尙州, 名宦, 柳成龍.

296) 이에 대해서는 金武鎭(「朝鮮後期 教化體制的 整備와 面訓長制의 性格」, 『역사교육』 58, 1995), 김경용(「19세기말 更張期 朝鮮의 教育改革과 官學院錄」, 『교육사학연구』 18집 1호, 교육사학회, 2008), 정순우(제4장 「18세기 서당의 성격 변화와 의미」,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의 연구를 참조.

297) 정순우, 같은 글, 같은 책, 215쪽.

298) 김무진, 같은 글, 70~72쪽.

299) 『慶北 鄉村資料集成』(2),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무진, 같은

제생을 모아 성리서를 강론하였다.<sup>300)</sup>

한편, 1752년 안동부사 尹光紹는 ‘興學規範’<sup>301)</sup>을 작성하여 부 내 7개 서원에 직접 강학 비용을 마련해주고, 평소에는 서원에서 강학하다가 매년 봄, 가을에 원장과 훈장이 유생들을 데리고 향교에 모이면 수령이 직접 課講하도록 함으로써, 서원 강학이 활성화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흥학규범의 시행을 위해 향교에는 별도로 ‘校宮節目’<sup>302)</sup>을 작성하여 내리고, 각 서원에는 ‘下帖’<sup>303)</sup>를 발급하면서 전임 수령이 남긴 600錢에 贍學錢 1,000錢을 더 보태 각 서원에 분급하는 동시에, 춘추 課講에 참석할 유생의 정원을 서원별로 배정해주었다.<sup>304)</sup> 흥학규범의 시행에 따라 안동부사 윤광소가 지급해준 섬학전을 바탕으로 18세기 안동의 魯林書院에서는 실제 두 차례의 居接과 ‘太極圖 講會’가 개설되기도 하였다.<sup>305)</sup> 또한 1856년에 있었던 虎溪書院의 ‘心經 講會’도 學政이 폐이해질 것을 염려하여 경상감사 申錫愚가 講學의 시행을 촉구하는 關文을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4차례나 보낸 뒤에 개설된 것이었다.<sup>306)</sup> 전라도에서도 영광군수 趙重稷의 청으로 1743년 陶庵 李緯는 ‘靈光郡講學節目’<sup>307)</sup>을 작성하여 수령의 주관 하에 면훈장제와 향교교육을 결합시킨 교학체계를 마련하였다. 영광군 내 48개 면에서 각 면, 혹은 2~3개 면에서 훈장 1인을 뽑고, 향교에서는 掌議 2명을 선출하여 講事를 주관하게 하며, 直月 1명을 두어 이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매월 초하루에는 면훈장이 제생을 데리고 향교에 모여 수령의 주관 하에 講會를 열고, 사

---

글, 66~68쪽을 참조.

300) “趙公顯命按嶺節 選士立師 以風勵一方 禮致公 爲本府都訓長 公聚諸生 講性理諸書”(『訥隱集』, 권 22, 附錄, 「行狀」). 李象靖이 지은 이 행장에는, 이 때 이광정이 도훈장으로 「西銘」에 있는 ‘동포 형제’의 뜻을 진지하게 강의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안동부사는 그의 가르침을 본받아 때마침 흉년이 들었던 고을 백성들을 잘 구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권학절목에 의해 시행된 교육내용이 꼭 과거공부에만 치중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은 도훈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좌우되었을 것이다. 이광정은 ‘과거공부를 위주로 하고 제술시험으로 선비를 경쟁시키는 것은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며 권학절목의 교육방식에 대해 조현명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비판한 적이 있다(『訥隱集』, 권 5, 書, 「與趙方伯顯命」).

301) 『素谷遺稿』, 권 13, 福州錄, 「興學規範」.

302) 『素谷遺稿』, 권 13, 福州錄, 「校宮節目」.

303) 『素谷遺稿』, 권 13, 福州錄, 「各院下帖」.

304) 「興學規範」에 따르면, 이 때 서원별로 배정된 인원은 호계서원 20, 병산서원 20, 삼계서원 20, 청성서원 12, 물계서원 8, 도연서원 10, 구담서원 10명이었다. 춘추 課講의 정원 배정에 노립서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광정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안동부사 윤광소가 마련한 섬학전은 노립서원에도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小山集』, 권 9, 跋, 「魯林書院講會錄後敘」).

305) “頃因尹知州光紹所賜贍學錢及別庫租若干 堂叔實經紀之 數年而粗成頭緒 設接者再 又謀所以一番文會 以講古人爲學之方 以今七月十七日約會 遠近少長合五六百人 相與講太極圖”(『小山集』, 권 9, 跋, 「魯林書院講會錄後敘」).

306) 『虎溪講錄』.

307) 『陶菴集』, 권 25, 雜著, 「靈光郡講學節目」.

계절의 마지막 달 초하루에는 그간의 학업성과를 평가하여 상벌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李緯의 靈光郡講學節目에서는 면 단위의 교육과 향교 교육을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조현명의 권학절목에서 면과 향교의 중간 단계에 있던 서원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당시 영광군은 영남과 달리, 서원이 거의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sup>308)</sup>

요컨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지방관의 교학 진흥책은 고을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서원 강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영조대 전국에 반포된 권학절목은 교육체제에 있어서는 官學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科業을 중심으로 향촌 교육체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국가와 관은 조선후기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면훈장제를 활용함으로써 향촌사회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지역과 고을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서원에서는 각 서원의 형편과 自力에 따라 독자적으로 강학을 운영하기도 하고 면훈장제를 서원 강화에 직접 활용하기도 하며, 지방관의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간접적인 도움을 받아 강학을 운영하는 등, 지방관의 교육 진흥책은 각 서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8세기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조정의 직접적인 통제 대상은 아니었으나, 서원 건립의 증가는 소수서원의 경제 기반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기반의 약화는 곧 강학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18세기에는 ‘三冬居齋’나 ‘輪番居齋’ 등 이전에 없던 강학 운영상의 변통책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중반에는 강학 재정 전담 기구인 養士廳을 설치함으로써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초반에는 순흥부사가 거점에 부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조현명의 권학절목 반포 이후에는 부사의 주관 하에 관학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한 차례의 거점이 개설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권학절목의 반포에 따라 순흥부사가 지방교육 진흥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일회적인 거점이었고, 18세기 중반까지 지방관의 지원은 소수서원의 자구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서원의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강학 재정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했던 양사청도 폐지와 복설을 거듭한 끝에 완전히 폐지되기에 이르자, 점차 지방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가 1789년에는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강학을 개설하기도 하고, 18세기 말에 이르면 아예 순흥부사에게 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을 끌어낼 직접적인 계기와 명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초반에는 1732년 권학절목이 반포되기 이전

308) 읍지에 따르면, 영광군에는 龍巖祠, 龍溪祠, 長川祠, 壽岡祠, 柏山祠 등 사우만 15개소가 있고 서원은 보이지 않는다(『全羅南道靈光郡地圖邑誌』, 祠宇).

에도, 흉년으로 인해 강학을 시행하지 못한 1722년부터 1726년까지 5년간을 제외하면, 1720년부터 1730년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三冬居齋’가 개설되었고, 특히 1727년부터 1728년까지는 무려 6개월에 걸쳐 거제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1720년을 기점으로 이처럼 거제가 활성화된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소수서원의 ‘罷格 논쟁’과 관련이 있었다. 1719년 ‘과격’이 확정되면서 다음해부터 거제가 활성화되고, 강학의 성격 또한 科業을 중심으로 하던 16~17세기와 달리 그 내용과 방식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IV장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전개된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특징을 초·중반기(1760년까지)와 후반기(1760년 이후)의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IV-1. 講學의 성격 변화와 추이

설립 초기 주세붕이 만든 과거 입격자 위주의 입원 자격 규정이 오랜 논쟁을 거쳐 1719년 과거으로 확정된 직후 소수서원에서는 강당을 중수하고, 누각을 새로 건립하며, 院案을 새로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과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1719년 정월의 당회에서였다. 1719년 정월 초 5일 당회에서는 과거이 확정되었음을 공표하고, 과거 이후의 선비를 취하는 절목에 대해서는 향후 대회의를 열어 다시 결정하기로 한 뒤 完議를 작성하여 벽에 게시하였다.<sup>309)</sup> 과거이 확정된 직후 같은 해에 먼저 명륜당을 중수하고, 9월에는 열 칸 건물로 상량하여 霽月樓 건립을 시작하였다.<sup>310)</sup> 제월루는 주세붕이 서원을 설립한 이래 ‘齋(직방재)와 亭(경림정), 臺(광풍대)는 갖추어졌으나 樓閣이 없어 勝地의 흠이 되었으며, 또 봉우들과 文會를 열 때마다 공간이 좁아 수용하기 어려웠고, 순흥부가 복설된 이후에는 유생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sup>311)</sup>는 이유로 죽계천에 터를 잡아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낙성되었다. 이듬해인 1720년 4월 25일에는 제월루가 낙성되어 남녀노소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백일장을 설행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당회를 열어 병자(1696)년 이전의 院案을 회복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과거 이후 명륜당 중수, 제월루 건립, 院案의 정비 등과 함께 講學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科業’에서 ‘道學’으로 소수서원 講學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는 17세기까지의 강학이 ‘居接’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居齋’라는 강화 형태의 변화로 나타났다.

‘가을과 겨울이면 居齋와 通讀을 하고 봄과 여름이면 白日場과 居接을 개설한 것은, 대개 독서를 근본으로 삼고 여력이 있을 때 과거 공부에 종사하게 한 것이다’<sup>312)</sup>

‘본 서원에 講學所를 둔 것은, 대개 가을과 겨울에는 居齋와 通讀을 하고 봄과 여름에는 白日場과 居接을 개설하여, 製述과 講學을 모두 권하여 하나라도 폐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다’<sup>313)</sup>

309) 『紹修書院誌』, 「己亥 正月 초5일 堂中完議」.

310) 같은 책, 「庚子 4월 25일 霽月樓落成會兼設白日場」.

311) 『白隱集』, 「紹修書院食樓上樑文」.

312) “秋冬則居齋通讀 春夏則設白居接 蓋以讀書爲田地根本 而餘力從事於公車課試之文”(『講所雜錄』, 「講所雜錄識」).

313) “本院之有講所 蓋以秋冬則居齋通讀 春夏則說白居接 製講俱勸 無或廢一之意也”(『講所雜錄』, 「各面私通」).

일반적으로 ‘居齋’란 ‘서재에 머물며 공부하는 것’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쓰이지만, 소수서원에서는 일반적인 용례가 아닌, ‘居接’과 함께 강학의 특정한 형태와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하에서 ‘居齋’라는 용어는 강학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居齋와 通讀’은 ‘讀書와 講學’에, ‘白日場과 居接’은 ‘製述과 科業’에 대응하며, ‘居齋’는 ‘居接’에 대비되는 강학의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거접이나 백일장의 목적이 ‘外王’과 ‘治人’을 지향하는 科擧 대비에 있었다면, 거재나 통독은 ‘內聖’과 ‘修己’를 위한 爲己之學으로서의 독서에 무게중심을 둔 강학의 방식이었다. 17세기까지 ‘거접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수서원의 강학은, 1719년 입원 자격 논쟁이 罷格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18세기부터는 ‘거재 위주’로 그 무게중심이 확연히 바뀌고 있다. 거접과 거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었다. 거접은 ‘과거대비’라는 목적 하에, 과거시험 과목의 하나인 ‘製述’을 내용으로 하며, 제술 시험의 문체인 ‘詩賦疑義策’의 답안 작성 훈련과 평가가 교육방법의 중심이었다. 반면, 거재는 개별 독서의 과정과 함께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 ‘通讀’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방법으로, 통독은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 등 道體를 밝히고 마음을 다스리는 유학의 실천적 공부법을 제시한, 道學과 心學 중심의 교재를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道學을 목적으로 한 거재에서도 현실적으로 과거공부를 완전히 등한시할 수는 없었으므로 통독과 함께 제술도 부분적으로 병행하였다. 그러나 거재에서 통독과 제술이 병행되는 경우는 있어도, 거접에서 제술과 함께 통독이 병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즉, 거재는 道學을 본령에 두면서 현실적 이유로 科業을 병행하였지만, 거접은 ‘과거 대비’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1719년 과격이 확정된 이후 1720년부터 1760년까지 소수서원에서는 거재가 10회, 거접이 3회, 백일장이 1회 개설되었다. 총 14회 개설된 강학 중에서 거재가 약 7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17세기까지 거접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소수서원의 강학이 18세기에는 거재 중심으로 확연히 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세기가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확산되는 시기였다면, 18세기부터는 그 강학 이념이 실제 강학의 형태와 방식에까지 반영됨으로써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17세기는 서원 강학 이념이 공유, 확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학의 실제에까지는 반영되지 못한 과도기였다면, 18세기는 구체적인 강학의 형태와 방식까지 변화된, 서원 강학 이념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과격’의 확정은 바로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을 이와 같이 변화시킨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한편, 강학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과 강학 시행 과정의 전말을 기록한 ‘居齋錄’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것도 18세기부터였다. 18세기에 居齋錄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것 역시 ‘과격 논쟁’과 관련되어 있었다. 과격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입원록에는 입격자만 수록할 수 있었으므로, 비입격유생은 혹 강학에 참여하더라도 입원록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1720년 11월 거재를 개설하면서 원장 鄭重元은 이때부터 입원록 외에 별도로 居齋錄을 만들어 입격 여부에 상관없이 강학에 참여한 모든 유생을 기록하기로 하고 居齋錄을 처음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중세 이래로 입원록에는 대소과에 등과하거나 향시에 입격한 자가 성명을 기록하였고, 원근의 군수와 대소 사신으로서 서원에 들른 자는 심원록과 입원록에 모두 기록하였으며, 사마와 초시에 합격한 선비로서 서원을 찾은 자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거제하여 학문을 익힌 자취는 징험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이 거제는 수년 동안 폐지되어 오던 중에 나온 것으로서 옛날 10명에 대하여 상시로 숙식을 제공하였던 규례를 따랐다. 그 사람은 上舍도 있고 입격자도 있고 입격은 못했더라도 향당의 자제로서 학교에 적을 두고 詩書를 공부하는 자이다. 그 학업 내용은 경서를 읽고 시문을 짓는 것이며, 초하루마다 돌아가며 들어와 강습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서원에 잠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와서 기숙한 것이다. 이미 서원에 와서 기숙하면서 독서하였으니 당연히 입원록에 성명을 기록해야 할 듯하다.

돌아보건대, 원중에서 답습하고 있는 근자의 규례는 옛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입원’ 두 글자에 대하여 꼭 논쟁하지 않아도 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금에 만약 갑자기 ‘입원록’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또다시 논쟁의 단서가 될 듯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또 장차 나에게 가해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곧바로 실질에 의거하여 ‘居齋錄’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근자들이 와서 독서한 월일을 직접 쓰게 하였다. …(중략)…

참으로 책을 짊어지고 와서 독서하는 데에 뜻을 두고 서원 문 앞에서 바라보면서 배회하는 자는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禮讓하는 자리에서 생활하고 독서하는 곳에서 강습하게 하면, 열 명을 모아 교육하여 열 명 속에서 뛰어난 자가 나오게 되고 백 명을 교육하여 백 명 속에서 우뚝한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최상은 심성을 닦는 공부를 독려하고 그 다음으로는 과거공부를 하고 최소한으로 음양, 진퇴의 예절 속에서 보고 감화된다면, 인재를 배양한 공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원중의 사문과 여러 장로들은 나의 이런 뜻을 이해한다면 아마도 한 가지쯤이라도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sup>314)</sup>

이를 통해 18세기 초반에 居齋錄을 처음 작성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는 소수서원의 입원 자격 논쟁이 이미 파격으로 종결된 이후였으나, 파격 이후 강학 참여자들을 다시 입원록에 기록하게 되면 또 다시 ‘입원’ 두 글자에 대한 논쟁의 단서

314) 『紹修書院誌』, 「題居齋錄」.

를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720년부터는 입격여부와 무관하게 강학에 실제 참여한 유생의 명단을 별도로 기록하고, 강학을 개설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시행 과정을 상세히 수록한 ‘거재록’이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18세기 거재록은 총 3건이다. 그 중 첫 번째 작성된 거재록은 1720년부터 1760년까지, 두 번째 작성된 거재록은 ‘居齋雜錄’이라는 제목으로 1761년부터 1780년까지, 세 번째 거재록은 1780년부터 1793년까지 시행된 강학 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거재록은 소수서원지<sup>315)</sup>에 표지가 낙장이라 입원록으로 잘못 추정하였으나, 이는 입원록이 아닌 거재록이다.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또 다른 특징은, ‘거집에서 거재로’ 강학의 목적과 성격이 바뀌고, 거재록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에, ‘三冬居齋’와 ‘輪番居齋’라는 새로운 거재 운영 방식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형편에 따라 ‘四時居接’이 개설되었으나, 18세기부터는 음력 10월에서 12월까지 겨울 3개월 사이에 개설되는 ‘三冬居齋’가 처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까지는 거집에 참석하는 유생이 10명의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면 모두 받아들이고 인원 제한을 엄격하게 두지 않았으나, 18세기부터는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 달이나 보름을 단위로 쏘를 나누어 돌아가면서 入齋하는 ‘輪番居齋’가 거의 정식화되고 있다. ‘三冬居齋’와 ‘輪番居齋’라는 강학 운영 방식이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한 것은, 물론 소수서원의 경제상황과 관계가 있었다. 서원의 강학 재정이 점차 열악해지자 四時居接을 三冬居齋로 바꾸고, 제한된 기간 안에 좀 더 많은 유생을 강학에 참여시킬 수 있는 輪番居齋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18세기 소수서원에서는 유생의 過多 문제와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서원의 강학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었다. 즉,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三冬居齋’와 ‘輪番居齋’라는 거재 운영 방식은, 18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강학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된 강학 운영의 변통책이자 서원 운영자들의 고민의 산물이었다.

한편, 1760년까지 전체 개설된 강학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거재는,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개설 회수가 대폭 축소되고, 대신 백일장과 순제의 개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1761년부터 18세기 말까지는 거재 8회, 백일장 8회, 순제 7회, 거집 2회, 통독 1회로 총 26회의 강학이 개설되었는데, 그 중 거재는 전체의 약 30% 정도로 그 비중이 18세기 초중반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백일장과

315) 같은 책, 「入院錄」 3(1720~1760). 이하 본문에서 편의상 이 자료는 「居齋錄」(1720~1760)으로 표기하겠다.

순제는 거접과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를 위한 제술시험을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道學과 科學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거재와 통독이 9회, 거접·백일장·순제가 총 17회로, 제술 중심의 강학이 거의 2배 가까이 개설되고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의 전개 양상의 변화는 표면적으로는 강학의 목적과 성격이 다시 道學에서 科學으로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강학 재정을 전담하기 위해 설치했던 養士廳마저 폐지되고, ‘양사청이 폐지된 후에는 재정상 여력이 없어 강학의 옛 규례마저 동시에 잃어버릴’ 정도로 강학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다. 따라서 보통 2~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개설되었던 18세기 초·중반기의 거재와 달리, 18세기 후반에는 거재도 많아야 보통 1개월, 거접은 5일 내지 10일로 개설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그나마도 개설하기 어려울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백일장이나 순제를 개설함으로써 교육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백일장이나 순제는 거접이나 거재와 달리, 서원에서 숙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일로 치르거나 과제 형식으로 부과하여 試券만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후반 거재가 축소되고 백일장·순제가 활성화된 것은, 강학의 목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재정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의 명목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절충안의 하나였다. 이는 양사청이 복설된 1788년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거재와 통독이 다시 개설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서원 강학 이념이 18세기 소수서원에 정착되는 과정을 강학 형태의 변화, 거재의 목적과 교육과정, 통독 교재의 성격 등을 통해 살펴보고,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운영 실제와 변화 과정을 1760년을 기점으로 초·중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760년을 기점으로 한 것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시기를 전후로 소수서원 강학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서 대체적인 변화의 흐름과 경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강학의 존재를 좌우하고 강학의 형태와 운영 방식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경제적 기반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 IV-2. 養士廳의 설치와 講學의 경제적 기반

16세기 사문입의에서 마련되었던 어염의 수납이 폐지되고, 강학 재정을 위해 설립 초기 주세봉이 설치했던 寶穀의 운영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곡식과 주찬, 지필묵 등 풍기군수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여 강학 기능을 유지했던 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는 寶穀도 거의 고갈되다시피 하고, 지방관의 지원조차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소수서원 강학의 경제적 기반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학의 존폐는 대개 원장과 원임 등 서원 운영자들의 강학에 대한 관심과 의지, 자원 동원 능력에 따라 결정되었다.<sup>316)</sup> 이에 소수서원에서는 18세기 초반까지는 주로 원장의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다가, 18세기 중반에 오면 별도로 강학 재정 전담 기구인 ‘養士廳’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파격 논쟁 이후 1720년 거재를 처음 개설하면서, 원장 鄭重元<sup>317)</sup>이 서원 유생들에게 유지한 다음의 글은 18세기 초반 소수서원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날 본원에서 선비를 기르던 물자로서 국가에서 떼어 준 해변 고을의 魚鹽을 보내오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이자를 받아쓰던 수백 곡의 寶穀도 이미 다 없어지고 말았다. 심지어 방백과 수령이 수시로 혹은 米穀을, 혹은 술과 반찬을, 혹은 문방구를 끊임없이 보내와 居齋의 보탬이 되던 것도 지금 세상에는 다시 바랄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에 군자들을 초빙하여 다시 낭랑한 독서 소리를 들으려고 한들, 음식 재료를 어디에 의지하여 옛날 성대하였던 때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원중에서 얼마 전에 토목공사를 하였고 또 흉년을 만났으니 여러 고을에 부득이 납부할 환곡과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선비의 거재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 십여 명 5개월 음식을 마련할 값으로 매월 1천 문의 돈에 불과할 뿐이다. 식당이 곤궁하여 주안상을 계속하기 어려우며 기타 접대에 필요한 물자도 뜻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데, 이는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세가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군자들이 형편이 부족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시라도 원임이 소홀하게 대한다는 비난을 할까 두렵다.”<sup>318)</sup>

316) ‘(본원은 옛날부터) 사시사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서원의 재정이 점점 줄어들고 규모가 차츰 헤이해져 격막한 溪山이 한갓 우뚝 솟은 빈 집에 불과하게 되었다. 간혹 학문과 덕망이 높은 선비가 원임이 되면 이를 개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물자를 비축하여 유생을 불러 모아 강학하였다’ (‘四時之絃誦不掇 院力日替 規模漸弛 寂寞溪山 不過爲巋然空舍而已 間有碩德長儒之當任是院者 爲是之慨 節費畜廩 招儒講學’, 「居齋節目」, 1790).

317) 鄭重元(1659~1726)의 본관은 초계, 자는 善長, 桐溪 鄭蘊의 증손이자 정희량의 아버지이다. 본래 거창 안음 출신이나 정중원 대에 순흥으로 이거하였다. 1678년 진사, 1720년 4월부터 1721년 8월까지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창설재 권두경과 교류하고 창설재 사후 祭文과 挽章을 지었으며, 동계집의 연보 초고를 편집하였다.

318) 『紹修書院誌』, 「奉諭齋中」.

즉, 18세기에는 해읍의 어염, 寶穀 등 강학의 재정 기반이 모두 고갈되고, 17세기까지 주로 지방관의 지원에 의존했던 강학 운영이 18세기부터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지방관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이유는 ‘지금은 고을마다 서원이 있고, 서원마다 유생이 있으니, 그 규모와 제도가 전날 온 나라에 오직 본원만 있던 때와는 크게 달라졌기’<sup>319)</sup> 때문이었다. 17세기 중반까지 순흥, 풍기 지역의 서원으로는 소수서원이 유일하여 지방관의 관심과 지원이 비교적 소수서원에 집중될 수 있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丹溪書院, 郁陽書院, 龜灣書院, 愚谷書院, 道溪書院 등이 건립됨으로써 이전과 같은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18세기부터는 강학 재정을 서원의 자력으로 마련해야 했다. 서원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 원장에 임명되면 그나마도 없는 재정을 쪼개거나, 별도의 비용을 出捐해서 강학의 개설을 도모하고, 흉년이 들면 수년간 강학이 폐지되기도 하면서, 18세기 초반 소수서원 강학의 존폐에는 주로 원장의 강학 개설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1720년 원장 鄭重元은 위와 같이 공사비용과 환곡, 세금을 지출한 뒤 남은 재정을 쪼개 거채 비용을 마련함으로써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개월간 거채를 개설하였다. 이후 1722년부터 5년간은 흉년으로 강학이 전혀 개설되지 못하다가 거채가 다시 재개된 것은 1727년이었다. 1727년 9월 원장 李徵道<sup>320)</sup>는 ‘서원을 세운 본의는 오직 강학을 위한 것인데, 흉년으로 재력이 고갈되어 강학이 폐지될 지경에 이르러 사림이 탄식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에 힘을 헤아리지 않고 강학을 개설하여 옛날 현인이 서원을 창설한 뜻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한다’<sup>321)</sup>고 하여 ‘서원을 설립한 본의가 강학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居齋定規」를 직접 작성하고,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간 거채를 개설하였다.

이전에 없었던 ‘輪番居齋’와 ‘三冬居齋’가 18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도 소수서원의 경제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1727년 원장 이정도는 ‘해변 고을에서 魚鹽을 제공하던 것과, 각 도, 각 읍에서 米豆·燈油 등의 물자를 바치는 것도 巡營에서 분배하여 수송하게 하던 규례가 폐지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매월 초하루마다 명단을 작성하여 (교체하는) 인원을 정한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sup>322)</sup>고 하며, 유생들을 한 달 이상 강학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1개월에 한 번씩 인원을 교체하는 ‘輪番居齋’를 시행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것임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1761년 원장 權九

319) 같은 책, 「居齋定規」(1727).

320) 李徵道의 자는 以時, 1652년생이다. 본관은 우계 이씨로 1710년 문과에 급제하여, 1710년, 1716년, 1718년, 1722년, 1727년까지 총 5차례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321) 「居齋定規」(1727).

322) 「居齋定規」(1727).

淵도 ‘四時居齋하는 10명을 상시 공궤하는 것은 서원 창건 때 만든 규례인데, 근래에는 본원의 재력이 탕진되어 三冬居齋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상시 공궤하는 인원수는 옛날 규례를 준수하되, 10명씩 돌아가며 입재하여 초하루와 보름마다 교체한다’고 하여, 18세기에 ‘四時居齋’ 대신 ‘三冬居齋’를 시행하게 된 것은 역시 서원의 재정난 때문임을 언급하고 있다.<sup>323)</sup>

이후 1729년과 1730년에는 원장 李鎭萬이 식량을 出捐하고 재실을 수리하여 거재를 개설하고, 1737년에는 원장 金呂徵이 거재를, 1738년에는 순흥부사 任象鼎이 거접을, 1744년에는 원장 權一經이 거재를 개설하였다.<sup>324)</sup> 그 중 1738년 순흥부사 임상정이 개설한 거접은, 평소의 강학과 달리 절목의 작성부터 재정 지원, 유생 선발, 제술 試題의 출제와 考試에 이르기까지 지방관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sup>325)</sup> 1732년 영조에 의해 전국에 반포된 권학절목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18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삼동거재와 윤번거재를 통해 거재 개설 기간과 공궤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강학 비용을 절감하고, 원장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비록 불안정하게나마 꾸준히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은, 1749년에 이르러 강학의 경제적 기반을 보다 지속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학 재정을 전담하는 ‘養士廳’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양사청이 설치된 것은 鄭玉이 원장으로 부임한 1749년 7월이었다.<sup>326)</sup> 1744년 거재 이후 또다시 5년간 거재를 개설하지 못하다가, 1749년 7월 양사청을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에 비로소 거재를 재개하면서 당시 원장 鄭玉<sup>327)</sup>은

323) 16세기 사문입의에서 규정한 ‘거접 유생 10명’의 정원에 대해 윤희면은 ‘거접의 총원이 아니라 거접 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즉 ‘윤번교체 인원’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0명의 정원’은 16세기부터 윤번거접의 인원을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본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6, 17세기에는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윤번거접을 시행하지 않았다. 소수서원에서 윤번거재가 처음 시행된 것은 18세기부터였으며, 이는 당시 재정난에 직면하여 강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한 강학 운영의 변통책이었다. 즉, 사문입의에 규정된 거접 유생의 정원을 16세기부터 윤번교체 인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윤번교체 인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8세기부터이다(윤희면, 제9장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 효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353쪽).

324) 『居齋錄』(1720~1760).

325) 『紹修書院誌』, 「居齋節目」(1738).

326) 「任事錄」에 養士廳別有司의 명단이 1749년 7월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양사청은 이 때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7) 鄭玉(1694~1760)의 본관은 청주, 자는 子成, 호는 牛川이다. 퇴계 문인이었던 西原府院君 좌의정 琢의 5대손이며, 時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轄이고, 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 碩濟, 어머니는 金鼎輝의 딸이다. 權斗經의 문인으로 어려서부터 담대하고 기지가 있었다. 1725년(영조 1) 진사가 되고 1727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지평을 거쳐 대간이 되었는데, 時務를 조리 있게 고하며 이 해에 좌우됨이 없이 간언하여 영조의 특별한 신임을 받았다. 1759년 좌승지에 올랐다가 황해도관찰사로 부임, 임지에서 죽었다. 청렴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 1749년 7월부터 1750년 1월까지 소수서원 원

양사청의 설치 배경과 5년 만에 거재를 다시 열게 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원이 居齋를 폐지한 지가 오래 되어, 고을 장로들이 회의하여 院田의 절반을 획급하여 養士 비용으로 삼기로 하였다. 10월 보름에 비로소 선비들을 모아 거재를 시작하였다. 밤에 제생들과 함께 退陶선생께서 사액을 청할 때 쓰신 手帖을 보면서, 先正이 서원을 설립한 본의를 생각하니 感慨가 일었다. 마침내 4韻詩를 짓고 서재에 머무는 제군들에게 화답을 구하여, 이것으로써 거재의 규례를 다시 회복하게 된 기쁨을 남긴다.”<sup>328)</sup>

원장 鄭玉은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할 때 썼던 글을 보며,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강학에 있는데, 재정이 불안정하여 수시로 居齋가 폐지되곤 하던 당시 소수서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1749년 7월 고을 장로들과 상의하여 院田의 절반을 떼어 강학 재정으로 삼고, 金塲와 朴墩을 養士聽別有司에 임명하여 양사청 운영을 시작하였다.<sup>329)</sup> 이를 기반으로 1749년 10월에 비로소 거재를 재개하면서, 퇴계가 강조했던 ‘서원 설립의 본의’를 실현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시로 남기고 있다.<sup>330)</sup> 이렇게 1749년 10월의 거재를 시작으로 이듬해인 1750년까지는 두 해 연속 三冬居齋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또 다시 강학이 중단되고 1754년에야 거재가 재개된 것을 볼 때, 강학의 재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립했던 양사청의 운영은 생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로부터 2년 뒤 결국 양사청은 서원의 재정이 풍족하지 못해 설립된 지 8년 만에 중간에 폐지되었다.<sup>331)</sup> 그리하여 1756년 1월 이후 양사청별유사의 명단은 입사록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당시 서원 재정 고갈의 원인은 회계의 범도가 엄하지 않아 재물의 낭비가 점차 심해졌기 때문이다. 서원의 물자가 낭비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객 접대였다. 소수서원은 관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관아의 관리나 관아에 일이 있어 출입하는 사람들과 소백산 유람객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들을 접대하고 숙식을 제공하

장을 지냈고, 저서로 『牛川集』이 있다.

328) “本院久廢居齋 鄉長老會議 劃院田一半 以爲養士之需 十月之望 始聚士居齋 夜與諸生奉閱退陶先生請額手帖 有慨於先正立院之本意 遂賦拙語四韻 仍來來棲諸君續和 以志齋規追復之喜云爾”(『牛川集』, 권 2, 詩, 「示雲院齋中諸儒」).

329) 『紹修書院誌』, 「任事錄」2권.

330) 이 때 원장 鄭玉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丹華 맑고 水雲 깊은 곳/ 산속 서재에 앉아 독서하는 소리 들네/ 제도는 회현선생의 섭학전 뜻을 본받고/ 규례는 고을 원로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랐네/ 만 권의 장서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끊어진 천년 전통 누가 다시 찾을까/ 퇴계선생 남긴 手帖 다시 펼쳐보면서/ 한밤중 차가운 창가에서 옷깃 여미네”(“丹華澄冷水雲深 坐聽山齋誦讀音 制昉晦軒瞻學義 規遵鄉老育材心 藏書萬軸今猶在 陞緒千年孰復尋 更展退陶留院帖 寒窓中夜整余襟”, 『牛川集』, 권 2, 詩, 「示雲院齋中諸儒」).

331) 『雜錄』, 「完議」(戊申 9월 초9일).

는 데 서원 재용의 많은 부분이 소모되어 강학에 쓸 물자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또한 공공연히 전답을 耕食하면서 세금은 오히려 서원에 부과시키는, 일부 양반들의 서원 전답에 대한 침탈도 그 원인 중 하나였다.<sup>332)</sup> 그리하여 양사청의 폐지와 동시에 강학도 중단되어 1759년까지 5년간은 거제가 한 차례도 개설되지 못하였다.

이후 강학이 다시 개설된 것은 1760년이다. 이때의 강학 재정은 한 해 전인 1759년 원장 李漢龍<sup>333)</sup>에 의해 마련된 것이었다.

‘근래 회계의 법도가 엄하지 않아 재물이 낭비되고, 재물이 낭비되자 선비를 양육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 (...)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오직 선비를 양육하는 데 있는데, 진실로 선비를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는 서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비록 재력이 탕진되었지만 선비를 양육하는 한 가지 일은 결코 폐할 수 없다.’<sup>334)</sup>

1759년 3월, 원장 李漢龍은 위와 같이, ‘강학이 폐지되면 서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봄 향사일에 당회를 열어 매년 추수 후에 50石을 따로 배정하여 養士之需로 삼고, 다른 용도에 재정이 모자라도 절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강학 재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이 때 마련된 재정을 바탕으로 다음 해인 1760년부터 거제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이후 1763년까지 4년간은 해마다 다시 三冬居齋가 개설되었다. 이후 2년간은 거제가 개설되지 못하다가 1766년 7월에는 원장 成顯寅이 5일간 거제를 개설하고, 10월에는 원장 權九淵이 삼동거제를, 1772년에는 원장 黃羽漢이 10일간의 거제를,<sup>335)</sup> 1780년에는 원장 鄭惟簡이 가을 향사 때 회의를 열어 강학을 위해 별도의 토지를 分出하고 유사 2인을 뽑아 관리하도록 한 뒤 10월부터 다시 삼동거제를 개설하였다.<sup>336)</sup> 이와 같이 1756년 양사청이 폐지된 뒤에도 비록 중단이 거듭되긴 하였으나, 원장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서원 설립의 본의가 강학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별도의 재정을 마련하여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후 폐지되었던 양사청이 다시 복설된 것은 1788년이였다. 양사청이 폐지된 1756년부터 복설된 1788년 사이에 비록 거제는 개설과 중단이 반복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백일장과 순제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었다. 백일장과 순제를 포함하면 1768년만 제

332) 『雜錄』, 「院中完議」(己卯 3월).

333) 李漢龍의 자는 玄齡, 1699년생, 1737년 소수서원에 임원하여 1737년과 1744년 거제에 참여하고, 1758년 3월부터 1759년 8월까지 원장을 지냈다.

334) “蓋因會計之法不嚴 財用耗焉 財用耗焉而養士之規廢焉 (...) 設院本意 專在養士 苟不養士 是無院也 今雖財力蕩竭 養士一欸斷不可廢閑”(『雜錄』, 「院中完議」, 己卯 3월).

335) 『居齋雜錄』(1761~1780).

336) 『居齋錄』(1780~1793), 「居齋錄奉諭齋中」.

외하고 특히, 1760년부터 1772년까지 13년 동안은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강학이 개설되고 있다. 양사청이 폐지된 1756년부터 복설된 1788년 사이에는 거재 6회, 거접 2회, 백일장·순제 13회로 총 21회의 강학이 개설되었다. 18세기 후반에 개설된 백일장과 순제는 총 15회인데, 그 중 약 87%가 양사청이 폐지된 시기에 개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사청이 폐지된 시점에 백일장과 순제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은 백일장과 순제의 시행에는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 특별한 재정이 소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후반에 科業을 내용으로 하는 백일장과 순제의 활성화는, 이전과 같이 강학의 목적과 성격이 道學에서 科學으로 다시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궁핍상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양사청의 복설은 1788년 9월 원장 金世鍊<sup>337)</sup>의 주도 아래 가을 향사 때 당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원장 김세련은 양사청의 복설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양사청은 애당초 있었던 것이 중간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서원의 재정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사청이 폐지된 후에 재정상 여력이 없어 강학의 옛 규례마저 동시에 잃어버렸다. 지금 양사청을 復設하고자 하는 것은 서원의 지위를 높이고, 옛 규례를 따르는 도리가 될 것이다’<sup>338)</sup>

이에 1788년 가을부터 田地를 따로 책정하여 양사청을 복설한 뒤 養士聽別任 1명을 별도로 두어 이를 관리하게 하고, 이를 영속화하기 위해 完議를 작성하였다. 양사청의 복설과 함께 이듬해부터는 다시 통독과 거재가 재개되어 1789년 5월에는 通讀을 개설하고, 1790년과 1792년에도 삼동거재가 다시 개설되었다. 그러나 복설된 양사청도 서원 재정의 고갈로 1792년 이후 또다시 폐지되고 말았다.<sup>339)</sup> 강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치했던 양사청마저 두 차례나 폐지되면서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서원에서는 강학을 지속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 때, 서원에서 찾은 묘안은 바로 순흥부사가 소수서원의 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兼院長’ 제도였다.<sup>340)</sup> 17~18세기 서원의 폭증으로 지방관의 지원이라는 특혜를

337) 金世鍊(1733~1790)의 자는 德卿, 호는 素菴, 영천의 선성 김씨 金玘의 후손, 金鼎元 증손이며 대산 문인이다. 1788년 소수서원원장을 지냈다.

338) “養士廳之始有中罷 盖由本所之不贍 而既罷之後 別無院力之剩補 兼失養士之古規 以今計養士廳之復設 似爲爲本所之地 而遵古規之道也 茲又一時收議 定出養士廳別任一員 自今秋劃出田地看檢收穫 以爲永久 勿替之地事”(『雜錄』, 「完議」, 戊申 9월 초9일).

339) 1793년부터 「任事錄」에는 양사청별유사의 명단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340) 순흥부사가 소수서원 원장을 처음 겸임한 것은 1792년이였다. 순흥부사 許暎은 1792년 3월 소수서원 원장에 임명되었으나 3개월 만에 바로 체직되었고, 임기 중 서원에서 별다른 활동을 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허전 이후 두 번째로 원장에 임명된 순흥부사가 朴長高이다(「任事錄」 2권).

상실한 소수서원은, 순흥부사에게 서원 원장의 소임을 맡김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을 다시 끌어낼 명분을 확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793년 8월, 순흥부사 朴長高에게 원장의 소임을 맡기고, 같은 해 11월에는 원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거재를 개설하게 된다.<sup>341)</sup> 이후 소수서원에서는 총 33차례에 걸쳐 순흥부사를 원장에 임명하고, 재정과 운영에 있어 부사의 지원과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19세기까지 강학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17세기에는 조선 최초의 서원, 혹은 지역의 유일한 서원으로서, 지방관의 전폭적 지원이라는 특혜 속에서 강학 기능을 유지해오던 소수서원은, 18세기에 이르러 이 같은 특혜가 사라짐과 동시에 강학의 경제적 기반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주로 원장과 원임의 관심과 역량에 의존하여 불안정하게나마 강학을 운영해오다가, 18세기 중반에는 강학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학 재정을 전담하는 양사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강학 기능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사청의 운영도 여의치 않아 중간에 폐지되자, 원장과 원임들이 힘을 모아 기금을 出捐하거나 곡식을 별정함으로써 강학의 개설을 꾸준히 도모하였으며, 그조차도 어려울 때는 백일장이나 순제를 시행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복설된 양사청이 완전히 폐지된 18세기 말에는, 순흥부사가 원장을 겸임하는 兼院長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을 다시 끌어내어 거재를 개설하는 등, 서원의 강학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변통책은 18세기 말까지 줄기차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수 있었던 건, 18세기 소수서원의 원임들 사이에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강학에 있으며, 강학이 폐지되면 서원의 본질적 기능도 상실되고 말 것’이라는 신념이 공유된 결과였다.

---

341) 『居齋錄』(1780~1793), 「書節目後」.

### IV-3. 초·중반기 三冬居齋의 운영

#### IV-3-1.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居齋의 교육과정

18세기 초·중반에 시행된 소수서원 居齋에 대한 내용은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居齋錄(1720~1760)과 居齋節目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초중반기에 시행된 거재는 총 10회이며, 그 중 거재절목은 총 5편이 남아 있다. 이하에서는 거재절목에 나타난 18세기 초중반기 居齋의 목적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719년 罷格이 확정된 이후 소수서원에서는 1720년부터 居齋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1760년까지 총 10회의 三冬居齋가 개설되었다. 17세기까지 과거 대비를 목적으로 했던 ‘居接’과 달리, 18세기 居齋는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講學’에 그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오직 제생의 講學을 위함이다”<sup>342)</sup>

“만약 講學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어찌 진실로 서원에 머물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주문공의 백록동서원의 학령이 아닌가”<sup>343)</sup>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오직 선비를 양육하는 데 있다. 진실로 선비를 양육하지 못한다면 이는 서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sup>344)</sup>

거재가 개설될 때마다 거재절목을 작성하여 서원 설립의 본의는 ‘講學’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18세기 거재의 개설은 ‘강학’을 위한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때 강학의 목적은 ‘科業’이 아닌, ‘道學의 탐구와 실천’에 있었다.

“서원을 창설한 것은 오직 현인을 존모하고 道를 講明하기 위한 것이다. (...)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정직한 곳으로 지향하며 학업을 하여 원대한 장래를 기약하고 道義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자는 학문을 잘 하는 것이다. 마음 씩씩이가 비루하고 取舍에 현혹하며 지식이 세속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뜻이 오로지 이욕을 채우기를 바라는 자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sup>345)</sup>

342) “書院本意 專爲諸生講學”(「居齋定規」, 1727).

343) “若不留心講學 豈有固留之理 此非朱文公白鹿學令乎”(「居齋節目」, 1730).

344) “設院本意 專在養士 苟不養士 是無院也”(『雜錄』, 「院中完議」(己卯 3월).

345) “書院蒞設專爲尊賢講道之意 (...) 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옛날 朱文公이 악록서원에 이르러 제생들에게 유시하기를, ‘옛날 사람이 서원을 세운 것은 본래 사방의 사우들이 와서 서로 학문을 익히도록 한 것이고 과거공부에 그치도록 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대개 독서하여 道를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본업이다. 만약 학문을 지향하는 선비가 세속 학문이나 과거공부 외에 뜻을 두고 책을 깊어지고 와 모여 心經 등 성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면 마땅히 일체 10명 정원의 규례에 따라 하여, 옛날 현인이 서원을 세운 본의를 본받도록 한다.”<sup>346)</sup>

서원의 창설은 ‘道를 강명하고 道義를 행하기 위한 것’이며, ‘독서하여 道를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본업이므로, ‘科業이 아닌 학문’에 뜻을 둔 선비로 하여금 心經 등 성리서를 강학하도록 하는 데 居齋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18세기 居齋에서 강학의 목적은 ‘道學의 탐구와 실천’에 두었으며, 道學을 탐구하는 방법은 ‘讀書’를 통해, 독서의 대상은 ‘道學의 요체와 실천방법’을 다룬 ‘心經 등 성리학에 관한 책’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었다. 또한 道學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讀書’는 ‘敬讀, 개별 독서, 通讀’의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道學의 탐구와 실천’이라는 강학의 목적을 유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내면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 ‘敬讀’이었다.

“식사를 마치면 曹司 1인이 拱手하고 서서 白鹿洞規와 伊山院規를 읽으면 제생들은 단정히 앉아 경청하고, 마치면 제각기 서재로 돌아간다.”<sup>347)</sup>

“식사를 마치면 白鹿洞規와 伊山院規를 敬讀하는 것도 전례에 따라 한다.”<sup>348)</sup>

‘敬讀’은 주로 유학의 교육목적과 공부론의 핵심을 제시한 글을, 제생 중 글 잘 읽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큰 소리로 성독하게 하면 나머지 제생은 경건히 앉아서 듣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경독의 텍스트는 서원마다 차이가 있었다. 위와 같이 18세기 소수서원 거재에서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주자의 ‘白鹿洞規’와 퇴계의 ‘伊山院規’를 敬讀하도록 하고 있다. 白鹿洞規와 伊山院規를 敬讀의 텍스트로 선정한 것은, 두 편의 글은 각각 주자와 퇴계가 지은 백록동서원과 이산서원의 학규로, ‘道學의 탐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居齋措置」, 1720). 「居齋措置」 중 이 부분은 강학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 퇴계의 편지와 이산원규에서 인용한 글이다.

346) “昔朱文公至嶺麓書院諭諸生曰 前人建書院 本以待四方士友 相與講業 非止爲科學計 蓋讀書求道 實士子之本業也 如有向學之士 留意於俗學科臼之外 而負笈來會 講究心經性理等書 則宜一體置之於十員之例 以體前賢立院之本意事”(「居齋節目」, 1730).

347) “食畢 曹司一人 拱立讀白鹿洞規 伊山院規 諸生端坐敬聽 畢各就齋”(「居齋節目」, 1749).

348) “飯已 敬讀白鹿洞規伊山院規 亦依前例”(「居齋節目」, 1760).

구와 실천'이라는 서원 강학의 목적, 이를 위한 독서의 방법과 공부론의 요체를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한 글이자, 주자와 퇴계의 서원 교육관이 핵심적으로 반영된 글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소수서원 거제에서는 유생들에게 이를 날마다 반복하여 경독하게 함으로써, 강학의 의미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독서법과 공부론을 체득하게 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는 주자와 퇴계의 서원 교육관이 계승, 실천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道學의 탐구와 실천’ 외에 거제의 또 다른 목적으로 ‘麗澤觀善’을 들 수 있다.

“거제에서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오로지 독서만 일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거제의 목적은) 요컨대, ‘麗澤觀善’하여 心身을 일깨우는 데 있다.”<sup>349)</sup>

‘麗澤’은 본래 『周易』 兌괘에 나오는 용어로,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공부론 왜 혼자하지 않고 모여서 해야 하는지, 즉, 서원에서의 ‘群居講學’의 의미와 목적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周易』, 兌괘 象傳에는 “붙어 있는澤이兌이니, 君子가 보고서朋友들과 講習한다”<sup>350)</sup>고 하였고, 傳義에서는 “麗澤은 두 못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두 못이 서로 붙어 있어 서로를 적셔주니, 서로 滋益함이 있는 象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그 象을 보고서 봉우들과 강습하니, 봉우들과 강습함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sup>351)</sup>라고 하였다. 16세기의 율곡도 隱屏精舍에서 강학할 때, ‘麗澤之力’을 통해 정사의 설립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立志와 存心은 비록 타인을 바라보기만 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麗澤의 힘’을 통해서 점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사의 설립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藏修하여 서로 仁을 돕는 그 실상을 보고자 함이다. 바라건대, 제현들은 비록 항상 모일 수는 없으나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모여 5, 6일간 정해진 책을 通讀하고 의리를 실제로 강론하여 이 실질의 배움을 잊지 말라”<sup>352)</sup>

즉, 정사를 설립한 목적은 ‘麗澤之力’을 통해 藏修하여 서로 仁을 돕는 실상’을 보기 위한 것임을 말하고, ‘麗澤之力’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학의 방법으로 ‘通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7세기 明齋 尹拯도 敬勝齋에서 강학할 때, ‘각자 서재에 흠어져

349) “居齋群處 不專以誦讀爲事 要在麗澤觀善提醒身心”(「居齋節目」, 1749).

350) “象曰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周易』, 兌괘, 象傳).

351) “麗澤二澤相附麗也 兩澤相麗 交相浸潤 互有滋益之象 故君子觀其象而以朋友講習 朋友講習 互相益也”(『周易』, 兌괘, 傳義).

352) 『栗谷全書』, 권 15, 雜著, 「示精舍學徒」.

개별독서만 하고 서로 모이는 때가 없다면 ‘麗澤相滋’의 즐거움이 없을 것<sup>353)</sup>이라고 하면서, 서재에서 群居講學하는 의미를 ‘麗澤相滋’의 즐거움에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원 뿐 아니라 조선시대 서재, 정사에서도 群居講學이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麗澤觀善, 麗澤之力, 麗澤相滋’의 실현에 있었다. 그런데 이는 개별독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없었다. 麗澤觀善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교육과정은 바로 通讀이었다. 통독은 연령이나 학문의 수준차를 막론하고 모든 유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해진 텍스트를 함께 강독하며 자유로운 문답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학문적 통찰과 안목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학습의 과정으로, ‘麗澤相滋’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강학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의 교육과정에서는 무엇보다 공동학습의 과정인 通讀이나 講會가 매우 중시되었다. 즉, ‘개별독서’가 ‘藏修를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라면, 通讀은 ‘麗澤觀善의 실현을 위한 공동의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이, 18세기 소수서원에서 ‘藏修’와 더불어 ‘麗澤觀善하여 心身을 일깨우는’ 데 거재의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藏修를 위한 개별 독서와 麗澤觀善을 위한 통독의 과정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었다.

‘道學의 탐구와 실천’, ‘麗澤觀善’과 더불어, 18세기 소수서원 거재의 또 다른 목적은 道義를 중시하고 禮讓을 숭상하는 법을 배워 유자로서의 禮를 익히고 실천하는 데 있었다.

“서원을 창설한 것은 오직 현인을 존모하고 道를 講明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과거 공부의 누를 벗어나지 못하고 道를 강명하는 방법까지는 미처 깨우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道義를 중시하고 禮讓을 숭상할 줄 알게 되어 사군자의 기풍이 밝아지니 이것이 바로 서원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다.”<sup>354)</sup>

서원을 설립한 첫째 목적은 현인을 존모하고 道를 강명하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거공부의 누를 벗어나지 못해 道를 강명하는 방법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道義를 중시하고 禮讓을 숭상하는 법을 배워 사군자의 기풍을 아름답게 하는 데 거재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庭揖禮·相揖禮와 같은 儀禮의 시행, 일상생활에서의 예의범절과 언행에 대한 검속을 들 수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禮의 습득과 실천을 위해 거재에서 강학을 시작하기 전에 명륜당 뜰 앞

353) “若散處各舍 無相會之時 則殊無麗澤相滋之樂 而亦非親友之道矣”(『明齋遺稿』, 권 30, 雜著, 「示敬勝齋諸生」).

354) “院坵設專爲尊賢講道之意 雖未脫科舉之累 亦未諭講道之方 然猶知重道義尙禮讓 彬彬士君子之風 此書院之所以爲貴也”(「居齋措置」, 1720).

에서 홀기의 절차에 따라 庭揖禮를 엄격히 행하고, 매일 아침 식당에서도 반드시 相揖禮를 행하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서재에서 각자 독서할 때에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언행과 용모를 신중히 하도록 하며, 강론이나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다른 서재에 찾아가 쓸데없는 답소로 시간을 보내거나 잠시라도 방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거재 시 일상생활을 엄격히 검속하고 있다.<sup>355)</sup> 그 중 庭揖禮의 세부 절차는 笏記<sup>356)</sup>에 매우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핵심 절차만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정음례를 행하기 전에 당일 모인 사람들의 學案을 작성하여 東西 두 대열로 나누고 대열 별로 堂長, 副堂長, 曹司를 정한다.

○ 다음으로 執禮가 東西唱을 인도하여 먼저 명륜당 뜰 안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인사한다.

○ 그 뒤, 당장이 각 대열을 이끌고 뜰 안으로 입장하고, 동서조사가 부당장에게揖하면 부당장이 답례한다.

○ 다음으로 동편 부당장이 선생에게 學案을 올리면 동서대열이 선생에게 인사한다.

○ 다시, 동서 대열이 모두 돌아 서로 마주보고 서면, 동서조사가 부당장 앞에 나아가 序立하였음을 고하고 부당장은 답례한다.

○ 다음으로 제생끼리 相揖禮를 행하고, 집례와 동서창도 뜰 중앙에 이르러 마주보고 相揖한 뒤 퇴장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거재의 목적으로는 과거공부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특징은 이전과 달리 科學에서 道學으로 강학의 성격이 변모하고, 실제 강학의 형태와 방식도 道學 위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거재에서는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강학의 본령으로 삼고, 道學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독서와 통독이 매우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道學을 표방하면서도 18세기 거재에서는 科業을 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과거가 아니면 出仕가 불가능한 당대 현실에서, 과업에 종사하는 유생을 서원에서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학의 본령을 道學에 둔 18세기 소수서원은,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한편으로는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용인하면서, 현실적으로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에게 과거공부를 시키는 것 또한 비록 부차적이긴 하지만 거재의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었다.

“4월 이후가 방학이라 하더라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大同設接과 백일장 등을 폐지해

355) 「居齋節目」(1730).

356) 『居齋雜錄』, 「庭揖禮笏記」.

서는 안 된다. 반드시 농사가 한가한 틈을 살피 거행하는 것을 불변의 규례로 삼는다.”<sup>357)</sup>

“과거 공부라 비록 학자에게 둘째, 셋째 가는 일이지만, 과거시험이 없는 해라고 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름지기 반 개월 기한 내에 혹 한두 차례 출제하여 재능을 시험한다.”<sup>358)</sup>

“과거 과목에 대한 공부 역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닌데, 지금 과거에 대한 규정이 새로 반포되었으니, 講規를 새로 밝혀 거재 시 읽는 책은 반드시 三經과 小學을 급선무로 삼는다. 수십 일 안에 한 질의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나 그 사이에 읽은 바는 반드시 정밀하고 익숙하게 誦讀하여 실효가 있도록 한다. 교체할 때에는 또한 성리서를 通讀하는 규례를 폐지하지 않도록 한다.”<sup>359)</sup>

거재가 끝난 방학 기간에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거접이나 백일장을 열어 과업을 준비시키고, 보름의 거재 기간 중에도 꼭 한 두 차례는 제술을 행하여 과거시험이 없는 해에도 제술에 대한 훈련을 쉬지 않도록 하였으며, 과거에 대한 규정이 새로 반포되자 거재에서 독서하는 책을 과거 규정에 맞추어 변경하기도 하는 등, 道學을 목적으로 한 거재에서도 한편으로 과거공부는 늘 염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 새로 반포된 과거규정이란 소과 覆試의 예비시험인 學禮講에서 家禮를 제외하고 小學을 背誦하며, 三經 중 한 책을 자원하여 講하게 한 것을 말한다.<sup>360)</sup> 비록 ‘학자에게 과거공부는 둘째, 셋째 가는 일’이라고 함으로써, 거재의 첫째 목적은 ‘道學’에 있으며, 과거공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科業’ 역시 18세기 거재의 목적 중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서원 강학의 목적을 道學으로 표방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道學과 科學’ 사이를 오가며, 과거공부에 대한 ‘비판’과 ‘용인’의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18세기 소수서원의 모습은, 조선후기의 서원교육이 직면하고 있던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18세기 초중반기 소수서원 거재의 목적과 교육과정을 요약하면,

357) “四月以後 雖曰放學 若有科舉之年 則大同接及白日場等事 亦不可廢 須審農事閒歇之日舉行 以爲恒規事”(「居齋定規」, 1727).

358) “科工雖是學者第二三件事 而不可以無科年而不曾留意 須於限內 或一二巡出題試才事”(「居齋節目」, 1730).

359) “科目一款 亦非少事 而見今科式新頒 講規申明 齋居所讀 必當以三經小學爲緊務 數旬之內 雖難了得一帙 而其間所讀 必須精熟成誦 期有實效 相遞時 亦不廢性理書通讀之規”(「居齋節目」, 1760).

360) “此後凡於小科初試後 除照訖禮講 令大司成 試講初試諸生 而以小學除釋背誦 取粗以上 一依大科自願三經例”(『英祖實錄』, 권 94, 영조 35년 9월 20일); “大科既釐正 小科之規亦當一體釐正 而學禮講 有名無實極矣 臣意則除學禮 只存小學 一依講經例 何如? 上曰 副學所奏 正合予意 除家禮存小學 則必將有益無弊 而將來必至解弛矣”(『承政院日記』, 영조 35년 9월 20일).

거재의 목적은 첫째,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講學’, 둘째, ‘群居講學을 통한 麗澤觀善의 실현’, 셋째, ‘重道義尙禮讓을 통해 유자로서의 예를 익히고 실천하는 것’, 넷째, ‘과거공부를 하는 유생들에게 과업을 준비시키는 것’에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목적인 道學의 탐구와 실천은 독서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독서는 다시 ‘敬讀’, ‘개별 독서’, ‘通讀’의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敬讀은 ‘강학의 목적과 의미를 내면화하고 독서법과 공부론을 체득하기 위해 날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독서의 과정’이었다면, 개별 독서는 ‘藏修를 위한 자율적인 독서의 과정’, 通讀은 ‘麗澤觀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학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敬讀의 교재로는 주자와 퇴계가 서원 강학의 의미와 목적, 독서법과 공부론의 요체를 핵심적으로 제시한 白鹿洞規와 伊山院規를 사용하고, 개별 독서의 교재는 四書六經과 小學을 위주로 하는 가운데 간혹 史學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으며,<sup>361)</sup> 通讀의 교재는 小學, 心經, 近思錄, 주자서와 퇴계집 등 道學의 탐구를 위한 성리서를 위주로 하고, 때때로 조정에서 간행 반포한 三綱二倫行實圖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sup>362)</sup> 유자로서의 禮를 익히고 실천하는 세 번째 목적은 강학에 앞서 시행되는 庭揖禮와 相揖禮 및 공동생활 속에서 예의범절과 언행에 대한 철저한 검속을 통해 실현되었고, 科業은 거재 기간 중 일부의 시간을 할애하여 5일에 한 번,<sup>363)</sup> 혹은 보름에 한 두 차례<sup>364)</sup> 製述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거재의 교육과정으로는 독서를 통한 ‘藏修’의 과정 뿐 아니라 ‘遊息’의 과정 역시 중시되었다. 거재절목에서는 ‘독서의 여가로는 雪月이 서로 빛을 발하고 夜氣가 虛명한 때에 함께 樓亭을 산보하며 시를 읊도록 한다. 이 또한 답답한 기운을 발산하고 흥취를 일으키는 데에 일조가 될 것이다’<sup>365)</sup>고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藏修’의 과정 뿐 아니라 정자와 누각에서 산보하고 시를 읊는 ‘餘暇와 遊息’의 과정 역시 중시하고 있다. 서원교육에서 ‘遊息’은 넓은 의미의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서원교육이 대상으로 삼는 성리학적 지식체계에서는 ‘雪月이 서로 빛을 발하고 夜氣가 虛명한 때에 누정을 산보하며 느끼는 흥취’란 ‘독서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경전 속의 이치’, 즉 ‘道’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풍기군수 주세붕이 지은 景濂亭과 퇴계가 지은 翠寒臺, 17세기 풍기군수 이준이 조성한 濯清池와 仰高臺

361) 「居齋節目」(1749).

362) 「居齋節目」(1730) ; 「居齋節目」(1749).

363) 「居齋定規」(1727).

364) 「居齋節目」(1730).

365) “至如誦讀之暇 雪月交輝 夜氣虛明 則相與散步樓亭 或口占吟詠 此亦暢鬱遣興之一助事”(「居齋節目」, 1730).

등은, ‘藏修’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性情을 닦고 기르는 ‘遊息’의 교육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소수서원의 유식 공간이자 동시에 교육 공간이었다.

#### IV-3-2. 居齋의 운영 방식과 운영 실제

‘道學의 탐구와 실천, 麗澤觀善의 실현, 禮의 학습과 실천, 科業’이라는 목적 하에 18세기 중반까지 소수서원에서는 총 10회의 三冬居齋가 개설되었다. 居齋節目과 居齋錄을 바탕으로, 이 때 시행된 居齋의 운영 방식과 운영 실재를 거재 유생의 선발, 유생의 연령, 輪番 거재 방식의 변화, 거재에서 유생의 하루 일과, 거재 개설 기간, 참여 인원 등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720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록에 나타난 거재의 개설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72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개설된 거재에는 총 43명이 참여하고, 1727년 10월부터 1728년 3월까지 개설된 거재에는 총 51명, 1729년 11월~12월에는 24명, 1730년 11월~12월에는 41명, 1737년 11월~12월에는 50명, 1744년 11월~12월에는 51명, 1749년 10월~12월에는 64명, 1750년 10월에는 29명, 1754년 11월~12월에는 43명, 1760년 10월~12월에는 총 109명이 참여하였다. 1727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개설된 거재를 제외하면, 대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三冬居齋가 개설되고 있으며, 강학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三冬기간 내내 거재를 개설하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1월~12월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서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거재의 개설기간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그 예로, 1749년과 1760년의 거재가 三冬 내내 개설될 수 있었던 건, 1749년에는 양사청의 설치로 강학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1760년에는 한 해 전부터 원장 李漢龍이 마련한 별고의 재정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1727년의 거재가 이듬해 3월까지 무려 6개월에 걸쳐 개설된 것은, 이전까지 5년 동안 흉년으로 거재가 한 번도 개설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학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당시의 재정 기반은 확인되지 않는다.

거점 유생의 선발을 당시 경상도의 관찰사령이었던 상주의 훈도에게 맡겨 경상도 전역을 대상으로 유생을 선발했던 16세기와 달리, 18세기 거재 유생의 선발은 대개 순흥부로 한정하여 부 내 각 면의 서당을 활용하여 선발하고, 간혹 타읍의 유생도 일부 참여시키고 있다. 먼저, 거재 개설일이 확정되면 각 면의 서당과 동네에 통고하여 마을 자제 중에서 通讀과 製述이 가능한 자를 뽑아 나이와 字號를 기록하여 서원에 올리면 서원에서 선발하도록 하였다.<sup>366)</sup> 1749년 이전까지는 연령에 대한 규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1749년부터는 유생의 연령에 제한을 두고 동몽도 거재에 참

366) 「居齋定規」(1727).

여시키고 있다. 각 면 서당에서 명단을 올리면 유생의 연령은 40세 이하, 동몽은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독서하는 자, 총명하여 문리가 통한 자, 뜻을 충실히 세워 과업에 종사하는 자를 뽑아 서원에서 講案에 기록하였다.<sup>367)</sup> 15세 이상의 동몽을 거재에 참여시키기로 규정한 1749년부터는 실제 거재에도 동몽이 참여하기 시작하여 1749년에는 전체 64명 중 10명, 1754년에는 43명 중 4명, 1760년에는 109명 중 17명의 동몽이 거재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40세 이상의 老儒는 삼동거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삼동거재가 끝난 뒤에 재정이 남으면 1월 이후 다시 모여 수십일 간 통독과 제술을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sup>368)</sup> 즉, 삼동거재에서 40세 이하로 유생의 연령을 제한한 것 역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강화 재정에 좀 더 여유가 생기자 삼동거재에도 老儒를 참여시킬 뿐 아니라, ‘老儒는 젊은 유생들에게 선행을 본받는 본보기가 되므로 정원에 구애하지 않고 한쪽 조용한 방에 거처하여 자유롭게 강학하고 토론하도록’<sup>369)</sup> 함으로써 오히려 老儒를 우대하고 있다. 유생의 거주지는 기본적으로 정원 내 유생은 본부(순흥부) 거주 유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고을의 경우 ‘타읍의 유생으로 소문을 듣고 온 자는 정원 외에 2~3명을 넘지 않는 범위’<sup>370)</sup>에서 거재에 참여시키다가, 1760년부터는 타읍과 본읍에 구애 없이 학문에 뜻을 둔 유생은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다.<sup>371)</sup> 1727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거재에 참여한 유생의 거주지를 예로 살펴보면, 전체 51명 중 타읍 유생은 영천 2명, 안동 3명, 예천 2명, 봉성 1명, 용궁 1명으로 총 9명이며 나머지 42명은 모두 본부 유생으로, 타읍 유생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sup>372)</sup> 대개 본부의 유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천의 유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세기부터는 인원의 過多 문제와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썬을 나누어 일정 기간 돌아가며 입재하는 ‘輪番居齋’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윤번거재의 인원과 거재 기간 역시 재정 형편에 따라 규정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먼저, 1720년에는 거재 인원만 10명으로 규정하고 윤번 거재 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 대신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집이 가까운 자가 먼 자에게 양보하도록 함으로써 거재 운영 방식을 비교적 자율에 맡기고 있다. 1727년에는 거재 인원을 10명, 윤번 거재 기간은 1개월로 규정함으로써 이때부터 윤

367) 「居齋節目」(1749).

368) 같은 글.

369) 「居齋節目」(1760).

370) 「居齋定規」(1727) ; 「居齋節目」(1730).

371) 「居齋節目」(1760).

372) 「居齋錄」(1720~1760).

번거제가 정식화되었다. 1730년에는 재정의 약화로 거제 인원은 똑같이 10명으로 하 되, 윤번 거제 기간은 보름으로 규정하여 거제 기간을 단축하였다. 1749년에는 양사 청의 설립으로 재정이 비교적 안정되자 거제 기간은 똑같이 보름으로 하되 윤번 거제 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강학 재정이 좀 더 안정화된 1760년에는 윤번 거제 인원을 20명까지 늘리고 있다. 즉, 18세기에는 재정상 강학 운영의 변통책으로 윤번 거제를 시행하긴 하였으나, 거제가 개설될 때마다 형편에 따라 거제 인원과 기간을 달리 하며, 형편이 닿는 대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을 거제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거제에서 유생의 하루 일과는, <기상-食前 독서-相揖禮-朝食-敬讀-개별독서/通讀/製述-歸家 시 背講-罷齋 시 酬唱詩>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갖추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다가 북소리가 세 번 울리면 巾服 차림으로 식당에 가서 상읍례를 행하였다. 상읍례 후 차례대로 앉아 식사를 마치면, 曹司 1인이 白鹿洞規와 伊山院規를 敬讀하고 제생은 이를 경청하였다. 敬讀이 끝나면 서재로 돌아가 개별 독서를 하거나 다함께 通讀을 하고, 5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두 차례씩 製述을 행하기도 하였다.<sup>373)</sup> 통독과 제술에 대한 규정은 거제절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1727년에는 5일에 한 번 제술, 10일에 한 번 통독하도록 하고, 1730년에는 이틀에 한 번 통독, 보름에 한 두 차례 제술하도록 하였으며, 1749년과 1760년에는 보름에 한 번 귀가일마다 통독하도록 하고 제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거제록의 기록에 따르면, 1754년 거제에서는 원장 黃檜이 제술 시제로 策文을 출제하기도 하였다.<sup>374)</sup> 또한 각자 윤번거제를 마치고 교체하는 날에는 보름간 개별 독서 시 독서한 내용을 背講하고 講案에 평가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유생들의 勤慢을 점검하도록 하였다.<sup>375)</sup> 이와 같이 통독은 이틀에 한 번 혹은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시행함으로써, 18세기 초중반기의 거제에서는 통독보다는 개별독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18세기 후반의 거제에서는 통독을 매일 시행하여 통독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거제의 전 일정을 마치고 과제하는 마지막 날에는 韻字를 내어 다함께 수창시를 짓고 이를 기록에 남기는 관례가 있었다. 수창시에는 대개 원장이나 훈장이 유생들에게 학문 자세를 권면하거나, 유생들이 거제 중 강학하면서 느낀 소회, 학문적

373) 「居齋節目」(1730) ; 「居齋節目」(1749).

374) 1754년 거제에서 원장 黃檜이 지은 수창시에 “叨居洞主慙儒席 爲策謀方勉後生”이라고 하여, 제술 시제로 책문을 출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居齋錄」(1720~1760)).

375) 「居齋節目」(1749).

뜻과 포부 등이 담겨 있었다. 18세기 초중반의 거재록에는 1754년과 1760년의 수창 시가 한 편씩 남아 있는데, 그 중 1754년 원장 黃檗이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sup>376)</sup>

신재선생 창건하고 퇴계선생 제도 만들어	退翁增飾愼翁創
하사받은 편액이 찬란하게 걸려있네	塔額煌煌肇揭名
강학하여 선현의 전통 이어야 하는데	講學可尋先哲緒
속세의 부귀영화에 어찌 마음 쓰리오	馳心寧慕世人榮
외람되어 동주 자리에 낮아	叨居洞主慙儒席
策文 내어 후생들의 공부 면려하네	爲策課方勉後生
쉬지 않고 흘러가는 죽계 시냇물	竹水溶溶源不盡
그 속에 글 읽는 소리도 길이 들려오리라	箇中絃誦永流聲

가정 임인년에 서원 이루어져	院成嘉靖壬寅歲
네 글자 하사한 편액 이름도 찬란하네	四字塔題煥美名
글공부 경건하게 선현을 본받아야 하고	絃誦祇要師述哲
학문이란 본래 부귀영화 위함이 아니라네	藏修非是爲浮榮
유학을 일으키고 道 보위한 기풍 얼마나 아득한가	興儒衛道風何遠
인의를 행하면 즐거움이 그 속에서 나오리니	嚼義咀仁樂則生
참된 道의 근원 쉬지 않는 이치 살피니	看取眞源猶不息
경림정 아래 시냇물 소리 새롭게 들려오네	濂亭流水送新聲

이 시에서 黃檗은 강학의 목적이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현을 본받아 道를 지키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선현을 본받고 道를 지키는 일’이란 보통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인의를 행하면 즉시 즐거움이 그 속에서 나오고, ‘학문을 통해 찾아야 할 道’ 역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경림정 아래 죽계천에서 쉬지 않고 도도히 흐르는 시냇물의 이치와 같은 것임을 말함으로써, 학문의 목적이 일상의 실천과 눈앞에 뿔진한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음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거재에서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평가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강학에서 느낀 소회와 교육적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권면하면서 스승과 학생이 함께 하는 ‘시 짓기’로 갈무리된다는 사실은, 유학교육의 목표와 함의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초중반기 거재는 ‘道學의 탐구와 실천’이라는 목적 하에, 매일 아침 서원 강학의 이념과 공부론이 제시된 주자의 백록동규와 퇴계의 이산원규를 敬讀하며, 개별독서와 통독을 중심으로 제술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376) 「居齋錄」(1720~1760).

제정 상태에 따라 거재의 개설 기간과 윤번 거재 운영 방식을 조금씩 달리 하는 가운데, 최대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유생을 거재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총 열 차례의 거재를 개설하였다. 그 밖에 18세기 후반 거재록과 달리, 18세기 초중반기의 거재록에는 거재에 참여한 유생의 명단만 수록되어 있어, 거재절목에 제시된 거재의 운영 방식 외에, 실제 개별독서와 통독에서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통독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토론이 오갔는지, 훈장은 누구였는지, 거재기간 중 어떤 일이 있었고 방문객은 누구였는지 등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18세기 초중반기에는 이상에서 살펴본 거재 외에, 1721년, 1729년, 1738년에 시행된 세 차례의 거접에 대한 기록도 확인된다. 그 중 1738년 11월에 개설된 거접은 절목 제정부터 거접 유생의 선발, 제술과 考試, 종이와 음식, 땀감 등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순흥부사를 주축으로 시행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순흥부사 임상정은 먼저 절목을 작성하여 거접의 규정을 마련하고, 백일장을 열어 거접 유생을 선발한 뒤 선발된 유생을 두 개의 접으로 나누어 한 달간 윤번으로 거접을 시행하였다. 이 때 순흥부사 임상정이 제정한 절목은 다음과 같다.

- 거접하는 인원을 23명으로 하고, 두 개의 접으로 나누어 한 번에 1개월씩 공부시킨다.
- 관가에서 시험으로 선발한 인원 외에 다음과 본읍을 막론하고 입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 接有司 1명을 接 중에서 연소한 자로 정해놓고 2일마다 교체한다.
- 접유사는 함께 거재하는 사람들을 감독·신칙하고 때맞추어 試券을 거둔다.
- 매일 1수를 지어 익일 아침 식사 전에 시권을 거두어 올리는 것을 날마다 한다. 試題는 관가에서 직접 출제한다. 이번의 거접은 물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1개월에 한하는 것을 면치 못한다. 기간이 짧은 것이 참으로 한스러우니, 한가한 이야기로 공부를 방해하지 말도록 한다. 기한 내에 시권을 내지 않는 자는 太學의 규례에 따라 아침 식당에 참석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학궁의 거접은 다른 곳과 다르니 거재하는 사람들은 무릇 거처하고 말하는 즈음에 제각기 닦고 경계하여 예모와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한다.<sup>377)</sup>

부사 임상정은 접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 1인으로 接有司를 삼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試券을 걸어 올리도록 하고, 날마다 시권을 직접 채접하였다. 거접 인원은 23명으로 제한하고 11월 26일 백일장을 열어 23인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인원은 두 개의 접으로 나누어 12월 27일까지 윤번으로 거접하도록 하였다. 試題는 매일 부사가 직접 출제하여 서원에 보내고, 매일 아침 기한 내에 시권을 제출하지 못한 유생은 太學의

377) 『紹修書院誌』, 「居齋節目 官製」(1738).

규례에 따라 아침 식당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절목에는 23인을 선발한다고 하였으나 거재록에 따르면, 거접에 참여한 사람은 총 24인, 그 중 4명은 중복 입재하였으므로 실제 참여한 유생은 총 20명이다. 부사 임상정은 11월 15일 서원에 백지 2속을 보내고, 동짓날에는 반찬 1그릇과 팔죽 1바리, 簡紙 14폭을, 11월 26일 백일장에서 거접유생 23인을 선발하여 거접이 시작되자 12월 1일에는 떡과 국수 각 1그릇, 안주 1반, 청주 2鎰, 백미 5말, 청어 10마리를, 12월 6일에는 간장 1말, 탄 3석, 시목 20속을 보내 거접을 지원하였다.<sup>378)</sup>

이 때의 거접은 평소와 달리 원장이 아닌 순흥부사가 주도하고, 거접유생도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거접의 운영방식이 태학의 규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처럼 1738년 거접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1732년 영조에 의해 전국에 반포된 勸學節目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의 서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학절목 반포 이후 조선후기에는 지방관에 의한 교학 진흥책이 고을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서원 강학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1738년 순흥부사의 주도 하에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시행된 소수서원의 거접은, 관학 중심으로 지방교육의 일원화를 도모했던 조현명의 권학절목의 방식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관학의 규례에 따라 거접을 운영하고, 내용도 철저하게 科業을 중심으로 하며, 전 과정을 지방관이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권학절목의 영향으로 순흥부사 임상정이 소수서원의 실정에 맞게 시도한 지방 교육 진흥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도 잡록류 기사에 따르면, 1721년 7월에도 거접이 개설되어 부사 李明熙가 유생의 製述接中에 면가루 5말, 참외 70개를 보냈으며,<sup>379)</sup> 1729년 7월에도 거접이 개설되어 순흥부사 申弼夏가 백미 10두를 지원한<sup>380)</sup> 기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18세기 초중반기에 시행된 소수서원의 전체 강학 개설 현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14회 개설된 강학 중 거재가 총 10회로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거접과 백일장은 30% 미만을 차지함으로써, 18세기 초중반기의 강학은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개별독서와 통독을 중심으로 한 거재 위주로 운영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78) 같은 책, 같은 곳.

379) 『紹修書院誌』, 「年表」, 1721년 7월 3일.

380) 『紹修書院誌』, 「年表」, 1729년 7월 20일.

<표 9>. 18세기 초·중반기 소수서원 강학 개설 현황과 특징(1720~1760)

강학형태	개설 시기	참여인원 (총)	윤번거재인원 / 교체기간	비 고
居齋 10회 (71%)	1720. 11~ 1721. 1	45명	10명	원장 鄭重元이 재정을 마련하여 거재를 개설하고 居齋錄 작성
	1727. 10~ 1728. 3	51명	10명/ 1개월	·원장 李徵道가 재정을 마련하여 거재 개설. ·5일에 한 번 제술, 10일에 한 번 통독
	1729. 11월 ~12월	24명	*	원장 李鎭萬
	1730. 11월 ~12월	41명	10명/ 보름	·원장 李鎭萬이 식량 出捐, 제실을 수리하여 거재 개설. ·이들에 한번 통독, 보름에 1,2회 제술
	1737. 11월 ~12월	50명	*	원장 金呂徵
	1744. 11월 ~12월	51명	*	원장 權一經
	1749. 10월 ~12월	64명 (동몽10)	15명/ 보름	·원장 鄭玉이 7월에 양사청 설치 ·보름에 한 번 통독
	1750. 10월	29명	*	원장 李鎭華
	1754. 11월 ~12월	43명 (동몽4)	*	원장 黃檜
	1760. 10월 ~12월	109명 (동몽17)	20명/ 보름	·1759년 원장 李漢龍이 마련한 별고의 재정으로 거재 개설 ·보름에 한번 통독
居接 3회 (21%)	1721. 7	*	*	순흥부사 李明熙가 유생의 製述接中에 면가루 5말, 참외 70개 지원
	1729. 7	*	*	순흥부사 申弼夏가 백미 10두 지원
	1738. 11. 26 ~12. 27	20명	23명을 2개의 접으로 나누어 윤번 거접	·순흥부사 임상정이 절목 제정, 유생선발, 시제 출제와 고시, 재정 지원 전담
白日場 1회 (7%)	1720. 4. 25	300여명	*	제월루 낙성 기념 백일장

#### IV-4. 후반기 居齋의 心學的 특징 및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에 대한 자료는 居齋雜錄, 居齋錄, 雲院齋錄, 入院錄, 雜錄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居齋雜錄』과 『居齋錄』에는 거재의 개설 배경, 거재절목, 매일의 출입 유생, 유생들이 개별독서와 통독에서 날마다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와 개별독서 및 제술의 평가 결과에 대한 기록, 거재 기간 중 방문객, 하루 일과, 원임과 훈장, 독서와 제술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考官의 명단, 백일장과 순제의 방목, 수창시 등 강학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강학의 운영 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居齋雜錄』은 1761년부터 1780년까지 개설된 19차례의 강학, 『居齋錄』은 1780년부터 1793년까지 개설된 4차례의 강학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먼저, 자료 소개를 위해 『居齋雜錄』과 『居齋錄』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居齋雜錄(1761~1780)의 구성

강학형태	연도	구성
居齋	1761	題居齋錄奉諭諸君子, 居齋節目, 酬唱詩,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2	巡題計畫
居齋	1762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酬唱詩
巡題	1763	癸未巡題計畫榜
居齋	1763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4	甲申五月初一日巡題榜
白日場	1764	甲申七月十九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5	乙酉七月二十二日白日場榜目
巡題	1766	丙戌七月日巡題四巡計畫榜目
居接	1766	丙戌七月二十二日大同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三日接榜目, 同月二十四日接榜目, 同月二十五日接榜目, 同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居齋	1766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酬唱詩
巡題	1767	丁亥巡題榜目
白日場	1767	丁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9	乙丑七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70	庚寅七月初六日白日榜目
白日場	1771	辛卯四月二十九日白日場榜目
居接	1772	壬辰正月十七日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八 <sup>381)</sup> 日榜目, 同月二十九 <sup>382)</sup> 日榜目, 同月二十日榜目, 同月二十一日榜目, 同月二十二日榜目, 同月二十三日榜目, 同月二十四日榜目, 同月二十五日榜目, 同月二十六日榜目
旬題	1778	戊戌五月日旬題榜目
巡題	1780	庚子八月二十九日三巡巡題計畫

<표 11>. 居齋錄(1780~1793)의 구성

강학형태	연도	구성
居齋	1780	居齋錄奉諭齋中, 居齋節目, 酬唱詩, 居齋日記, 酬唱詩
通讀	1789	己酉通讀節目, 日記, 通讀節目識(1790, 成彥根)
居齋	1790	居齋節目, 講案, 日記, 酬唱詩,
居齋	1793	居齋節目, 書節目後(權益休), 講案, 日記, 試題, 酬唱詩

居齋에 대한 기록 중 ‘居齋講案’은 개별 독서에 대한 기록, ‘製錄’은 제술에 대한 기록, ‘通讀日記’는 매일의 통독에 대한 기록이다. 居齋講案에는 유생들이 거재 기간 중 개별 독서한 서책명과 장절, 귀가 시에 독서한 부분을 背講하여 그 결과를 通略粗不로 기록하고, 製錄에는 詩賦 제술을 시행한 뒤 과거시험 평가 방식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 講案에는 입제한 날짜, 배강 및 제술을 시행한 날짜, 거주지 등을 함께 기록한 경우도 있다. 通讀日記에는 날마다 무슨 책을 어디까지 통독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매일의 특이사항과 있었던 일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1780년의 居齋日記에는 居齋講案과 通讀日記를 함께 기록하였다. 거접에 대한 기록은 참석자 명단과 제술 점수를, 백일장, 순제는 참석자 명단과 제술 점수를 등수대로 작성한 방목을 수록하고 있다. 그밖에 1792년의 거재에 대한 기록은 『雲院齋錄』, 1796년과 1799년의 백일장에 대한 기록은 『入院錄』과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 거재의 특징 및 거접, 백일장, 순제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381) ‘二十八’은 ‘十八’의 誤記.

382) ‘二十九’는 ‘十九’의 誤記.

#### IV-4-1. 居齋節目을 통해 본 居齋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18세기 후반, 1761년부터 1799년까지 소수서원에서는 거재 8회, 통독 1회, 백일장 8회, 순제 7회, 거접 2회로 총 26회의 강학이 개설되었다. 백일장과 순제의 비중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의 재정난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일장과 순제를 제외하면, 거재와 통독은 거접의 4배 이상 개설되고 있으며, 거재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18세기 후반에는 통독을 매일 시행하고 제술은 거재 기간 중 보통 한 차례만 시행함으로써, 18세기 초중반기에 비해 제술은 축소되고 통독은 훨씬 중시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科業의 비중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의 道學的 성격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거재에서 활용된 通讀 교재의 특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관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1770년대부터 거재나 백일장, 순제의 試題 출제를 순흥부사에게 요청하며 지방관의 참여를 확대시키다가, 1789년에는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통독을 개설하고, 1793년에는 순흥부사에게 소수서원 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관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18세기 후반의 재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거재절목과 居齋雜錄, 居齋錄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세기 후반 거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재절목에 나타난 교육과정과 거재 운영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시 거재하는 10명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서원 창건 때 만든 규례인데, 근래에 본원의 재력이 탕진되어 三冬居齋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숙식을 제공하는 인원수는 옛날 규례를 준수하되, 10명씩 돌아가며 입재하여 초하루와 보름에 교체한다.

· 학문에 뜻을 둔 유생은 타읍과 본읍을 물론하고 모두 입재를 허가하되, 입재하는 날 모인 사람이 많으면 연소자는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가까이 사는 자는 멀리 사는 자에게 양보하여 10명의 정원을 채운다.

· 老儒로서 학업을 폐지하지 않은 자는 나이의 고하에 구애하지 않고 모두 맞이해 들여, 講誦에는 불참하더라도 敬讀과 通讀을 할 때에는 제생들과 더불어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을 토론하도록 한다. 한가한 즈음에 노성한 벗들과 간간히 시를 읊으며 노닐게 되면 노경에 있는 이도 매우 즐거운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진 선비들이 선행을 관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거재할 때에는 항상 사서삼경과 소학 등을 읽고 白鹿洞規·朱文公十訓·敬齋箴·夙興夜寐箴 등을 敬讀하고, 心經·近思錄·朱書節要 등을 通讀한다. 거재를 마칠 때에 각자 背講하고 배강을 마친 뒤에 製述을 하여 勤慢을 고찰하여 경계하고 신칙하는 뜻을 보인다.<sup>383)</sup>

· 숙식을 제공하는 정원 10명을 10일 단위로 돌아가며 바꾸는 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규례가 있는데, 인원이 어떤 때는 적고 어떤 때는 많아 일정하게 유생을 입제시키기 어렵다. 정원에 차지 않을 때에는 나가는 자를 만류하고 멀리서 많이 올 때에는 정원을 늘리는 것도 무방하니, 이에 대하여는 신축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 과거문체는 實地 공부가 아니지만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도 아울러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독서하는 여가로 같이 策文을 지어 과거공부를 함께 익히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sup>384)</sup>

· 10명이 항시 숙식하며 10일 주기로 차례를 바꾸는 것은 전부터 내려오는 원규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때에 따라 알맞게 바꾸는 도리가 없을 수 없다.

· 거제하는 제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의관을 갖춘 뒤에 식당에 참여하며 먼저 상음례를 행한다. 식후에 명륜당에 차례로 서서 글을 잘 읽는 자로 하여금 벽 위에 걸린 箴規를 경독하게 한다. 마치고 그대로 방에 앉아 주서절요·심경·근사록 등의 책을 가지고 차례로 훑어읽어 읽고 돌아가며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토론한다. 마치고 각자 재실로 돌아가 부지런히 일과를 공부한다.

· 10일 동안 읽는 것은 각자 재능의 정도에 따라 분량의 다과가 나오게 마련이다. 기한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배송하게 하여 부지런히 하였는지를 시험한다.

· 매일 읽는 책을 잡서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서삼경과 소학 등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전일하게 힘을 써서 실효가 있도록 해야 한다.

· 과거 문체는 實地 공부가 아니지만 세속에서 숭상하는 것도 그만둘 수 없다. 독서하는 여가에 각자 능한 분야로 글을 지어 정해진 시각에 시권을 거둔다.<sup>385)</sup>

18세기 초중반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통독과 제술의 비중이 변화되고, 敬讀 교재가 추가되었으며, 윤번 거제의 인원이 축소된 점을 들 수 있다. 개별독서의 교육과정은 四書三經과 小學, 通讀의 교육과정은 心經, 近思錄, 朱子書節要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독의 교재는 白鹿洞規·朱文公十訓·敬齋箴·夙興夜寐箴으로 이산원규 대신 朱文公十訓·敬齋箴·夙興夜寐箴이 추가되고 있다. 이는 道學과 爲己之學으로 강학의 목적을 제시했던 이산원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道學의 탐구를 위한 구체적인 공부법으로서 ‘敬의 공부론’을 직접 표방하며 강학이념과 공부론이 점차 심화,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독과 제술의 비중은, 이틀에 한 번 혹은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통독하고, 5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두 차례 제술을 시행하도록 했던 18세기 초중반기와 달리, 제술은 윤번 거제를 마치고 귀가하는 날 한 차례만 시행하고, 통독은 매일 시행하게 함

383) 『居齋雜錄』, 「居齋節目」(1761).

384) 『居齋錄』, 「居齋節目」(1790).

385) 『居齋錄』, 「居齋節目」(1793).

으로써, 통독의 비중이 훨씬 확대되었다. 즉, 18세기 초중반에는 개별독서, 통독, 제술이 병행되는 가운데 개별독서 위주로 거제가 운영되었다면, 18세기 후반 거제에서는 통독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실제 거제록에서도 통독이 매일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시험 과목과 무관한 理學, 心學 중심의 교재를 강론하는 통독이 이처럼 중시된 것은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대목이다. 통독 교재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하고자 한다.

科業은 ‘과거문제는 실시 공부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독서나 통독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여전히 거제의 교육과정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18세기 초중반기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술의 비중은 거제 기간 중 한 차례만 시행함으로써 통독에 비해 훨씬 축소되고 있다. 운번 거제의 방식은 1780년까지는 10명씩 보름 단위로 하다가 1790년부터 10명씩 열흘 단위로 규정하여 거제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 역시 재정 때문이었으나, 인원이 적을 때는 거제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멀리서 온 유생이 많을 경우에는 정원 외에도 추가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면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였다.

거제유생의 거주지와 老儒에 대한 대우 역시, 타읍과 본읍에 상관없이 입재를 허락하고, 老儒는 통독에서 토론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선행을 본받는 데 모범이 되므로 나이나 정원에 구애 없이 모두 받아들일도록 한 것은 1760년의 거제절목과 같다. 노유에 대한 이 같은 대우를 통해, 서원에서 群居講學의 목적은 단지 책 속의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지 않고, ‘麗澤觀善의 실현’에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통독을 매일 시행하고 제술은 귀가 시에만 시행하도록 한 것 외에, 유생의 하루 일과 역시 이전과 동일하나, 위 절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93년 거제에서는 敬讀을 식당이 아닌 명륜당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거제를 시작할 때 순흥부사로 원장을 겸임하게 된 朴長高이 서원에 와서 잠규를 직접 써서 명륜당 벽에 게시하고, 이를 날마다 경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날마다 조식 후에는 식당이 아닌 명륜당으로 자리를 옮겨 명륜당 벽에 게시된 잠규를 직접 읽으며 경독을 행하였다.

한편, 1789년 通讀節目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四書는 실로 우리 儒家의 門路인데, 지금 사람들은 더러 사서에 힘을 쏟는 것이 미약하다. 통독하고 강의하는 즈음에 마땅히 사서를 먼저 힘쓰도록 한다.
- 각 면의 훈장은 초하루와 보름에 해당 면의 유생으로서 강의에 참여할 만한 자를 모아 훈련시켜 통독할 때 데리고 와서 강의를 듣도록 한다.

· 먼저 大學을 읽고 다음에 論語를 읽고 다음에 孟子를 읽고 다음에 中庸을 읽는 것은 전부 더 先儒가 정한 규례가 있다. 마땅히 이것으로 차례를 삼아 먼저 개인적으로 글 뜻을 익히고 연구하였다가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각자 따로 기록하였다가 통독할 때 질문하여 밝게 분변 하도록 한다.

· 서원의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여 선비들의 숙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뜻대로 하기 어렵다. 유생들이 모였을 때 유숙하는 비용은 각자 조처하도록 한다.<sup>386)</sup>

한 해 전 가을 폐지되었던 양사청을 복설한 뒤, 1789년 5월에 통독을 개설하였는데, 양사청이 복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숙 비용은 유생들 각자가 부담하게 하고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통독을 개설하였다. 이 때의 통독에서는 면훈장제를 활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초하루와 보름에 각 면의 훈장으로 하여금 해당 면의 유생을 모아 훈련시키다가 서원에서 강회를 열 때 데리고 오도록 한 것은, 조현명의 권학절목에 제시된 교육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권학절목에서는 매달 삭망에 면훈장이 서원에서 각 면의 학도를 모아 교육하게 하고, 매 달 도훈장과 수령 앞에서 평가받도록 하였는데, 이 때 통독에서는 매달 삭망에 면훈장이 서원이 아닌 해당 면에서 유생을 훈련시키다가 서원에서 강회를 열 때 데리고 오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이 때 소수서원은 권학절목에서 평소에 면훈장이 각 면의 학도를 훈련시키는 장소(서원이나 산당)가 아니라, 그 상위 단계인 향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면훈장제를 활용했기 때문인지, 이 때 통독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유생이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거재절목과 통독절목의 규정이 실제 거재와 통독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거재잡록과 거재록에 기록된 거재, 통독의 운영 실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목에 제시된 규정이 실제 강학에서 정확하게 지켜진 것은 물론 아니다. 거재일에 모인 유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통독을 시행할 수 없어 급작스럽게 교육과정이 변동되기도 하고, 통독을 여는 날 갑자기 고을에 돌림병이 돌아 부내 유생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서원교육에 열의가 있는 지방관이 갑자기 서원을 방문하는 날에는 서원교육을 면려하는 차원에서 부사가 직접 試題를 출제하여 예정에 없던 제술이 시행되기도 하며, 산장이나 훈장의 有故 시에도 평소의 교육과정이 중단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등, 실제 거재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다.

386) 『居齋錄』, 「己酉通讀節目」(1789).

#### IV-4-2. 『居齋雜錄』·『居齋錄』에 나타난 居齋의 운영 실제

居齋雜錄과 居齋錄에 수록된 18세기 후반 거재와 통독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761년의 居齋는 원장 權九淵이 ‘本院의 물력이 비록 옛날 같지는 않지만 수백 곡의 餘財와 수천 권의 서적이 있어, 옛날의 恒供之規는 지키지 못하지만 三冬居齋의 비용으로는 쓸 수 있으니 한 달 간 거재를 개설한다’<sup>387)</sup>는 거재 개설 배경을 말하고, 별유사 裴憲謨, 徐昌協과 함께 거재절목을 마련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거재를 개설하였다. 이 때 ‘수백 곡의 餘財’라는 것은 1759년 원장 李漢龍이 강학을 위해 해마다 추수 후 50石을 따로 배정하기로 하면서 마련했던 별고의 재정이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절목에 규정된 대로, 매일 개별 독서와 통독을 시행하고, 귀가일에는 背講하여 개별 독서 시 공부한 내용을 평가하여 ‘通·略·粗·不’로 결과를 기록하였으며, 詩賦 중 한 편씩 택하여 역시 귀가일에 제출하고 점수를 기록하였다. 거재에는 유생 25명, 동몽 1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하였으며, 개별 독서 시 읽은 책은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등으로 사서삼경과 소학으로 규정한 절목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통독은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 간 心經附註 서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독한 뒤, 퇴계의 心經後論까지 통독하였다. 심경 통독을 마친 뒤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은 近思錄 서문부터 권 7의 중간까지 통독하였으며, 매일의 통독에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거재잡록에는 원장 權九淵 및 黃翌大, 安薰, 裴是衿이 지은 수창시 4편이 수록되어 있다.

1762년에는 원장 權九淵, 별유사 柳鳳翼, 黃師漢의 주도하에 10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거재를 개설하였다. 10명~12명씩 보름 단위로 운번 거재하여 매일 개별 독서와 통독을 시행하고, 귀가일에 개별독서한 내용을 背講, 賦 한 수씩 제출하였다. 거재에는 유생 27명, 동몽 6명, 총 33명이 참여하여 개별독서에서 주역, 시전, 서전, 맹자, 중용, 예기, 논어, 朱書, 소학, 대학을 읽었다. 통독은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일 최소 4명에서 최대 11명이 참석하여 近思錄을 권 1부터 권 14까지 완독하였다. 거재잡록 마지막에는 과제일에 지은 수창시 12편을 수록하였다.

1763년의 거재는 원장 成惠寅, 별유사 琴活心, 金世鍊의 주도하에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설하여 8~18명이 보름 단위로 운번 거재하였다. 귀가일에 배강은 전과 같이 하고 제출은 詩賦 중 한 편씩 택하여 시행하였다. 유생 29명, 동몽 8명이 참

387) 『居齋雜錄』, 「題居齋錄奉諭諸君子」.

여하여 개별독서에서 논어, 맹자, 중용, 시전을 읽고, 통독은 11월 2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일 최소 2명에서 최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朱子書節要를 서문부터 권 4까지 통독하였다.

1766년의 거재는 원장 權九淵, 별유사 徐昌載, 鄭惟簡을 중심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개설하여 3명~32명이 보름 단위로 운번 거재하였다. 10월 15일에는 11명이 입재하여 30일에 應講하고 귀가, 11월 1일에는 5명이 입재하여 14일 응강하고 귀가, 11월 15일에는 3명이 입재하여 30일에 응강하고 귀가, 12월 1일에는 32명이 입재하여 12일에 응강하고 귀가하였다. 간혹 늦게 입재하거나 질병으로 일찍 귀하한 경우는 배강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sup>388)</sup> 전체 유생 38명, 동몽 13명이 참여하였으며, 개별독서 시 읽은 책은 서전, 시전, 맹자, 주역, 소학, 격몽요결로, 절목에 규정된 책 외에 격몽요결이 처음 나타나고 있다. 격몽요결을 배강한 사람은 23세 權百命과 동몽 柳復潤이다. 귀가일에 시부 중 한 편씩 제출하고, 12월에 입재한 유생은 賦 1수~4수씩 제출하였다. 통독에는 매일 최소 3명에서 최대 27명이 참석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朱子書節要 권 1부터 권 9의 ‘答石子重’까지 통독하고, 12월 1일부터는 새로 입재한 유생을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朱子書節要 서문부터 시작하여 12월 13일에 권 4까지 통독하였다. 거재잡록의 마지막에는 파재일에 지은 수창시 17편도 수록하고 있다.

1780년에는 원장 鄭惟簡, 養士有司 金燦元, 權善揆, 별유사 徐孟胤의 주도하에, 琴孝胤, 徐昌載를 훈장에, 柳翼之는 평가를 담당하는 考官(講官)에 임명하고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거재를 개설하였다. 이전까지는 원임 외에 훈장이나 고관이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1780년의 거재부터 기록하고 있다. 매일 5명~25명, 마지막 12월 7일과 8일 이틀간은 51명, 47명이 참석하였다. 귀가일에 배강은 전과 같이 하고, 제출은 서원에서 한 차례, 官家에서 4차례 직접 시부를 출제하여 총 5회 시행하였다. 본래 운번 거재 기간인 보름을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11월 1일에 ‘朔製’라 하여 서원에서 시부 각 한 수씩을 출제하였으나, 11월 3일 부사가 방문하여 직접 시제를 출제하여 예정에 없던 제출을 또 시행하였다. 이후 보름마다 제출은 모두 서원이 아닌 관에서 출제하여, 11월 15과 16일, 12월 1일에도 부사가 시부 각 한 수씩 출제하여 제출을 시행하였다. 개별독서 시 읽은 책은 맹자, 주역, 시전, 논어, 서전, 중용, 대학이며, 통독은 10월 23일부터 朱子書節要를 권 1부터 통독하기 시작하여 12월 6일 권 7의 마지막까지 통독하고 있다. 그 중 11월 18일에는 순흥부사 李正

388) 예로 12월에 수록된 成彦極과 安恂은 ‘追到未講’, 黃志碩과 동몽 李元郁은 ‘病出未講’이라 기록되어 있다(『居齋雜錄』).

模가 친히 와서 주자서절을 통독하고 오후에 돌아가는 등, 이 때 거재에는 순흥부사가 제술과 통독 모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재 기간에는 순흥향교 上齋 黃時泰, 掌議 權益邵, 단계서원 원장 琴宅心 등이 尋院하였다. 거재록에는 수창시 1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훈장 徐昌載가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sup>389)</sup>

깊은 골짜기 고요한 서재에	寥落寒齋洞府深
고금에 글 읽는 소리 낭랑하네	洋洋今古誦絃音
연비어약은 中庸 속의 이치이고	淵魚思聖書中理
제월광풍은 염계 떠난 뒤의 마음	霽月濂溪去後心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심을 알게 되고	人鬼關頭須透得
산수 속에서 志趣를 미루어 찾네	智仁樂處更推尋
전날 서재 규약 든던 일 생각나서	憶曾參請齋規意
책 읽고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네	讀罷清篇起整襟

1789년의 通讀은 원장 琴孝胤, 원임 朴東元, 鄭必良, 양사청별임 金永斗의 주관 하에 金世鍊을 都訓長으로 초빙하여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설하였다. 이에 앞서 3월에 먼저 金世鍊과 成彦根이 함께 통독절목을 작성한 뒤, 각 면에 통고하여 5월 10일부터 각 면훈장이 유생을 데리고 입재하기 시작하여 11일부터 통독을 시작하였다. 절목을 두 달이나 앞서 작성한 것은, 이때의 통독은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시행되었기 때문에, 면훈장들에게 통독의 개설을 미리 알려 각 면의 생도들을 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절목을 작성했던 成彦根은 당시 통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통독절목은 바로 故友 素菴翁이 정하고 내가 함께 참여하여 수정한 것이다. 지난 기유년 단양월에 원장 琴孝胤이 본원에 통독을 설치하고 소암옹을 초빙하여 훈장으로 삼고 스승의 자리에 앉혀 생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에 나도 水息의 생도들을 이끌고 각면 훈장들과 함께 말석에 끼었다. 소암옹이 나에게 말하기를, ‘四書는 우리 유가의 문호이다. 무릇 경서의 뜻을 강론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이에 간략하게 절목을 정하여 벽 위에 붙이고 명륜당 위에 줄지어 앉아 글을 잘 읽은 이로 하여금 돌아가며 大學을 통독하게 하고 강의하니 실로 근세에 보기 드문 성대한 행사였다. 이때에 많은 선비들이 몰려왔지만 재정이 부족하여 이달 11일에 시작하여 16일에 과하여, 총 5, 6일에 걸쳐 강독한 것이 대학 하나에 그치고 말았다. 그 사이에 혹은 관아에 제목을 청하거나 혹은 직접 제목을 내어 4차례에 걸쳐 詩賦 제술을 시행하였다.”<sup>390)</sup>

389) 『梧山集』, 권 1, 「紹修書院居齋時 謹次牛川鄭公韻」.

390) 『居齋錄』, 「通讀節目識」(1790).

인용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때 통독에서는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당시 成彦根도 水息面의 訓長으로서 생도들을 데리고 통독에 참여하였다. 성언근 외에도 거재록에는 臥丹(와란면)訓長 趙玄瑞, 大平訓長 權昌祖, 壽民(수민단면)訓長 金時鍊 및 해당면은 알 수 없으나 면훈장 徐昌說, 金尙洛 등 총 6개면에서 면훈장이 각 면의 생도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당시 순흥부에는 총 13개면<sup>391)</sup>이 있었으니 절반은 참여한 셈이다. 나머지 7개면에서 참석하지 못한 것은 ‘本邑諸生 各拘癘疫 未得齋會’라는 기록을 볼 때, 아마 당시 유행하던 돌림병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sup>392)</sup> 都訓長으로는 한 해 전 원장으로 있으면서 양사청을 복설했던 金世鍊이 임명되었다. 5월 10일에는 都訓長 金世鍊과 면훈장 4명이 입재하기 시작, 11일에는 유생 26명이 입재하여 오후에 상읍례를 행하고 통독을 시작하여 大學 補亡章(5장)까지 통독한 뒤 날이 저물자 마쳤다. 이날 통독일기와 時到記 등의 작성을 담당할 日記有司로 李宗洙, 金永億을 선출하였다. 12일에는 오전에 상읍례를 행한 뒤 전날에 이어 大學을 傳 6장부터 9장까지 통독하였다. 오후에는 도훈장 김세련이 喪事로 외출하여 통독을 하지 못하고, 官家에 試題를 청하여 통독 대신 詩賦 제술을 시행하여 시권 98장을 거두었다. 즉, 첫 날 26명의 유생이 참석한 데 비해 둘째 날에는 98명에 이르는 많은 유생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통독일기에는 ‘본읍 유생은 돌림병으로 인해 미처 오지 못했는데, 멀리 외지에서 문풍을 듣고 온 유생이 많으니 어찌 성대한 일이 아니겠는가’<sup>393)</sup>라고 하여 이날 참석자 중에는 타읍 유생들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훈장의 외출로 통독이 중단된 것을 볼 때, 도훈장의 외출로 통독이 중단된 것을 볼 때, 도훈장은 통독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일에도 참석 유생이 모두 100여명에 달했다. 인원이 너무 많아지자 통독을 시행할 수 없어 이 날부터는 통독 대신 매일 제술을 행하였다. 詩賦를 출제하여 시권 100여장을 거두고 순흥부사에게 考試를 맡겨 賦에서 18인, 詩에서 15인을 선발하였다. 14일에도 시부 제술을 행하고 시권 110여장을 부사가 채점하여 부에서 13인, 시에서 10인을 선발하였다. 15일에는 삭망분향례를 행하고, 16일에도 시부 제술을 행하여 시부 각 10인을 선발한 뒤 통독을 과하였다. 중간에는 고을 원로와 구만서원원장 朴坵, 순흥향교 上齋 權益休, 순흥향교 장의 金赫鍊, 풍영루주인 安恂 등이 내방하였다.

391) 13개면은 ‘대평면, 내죽면, 일부석면, 동원면, 도강면, 삼부석면, 이부석면, 수식면, 화천면, 와란면, 수민단면, 대룡산면, 창락면’이다(『梓鄉誌』, 「順興誌」, 坊曲).

392) 이 때 통독일기에는 ‘本邑諸生 各拘癘疫 未得齋會’라고 하여, 당시 돌림병인 창질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居齋錄』, 「通讀日記」(1789)).

393) “本邑諸生 各拘癘疫 未得齋會 而遠外儒生 多有聞風來赴者 豈非盛事耶”(『居齋錄』, 「通讀日記」(1789)).

1780년의 거제에 이어 1789년의 통독에서도 면훈장제를 활용하고, 매일의 제술 시제를 순흥부사가 출제, 고시하는 등 부사가 서원 강학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90년의 거제는 원장 金重鍊, 양사별임 權益邵, 별유사 朴東元, 金器鍊이 주도하여 10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개설되었다. 먼저 10월 15일 분향례 때 당회를 열어 원임들과 거제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뒤, 경내에 통문을 발송하고 훈장으로 安恂과 成彦根 2인을 선출, 성언근에게 거제절목을 작성하게 하고 각 처 임원에게 알려 25일부터 원임과 훈장이 입재하기 시작하여 거제가 시작되었다. 먼저 10월 25일에는 별임 朴東元, 26일에는 산장 金重鍊과 훈장 安恂, 成彦根이 입재하고, 27일부터 거제유생이 입재를 시작하였다. 28일에는 거제절목을 벽에 게시하고 金樂顏을 直月로 선출하여 齋中 凡節을 관리하게 하였다. 절목에는 열흘마다 직일을 교체하도록 하였는데, 실제로는 11월 7일, 15일, 19일에 교체하고 있다. 29일에는 아침에 식당에서 백록동규와 경재잠, 숙흥야매잠, 주문공십훈을 경독한 뒤 庭揖禮를 행하고, 11월 1일에는 삭망분향례 후 경독을 행한 뒤 통독을 처음 시작하여 朱子書節要를 권 1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이후 매일 경독과 통독, 정읍례를 행하고, 9일에는 경독 후 산장과 훈장이 풍영루에 나가 통독은 생략하고 정읍례만 행하였다. 산장과 훈장 부재 시 통독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이때 통독 역시 산장과 훈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술은 6일·10일·12일·23일·26일·27일에는 서원에서 출제, 16일·17일·20일에는 관에서 출제하여 시부 제술을 행하였다. 관에서 출제한 제술은 부사가 직접 考試하여 시부에서 각 장원 1인씩을 선발하였는데 20일의 제술에서는 賦 장원에 余重默, 詩 장원에 權必綱이 선발되었다.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아침에 경독과 정읍례를 행한 뒤 다함께 消魂臺에 올라 상읍례를 하고 파제하였다. 이 때 ‘消魂臺’는 서원 정문 밖, 영귀봉 남쪽 기슭의 언덕에 있는 臺로, 예부터 서원에 내왕하며 유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작별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sup>394)</sup> 개별독서 시 읽은 책은 사서삼경과 朱書, 거제 유생은 순흥부 외에 안동, 영천, 풍기, 상주, 봉화에서 매일 최소 10명에서 최대 44명까지 참석하였으며, 전체 유생 72명, 尋院 53명, 동몽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심원객 중 대부분은 순흥, 그 외 풍기, 상주, 봉화, 안동 등에서 방문하였으며, 그 중 이 해 소과에 입격한 黃中敬, 黃章漢, 黃夔漢은 新恩 차로, 그 외에는 당일로 다녀가거나 하루에서 많게는 일주일까지 유숙하면서 유생들과 함께 통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거제록에는 敬讀에서 읽은 朱文公十訓 등에서 4편의 시의 운자를

394) “消魂臺：在院門外 卽靈龜南足 往來遊息之人分手於此 故名”(『梓鄉誌』, 「順興誌」, ‘學校’).

내어 서로 차운시를 짓고, 총 63편의 수창시를 수록하였다.

1792년의 거제는 11월 한 달 간 개설되었는데, 이때의 거제에 대한 기록은 居齋錄이 아닌 雲院齋錄에 수록되어 있다.<sup>395)</sup> 당시 원장은 1789년 통독에 구만서원원장으로 내방했던 朴堧 별유사는 權赫祖, 柳焄, 孫思百이었다. 「雲院居齋 題名」에는 거제에 참석한 사람의 명단을 적고, 그 아래 제명록을 작성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임자년 11월에 내가 벗들과 더불어 백운동서원에 가서 거제하였는데, 인근 고을의 여러 어른들도 와서 모였고 동년배들도 많이 모였다. 한 달 동안 강습하고 연구하니 즐거움이 매우 많았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 술잔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들의 이번 강회는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거제 기간이 그다지 길지 못하였지만 흠어지고 모이는 것이 무상한 때에 훗날 이 모임을 계속할 것을 기약하기 어렵다. 어찌 각각 성명을 기록하여 얼굴을 보는 것을 대신하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李成之에게 쓰게 하였다.”

즉, 당시 거제를 마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원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거제록 외에, 참석자들이 제명첩을 별도로 작성하여 각자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제록에는 웬일인지 이때의 거제에 대한 기록은 수록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이 때 거제에서는 ‘인근 고을의 노소 선비들이 다 모여 강독하고 제술을 하면서 한 달을 보냈으니, 서로 도와 학문을 연마하고 행실을 닦은 이로움이 어떠하였겠는가’<sup>396)</sup>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평소의 거제와 같이 한 달간 통독과 제술을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명록에는 총 37명의 유생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1793년에는 복설되었던 양사청이 1792년 폐지되고, 강학 운영이 어렵게 되자 순흥 부사에게 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부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거제를 개설하였다. 이 때 거제의 훈장이었던 權益休는 당시 거제 개설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서원을 세운 것은 오로지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함이었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으로는 거제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사시로 선비를 모아 10명 정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창립 초기에 정해놓은 규례이다. 후대로 오면서 향학에 독실한 무리는 반드시 이것을 준행하면서 의귀하였으니, 그 효과가 어찌 章句를 찾는 데에 그쳤겠는가. 근래

395) 『雲院齋錄』, 「雲院居齋 題名」(소수박물관에 소장된 청도 김씨 기탁 자료로 소수서원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396) 같은 책, 같은 글.

에 와서 서원 재정이 고갈되고 문교가 점점 해이되어 혹 5, 6년 사이로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혹 8, 9년 사이로는 겨우 한 번 설치한 적이 있었다. 老士宿儒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 새로 학문을 하는 후배들이 본받을 곳이 없어 거재가 무슨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심히 한탄스럽다. 지금에 훌륭한 사또가 이 서원에 혜택을 베풀어 공무를 보는 여가로 개연히 학교를 진흥하고 선비를 기르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이해 仲冬에 거재를 설치하였다. 별유사 裴光績, 成彦梁 군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였고, 또 나에게 강독하는 일을 맡아 선비들을 권장하게 하였다.”<sup>397)</sup>

즉, 이때의 거재는 순흥부사에 의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흥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흥부사 朴長高은 8월에 원장에 임명되어, 별유사에 裴光績, 成彦梁을 임명, 훈장에는 權益休를 임명하여 거재를 개설하였다. 11월 13일부터 入齋하기 시작하여, 16일에는 훈장과 별임이 거재절목을 작성하여 부사에게 품의하였다. 17일에는 부사가 서원에 와서 품의를 마친 거재절목 10조를 써서 명륜당 벽에 게시하고, 경재잡과 숙흥야매잡도 친히 써서 역시 명륜당 벽에 게시하여 매일 敬讀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敬讀은 식당이 아닌 명륜당에서 행하게 되었다. 다음날인 18일부터 강학을 시작하였으나, 이날은 인원이 적어 통독은 하지 못하고 경독만 하였다. 이후 통독에서는 朱子書節要를 처음부터 읽었다. 11월 21일에는 훈장이 외출하여 12월 5일까지 통독을 하지 못하고, 12월 1일부터는 겸원장에게 요청하여 이후 매일 詩賦 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규례로 삼았다. 12월 6일에는 출타했던 훈장이 돌아와 7일부터 주자서절요를 다시 통독하였다. 12월 8일에는 관가에서 乾柿와 魚尾를 보내고, 罷齋 전날인 12월 15일에는 부사가 와서 경독과 정읍례를 함께 하고 酒饌을 베풀었다. 16일에는 파재일을 기념하여 마지막 제술로 부사가 詩·賦·疑·義·策을 출제하여 제술을 시행하고 파재하였다. 講案에는 참석자의 명단을 齋儒, 老儒, 童蒙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였으며, 齋儒 60명, 童蒙 13명, 老儒 36명으로 총 99명이 참여하였다. 거재절목에서 신진 유생들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노유를 우대한다고 했던 규정에 따라, 노유가 36명이나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유는 배강 및 제술에는 참여하지 않고 통독에만 참여하였으며, 동몽 중 일부는 배강과 제술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매일의 통독에는 최소 15명에서 최대 40명이 참석하고 있다. 거재록의 마지막에는 파재일에 부사가 출제한 詩·賦·疑·義·策의 試題 및 院長府使 朴長高, 訓長 權益休 등이 남긴 수창시 20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겸원장 朴長高과 유생 裴憲朝가 남긴 시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에서 부사 박장설은 파재일에 주찬을 베풀면서 느낀 소회와 지방관으로서 興學의 책임과 포부를, 배헌조는 거재에서 익혔던 詩書禮樂과 修身 공부,

397) 『居齋錄』, 「書節目後」(1793).

답이 올면 일어나 세수하고 경서를 대하던 거재에서의 하루 일과를 회상하며 학문하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눈 빛 해맑은 서재에 詩文도 맑아	雪淨鬢齋翰墨清
강론 뒤에 안석에 기대 시냇물 소리 듣네	講餘凭几聽溪聲
문사들 진을 쳐서 시로 대적하기 어렵고	風騷列陣詩難敵
술동이 앞에서 회포 푸니 친한 벗 다 모였네	樽酒開懷蓋已傾
석양 속에 까마귀 멀리 숲으로 돌아가고	鴉背夕陽遙轉樹
눈 덮인 다리 옆 주점은 반쯤 성에 기대었네	雪橋殘店半依城
사람들 소백산 아래 인걸이 많다고 하니	人言白下多靈秀
잘 기르고 가르쳐서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培養神功仰聖明 <sup>398)</sup>

흥주 죽계 동쪽에 옛날 서원	興州古院竹溪東
도 밝힌 선사들 공을 따지지 않았네	明道先師不計功
벽에 규잡 걸어 스승의 자리 마련하고	揭壁規箴開丈席
거재하는 제도로 몽매한 이들 깨우치네	居齋儀節講群蒙
시서 공부는 三餘의 시간에 익히고	詩書對案三餘習
예악으로 몸 닦는 일에 십분 공을 들이네	禮樂修身十分工
제생들 통독하는 날 읊양의 예를 행하고	揖讓諸生通讀日
이 어른 가르침 덕으로 심성을 훈도하네	薰陶心性荷斯翁
(...중략...)	

내 마음 일성처럼 밝게 다스리고	提掇吾心皎日星
답 올면 세수하고 경서를 대하네	鷄鳴盥水抱遺經
예에 따라 움직여 현인의 규범을 본받고	動容以禮模賢範
과실 서로 깨우쳐서 법도로 삼네	過失相規作教刑
외우고 기억하여 구두만 찾아서 되겠는가	記誦奚專尋句讀
절차탁마하여 잠명을 강론해야 하리	琢磨須得講箴銘
밝고 성스러운 시대 학문 진흥 먼저 하니	休明聖世先興學
예악이 노나라 武城에만 있지 않다네	不獨絃歌在魯城 <sup>399)</sup>

이상에서 18세기 후반 거재의 운영 실체를 살펴보았다. 거재의 개설은 대개 가을 향사 때 당회를 열어 거재 개설일을 결정하고 각 면에 통보한 뒤, 절목을 마련하고 훈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거재의 참석 인원은 그 때 그 때 변수가 많아 절목의 규정대로는 되지 않고 대개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789년 통독에 매일 1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면훈장제

398) 『居齋錄』, 「拙構四韻二首 求和齋中」, 府使朴長高.

399) 『居齋錄』, 「拙構四韻二首 求和齋中」, 裴憲朝.

도의 활용 및 이 때 통독에서는 유숙비용을 서원에서 부담하지 않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1793년 거재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99명의 유생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순흥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방관의 강화 참여는 곧 유생들의 참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재에서의 일상은 절목의 규정에 따라 매일 상읍례와 경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를 매일 통독하고 있으며, 귀가일의 배강과 제술도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다. 개별독서에서도 대개는 절목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는 절목에 규정되지 않은 朱書와 예기, 격몽요결도 읽고 있다. 특히 朱書는 통독 뿐 아니라 개별독서에서도 자주 읽히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훈장 부재 시 통독이 매년 중단되고 있는 것을 통해, 통독에서의 강론과 문답에는 훈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훈장은 琴孝胤·徐昌載·金世鍊·安恂·成彦根·權益休 등으로, 대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과거나 벼슬에 뜻을 버리고 평생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며 지역에서 학식과 명망을 고루 갖춘 인물이 임명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李象靖의 문인이 두 명이나 된다.

1780년에 훈장을 맡은 琴孝胤(1724년생)은 1766년 별유사로 권구연, 서창재 등과 함께 거재를 주관하고, 1789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琴孝胤과 함께 훈장을 맡은 徐昌載(1726~1781)는 영천의 달성 서씨로, 약관에 향시에 입격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한 이후 37세 무렵 과거공부를 완전히 그만두고 성리서를 연구하며 李象靖의 문인이 되었다. 대학, 중용, 예서를 연구하여 『중용질의』, 『家禮輯解』 등을 저술하였으며, 문집으로 『梧山集』이 있다. 19세 때부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1766년에는 별유사로 권구연, 금효윤과 함께 거재를 주관, 1769년에도 별유사를 지냈다. 權九淵·洪遵·權正運·裴是彬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토론하고, 단계서원 거재에도 훈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1789년 통독에서 도훈장을 맡은 金世鍊(1733~1790)은 영천의 선성 김씨로, 역시 李象靖의 문인이다. 1788년 9월 소수서원 원장으로 양사청을 복설하였으며, 16세기에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과거에 합격한 뒤 충청감사 시절 소수서원의 거접을 지원했던 金玊의 후손이기도 하다.

1790년 훈장을 맡은 安恂은(1730년생) 20세 때부터 소수서원 거재에 꾸준히 참여하다가 33세인 1762년 순제에서는 장원을 차지하고, 1791년에는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790년 훈장을 맡은 成彦根(1740~1818)은 영천의 창녕 성씨로, 1777년 진사시에

입격, 1778년과 1781년에 소수서원 별유사, 1798·1804·1807년 세 차례나 원장에 임명되었고, 1801년 통독에서도 다시 훈장을 맡아 통독을 주도하였다. 특히 원장 재임 시에는 지락제·일신제·동몽제를 증건하고 증건기와 상량문을 짓는 등 18~19세기 소수서원 강학과 운영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공적을 남긴 인물이다. 1798년 장헌세자의 伸冤을 위한 영남 유생들의 상소에 소수로 추대되어 정조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문집으로 『稼隱集』이 있다.

1793년 훈장을 맡은 權益休(1735년생)는 26세 때부터 소수서원 거재에 참여하다가, 1789년에는 순흥향교 上齋를 맡고, 1796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그 외에 훈장은 아니지만, 1780년 거재에서 考官을 맡은 柳翼之(1733년생)는 전주 유씨 柳永慶의 6대손으로 1762년 문과에 합격하여 직장, 좌랑, 정언 등의 관직을 지내고, 1768년, 1772년, 1780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밖에, 1780년대 무렵부터는 거재에서 제술 시제의 출제와 고시에도 부사가 참여하고, 거재기간 중 서원을 직접 방문하여 정읍례를 행하고 통독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지방관의 강학 참여가 점차 확대되다가, 1789년에는 면훈장제를 활용하여 통독을 개설하고, 1793년에는 부사에게 원장을 겸임하게 함으로써 강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8세기 초중반기와 달리, 18세기 후반 거재에서는 경독에 敬의 공부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교재를 추가하고, 통독을 매일 시행하여 심경과 근사록을 완독하기도 하며, 특히 18세기 말에는 주자서필요를 집중적으로 통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科學에서 道學’으로 강학의 목적이 변화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理學과 心學에 대한 탐구가 한층 심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통독에서 다른 책이 아닌 심경, 근사록, 주자서필요를 읽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주자서필요를 집중적으로 통독한 이유는 무엇인지, 경독 및 통독 교재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V-4-3. 敬讀·通讀 교재를 통해 본 居齋의 心學의 특징

여기서는 18세기 소수서원 거재에서 활용된 敬讀 및 通讀 교재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독 교재로는 18세기 초중반기에는 白鹿洞規와 伊山院規가, 18세기 후반에는 그 외에 敬齋箴, 夙興夜寐箴, 朱文公十訓이 활용되고 있다. 그 중 白鹿洞規는 주자가 백록동서원 유생들을 위해 작성한 학규로, 옛 성현들이 가르친 학문하는 방법 중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 공부론의 요체를 제시한 것이다. 백록동규에는 서원 강학의 목적과 내용, 방법 및 일상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다. 주자는 먼저 학문의 목적과 내용으로 ‘五倫’을 제시하며, 五倫은 바로 堯舜이 펼친 가르침으로, 학문하는 자가 배워야 할 것은 五倫뿐이라며, 학문의 목적과 내용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배우는 방법으로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의 다섯 가지를 제시한 뒤, 앞의 네 가지는 이치를 窮究하는 방법이라면, ‘篤行’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을 말하며, 다시 篤行之 방법을 ‘修身, 處事, 接物’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修身하는 요령으로는 ‘말을 참되고 신실하게 하고[言忠信], 행동을 독실하고 경건하게 하고[行篤敬], 분노와 욕망을 억눌러 절제하고[懲忿窒慾], 허물을 고쳐서 선으로 바꿀 것[遷善改過]’을 제시하고, 處事의 요령으로는 ‘마땅함을 추구할 뿐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正其誼不謀其利], 도리를 밝힐 뿐 그 공을 따지지 않을 것[明其道不計其功]’을, 接物의 요령으로는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며[己所不欲勿施於人], 행하고도 뜻을 이루지 못함이 있으면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것[行有不得反求諸己]’을 제시하였다. 즉, 오륜에서 시작해 일상의 실천으로 끝나는 백록동규는 道問學과 尊德性의 공부법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한 도문학의 공부도 결국은 일상의 실천과 오륜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백록동규의 말미에서 주자는

“나 朱熹가 옛 성현들이 사람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뜻을 살펴보니, 모두가 의리를 講明하여 그 자신을 수양한 다음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라는 것이었지, 단지 記覽에 힘쓰고 詞章이나 공부해서 聲名이나 얻고 利祿이나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의 학문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와는 반대이다. 그러나 성현이 사람을 가르치던 방법이 모두 경전 속에 보존되어 있으니, 뜻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묻고 밝히고 하며 그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알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어찌 규칙이니 금지니 하는 도구를 남들이 만들어서 설치해 놓은 뒤에야 이를 지켜서 따르겠는가. 근세에 와서는 배움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배우는 자에 대한 대우가 이미

박한 것이며, 그 방법 또한 옛사람이 뜻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학당에서는 이를 다시 시행하지 않고, 단지 여러 성현들이 가르친 학문하는 방법 중의 중요한 부분만을 취하여, 위와 같이 조목조목 나열해 써서 門楣에 게시한다.”<sup>400)</sup>

고 하며, 서원 강학의 목적이 科業이 아닌, 義理를 講明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義理를 講明하는 공부를 위해 규칙이나 금지 조항으로 유생들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위에 제시한 공부론을 스스로 실천하여 서원에서의 강학이 자율적인 교육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유생들의 자발성에 호소하며 글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서원 강학의 목적과 학문하는 방법, 구체적인 실천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공부가 유생들의 자율성에 의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 백록동규는, 조선에서도 서원 교육의 전범으로 인식되어 소수서원 뿐 아니라, 조선의 거의 모든 서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敬讀의 교재로 삼거나, 유생들이 늘 바라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강당 벽에 게시하여 서원 강학의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소수서원의 거제에서 이를 날마다 講誦하는 敬讀의 교재로 삼은 것은, 백록동규에 담긴 주자의 서원 강학 이념과 공부론이 실제 강학에서 계승, 실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록동규 외에 18세기 초중반기에 경독 교재로 삼은 퇴계의 伊山院規는 서원 강학의 본질과 말단, 先學과 非學을 규정함으로써 서원의 강학 이념을 제시한 조선 최초의 원규이다. 원규의 첫머리에서 퇴계는 이산서원의 교육과정으로 四書五經을 본원으로, 小學과 家禮를 門戶로 삼고 역사서나 문집, 문장과 과거 공부는 말단으로 할 것을 규정하면서, ‘과거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땅히 내외·본말·경중·완급의 순서를 알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401)</sup>고 함으로써, 서원에서도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깥과 말단에 해당하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서원 강학의 본질은 ‘성현의 가르침을 지켜 온갖 خوبی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언으며, 體를 밝히고 用에 맞게 하는’<sup>402)</sup> 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정직한 곳으로 지향하며 학업을 하여 원대한 장래를 기약하고 道義를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先學이며, 마음 씩씩이가 비루하고 取捨에 현혹하며 지식이 세속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뜻이 오로지 이욕을 채우기를 바라는 것은 非學이다’<sup>403)</sup>고 함으로써 先學과 非學을 규정하고, 取捨에 현혹하며 이욕을 채우기

400) 『晦庵集』, 권 74, 「白鹿洞書院揭示」.

401) “文章科擧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退溪集』, 권 41, 雜著, 「伊山院規」).

402)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같은 책, 같은 글).

위한 科業이 아니라, ‘立志를 견고하게 하여 道義를 실천’하는 데 서원 강학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원규의 첫 머리에서 과거공부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위기 지학을 본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先學과 非學을 구분함으로써 서원의 강학 이념을 제시한 이산원규는, 서원 강학 이념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던 16세기 당시, 尊賢處나 科業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조선 서원이, 道學을 추구하는 講學處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이후 이산원규 역시 조선 서원의 전범이 되어 많은 서원들이 이산원규를 원용하여 원규를 작성하였으며, 소수서원처럼 강학에서 경독의 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서원의 수많은 원규 중에서 다른 게 아닌 퇴계의 이산원규가 전범이 되고 경독의 교재로 활용된 것은, 이와 같이 조선 서원의 강학 이념을 최초로 제시한 규약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 경독 교재에 추가된 敬齋箴과 夙興夜寐箴은, ‘일상의 시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敬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 箴으로, 敬의 공부법을 다루고 있다. 경제 잠은 주자가 張栻의 主一箴을 본 따서 지은 것으로, 매일의 공간적 차원, 즉 움직일 때나 멈출 때, 사람을 대할 때나 物에 접할 때, 마음속 사욕이 일어날 때, 일상의 모든 공간적 상황에서 언어와 신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만 마음이 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주자는 ‘움직일 때나 멈출 때나 敬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과 밖이 서로를 바르게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敬에서 벗어나면 私欲이 萬端으로 일어나 불길 없이도 뜨거워지고 얼음이 없어도 차가워지며, 털끝만큼이라도 敬에서 어긋나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三綱이 무너져 九法 또한 어지러워질 것이다’<sup>404</sup>)고 함으로써,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위한 공부의 성패’는 바로 ‘持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夙興夜寐箴은 陳栢이 지은 것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매 순간 敬을 유지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새벽에 닭이 울고 잠에서 깨어나 생각이 내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을 정돈하는 것에서부터,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의관을 갖춘 뒤 독서할 때의 몸가짐과 마음가짐, 하루 종일 일에 응하고 해가 저물면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수렴하며, 늦은밤 잠자리에서 정신을 쉬게 하여 夜氣를 다시 기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하루 일과의 시간 순서에 따라 매순간 敬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순간 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퇴

403)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같은 책, 같은 글)

404) “動靜弗違 表裏交正 須臾有間 私欲萬端 不火而熱 不冰而寒 毫釐有差 天壤易處 三綱既淪 九法亦斃” (『晦庵集』, 권 62, 「敬齋箴」).

계는 ‘무릇 道는 일상 속에 流行하여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어느 한 자리도 理가 없는 곳이 없으니, 어느 곳인들 공부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시도 멈춘 적이 없어 어느 한 순간도 理가 없는 때가 없으니, 공부를 쉴 수 있는 때가 있겠습니까’<sup>405)</sup>라고 설명하며, 戒愼·恐懼·愼獨과 함께 存養, 省察의 병진을 통해 敬을 유지하는 것이 聖인이 되는 공부의 요체임을 말하고 있다. 즉, ‘매일의 시간적 상황에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敬을 유지하는 것’이란, ‘일상에 유행하는 道를 매순간 발견하고 體認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곧,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이 제시한 매일의 일상 속 모든 시공간에서 ‘마음과 몸이 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18세기 소수서원의 강학이 목표로 삼은 ‘道學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핵심적 방법이자, 그 성패를 좌우하는 공부법이였다. 그래서 주자와 퇴계는 ‘敬을 聖學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고 했고, 퇴계는 성학십도를 올리는 차차에서 10개의 도설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敬’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敬 공부의 핵심을 담은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을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다같이 講誦하는 敬讀의 텍스트로 삼았다는 것은, ‘敬 공부’를 서원 강학의 구체적인 목표로 표방하며, 이를 실천해가고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18세기 초중반의 백록동규와 이산원규에서, 18세기 후반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을 경독 교재에 추가함으로써, ‘道學의 탐구와 실천’이라는 소수서원 강학의 목적이 ‘敬의 공부법’이라는 心學的 공부론을 통해 한층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시대 서원 강학에서 箴規나 敬讀의 교재로 삼은 텍스트는 서원이나 학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백록동규는 학과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서원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외 남인계 서원에서는 주로 이산원규를, 서인계 서원에서는 學校模範과 擊蒙要訣, 隱屏精舍學規 등 주로 율곡의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조선후기 서인계의 대표적인 서원인 石室書院에서는 백록동규와 학교모범을 경독하고,<sup>406)</sup> 深谷書院에서는 백록동규 외에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와 은병정사약속을 箴規로 활용하였다.<sup>407)</sup> 또한 소론인 박세채의 南溪書堂에서는 백록동규와 경제잡 외에, 율곡의 격몽요결 중에서 공부론의 요체를 뽑아 ‘擊蒙要訣 爲學圖’를 박세채가 직접 작성하여 벽에 걸어두고 箴規로 삼았으며,<sup>408)</sup> 화서학과의 강회에서는 격몽요결 중 ‘革

405) “夫道之流行於日用之間 無所適而不在故 無一席無理之地 何地而可輟工夫 無頃刻之或停故 無一息無理之時 何時而不用工夫”(『退溪集』, 권 7, 「進聖學十圖箴」).

406) “講後又使直月讀白鹿洞規 學校模範等篇 模範分三節(自篇首至存心爲一節 自事親至應學爲一節 自守義至篇末爲一節)”(『溪湖集』, 권 14, 雜著, 「石室書院講規」).

407) “白鹿洞是書院之祖 而朱夫子學規 辭約而義盡 且諸生自修之方 莫上於栗谷先生學規模範 隱屏精舍學規 約束 并書揭于壁上 居齋及出入者 一以是爲法 無或踰越”(『陶庵集』, 권 25, 雜著, 「深谷書院學規」).

舊習章'을 실제로 매일 敬讀하기도 하였다.<sup>409)</sup> 특히, 격몽요결 중 '革舊習章'은, 퇴계 학파의 공부론이 심학적 차원의 공부에 무게중심을 둔 데 비해, 현실 공부에서 기질과 습관의 변화를 강조하는 '矯氣質'에 초점을 둔 율곡 공부론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즉, 강학에서 활용된 箴規와 敬讀 교재의 차이를 통해 각 서원과 학파별로 지향했던 공부론의 미묘한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당색이나 학맥에 따라 관례적, 맹목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실제 강학에서 이들 교재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각 학파나 서원 강학이 지향했던 공부론의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자, 동시에 그 공부론의 차이가 실제로 강학을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18세기 소수서원 거재에서 활용된 통독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초중반기에는 실제 통독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거재절목에 규정된 통독 교재를, 18세기 후반에는 실제 거재에서 통독한 교재와 매일의 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18세기 소수서원 居齋의 通讀 교재와 通讀 실제

연도	居齋 기간	通讀 교재	수록처
1727~1728	1727.10~1728. 3	열흘에 한 번 통독	「居齋定規」
1730	11~12. 16	이틀에 한 번 小學, 心經, 近思錄 통독	「居齋節目」
1749	10. 16~12. 19	보름에 한 번 小學, 心經, 朱子書, 退溪集에서 선독하여 통독	「居齋節目」
1761	11. 24~12. 13	·11월 24일~12월 5일까지 매일 心經附註 서문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독한 뒤, 퇴계의 心經後論까지 통독 ·12월 6일~12월 13일까지 매일 近思錄 서문부터 권 7 중간까지 통독	「通讀日記」 (『居齋雜錄』)
1760	10. 22~12. 3	보름에 한번 性理書 통독	「居齋節目」
1762	10. 15~11. 29	10월 16일~11월 29일까지 매일 통독하여 近思錄 권 1부터 권 14까지 완독	「通讀日記」 (『居齋雜錄』)
1763	11. 2~12. 3	11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일 朱子書節要 서문부터 권 4까지 통독	「通讀日記」 (『居齋雜錄』)

408) “白鹿洞規 敬齋箴兩圖及要訣爲學圖 皆淨寫揭諸壁上以資警省蓋爲學大體要道皆具於此也”(『南溪集』, 권 65, 雜著, 「南溪書堂學規」).

409) 『柯亭書社旬講錄』.

1766	10. 15~12. 13	· 10월 15일~11월 30일까지 매일 朱子書節要 권 1부터 권 9 ‘答石子重’까지 통독 · 12월 1일~12월 13일은 12월에 새로 입재한 유생을 위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매일 朱子書節要 서문부터 권 4까지 통독	「通讀日記」 (『居齋錄』)
1780	10. 20~12. 8	10월 23일~12월 6일까지 매일 朱子書節要 권 1부터 권 7 마지막까지 통독	「居齋日記」 (『居齋錄』)
1789	5. 10~5. 16	· 5월 11일 大學 補亡章(5장)까지 통독 · 5월 12일 大學 傳 6장부터 9장까지 통독 (이후 인원 과다로 통독 불능, 제술로 대신)	「通讀日記」 (『居齋錄』)
1790	10. 25~11. 28	11월 1일부터 朱子書節要 처음부터 통독	「居齋日記」 (『居齋錄』)
1792	11월 한 달	통독 교재 미상	雲院齋錄
1793	11. 13~12. 16	11월 19일부터 朱子書節要 처음부터 통독	「居齋日記」 (『居齋錄』)

1760년까지는 실제 통독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1761년 거재부터 실제 통독한 교재를 살펴보면, 총 9회 개설된 거재와 통독에서 心經 1회, 近思錄 2회, 朱子書節要 5회, 大學을 1회 통독하였으며,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주자서절요를 집중적으로 통독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 거재절목에서는 개별독서의 교육과정으로 ‘소학과 사서삼경’을, 통독의 교육과정으로는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를 제시하였고, 실제 통독에서도 이는 거의 정확히 준수되고 있다. 그런데 통독 교재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앞서, 개별독서와 통독의 교육과정이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교육과정을 구분한 이유와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사서삼경과 심경·근사록·주자서절요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개별독서와 통독의 이 같은 구분은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서 활용된 보편적인 교육과정이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퇴계가 제시한 이산원규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1752년 안동부사로 부임하여 부내 각 서원에 재정을 지원하며 서원 강학을 부흥시켰던 안동부사 尹光紹는 興學規範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전체 교육과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1과, 2과, 3과로 구분하고 각 과마다 학습방법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1과에서는 사서오경을 背誦하게 하고, 2과에는 소학, 가례, 심경, 근사록과 程朱諸書를 포함시켜 通讀, 講論하게 하며, 3과에는 역사서와 문집을 포함시

켜 뜻에 따라 통독하거나 배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는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고, 다음으로 역사서와 문집을 읽도록 한’ 퇴계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sup>410)</sup> 사서오경을 개별독서 후 背誦하게 하고, 심경과 근사록을 통독의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18세기 소수서원의 교육과정과 일치한다. 한편, 魯岡書院에서는 通讀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 소학, 가례, 심경, 근사록을 1등으로 규정하여 通讀하게 하고, 사서삼경은 2등으로 규정하여 배송하게 하며, 역사서와 문집은 3등의 순위에 두고 있다.<sup>411)</sup> 흥학규범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통독과 배송의 교육과정은 소수서원의 거재절목이나 흥학규범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원 강학의 교육과정을 ‘개별독서와 통독’의 큰 갈래로 구분한 것은 조선후기 서원의 보편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퇴계의 이산원규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 퇴계가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은 것은, 물론 사서오경은 유학의 연원이 되는 성현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유학에서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였기 때문이다. 반면 통독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텍스트는 모두 송대 이후의 저술로, 송대에 발전한 程朱學, 즉 理學과 心學의 특징과 성과를 담은 책들이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사서오경은 유학의 연원을 밝힌 것으로 학문의 근간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시험 과목에 포함되는 교과이기도 했다. 반면, 통독의 텍스트는 모두 과거시험 과목과는 무관한 책이었다. 소수서원에서조차 18세기 초반에 소학을 통독의 과정에 포함시켰다가 18세기 후반에는 통독이 아닌 개별독서의 과정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규정과 관련이 있었다. 1760년의 거재절목에서는 ‘지금 과거에 대한 규정이 새로 반포되었으니, 講規를 새로 밝혀 거재 시 읽는 책은 반드시 三經과 小學을 급선무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 때 새로 반포된 과거법식이란 소과의 覆試의 예비시험인 學禮講에서 家禮를 제외하고 小學을 背誦하며, 三經 중 한 책을 자원하여 講하게 한 것을 말한다.<sup>412)</sup> 즉, 개별독서는 ‘藏修의 과정’

410) “讀書次序 退翁既以四書五經爲本 小學 家禮爲門戶 且旁通諸史子集 今倣此意 分爲三科 讀四書五經者爲一科 讀小學 家禮 心經 近思錄及程朱諸書者爲二科 讀史子者爲三科 一科則背誦令熟 二科則通讀講論 三科則或通讀背誦隨宜 凡讀書 皆當以熟復深繹體驗實得爲主 涉獵記誦奔程務博爲戒”(『素谷遺稿』, 권 13, 福州錄, 「興學規範」).

411) “學規曰 讀小學 家禮及心經 近思錄 四書 六經聖賢諸書 循環不輟 周而復始 講論旨義 務在精究 溫釋前讀 以驗生熟 又以經史子集 隨其多少 論難授受 期於通貫 或交相課誦 以取相長之益云云 今依此規 分爲三等 讀小學 家禮 心經 近思錄及程 朱諸書者 爲一等 讀四書 三經者 爲二等 讀史子者 爲三等 一等則通讀講論 二等則背誦令熟 三等或通讀或背誦隨宜”(『明齋遺稿』, 권 30, 雜著, 「魯岡書院齋規」).

412) “此後凡於小科初試後 除照訖禮講 令大司成 試講初試諸生 而以小學除釋背誦 取粗以上 一依大科自願三經例”(『英祖實錄』, 권 94, 영조 35년 9월 20일); “大科既釐正 小科之規亦當一體釐正 而學禮講 有名無實極矣 臣意則除學禮 只存小學 一依講經例 何如? 上曰 副學所奏 正合予意 除家禮存小學 則必將有益無弊 而將來必至解弛矣”(『承政院日記』, 영조 35년 9월 20일).

이면서 동시에 ‘과거공부의 과정’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독에서는 과거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철저하게 ‘心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는 통독 교재의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心經은 송대 眞德秀의 저술로, 心學의 연원과 실천적 방법을 밝힌 책이고, 近思錄은 주자와 여조겸이 북송 유학자들의 글에서 학문의 대강령과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뽑아 편집한 책이며, 주자서절요는 주자의 편지글 중에서 학자에게 요긴한 글을 퇴계가 뽑아 편집한 것이다. 그런데 心經을 통독한 1761년에 ‘心經附註의 서문부터 퇴계의 心經後論까지’ 통독했다는 기록에 따르면,<sup>413)</sup> 이 때 소수서원에서 통독한 책은 정확히 말하면, ‘心經’이 아니라 ‘퇴계의 心經後論이 함께 수록된 心經附註’였음을 알 수 있다. 心經附註는 명대 程敏政이 진덕수의 心經에 주를 달아 간행한 책이고, 心經後論은 퇴계가 제자 조목과 심경부주를 읽고 토론한 끝에 지은 발문이다. 선조 6년, 조정에서 퇴계의 심경후론을 읽은 유희춘은, 이 글의 의론이 정밀하고 절실하니 심경부주에 덧붙여 간행하자고 건의하여 심경부주에 퇴계의 심경후론을 덧붙인 책이 선조 연간에 간행되었다. 이로써 이황에 의해 새롭게 그 가치가 평가된 심경은 유희춘의 건의로 국가에서 공적으로 간행하여 널리 읽혀지게 되었다.<sup>414)</sup> 즉, 1761년 소수서원 거재에서 통독한 책은 바로 심경부주에 심경후론을 부기하여 선조대 간행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심경에서 진덕수는 먼저 사서삼경을 비롯한 經書에서 心學의 要法이 되는 글들을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주희 등의 글을 수정 없이 轉載하였다. 그리고 부주에서 정민정은 심경을 보충설명하기 위해 다시 近世大儒들의 주해를 역시 수정 없이 필요한 부분만 따서 옮겨 놓고, 간혹 ‘接’이라 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sup>415)</sup> 그는 부주 서문에서 심경의 요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자가 말하길, ‘天德과 王道는 그 요점이 다만 謹獨에 있다’ 하고, 또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함양해야 하니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근본이다’ 하였다. 또 주자도 말하기를 ‘程 선생이 후학에게 끼친 가장 큰 공은 바로 <敬> 한 글자이다. 敬이란 성 聖學의 처음과 끝을 이루는 요체이다’ 하였다.

대개 심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敬> 한 마디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비록 간단하지만 그 뜻은 정밀하고, 그 功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넓다. 진실로 이른바 강물을 막는 제방

413) 『居齋雜錄』.

414) 권오영, 「조선조 『심경』 강론과 그 사상사적 의미」(『심경-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09, 78~79쪽).

415) 李完栽, 「心經附註 解題」(조대봉·김종석 공역, 『완역 心經附註』, 以文出版社, 1991).

이요,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철이며, 어둠을 밝히는 거울이니, 이 道에 힘써서 잠시 동안이나 아무리 급한 순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후대에 태어난 末學이 무엇을 알겠나만, 오직 손수 기록하여 책으로 엮어 동지들에게 고하되, 敬에 대한 說들을 특히 상세히 추가하였다.”<sup>416)</sup>

정민정은 심경이 다룬 마음공부의 핵심은 ‘敬’ 한 글자에 있다고 보아, 부주에서 특히 敬에 대한 주석을 상세하게 추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심경부주는 한마디로 말해 ‘경의 공부론’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있다.<sup>417)</sup> 퇴계는 23세에 이 책을 처음 구해 본 뒤, 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여관에서 이 책을 처음 보고 구하여 얻게 되었다. 비록 중간에 병이 나서 덮어두기도 하고, 늦게 깨달아 이루기 어렵다고 탄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애초에 道學에 감발하여 흥기한 것은 이 책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이 책을 尊信하여 四書와 近思錄 아래에 두지 않았다”<sup>418)</sup>

“나는 心經을 얻고 나서, 비로소 心學의 근원과 心法의 정밀하고 미묘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이 책을 神明처럼 믿었고, 이 책을 嚴父처럼 공경하였다”<sup>419)</sup>

퇴계는 자신이 道學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해준 장본인이 바로 심경이며, 그런 점에서 심지어 사서나 근사록보다 심경을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경의 가치를 사서에 비견하고 있다. 그는 이산원규에서 사서삼경을 본원에 두고, 정주성리서는 그 다음의 순서에 둔다고 하였지만, 유학공부의 핵심인 마음공부의 실질적인 공효로는 이처럼 심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제자들이 소학, 근사록, 심경 중에 어느 책이 가장 긴절하냐고 물어오자, 퇴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소학은 체와 용을 함께 갖추었고, 근사록은 義理가 精微하니 모두 읽지 않을 수 없으나, 초학자가 처음 시작하는 데는 심경보다 긴절한 것이 없다”<sup>420)</sup>

즉,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적 공부를 위해서는 소학이나 근사록보다도 심경이 더 긴

416) 『心經附註』, 「心經附註序」.

417) 최진덕, 「『心經附註』를 통해 본 敬의 공부론」, 『심경-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09.

418) “淸少時 遊學漢中 始見此書於逆旅而求得之 雖中以病廢 而有晚悟難成之嘆 然而其初感發興起於此事者 此書之力也 故平生尊信此書 亦不在四子近思錄之下矣”(『退溪集』, 권 41, 雜著, 「心經後論」).

419) 『退溪言行錄』, 권 1, 「學問」.

420) 『退溪言行錄』, 권 1, 「讀書」.

절한 책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16세기 퇴계에 의해 주목받기 시작한 심경은 이후 조선에서 사서와 함께 성리학의 새로운 경전의 하나로 부상하여, 17세기에는 국왕에서부터 사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히면서 조선 주자학의 심학화 경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sup>421)</sup> 그리고 심경을 통독의 핵심 교재로 삼은 서원 강학은,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心經이 心學의 실천적 매뉴얼이라면, 近思錄은 마음의 우주론적 기원에서부터 공부, 사회정치적 적용에 이르는 心學의 이론적 체계를 다루고 있다. 주자는 三經이 역사와 문학, 우주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고, 四書는 사회관계에서의 태도와 행동방식의 조언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외면적’ 성향을 띠고 있기에,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近思錄을 편집해 ‘心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sup>422)</sup> 그래서 주자는 ‘四書는 六經의 사다리요, 近思錄은 四書의 사다리’<sup>423)</sup>라고 하였다. 17세기 조선의 조정에서도 근사록은 늘 심경과 짝을 이루어, 심경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갖추고 있다면, 근사록은 ‘그 규모와 절목’을 갖춘 책으로, 심경이 ‘마음을 붙드는 큰 법’을 다룬다면, 근사록은 ‘마음을 붙드는 정미한 의리’를 다룬 책이라며, 경연의 진강 교재로 자주 추천되었다.<sup>424)</sup> 그런데 근사록이 다루고 있는 ‘心學의 규모와 절목, 그 정미한 의리’는 사실상 이론과 실천의 전 분야에 걸쳐 있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근사록의 체제<sup>425)</sup>는 다음과 같다.

<표 13>. 近思錄의 체제와 구성

권	綱領	綱目
1	求端	道體
2	用力	為學大要
3		格物窮理
4		存養
5	處己	改過遷善克己復禮
6		齊家之道
7		出處進退辭受之義
8	治人	治國平天下之道
9		制度

421) 권오영, 「조선조 『심경』 강론과 그 사상사적 의미」, 『심경-주자학의 마음 훈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09.

422) 한형조, 「『심경』의 구성과 내용, 그리고 조선 유학의 논점」, 같은 책, 12쪽.

423) “近思錄好看 四子 六經之階梯 近思錄 四子之階梯”(『朱子語類』, 권 105, 「近思錄」, 제23조목).

424) 권오영, 같은 글, 80~81쪽에서 재인용.

425) 이는 주자가 제시한 6개의 강령과 14개의 권으로 구분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였다. “因共掇取其關於大體而切於日用者 以爲此編, 總六百二十二條 分十四卷 蓋凡學者所以求端用力 處己治人之要 與所以夫辨異端 觀聖賢之大略 皆粗見其梗概”(『近思錄』, 「後序·提要」).

10		君子處事之方
11		教學之道
12		改過及人心疵病
13	辨異端	異端之學
14	觀聖賢	聖賢氣象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사록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 본성의 관계를 밝힌 권 1의 ‘道體’로부터 고대에서 송대에 이르는 성현의 계보를 밝힌 권 14의 ‘聖賢氣象’에 이르기까지, 본체론과 심성론, 공부론을 포함한 성리학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퇴계는 ‘근사록은 주역의 설을 많이 인용하여 의리가 정밀하고 깊어서 초학자들이 얼른 알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sup>426)</sup>고 하였다. 즉,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거재에서 근사록을 실제로 통독했다는 사실은, 당시 소수서원 거재 유생들의 학문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사서나 근사록보다 아래에 있지 않으며, 마음공부의 실질적인 공효에 있어서는 근사록보다도 더 긴절하다고 할 만큼 심경의 가치를 중시했던 퇴계가, 한편으로 심경보다 더 절실하게 여긴 책이 있었으니, 바로 朱子書節要다.

“소학과 근사록과 심경 가운데서 어느 책이 가장 긴절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이 대답하기를, ‘소학은 체와 용을 함께 갖추었고, 근사록은 義理가 精微하니 모두 읽지 않을 수 없으나 초학자가 처음 시작하는 데는 심경보다 긴절한 것이 없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 경우에는 朱書節要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친구들이나 제자들의 자질이나 병통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자질에 따라 가르치고 증세에 따라 약을 썼으니, 그 많은 문답 가운데에 어찌 자연히 자신에게 맞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진실로 潛心하고 吟味하여 마치 직접 얼굴을 뵈고 가르침을 받는 것같이 한다면, 자신을 수양하는 공부에 어찌 도움 되는 것이 적다 할 것인가’ 하였다.”<sup>427)</sup>

퇴계가 여기서 ‘학문을 시작하는 데에는 심경보다 긴절한 것이 없으나, 자신의 경우에 주자서절요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고 한 이유는, 바로 심경과 주자서절요가 다루는 心學의 층위가 각각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심경은 심학의 연원과 실천적 방법에 대한 ‘일반론’을 다룬 것이라면, 주자서절요는 그 심학의 실천법을 현실에서 직접 적용할 때 각자가 당면하게 될 수많은 난관과 그에 따른 처방,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한 ‘실제적인 지침서’였기 때문이다.

426) 『退溪言行錄』, 권 1, 「教人」.

427) 『退溪言行錄』, 권 1, 「讀書」.

朱子書節要是 퇴계가 벼슬을 사직한 뒤, 조정에서 간행한 朱子大全을 얻어가지고 낙향하여 방문을 닫아걸고 탐독한 끝에, 특히 그 편지글에서 더욱 감동을 받아 48권의 편지 중에 학문에 도움이 되고 실생활의 적용에 절실한 것들을 뽑아 14권 7책<sup>428)</sup>으로 편집한 것이다. 편집을 마친 1558년 4월에 퇴계는 朱子書節要 서문을 지어 이 책을 엮은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嘉靖 계묘년(1543)에 중종대왕이 교서관에게 명하여 주자대전을 인출하여 반포하였다. 그리하여 비로소 이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얻어 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책인지 모르고 있다가, 병으로 벼슬을 그만 두고 이 책을 싣고 溪上으로 돌아와 날마다 문을 닫고 조용히 들어앉아 이를 읽었다.

이로부터 차츰 그 말이 매우 맛이 있고 그 이치가 참으로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중에 특히 편지가 더욱 감동을 느끼게 하는 바가 많았다. 그런데 그 전체로 말하면 모든 것을 포용하여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를 탐구하려 한다면 그 요령을 얻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그 편지로 말하면, 각자 그 사람의 자질이 높고 낮음과 학문의 깊고 열음에 따라서 그 증세를 살펴서 처방을 내리고 그 대상에 따라 불리고 버린 것들이다.

그리하여 혹은 억제하기도 하고 혹은 발양하기도 하며, 혹은 이끌어 주기도 하고 혹은 구제해 주기도 하며, 혹은 격발하여 밀어주기도 하고 혹은 물리쳐 경계하기도 해서, 心術의 은미한 사이에는 그 악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義利를 궁구하는 즈음에는 홀로 먼저 조그마한 착오도 비추어 보게 하니, 그 규모가 넓고 크며 心法이 엄하고 정밀하다. (...)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리를 따른 바가 나와 남에 대한 구별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그 남에게 고한 바가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감발하고 흥기하게 하였던 것이며, 또 그것이 단지 당시 그 문하에 드나들던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사 100대를 지난 먼 후세에까지도 참으로 그 가르침을 얻어 듣기만 한다면 곧 당시에 직접 앞에 앉히고 말씀을 명하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데 다만 그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이를 읽고 탐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겹하여 함께 실린 제자들의 질문이 더러 그 득실이 있음을 면할 수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내가 자신의 역량을 생각지 않고, 그 중에 특히 학문을 하는 데 유관하고 실생활의 적용에 절실한 것들을 골라서 이를 表出하고, 그 글의 篇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그 요령을 얻는 데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친구들 중 글씨를 잘 쓰는 자 및 자질들에게 맡겨서 권별로 나누어 정서를 마치니 무릇 14권 7책이 되었다.”<sup>429)</sup>

428) 퇴계가 주자서절요 서문을 쓸 당시에는 14권 7책으로 엮었다고 하였으나, 1561년 임곡서원의 목활자로 성주에서 인행한 목활자본은 15권 8책, 1575년 천곡서원에서 간행한 목판본은 20권 10책이며, 현재에도 20권 10책으로 전해지고 있다(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退溪學과 韓國文化』 32집, 2003, 102쪽).

429) “嘉靖癸卯中 我中宗大王 命書館印出頒行 臣澁於是 始知有是書而求得之 猶未知其爲何等書也 因病罷官 載歸溪上 得日閉門靜居而讀之 自是 漸覺其言之有味 其義之無窮 而於書札也 尤有所感焉 蓋就其全書而論之 如地負海涵 雖無所不有 而求之難得其要 至於書札 則各隨其人材稟之高下 學問之淺深 審證而用藥石 應物而施爐錘 或抑或揚 或導或救 或激而進之 或斥而警之 心術隱微之間 無所容其纖惡 義理窮索之際 獨先照於毫差 規模廣大 (...) 心法嚴密 其所以勉勉循循而不已者 無間於人與己 故其告人也 能使人感

즉, 주자대전 중에서도 특히 주자가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각자의 자질이나 병통과 증세에 따라서 각자 학문하는 데 겪었던 고충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스승 주자의 처방 역시 다양하여 때로는 억제하고 발양하며 때로는 격발하고 꾸짖어서,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리를 따르는 모습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여, 이를 보는 사람 역시 감발하고 흥기하게 하는 실효가 직접 눈앞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지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후학들이 탐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 중 요긴한 것을 뽑아 편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사제기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의 단서를 찾아 흥기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있음을 강조하며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저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발단하여 일으키는 곳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상에는 재주가 뛰어난 자들이 많고 성현의 글을 근심하게 읽고 외우는 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道學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가 없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만 그 단서를 일으켜서 마음에 작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글에 기록된 말들은 모두 한 때 스승과 벗들 사이에서 그 旨訣을 강명하며 실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꾸짖고 면려한 것들이니, 저들과 같이 범범하게 논한 것과는 그 성격이 같지 않다. 그러니 그 내용들 중 어느 것이 사람들의 뜻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작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

그러므로 만일 지금 세상에서 이 글을 읽는 자로 하여금 능히 마음을 비우고 뜻을 낮추어서 그 번거로움을 참고 깨달아 이해하게 하기를 저 선생님의 가르침처럼 한다면, 자연 그 학문의 길로 들어갈 곳을 알게 될 것이며, 이처럼 그 들어갈 곳을 얻은 다음이라야 비로소 가히 즐길만한 맛이 단지 芻豢이 미각을 즐겁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른바 규모를 크게 하고 心法을 엄히 하는 문제가 드디어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sup>430)</sup>

즉, 심경에는 心學의 공부법과 敬의 공부론이 매우 상세하여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문제는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자질과 능력, 병통이 각자 다르다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심경에는 일반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자질과 병통에 따른 처방까지 실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자서절요는 바로 이 문제

---

發而興起焉 不獨於當時及門之士爲然 雖百世之遠 苟得聞教者 無異於提耳而面命也 嗚呼至矣 顧其篇帙浩穰 未易究觀 兼所載弟子之問 或不免有得有失 混之愚竊不自揆 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 表而出之不拘篇章 惟務得要 乃屬諸友之善書者及子姪輩 分卷寫訖 凡得十四卷爲七冊”(『退溪集』, 권 42, 序, 「朱子書節要序」).

430) “夫人之爲學 必有所發端興起之處 乃可因是而進也 且天下之英才 不爲不多 讀聖賢之書 誦夫子之說 不爲不勤 而卒無有用力於此學者 無他 未有以發其端而作其心也 今夫書札之言 其一時師友之間 講明旨訣 責勉工程 非同於泛論如彼 何莫非發人意而作人心也 (…) 使今之讀是書者 苟能虛心遜志 耐煩理會 如夫子之訓 則自然知其入處 得其入處 然後知其味之可嗜 不啻如芻豢之悅口 而所謂大規模嚴心法者 庶可以用力矣”(『退溪集』, 권 42, 序, 「朱子書節要序」).

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책이었다. 그래서 퇴계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심경에 제시된 心法을 엄격히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거재에서 특히 주자서절요를 집중적으로 통독한 것은, 이처럼 심학을 실천하는 데 있어 이 책이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세기에도 통독의 교재를 선정하면서 ‘지금 후생들이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고 옛 사람의 爲己之學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아 주자서절요 한 질을 읽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sup>431)</sup>라고 함으로써, 과거공부가 아닌 爲己之學을 위해 공부해야 할 핵심적인 텍스트로 여전히 퇴계의 주자서절요를 꼽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주자서절요는 소수서원 뿐 아니라 조선후기 많은 서원에서 강학의 텍스트로 활용되었다. 특히 서인계의 일부 서원에서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만큼, 주자서절요의 가치는 학파를 초월하여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 그밖에 서인계 서원인 紫雲書院<sup>432)</sup>과 老江書院<sup>433)</sup>에서는 주자서절요와 함께 율곡의 聖學輯要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화서학파의 강회<sup>434)</sup>에서는 송시열의 己丑封事를 통독하는 등, 경독 교재 뿐 아니라 통독 교재의 차이를 통해서도 서원이나 학파 별 강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18세기 후반 소수서원에서 활용된 통독 교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중간사록은 ‘心學의 이론적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책’이라면, 심경은 ‘心學의 실천법을 다룬 일반론’, 주자서절요는 心學의 공부법을 현실에서 적용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난관과 그에 따른 처방 및 극복과정의 실제 사례를 다룬 ‘心學의 실제적인 지침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학의 이론과 실천을 다룬 텍스트를 거재에서 매일 통독했다는 사실은,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이들 심학 중심의 교재가 소수서원 뿐 아니라 조선후기 서원 강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통독의 텍스트로 규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 유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처럼 각 서원의 규약에 제시된 규정이 실제 강학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서원의 실제 강학 사례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거재에서는 실제

431) 『紹修書院誌』, 「通讀時回文」.

432) “非聖賢之書 如五經 四書 小學 家禮 心經 近思錄 朱子節要 聖學輯要之類 性理之說 如性理大全 程朱諸先生及我東先儒文集之類 則不得披讀于講堂”(『南溪續集』, 권 19, 雜著, 「紫雲書院院規」).

433) “所講冊子 依程朱成法 以小學四書 次第開講 以及五經 而間以家禮 心經 近思 節要 輯要等書 爲宜見講冊子 必自首卷首章始之 而未畢之前 不可以他書錯雜”(『屏溪集』, 권 34, 雜著, 「老江書院講學規目」).

434) 「壬辰九月一日大講會于柯亭省齋故書社」.

로 날마다 통독을 시행하여 심경과 근사록을 완독하기도 하고, 특히 주자서철요를 집중적으로 통독하는 등, 강학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심학의 탐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수서원의 실제 강학 사례는 단지 규약에 제시된 ‘규범적 차원’을 넘어, ‘독서하여 道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절목에서 규정했던 서원강학의 이념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이념은 ‘개별독서·경독·통독’이라는 세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되었다. 개별독서에서는 유학의 본원이 되는 사서삼경을 익히고, 경독에서는 백록동규·경제잡·숙흥야매잡을 통해 서원 강학의 목적과 敬의 공부론을 내면화하며, 통독에서는 심경·근사록·주자서철요를 매일 강론함으로써 심학의 이론적 체계와 실천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경독과 통독의 교육과정 및 운영 실제의 변화를 통해 18세기 초반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표방하기 시작했던 소수서원 강학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心學의 탐구와 실천’으로 한 단계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8세기 후반 거재의 심학적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통독에서 진행되었던 실제 강론의 내용과 문답까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는 기록이 없어 교재의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다. 18세기 후반 총 9회 개설된 거재와 통독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4>. 18세기 후반 居齋·通讀의 운영 현황

분류	개설 기간	참여 인원	윤번거재기간	통독교재	院任·訓長·考官
居齋	1761. 11. 24 ~12. 13	유생 25 동몽 1	10명씩 보름	心經·近思錄	원장 權九淵 별유사 裴憲謨, 徐昌協
	1762. 10. 15 ~11. 29	유생 27 동몽 6	10~12명씩 보름	近思錄	원장 權九淵 별유사 柳鳳翼, 黃師漢
	1763. 11. 2 ~12. 3	유생 29 동몽 8	8~18명씩 보름	朱子書節要	원장 成惠寅 별유사 琴活心, 金世鍊
	1766. 10. 15 ~12. 13	유생 38 동몽 13	3~32명씩 보름	朱子書節要	원장 權九淵 별유사 徐昌載, 鄭惟簡
	1780. 10. 20 ~12. 8	매일 6~25, 마지막 이틀은 51, 47	10명씩 보름	朱子書節要	원장 鄭惟簡 養士有司 金燦元, 權善揆 별유사 徐孟胤 훈장 琴孝胤, 徐昌載 考官 柳翼之

通讀	1789. 5. 10 ~5. 16	매일 26 ~110여명	제한 없음	大學	원장 琴孝胤 원임 朴東元, 鄭必良 양사청별임 金永斗 都訓長 金世鍊 面訓長 成彦根·趙玄瑞·權昌祖· 金時鍊·徐昌說·金尙洛
居齋	1790. 10. 25 ~11. 28	매일 10~44	10명씩 열흘	朱子書節要	원장 金重鍊 양사별임 權益邵 별유사 朴東元, 金器鍊 훈장 安恂, 成彦根
	1792. 11월	총 37	미상	미상	원장 朴堧 별유사 權赫祖, 柳火永, 孫思百
	1793. 11. 13 ~12. 16	齋儒 60 童蒙 13 老儒 36	10명씩 열흘	朱子書節要	원장 申鴻부사 朴長高 별유사 裴光績, 成彦梁 훈장 權益休

#### IV-4-4. 居接의 운영과 白日場·巡題의 활성화

心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한 通讀이 활성화된 것과 더불어, 18세기 후반 소수서원 강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백일장과 순제가 활성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의 경제적 기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후반의 재정상황과 관련이 있었다. 백일장이나 순제는 당일로 치르거나 試題를 부과하고 試券만 거두면 되었으므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에는 백일장·순제가 총 15회 개설되었는데, 그 중 약 87%에 해당하는 13회가 양사칭이 폐지된 시기에 개설되고 있다. 즉, 강학 재정이 매우 불안정했던 시기에 거재를 꾸준히 개설하기가 어려워지자, 대신 백일장이나 순제를 개설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762년부터 1771년까지 10년간은 한 해만 빼놓고 매 년 백일장이나 순제가 개설되고 있는데, 특히 上式年이나 과거가 있는 해에는 백일장과 순제를 연이어 개설하거나 거접과 순제를 중복해서 개설하기도 하였다. 총 15회 개설된 거접·백일장·순제 중 12회가 상식년이나 알성시, 정시 등 과거가 설행된 해에 개설되고 있다. 즉, 18세기 후반 백일장과 순제가 활성화된 것은 경제적인 기반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적어도 과거가 있는 해나 상식년에는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과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일장과 순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에게 과업을 준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18세기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백일장과 순제는, 19세기에 이르면 ‘가을과 겨울에는 居齋와 通讀을 하고 봄과 여름에는 白日場과 居接을 개설하여, 製述과 講學을 모두 권하여 하나라도 폐하지 않게 한다’<sup>435)</sup>고 하여, 봄여름에는 백일장과 거접을, 가을과 겨울에는 거재와 통독을 개설하는 것이 점차 관례화되기에 이른다. 즉, 18세기 후반부터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거재를 통해 심학적 경향이 심화됨과 동시에, 상식년이나 과거가 있는 해에 비용이 절감되는 백일장과 순제를 적극적으로 개설함으로써, 道學과 더불어 거재의 목적 중 하나였던 科業 역시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1762년 순제에서 시상의 일부를 관에서 보조한 것 외에, 1760년대까지는 거접·백일장·순제의 試題 출제나 考試, 시상 등의 전 과정을 서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

435) “本院之有講所 蓋以秋冬則居齋通讀 春夏則說白居接 製講俱勸 無或廢一之意也”(『講所雜錄』, 「各面私通」).

다가, 1770년대부터 순흥부사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흥부사의 참여가 곧 16~17세기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갈수록 재정 기반이 약화되고 있던 서원의 입장에서는 부사에게 시제 출제나 고시 등을 요청함으로써 서원 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분적이거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부사의 참여는 보다 많은 유생들의 강학 참여를 끌어내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 예로, 매일 15명에서 38명의 유생이 참여하던 1772년의 거접에는 부사가 방문하여 강독과 제술을 행한 날에는 60여 명의 유생이 참석하였고, 부사가 원장을 겸임한 1799년의 백일장에는 무려 600 여명이 참여하여 試券을 제출하였다. 백일장·순제 외에 18세기 후반에는 거접도 두 차례 개설되었는데, 개설 기간이 고작 5일에서 10일에 그치고 있어 당시 재정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sup>436)</sup>

백일장과 순제는 거접과 마찬가지로 과거시험 과목 중 제술과목을 내용으로 하였다. 試題를 출제하여 제술시험을 치른 뒤 試券을 걷어 채점하고, 그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성적순에 따라 榜目을 작성한 뒤 시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시제로는 詩와 賦를 가장 많이 출제하였으며, 간혹 義와 疑, 古風을 출제하기도 하였다. 詩·賦는 식년 및 증광 진사시의 초시·복시, 賦는 그 외에도 식년시와 증광시 문과의 초시·복시·전시, 별시와 정시 문과의 초시·전시 및 알성문과의 과목이었으며, 疑·義는 식년 및 증광 생원시의 초시·복시, 식년 문과의 초시·복시, 증광 문과의 초시 과목이었으므로,<sup>437)</sup> 백일장과 순제는 과거시험 중에서도 대개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 혹은 문과 초시 대비를 목표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일장과 순제의 가장 큰 차이는 백일장은 특정일에 특정 장소에 모여 당일로 치르는 시험인 반면, 순제는 試題를 미리 알려주면 각자 집에 가서 답안을 작성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는 과제 형식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백일장에서는 보통 詩·賦 각 한 수씩만 출제하는 반면, 순제에서는 試題를 여러 개 출제할 수 있었다. 1763년과 1766년의 순제에서는 詩·賦 각 4수씩 출제되고 있다. 특히, 1767년의 순제에서는 2월부터 7월까지 기간을 초순과 중순으로 나누어 초순에는 詩·賦·疑·義 각 5수씩, 중순에는 각 10수씩 출제하여, 무려 5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술훈련을 하고 있다. 이때의 순제는 순흥부사가 참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순제를 개설한 것은, 아마도 이 해가 상식년이었던 데다 9월에 알성시까지 겹쳤기 때문으

436) 『居齋雜錄』; 『雜錄』.

437)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72쪽에서 재인용.

로 해석된다. 순흥부사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771년 백일장부터다. 이때부터 순흥부사는 考官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1778년 순제에는 부사가 아예 순제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면서 시행한 1799년 백일장에는 무려 600여장의 시권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시권의 考試는 원임이나 순흥부사 혹은 前正言, 前持平, 前主簿 등 전직 관리나 적어도 進士 이상이 담당하였으며, 방목에 뽑힌 모든 사람들에게는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장지나 백지, 黃筆이나 靑筆 등의 지필묵을 상품으로 시상하였다.<sup>438)</sup>

서원에서 유숙하는 거재나 거접과 비교할 때, 백일장·순제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 절감 외에도 거재·거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거접이나 거재에는 보통 20~30명에서 많아야 50여 명이 참여한 데 반해, 백일장·순제는 방목에 기록된 인원만 해도 보통 30~40명에서 100여명에 달했다. 방목은 전체 참여자가 아니라 성적순으로 일정 순위에 든 사람만 선발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참여자의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1799년 백일장에는 600여장의 시권이 제출되었으나 방목에는 그 중 84명만 선발하여 기록하고 있다.<sup>439)</sup> 즉, 백일장·순제는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과업 준비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동시에, 평소 거재나 거접에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민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기도 했다.

居齋雜錄과 入院錄, 雜錄에 수록된 18세기 후반 거접·백일장·순제의 개설 현황과 운영 실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중 1762년부터 1780년까지의 거접·백일장·순제는 居齋雜錄에, 1796년의 백일장은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入院錄 5(1790~1888)에, 1799년의 백일장은 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표 15>. 18세기 후반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실제

분류	연도	날짜	방목/참여인원	제술과목	出題/考官	施賞
巡題	1762	夏	33명	미상	서원	·官에서 壯元에게 백지 1속, 붓 1자루, 8등까지 백지 1속 ·나머지는 서원에서 백지 15장~12장씩
	1763	夏	36명	詩賦 各4首	서원	4등까지 백지 1권 10장, 黃筆 1자루,

438) 『居齋雜錄』; 『雜錄』.

439) 『雜錄』.

						14등까지 백지 1권 5장, 靑筆 1자루, 그 외 백지 1권
	1764	5. 1	24명	미상	서원	장원 3인은 종이 1속 5장, 14등까지 1속, 22등까지 15장, 그 외 10장
白日場	1764	7. 19~ 7. 20	19일 26명 20일 37명	詩賦 각1首	서원	*
	1765	7. 22	43명	詩賦·古風 각1首	서원	장원 3인은 黃筆 1자루, 백지 1속 5장, 20등까지 백지 1속, 33등까지 15장, 36등까지 7장, 그 외 5장
巡題	1766	7월	15명	詩賦 각4首	서원	장원 4인은 백지 1속, 나머지는 백지 10장
居接	1766	7. 22~ 7. 26	22~25일: 매일 25명 26일: 29명	매일 詩賦 각1首	院任 成顯寅·權益愼·徐昌載	26일만 3등까지 장지 5장, 백지 10장, 그 외 백지 10장
巡題	1767	2. 15~ 7. 30	50명	初巡: 詩賦·疑義 각5首 終巡: 각10首	院任 權九淵·琴滌心·成彦極	初場終場 장원 3인은 백지 1속 10장, 그 외 백지 1속
白日場	1767	윤7.25 (방목)	35명	詩賦·古風 각1首	院任 權九淵·琴滌心·成彦極	장원 3인은 백지 1속, 그 외 백지 10장씩
	1769	7. 26	47명	詩賦·古風 각1首	院任 姜潤·金東鎭·朴瑯	장원 3인은 백지 1속, 黃筆 1자루, 묵 1홀, 그 외 백지 1속
	1770	7. 6	52명	詩賦 각1首	考官: 前正言 金墜·前持平 金埴·前主簿 黃鱗采·進士 黃羽漢·成彦極	*
	1771	4. 29	38명	詩賦 각1首	서원 출제/考官: 府使 金履信·前主簿 黃鱗采·前佐郎 柳翼之	*
居接	1772	1. 17~ 1. 26	매일 15~38명	매일 詩賦 각1首	서원·관에서 매일 교대로 출제·고시 서원 考官은 黃鱗采·柳翼之·進士 琴運心·趙?陽	*
旬題	1778	5월	19명	미상	관에서 출제/ 考官은	전체 黃筆 1자루, 먹

					府使 朴師海, 원임 金始重·成彦極·金相鎬	1정
巡題	1780	8. 29	46명	詩賦	考官 柳翼之·원임 鄭惟簡·徐孟胤·黃之宗	장원은 백지 1束, 그 외 10장
白日場	1796	9. 4	111명	미상	미상	미상
	1799	6. 18	84/600여명	詩賦·古風 각1首	院長府使 姜忱	미상

총 백일장 8회, 순제 7회, 거접 2회가 개설되었는데, 거접은 두 차례에 그치고 있으며, 보통 한 달간 개설되던 18세기 초반에 비해 개설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 것을 통해 당시의 재정난을 엿볼 수 있다.

上式年이었던 1762년에는 여름에 순제를 개설하여 33명의 방목을 작성하였다. 이때는 試題는 기록하지 않고 명단과 점수, 시상 내역만 기록하였는데, 1790년 거제에서 훈장을 맡았던 풍영루주인 安恂이 11품의 성적으로 장원을 차지하여 관가에서 백지 1속과 붓 한 자루를 상으로 받았다. 그 외 8등까지는 관가에서 백지 1속씩을, 나머지는 서원에서 모두 백지를 시상하였다. 이후 시상은 모두 관이 아닌 서원에서 행하고 있다.

이후 상식년이나 특별 과거가 있는 해에는 순제와 백일장, 혹은 순제와 거접을 중복해서 개설하고 있으며, 순제의 개설 기간이나 제술 과목을 확대하고, 試題도 평소와 달리 여러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제술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월에 증광시가 있었던 1763년 순제에서는 詩賦를 각 4수씩 출제하고, 상식년이었던 1764년에도 5월에 순제, 7월에 백일장을 연이어 개설하였으며, 9월에 정시 문과가 설행된 1766년에도 순제와 거접을 중복 개설하고 있다. 또 상식년인 동시에 9월에 알성 문과가 있었던 1767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무려 5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순제가 개설되었으며, 평소와 달리 제술 과목도 확대하여 詩賦·疑·義를 초순과 중순에 각 5수, 10수씩 출제하고 있다. 그 밖에 백일장이 개설된 1767년도 상식년, 1769년에는 9월에 정시가 있었으며, 1770년은 상식년이자 12월에 정시가 설행되었고, 1771년 10월에도 정시가 있었다. 또한 거접이 개설된 1772년에는 9월 정시, 순제가 개설된 1778년에는 7월 알성시와 8월 정시 등 두 차례나 과거가 설행되기도 하였다.

그 중 5개월에 걸쳐 개설된 1767년의 순제에서는 총 기간을 둘로 나누어 3월까지의 初巡, 3월 이후는 終巡으로 구분하고, 초순에는 詩賦·疑·義 각 5수를, 초순보다 기간이 긴 중순에는 각 10수를 출제하였다. 방목에서는 초순과 중순에서 별도로 장원을 각 3명씩 뽑고, 나머지는 초중 점수를 합산하여 총 50명의 방목을 내고 시상하였다.

1771년부터는 순흥부사가 考官으로 참여하기 시작해, 1772년 거접에서는 매일 부사와 서원이 번갈아가며 試題를 출제하고, 1778년의 순제에서는 부사가 출제와 고시를 모두 주관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 부사의 주관 하에 열흘에 한 번씩 제출하는 ‘旬題’를 열기로 계획했으나, 한 차례 시행한 후 부사가 喪事를 만나는 바람에 방목을 작성하고 시상한 뒤 중지되고 말았다.

한편, 1799년 백일장에 600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당시 원장을 겸임하던 순흥부사 姜忱이 원자 탄신을 기념하여 개설한 특별 백일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점도 백일장 참여를 확대시킨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때 백일장은 ‘부사가 원장이라 서원이 아닌 朝陽閣<sup>440)</sup>’에서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설시기와 방목 및 참여인원, 시제, 考官 및 시상 내역은 앞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

440) 朝陽閣卽外東軒也(『梓鄉誌』, 「順興誌」, 宮室·樓亭).

## V. 19세기 『中庸』 講會와 湖學의 계승

18세기에는 寶穀의 재정도 고갈되고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도 사라지자, 四時居接을 三冬居齋로 바꾸고, 輪番居齋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거제 인원과 기간을 단축하며, 원임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불안정하게나마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양사청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강학의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사청 역시 중단과 복설을 거듭한 끝에 18세기 후반 폐지되기에 이르자, 19세기에는 ‘三冬居齋’조차 개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서원의 재정난은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에는 거제 5회, 통독 5회, 강회 1회, 거접 1회, 백일장 11회, 순제 4회로 총 27회의 강학이 개설되었으나, 보통 한 달 이상 개설된 18세기 후반과 달리, 거제와 통독은 기껏해야 3일 내지 열흘에서 길어야 20일 남짓, 거접은 6일에 그치고 있으며,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거제나 통독은 아예 사라지고 백일장만 개설되고 있다. 이에 서원에서는 원장의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함으로써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고, 동시에 18세기 후반 양사청이 폐지되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겸원장 제도를 19세기에든 꾸준히 활용함으로써 지방관의 지원에 힘입어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순흥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강학에 대한 직접적 지원 뿐 아니라, 강학 운영에 필수적인 기숙사나 건물의 보수와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의 지원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강학의 또 다른 변화는, 18세기 후반의 재정난으로 인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백일장과 순제가, ‘가을 겨울에는 거제와 통독, 봄과 여름에는 백일장과 거접을 개설하여 제술과 강학을 모두 권장하여 하나라도 폐지되지 않게 한다’고 하여, 봄 여름에는 거접과 함께 백일장과 순제의 개설이 관례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서원의 유생들이 ‘대다수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801년·1815년·1826년·1827년에는 한 해에 봄과 여름에는 거접·백일장·순제를, 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제나 통독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道學의 탐구를 위한 講學과 科業을 위한 제술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세기 소수서원의 가장 큰 변화는, 18세기까지 뚜렷한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을 띄지 않았던 소수서원에 학파적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19세기 초반 이래로 大山 李象靖과 定齋 柳致明의 문인들, 이른바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洞主를 맡아 강학과 서원 운영을 주도하며 강학 내용에 있어서도 湖學의 학풍이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1827년 거재에서 역시 이상정의 학맥에 속한 松西 姜標이 洞主이자 丈席으로 주도한 中庸講會는, 그 문답과 강론 내용이 講錄 日記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 강회에서의 주요 쟁점 및 문답과 토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 姜標의 중용 해석과 사상적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8세기 초반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강학의 목표로 표방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후반 ‘心學의 탐구와 실천’으로 道學을 구체화, 심화해가던 소수서원 강학은, 19세기에 이르러 퇴계와 이상정의 학문을 계승한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洞主로서 강학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상정으로 계승된 퇴계학의 한 학맥이 강학을 통해 계승,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소수서원에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이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16, 17세기부터 특정 스승이나 학파의 학설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고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강학을 전개해가던 여타 서원의 모습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설립 당시부터 학파와는 무관하게 관의 주도로 설립되어 17세기까지 관의 지원에 의존하여 科業 중심의 강학을 전개하다, 18세기부터 道學을 실천하며 19세기에 이르러 특정 학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여타 서원과는 차별화되는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상과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그런 면에서, 조선 시대 최초의 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은, 이후의 서원들이 걸어온 행보와는 전혀 상이한 길을 노정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19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겸원장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강학을 지속하고자 했던 소수서원의 모습과 겸원장이 실제 서원에서 행한 구체적인 활동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9세기에 계절별로 시행되었던 거재·통독 및 거접·백일장·순제의 운영 실제와 교육과정의 변화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특히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는 1827년의 중용 강회 및 1828년 문회와 소백산 유람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안동과 예안 출신으로 고산서당과 호계서원을 무대로 활동하던 이상정과 유치명 문인들이 19세기 초반 소수서원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V-1. 19세기 재정난과 ‘兼院長’ 제도의 활용

18세기 말 양사청이 폐지된 뒤 1793년 11월 겸원장 朴長高의 주도로 약 한 달간 거제가 개설된 이후 8년간은 거제가 또 다시 중단되었다. 이후 거제가 재개된 것은 1801년이었다. 1801년 11월에는 원임의 잦은 교체와 열악한 재정으로 거제를 개설한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하면서, 형편상 三冬居齋는 개설하기 어려우니 우선 通讀을 개설하기로 하고 回文을 발송하면서, 원장 權思浩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서원으로서 신재선생이 힘써 창설하고 퇴도선생이 더 아름답게 꾸며 규모가 크게 갖추어지고 조약이 엄격하게 정해져, 사시로 거제하면서 독서하는 소리가 지금까지 2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후인으로서 마땅히 물려준 규례를 준수하여 시종 나태함이 없어야 하는데도, 근년 이래로 원임이 자주 교체되고 강학 재정이 열악하여 이 일을 거행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내가 외람되게 원장이 되었으나 노둔하고 졸렬하여 소임에 맞는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 옛날 전통을 좋아하고 현재의 미비함을 한스럽게 여기는 뜻은 가슴속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三冬居齋는 갑자기 개설할 수 없지만, 이달 22일부터 시작하여 朱書を 통독해보는 것이 어떨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sup>441)</sup>

즉, ‘三冬居齋’는 18세기에 재정난으로 더 이상 ‘四時居齋’를 행할 수 없게 되자 마련한 일종의 강학 운영상의 변통책이었는데, 19세기에는 그 三冬居齋조차 개설하기 어려울 만큼 서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원장 權思浩는 삼동거제 대신 단기간의 통독이라도 우선 개설함으로써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강학을 부활하고자 하였다. 거제와 통독의 가장 큰 차이는 이와 같이 개설 기간에 있었다. 18세기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삼동거제’는 말 그대로 겨울 3개월간 시행하는 게 원칙이었고, 통독은 보통 며칠, 혹은 많아야 열흘이나 보름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동안 운영하는 게 관례였다. 그래서 1801년 원장 權思浩는 3개월간의 삼동거제 대신 약 보름에 걸쳐 통독을 개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거제 역시 보통 열흘에서 많아야 20일을 넘지 않고 있어, 개설 기간만으로 본다면 거제와 통독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19세기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원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운영하기 시작한 겸원장 제도를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원 운영에 대한 순흥부사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편, 고을 내 거주자로 한정하였던 원장직을 도내로 확대하여 서원 운영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현직

441) 『紹修書院誌』, 「通讀時回文」.

관리를 원장에 선임함으로써 19세기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소수서원 원장을 순흥부사가 처음 겸임하기 시작한 것은 1792년부터지만, 최초로 논의된 것은 1713년, 문서상으로 겸원장 제도가 처음 마련된 것은 1764년이였다. 먼저 1713년에는,

“수령은 반드시 文官名人으로 서원일의 통솔을 겸하게 하니 사람들은 兼院長이라 일컬었다. 지금 본 서원은 어찌하여 홀로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 서원의 의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總管者가 없기 때문이다. 還復通文과 감사의 論決關文을 수령에게 보내 후생들의 싸움을 중지케 하라”<sup>442)</sup>

고 하여, 수령에게 원장을 겸임시키는 겸원장 제도가 처음 언급되고 있다. 이 때 ‘후생들의 싸움으로 서원의 의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당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파격 논쟁’을 말하는 것 같다. 즉, 당시 兼院長 제도가 처음 논의된 배경은 서원에서의 사족들의 갈등과 향론의 분열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겸원장에게 요청된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향론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사록에 따르면, 1713년 이후에도 겸원장 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다.<sup>443)</sup> 겸원장 제도가 다시 언급된 것은 50여년 뒤인 1764년이였다. 甲申년 5월 25일 작성한 立議<sup>444)</sup>에 따르면, ‘本官은 으레 원장을 겸임한다’고 하여, 1764년부터 부사에게 원장을 겸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당시는 바로 양사청이 중간에 폐지되어 강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즉시 이행되지는 못하다가 순흥부사가 처음으로 소수서원 원장을 겸임하기 시작한 것은 1792년부터였다. 이에 앞서 1788년 9월에는 이전까지 고을 내 거주자로 한정하였던 원장 직을 도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完議를 작성한 바 있다.<sup>445)</sup> 「紹修書院任事錄」에 따르면, 완의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원장은 대개 幼學이나 生員, 進士가 맡고 간혹 전직 관리가 맡아 오다가, 1789년 무렵부터 전현직 관리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서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원장의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하게 되면, 전현직 관리 등 보다 영향력이나 실권 있는

442) 윤희면, 제 5장 「院任의 구성과 신분」,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196쪽에서 재인용.

443) 윤희면은 1713년의 논의 이후 이 논의에 따라 ‘수령을 원장에 위촉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소수서원임사록에 따르면, 순흥부사가 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된 것은 1792년이다(윤희면, 같은 글, 196쪽).

444) 『紹修書院誌』, 「甲申 5월 25일 紹修書院立議」.

445) 『雜錄』, 「戊申 9월 초9일 完議」.

인물을 원장에 추대할 수 있었고,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서원 재정과 강학의 운영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는 이와 같이 원장의 선임을 도내로 확대함과 동시에 겸원장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강학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서원 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1792년부터 19세기 말까지 겸원장은 총 33차례에 걸쳐 임명되고 있다. 1805년 7월에는 ‘당회를 열어 부사를 원장으로 천망하지 않기로 결의’<sup>446)</sup>하였으나, 이후에도 1900년까지 겸원장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다.<sup>447)</sup> 1792년부터 19세기 말까지 겸원장의 명단과 활동 및 전현직 관리로서 원장에 임명된 인물의 주요 활동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19세기 兼院長 및 전현직 관리의 원장 재임 시 활동

연도	명단	활동 내역	연도	명단	활동 내역
1792	兼院長 許映		1864	兼院長 丁大植	
1793	兼院長 朴長高	거재 개설	1865	兼院長 嚴錫謙	
1799	兼院長 姜忱	백일장 개설, 지락재 중수	1867	兼院長 成赫壽	
1801	전현감 權思浩	백일장 및 통독 개설	1868	兼院長 金碩根	
1805	兼院長 鄭澣		1873	兼院長 李鍾信	백일장 개설
1813	兼院長 柳季麟	거재 개설	1874	兼院長 趙駿九	
1815	진우윤(형조참판) 金熙周	거재 개설, 聖幀 개모	1875	兼院長 林徹洙	
1818	전응교 李泰淳	항음주례와 통독장서각 이건	1879	兼院長 趙岐淳	
1820	兼院長 吳鼎秀		1882	兼院長 徐再淳	백일장 개설
1823	兼院長 李毅遠		1883	兼院長 睦承錫	
1826	전지평 李家淳	통독 개설	1886	兼院長 權錫耆	
1827	兼院長 金祖淵	거접 개설	1887	兼院長 李憲基	
1828	전정언 姜樞	거재 및 문회 개설	1888	兼院長 金奭熙	
1837	兼院長 南勉教		1892	兼院長 徐相隣	
1840	兼院長 朴雲秀		1893	兼院長 李寬植	
1842	兼院長 李鳳九		1895	兼院長 尹錫五	
1849	兼院長 李允植	통독 개설	1896	兼院長 鄭夏默	
1854	兼院長 金曾鉉 (문성공 외손)	동몽재 중건	1897	兼院長 沈鍾舜	
			1900	兼院長 李喆和	거재 개설

朴長高, 姜忱, 柳季麟, 金祖淵, 李允植, 金曾鉉, 李鍾信, 徐再淳, 李喆和 등은 겸원장

446) 『紹修書院誌』, 「年表」, 1805년 7월.

447) 이 때 겸원장 제도를 시정한 것은 수령에게 원장을 겸임시키는 것에 대해 인근 서원들의 비난 통문을 받았기 때문이다(윤희면, 같은 글 196쪽).

으로서 재임 시에 강학을 개설하거나 지락재, 동몽재 등 유생들의 기숙사를 증건하기도 하고, 그 밖에 전현감 權思浩, 전우윤(형조참판) 金熙周, 전응교 李泰淳, 전지평 李家淳, 전정언 姜樛 등 전현직 관리로서 원장을 맡은 인물들도 장서각을 이건하고 영정을 개모하며, 강학 개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우윤 金熙周는 원장 재임 시 형조참판에 임명되어 조정의 품의를 받아내고 성균관 유생들의 지지와 영남 70개 고을의 부조를 바탕으로 소수서원에 소장된 文宣王殿座圖와 회헌, 신재의 영정을 대대적으로 개모함으로써, 중앙에 진출한 현직 관리가 원장을 겸임할 때의 효과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중 1799년 姜忱은 겸원장 재임 시 백일장을 설행하고 지락재를 중수하였다. 이 때 남긴 중수일기에는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至樂齋는 蒼石 李先生이 풍기군수로 재임할 때 지은 것이다. 그 사이 수백 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반드시 보수가 있었겠지만, 지형이 가파르고 주춧돌이 기울어 거의 넘어질 상황이 된 지가 여러 해가 되었다. 서원의 형편이 어렵고 또 흉년을 만나 보수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웠으나 그대로 두고 보수하지 않게 되면 일이 더 커져서 힘이 갑절 더 들게 될 상황이었다. 또한 사또가 원장 자리에 있어 軍丁을 부리는 일이 용이하겠기에 비로소 중수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목수를 불러와 기운 것을 바로잡고 썩은 것을 보수할 계획을 말하니 목수 말이 이미 기운 집을 일으켜 지탱한다 해도 멀지 않아 다시 처음과 같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이에 공사가 크고 물자가 부족한 것을 따지지 않고 시일에 구애하지 않고 파옥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가에 들어가 內竹·一浮石·二浮石의 균정을 청하여 한편으로 草庵의 기와와 서까래를 운반하게 하고 한편으로 土石을 져다가 지락재 앞의 패인 곳을 메워 터를 정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니 몇 날이 안 되어 일이 두서가 잡혀 매우 불 만한 것이 되었다.”<sup>448)</sup>

지락재가 거의 무너질 상황이 되었으나 서원의 형편이 어려워 보수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균정을 부리는 일이 용이하므로 비로소 중수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관아에 노동력을 요청하자 겸원장이 적극 지원하여 모든 공사가 며칠 만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1854년 金曾鉉은 순흥부 사이자 문성공 안향의 외손으로서 서원의 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에 서원에서는 ‘지금 公家의 학문이 연원이 있고, 또 문성공의 외손으로서 마침 이 고을 원으로 부임하였으니, 지금에 중수하지 않고 학문을 일으키고 文治를 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들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sup>449)</sup>라고 하며 學求齋의 증건을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1854년 가을 金曾鉉은 원임 琴舜圭, 朴顯道 등과 함께 물자를 모아 수개월에 걸쳐 學求齋를 중

448) 같은 책, 「己未至樂齋重修日記」.

449) 같은 책,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건한 뒤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향론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외에, 서원 운영에 있어 겸원장의 또 다른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게 되면 서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강학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서는 유생 공제 비용 뿐 아니라 유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의 지속적인 보수와 관리가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이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면 관아의 재력과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유생들의 기숙사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과 경제력의 동원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전에 없던 겸원장 제도가 18세기 후반 처음 마련되어 19세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이처럼 소수서원의 재정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흥부사로 원장을 겸임한 모든 인물이 서원 강학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겸원장 역시 서원 교육에 대한 각자의 관심과 열의에 따라 강학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기도 하고, 재임 기간 중 별다른 활동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는 등 개인차가 크게 작용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겸원장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어 강학의 운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19세기 초중반까지는 부사나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강학의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락재와 동몽재의 보수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겸원장 제도는 조선후기 소수서원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도동서원에서도 18세기 중반부터 본 읍 수령이 원장으로 선출되다가 19세기에 오면 본 읍 수령으로 원장을 역임한 회수가 총 36회나 되었다. 이는 서인계 서원의 대부분이 원장 직에 중앙의 고위관료를 임명하던 것과 달리, 영남 지역 대부분의 서원은 향촌 내 명망 있는 사족들이 원장 직을 맡아 오다가, 18~19세기에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면서 서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서원 운영에 있어 관권을 배제한 향촌자치체를 강조했던 퇴계의 서원론에서도 벗어나고 있다.<sup>450)</sup> 그러나 16세기부터 본래 관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며 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강학을 운영해오던 소수서원의 경우는 영남 지역 여타 서원들과는 관과 서원이 맺는 관계의 양상이 좀 달랐다. 비록 18세기부터 이전과 같은 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자력으로 재정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적으

450) 이수환, 제4장 「서원의 人的 構成과 운영-院任·院生을 중심으로-」, 『朝鮮後記 書院研究』, 일조각, 2001, 115~127쪽. 그 외에 1868년 대원군의 휘철령 이후 존치된 무성서원도 휘철 당시 復戶와 保奴를 박탈당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71년부터 대인현감을 원장에 추대하기 시작하였다(박중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韓國書院學報』 1호, 韓國書院學會, 2011, 135쪽).

로 강학을 운영하긴 했으나, 18세기에도 재정 뿐 아니라 강학 운영에 있어서도 관권을 배제하거나 벗어나려 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수서원의 겸원장 제도 역시 재정난이라는 당시의 현실적 문제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긴 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관권에 의존했다기보다는, 겸원장 제도를 통해 지방관의 지원을 끌어낼 명분을 공식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오히려 과거에 누렸던 특권적 지위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18세기 이후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의 관심과 참여를 자발적으로 촉구하며 관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19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즉, 이 같은 관과 서원의 긴밀한 관계 역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성격을 규정했던, 소수서원만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V-2. 계절에 따른 科業과 道學의 병행

19세기에는 거재 5회, 통독 5회, 강회 1회, 거접 1회, 백일장 11회, 순제 4회로 총 27회의 강학이 개설되었다. 그 중 道學을 목표로 한 거재·통독·강회가 11회로 전체의 약 41%, 科業을 위한 거접·백일장·순제가 16회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백일장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은 역시 19세기의 재정난 때문이었다. 특히 1900년을 제외하면, 1850년부터 19세기 말까지는 거재나 통독은 한 번도 개설되지 못하고 백일장만 연달아 개설되고 있다. 또한 19세기 초반의 거재나 통독 역시 보통 한 달 이상 개설된 18세기 후반과 달리, 기껏해야 사흘에서 20일, 거접도 6일에 그치고 있어, 19세기의 재정난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연달아 개설된 6회의 백일장을 제외하면, 19세기 중반까지는 거재·통독·강회(11회)와 거접·백일장·순제(10회)가 같은 비율로 개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세기 강학 운영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19세기 강학 운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거재·통독과 거접·백일장·순제의 개설을 계절별로 배정함으로써 科業과 道學의 병행이 관례로 정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18세기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四時居齋를 三冬居齋로 바꾸고, 三冬居齋 중심으로 강학을 운영하면서 ‘과거가 있는 해에는 거접과 백일장도 폐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과거가 선행되는 해를 중심으로 과업을 준비시켰으나, 19세기에는 ‘가을 겨울에는 거재와 통독, 봄과 여름에는 백일장과 거접을 개설하여 제술과 강학을 모두 권장하여 하나라도 폐지되지 않게 한다’<sup>451)</sup>고 함으로써, 해마다 科業과 道學을 병행하는 것이 관례로 정착되고 있었다. 이는 19세기 서원의 유생들이 ‘대다수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sup>452)</sup>이라는 현실적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19세기부터는 과거에 응시할 대다수 서원 유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마다 계절별로 科業과 道學을 위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유생들의 과거 응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재정의 한계로 인해 이 같은 계절별 교육과정이 해마다 병행되지는 못하였으나, 1801년·1815년·1826년·1827년에는 해마다 봄과 여름에는 거접·백일장·순제를, 겨울에는 거재나 통독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계절별 교육과정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의 거재나 통독은 모두 겨울에, 백일장·순제는 대개 18세기 후반과 마찬가지로 상식년이나 과거가 선행되던 해에 집중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451) “本院之有講所 蓋以秋冬則居齋通讀 春夏則說白居接 製講俱勸 無或廢一之意也”(『講所雜錄』, 「各面私通」).

452) 『講所雜錄』, 「各面私通」.

19세기 전체 강학 개설 현황 및 해당 자료의 수록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19세기 강학 개설 현황

강학 개설 시기	강학 형태	수록처
1801년 7월	白日場	年表(『紹修書院誌』)
1801. 12. 7~12. 22	通讀	通讀時回文(『紹修書院誌』)
1807. 9. 9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08년 4월	通讀	柳範休 年譜(『壺谷集』)
1810. 11. 29~12. 22	居齋	庚午 11월 29일 居齋日記(『紹修書院誌』)
1813. 12. 7~12. 18	居齋	癸酉 12월 초7일 居齋日記(『紹修書院誌』)
1815년 3월	巡題	乙亥三月巡題榜目(『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1815년 8월	旬題	乙亥八月日巡題榜目(『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1815년 11월	居齋	聖幀改摹日記(『紹修書院誌』)
1818. 3. 4	通讀 (鄉飲酒禮)	遊白雲洞記(『邁堊集』)
1826년 4월	旬製	旬製時雜錄(『講所雜錄』)
1826년 5월	旬製	旬製時雜錄(『講所雜錄』)
1826. 11. 19~11. 30	通讀	講學時雜錄(『講所雜錄』)
1827. 3. 14~3. 19	居接	居接時雜錄(『講所雜錄』)
1827. 12. 7~12. 17	居齋	居接時雜錄, 酬唱錄(『講所雜錄』)
1828. 4. 22	文會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小白遊山錄(『講所雜錄』)
1832. 9월	講會	柳致明 年譜(『定齋集』)
1835. 9.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40. 3. 7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49년 12월	通讀	紹修書院次會中韻(『惺庵遺稿』)
1858. 3.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59. 9. 1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60. 9. 6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72년 3월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73. 3. 19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882년 8월	白日場	取人榜(「入院錄」5)
1900년	居齋	紹修書院居齋節目(『貞山集』)

### V-3. 居齋와 通讀의 특징

#### V-3-1. 居齋·通讀의 운영 실제와 실천적 학문 경향

19세기에는 1810·1813·1815·1827년에 居齋 5회, 1801·1808·1818·1826·1849년에 通讀 5회, 1832년에 講會 1회가 개설되었다. 18세기와는 3일에서 20일 정도로 거재나 통독의 개설 기간이 대폭 단축된 점과, 한 해에 거재·통독과 함께 거집·백일장·순제가 계절별로 동시에 개설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敬讀 및 通讀의 교육과정이 18세기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고 있으며, 大山 李象靖의 학맥이 洞主나 丈席으로 강학을 주도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 거재와 통독에서는 보통 18세기와 같이 경독, 통독, 제술이 병행되었으나, 1810년과 1813년의 거재는 통독 없이 철저하게 개별독서 중심으로 시행된 점이 특징이다. 1818년의 통독은 평소와 달리, 통독 자체를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향음주례 후 일회적으로 행한 통독이었다. 이때의 향음주례와 통독은, 李象靖의 문인이 洞主와 丈席을 동시에 맡고, 이상정 문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여 퇴계의 글을 다함께 통독함으로써, 퇴계의 학문을 충실히 계승하여 영남 퇴계학의 일과를 이루고 있던 이상정의 학맥이 19세기 소수서원에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는, 敬讀 교재로는 18세기에 활용되었던 백록동규·경재잠·숙흥야매잠 외에 東銘과 西銘, 心箴과 四勿箴이 추가되고, 통독에서는 18세기에 이어 주자서절요가 역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그 외 中庸, 通鑑節要, 西銘과 주자의 同安縣諭學者·玉山講義·滄洲精舍諭學者·延平問答書 및 퇴계의 上沈方伯書와 聖學十圖 등을 읽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는 대개 洞主나 丈席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것이었다. 즉, 19세기 강학의 성격과 수준은 洞主나 丈席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특히, 1808년 및 1815년부터 1828년까지 거재와 통독, 문회는 모두 李象靖 문인들이 洞主와 丈席을 맡아 주도하고 있었으니, 이때의 강학은 이상정 학맥의 학문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827년 거재에서 이루어진 中庸 講會였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배경 하에 시행된 19세기 거재와 통독의 운영 실제와 특징, 교육과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801년의 통독은 1793년의 거재 이후 8년 만에 개설된 것이었다. 이 해는 上式年으로 7월에는 백일장을 열고,<sup>453)</sup> 12월에는 통독을 개설하고 있다. 1801년 11

월 15일에는 원장 權思浩가 근래 원임의 잦은 교체와 열악한 재정으로 강학을 개설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당시 형편상 三冬居齋는 개설하기 어려우니 우선 통독을 열기로 하면서 回文을 발송하였다. 이 때 보낸 回文에는 ‘지금 후생들이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고 옛 사람의 위기지학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아 주자서절요 한 질을 읽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爲己之學을 위해 공부해야 할 핵심적인 텍스트로 주자서절요를 꼽고 있다. 즉, 18세기부터 집중적으로 통독했던 주자서절요는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로서 19세기에든 여전히 중시되고 있었다. 통독 교재를 주자서절요로 정한 뒤, 유생들에게 각자 소장한 주자서절요를 가지고 와서 통독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겨울밤이 길어지니 나이 어린 유생들에게 낮에는 강독, 밤에는 제술을 시켜 두 가지를 동시에 익히도록 하였다.

“근년 이래로 원임이 자주 교체되고 강학 재정이 열악하여 거재를 거행하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 三冬居齋는 갑자기 개설할 수 없지만, 이달 22일부터 시작하여 朱書를 통독해보는 것이 어떨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지금 후생들이 오로지 과거 시험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고, 옛사람의 爲己之學에는 전혀 힘을 들이지 않아, 『朱書節要』 1질을 읽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이 모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고을의 사림이 제각기 가정에 소장한 『朱書節要』를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강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겨울밤이 길어지니 연소한 유생들에게 낮에는 강독하고 밤에는 제술을 하게 하여 두 가지를 아울러 익히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sup>454)</sup>

이 때 回文에서는 11월 22일부터 통독을 개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정으로 연기되어 12월 7일에 개설하여 22일까지 16일간 시행되었으며, 원장 權思浩와 成彦根이 훈장을 맡아 통독을 진행하였다.<sup>455)</sup> 당시 원장으로 훈장을 동시에 맡은 權思浩(1733~1806)는 창설재 權斗經의 후손으로 1783년 생원시에 입격, 1801년 3월~12월, 1803년 3월~1804년 1월까지 두 차례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훈장 成彦根(1740~1818)<sup>456)</sup>은 영천의 창녕 성씨 成安義의 6대손으로, 1777년 진사시에 입격, 1778년과 1781년에 소수서원 별유사를 거쳐, 1798·1804·1807년 세 차례나 원장에 임명되었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89년 통독에서 면훈장, 1790년 거제에서도 훈장으로 강학을 주도하며 「通讀節目識」를 작성하고, 1815년에도 훈장을 맡는

453) 『紹修書院誌』, 「年表」, 1801년 7월.

454) 같은 책, 「通讀時回文」.

455) 같은 책, 「年表」, 1801년 12월 7일.

456) 成彦根은 단계서원에도 관여하여 묘우중건상량문을 짓기도 하였다(『撫松軒集』, 권 4, 부록).

등, 소수서원 강학에서 4차례나 훈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1799년 원장 재임 시에는 지락제를 중수하고, 1804년에도 원장으로 일신제를 중건하였으며, 1805년에는 동몽재를 중수하고 「新房學求齋上梁文」을 짓는 등 18~19세기 소수서원의 강학과 운영에 많은 공헌을 남긴 인물이다. 1827년과 1828년에 소수서원 洞主였던 姜樞은 成彦根에 대해 ‘지킨 바는 늙어감에 더욱 확고해져 훼손당해도 막히지 않고, 기림을 받아도 영화로 생각하지 않았던 영남의 巨儒’<sup>457)</sup>로 평가하고 있다.

통독을 마칠 때에 원장 권사호가 운자를 내어 유생들과 함께 수창시를 지었는데, 이 때 유생 徐榦發이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sup>458)</sup>

우리의 道 천년 만에 다시 동쪽으로 와	吾道千年復海東
晦菴 退溪 두 선생 心學의 비결 서로 같았네	晦陶心訣一規同
바위에 새긴 敬자에 참된 공부 있고	巖頭敬字眞工在
문미의 편액에는 보배로운 기운 통하네	楣上璿題寶氣通
푸른 대나무 속에서 글 읽는 소리 들려오고	絃誦至今蒼竹裏
흰 구름 속 산천은 고금에 아름답네	溪山從古白雲中
洞主께서 아름다운 은혜 베풀어	斯文洞主垂嘉惠
어리석은 이에게 깨우침을 전하시네	分付顛蒙喚惺翁

1808년 4월에는 湖學의 핵심 인물로 19세기 초 고산정사 등에서 강회를 주도하며 당시 안동 유림의 종장으로 이상정 학통을 대표하던 이상정의 문인 柳範休가 洞主로서 通讀을 개설하였다.<sup>459)</sup> 柳範休(1744~1823)의 본관은 전주, 자는 天瑞, 호는 壺谷, 조부는 공조참의 柳升鉉이고 부친은 柳道源이며 모친은 의성 김씨 金景濶의 딸이다. 부친 柳道源(1721~1791)도 이상정의 문인이며, 유범휴도 1772년 이상정의 문인이 되어 19세기에는 湖學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퇴계와 이상정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1780년 생원시에 입격하고 1785년 천거로 태릉참봉에 임명, 1787년 사옹원봉사, 약방제조를 거쳐 다음해 평시서직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의금부도사, 송화현감, 장악원주부, 사도시첨정을 거쳐 1795년에는 고성군수, 1797년 안변부사에 부임했다가 2년 만에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고산정사, 사빈서원 등에서 심경, 옥산강의, 대산집 등

457) 『松西集』, 권 7, 「祭成公彦根文」.

458) 『南厓集』, 권 1, 「雲院居齋次權泗川丈思浩韻辛酉」. 그 외 1801년의 통독에 대한 기록은 소수서원에 소장된 『通讀雜錄』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나, 원본을 구하지 못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459) “純祖八年戊辰 先生六十五歲 四月講聖學十圖于白雲洞書院 先生時爲洞主 與近地士友 會講凡四日而罷”(『壺谷集』, 권 13, 附錄, 「年譜」, ‘純祖 8년 戊辰’).

을 강론하며 평생 학문과 교육에 매진하였다. 저서로 『泮村問答』, 『師門簡牘』, 문집 『壺谷集』이 있다. 그 중 『師門簡牘』은 스승 이상정과 학문에 대해 편지로 주고받은 문답을 엮은 것으로, 그는 심경, 근사록과 함께 이 책을 ‘嚴師’라고 하며 평생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때 통독에서는 4일간 퇴계의 『聖學十圖』를 강독하였다. 당시 유범휴의 위치로 볼 때, 이때 통독에도 湖學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범휴의 연보 외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1810년의 거제는 洞主 成宗魯와 별임 金樂顏, 柳燾의 주도 하에 11월 29일 입재하기 시작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시행되었다. 당시의 거제는 「居齋日記」<sup>460</sup>를 작성하여 매일의 출입 유생과 하루 일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때 洞主를 맡은 成宗魯(1748~1820)는 영천의 창녕 성씨 成安義의 7대손이자 대산 문인 成彦極의 아들로, 1784년 진사시에 입격, 1789·1794·1796년 소수서원 별유사를 지내고, 1810년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소수서원 외에 단계서원 원장도 역임한 바 있다. 별임 金樂顏(1763~1839)은 영천의 선성 김씨 梅鶴堂 金鑾의 6대손으로 1796·1799·1810년 소수서원 별유사를 지냈으며, 1815년 거제에서는 講所 訓長을, 1827년에는 원장을 역임하였고, 柳燾은 전주 유씨로 1807·1810·1814년 별유사를 지내고, 1813년 거제,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제 및 1828년의 소백산 유람에도 동행하였으며, 1835년에는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 때의 거제에서는 훈장을 따로 선출하지 않고 동주 성종로가 훈장을 맡아 거제를 운영하였다.

먼저, 11월 29일 入齋를 시작하여 유생 9명과 동주, 별임 등이 모이자 술과 담배를 대접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거제가 시작되었다. 22일간 거제에는 부내의 단곡, 문단, 고산, 석교, 암회, 구미, 용산, 중촌, 구산, 등영, 사천, 현정, 구고, 오현 및 풍기, 안동, 예천, 영천 등에서 동몽 4명을 포함하여 총 110명의 유생이 참석하였다. 그 중 강학 참여자는 87명, 내방객은 23명이며, 내방객으로는 순흥향교 및 단계서원의 재임과 장의, 관아에서 2인, 고을 원로 등이 내방하고 있다.

이 때 거제에서는 통독은 행하지 않고 매일 경독과 개별독서만 시행하였으며, 경독의 교재는 숙흥야매잡, 경재잡 외에 張載의 東銘과 西銘이 추가되었다. 매일의 일과는 명륜당에서 상읍례를 행하고 매일 유생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夙興夜寐箴, 敬齋箴, 東西銘을 敬讀한 뒤, 각자 서재로 돌아가 개별독서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22일간의 거제 중 제술은 12월 10일에 한 차례만 시행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훈장이 운자 4자를 내어 제생들과 함께 수창시를 지었다. 거제에서의 일종의 관습례

460) 『紹修書院誌』, 「庚午 11월 29일 居齋日記」.

중 하나였던 수창시는 보통 과제일에 짓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처럼 거제의 중간에 짓는 경우도 있었다. 거제의 운영 방식은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운번 거제를 시행하였다. 12월 2일 ‘재유 20명이 찼다’는 기록에 따르면 20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거제가 시작된 지 열흘 만에 10명의 유생이 귀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운번 거제 기간은 10일을 단위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술 시제의 출제는 서원에서 순흥부사에게 詩賦 각 3수씩 출제를 요청하여 12월 10일 제술을 행하고, 시권을 다시 부사에게 보내 부사가 직접 考試하였다. 또한 순흥부사는 고시한 시권을 서원에 돌려보내면서 명태 1部, 醬과 소금 각 5되씩을 함께 보내 거제를 지원하고 있다. 즉, 부사가 시제의 출제와 고시를 직접 담당하게 되면, 서원 유생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물질적 지원과 관심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이 때 제출된 시권은 부 37장, 시 12장이었으며, 순흥부사는 그 중 부에서 11명, 시에서 3명을 뽑아 방목을 작성하였다. 이 때 부사가 출제한 試題와 방목에 뽑힌 사람들의 명단, 성적은 다음과 같다. 특히, 유무량수와 황표길은 동몽으로서 각각 부와 시로 방목에 올라 주목된다. 그 중 동몽 유무량수는 당시 거제의 별임을 맡은 柳燾의 아들이며, 부로 방목에 오른 金輝德<sup>461)</sup> 역시 별임 金樂顏의 아들이었다. 또한 부에서 장원을 차지한 徐榦發은 대산 문인 徐宗胤의 아들이었다.

<표 18>. 1810년 거제의 詩賦 製述 榜目

구분	賦	詩
試題	·獻暝以風鳴罵坐	·卮酒進上 大言天下 高祖之天下(下자로 압운) ·老枝擎重玉龍(龍자로 압운) ·願得廣廈千萬間 以庇天下寒士(寒자로 압운)
榜目	·徐榦發 二下 1편·次上 1편 ·徐榦表 三中 1편·三下 2편 ·동몽 柳無量壽 三下 1편·次上 2편 (별임 柳燾의 子) ·金輝德 三下 1편·次上 1편 (별임 金樂顏의 子) ·琴尙烈 三下 1편 ·金永著 三下 1편 ·李仁浩 次上 2편 ·徐榦文 次上 1편 ·洪達 次上 1편	·安秉性 三下 1편 ·黃龍擘 次上 1편 ·동몽 黃豹吉 次上 1편

461) 金輝德(1788~1862)은 거제일기에는 ‘金輝德’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榮州市史』에 따르면 본명은 金輝鍾, 金輝德은 초명이다(『榮州市史』,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116쪽). 1825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대산문인으로 1815년 거제에서 洞主를 맡은 金熙周의 문인이다.

	·徐榦才 次上 1편 ·金永商 次上 1편	
--	--------------------------	--

1813년의 거재는 兼院長 柳季麟과 별임 洪瑄, 成胄教<sup>462</sup>가 12월 1일 분향례 후 당회를 열어 거재 개설을 결정하고 각 면에 통문을 발송, 훈장 선출을 거쳐 12월 7일부터 개설되었다. 겸원장 柳季麟은 12월 1일 당회에서 “이곳의 사시 거재는 실로 서원을 창건한 초기에 愼齋·退溪 두 선생이 정한 규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금년에 큰 흉년으로 서원에 수입이 없어 ‘밀가루가 없어 떡국을 만들지 못할 형편’보다 더 심한 상황이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sup>463</sup>라고 하며 원임들과 상의한 끝에, 우선 물자의 넉넉함을 돌보지 않고 거재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2월 7일에 거재를 시작하기로 하고 훈장을 선출한 뒤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였다. 훈장으로는 전 동주 孫思百과 생원 李雲燮을 의망하여 뽑았으나, 이운섭은 상중이라 다시 幼學 金熙發을 의망하여 선출하였다. 처음에 훈장으로 선임된 李雲燮(1757~1825)은 영천의 진성 이씨 溫溪 李濯의 9대손으로, 1791년 소수서원에 입원, 1803년 생원에 입격하였다. 1796년 소수서원 별유사를 지내고, 1815년 8월 순계에 考官으로 참여하였으며, 1821년에는 원장에 추대되었으나 行公하지 않았다. 훈장 孫思百(1750년생)은 1783·1786·1790·1792년 별유사를 거쳐, 1812년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훈장 金熙發(1755년생)은 안동의 전주 유씨 柳道源, 柳長源 형제와 처남 매부지간으로,<sup>464</sup> 1808년 소수서원에 입원하고, 1819년 원장에 추대되었다.

이때의 거재 역시 「居齋日記」<sup>465</sup>에 매일의 하루 일과와 운영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먼저, 거재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12월 6일 아침에는 서원에서 훈장 손사백과 김희발을 모시러 두 곳에 하인을 직접 보내고 있어, 훈장에 대한 예우를 엿볼 수 있다. 이어 다음날인 12월 7일부터 거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겸원장 유계린은 거재 첫날부터 서원에 禮吏를 파견하여 훈장 및 유생들의 입재 상황과 숙식 제공 형편을 살펴 일일이 보고하게 하고, 12월 9일에는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훈장 및 유생들과 상읍례를 행하며, 10일에는 콩, 미역, 명태 등을 보내 반찬을 지원하는 등 겸원장으로서 유생 공궤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62) 成胄教(1777년생)는 창녕 성씨로, 이 해에 별유사를 지내고, 1836년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洪瑄은 1770년생이다.

463) 『紹修書院誌』, 「癸酉 12월 초7일 居齋日記」.

464) 金熙發은 柳道源·柳長源 형제의 누이와 혼인하여 이들과 처남 매부지간이 되었는데, 柳道源·柳長源 형제 역시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었다(『大山集』, 권 51, 行狀, 「通政大夫刑曹參議陽坡柳公行狀」).

465) 『紹修書院誌』, 「癸酉 12월 초7일 居齋日記」.

거제에는 12월 18일까지 12일간 매일 적게는 25명에서 많게는 55명이 참여하고, 원장과 별임, 훈장을 포함하여 총 109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 중 거제유생은 동몽 4명(權壽賢·朴必壽·金望壽·金豹一)을 포함하여 총 84명, 내방객은 총 20명이었다. 내방객은 순흥향교, 단계서원, 구만서원의 재임과 고을 원로 및 이해 생원시에 입격한 金永敏이 新恩차 다녀가기도 하였다. 특히, 12월 14일과 16일에는 순흥향교 장의 徐榘發이 건시 3첩, 홍시 30개를, 단계서원 별임 金永履는 많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유생들을 접대하고 明魚와 미역 등 반찬도 지원하였다. 徐榘發과 金永履는 당시를 전후로 강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원임이나 훈장 등으로 소수서원에서도 핵심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즉, 순흥향교 및 부내의 단계서원, 구만서원의 임원은 대개 소수서원의 원임과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어, 순흥부 내의 서원과 향교는 일종의 사족 연합체적 성격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sup>466)</sup>

한편, 1813년의 거제는 제술이나 통독 없이 철저하게 유생들의 자율적인 독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생들은 날마다 상읍례와 경독을 행한 뒤 각자 서재로 돌아가 개별 독서를 시행하였다. 이 때 훈장은 유생들이 각자 독서하다가 의문나는 곳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이를 풀어주고, 평소 독서의 勤慢을 살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때 거제는 본래 12월 20일에 파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겸원장 유계린이 부인상을 당하여 예정보다 이틀 앞서 파재하였다. 거제일기에서는 ‘파재하기 하루 전날 洞主와 두 훈장이 한 자리에 모여 거제 유생들을 거느리고 강론하고 읍양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동방의 성대한 일로 삼으려고 계획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되고 말았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하며, 喪事로 인해 겸원장과 정읍례, 강론 등의 파재 의식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파재 의식은 생략하고, 대신 손사백과 김희발 두 훈장이 운자를 내어 제생들과 수창시를 지으면서 12일간의 거제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이 날 파재를 기념하여 구만서원 재임 洪薏<sup>467)</sup>가 건시 3첩을 가지고 와 재중에 접대하였다.

1815년은 上式年인 동시에 10월에 정시 문과가 설행된 해로, 3월과 8월에 순제를

466) 그 밖에 18세기 소수서원에서 훈장을 맡았던 서창제도 단계서원 훈장을 지낸 바 있으며, 소수서원 원장을 지낸 성언근, 성종로, 박윤도 모두 단계서원과 구만서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813년 정월 소수서원의 묘우 중수에 대한 회의에도 단계서원과 구만서원 원장이 참여하는 등, 소수서원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단계서원, 구만서원 원장은 소수서원 원장과 함께 소수서원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紹修書院誌』,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467) 1813년 구만서원 재임이었던 洪薏 역시 1810·1817·1819·1823년에 소수서원 별유사를 지낸 인물로, 소수서원과 구만서원의 원임을 번갈아가며 맡고 있다.

두 차례나 개설하고,<sup>468)</sup> 11월에는 거재를 개설하였다. 11월의 居齋는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聖幀改摹日記」<sup>469)</sup>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거재에서 洞主는 金熙周, 講所 訓長은 金樂顏, 都訓長은 成彦根이 맡고 있었다. 동주 金熙周(1760~1830)는 안동의 의성 김씨로 1789년 소과, 1795년 문과에 합격하고 1815년과 1825년 두 차례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1818년에는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자, 16세기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소수서원 운영에 많은 공을 남긴 朴承任의 외손이기도 하다.

이 해 11월, 都訓長 成彦根과 講所 訓長 金樂顏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던 거재는, 동주 金熙周가 형조참판에 임명되어 聖幀 개모를 추진하게 되자, 재정 비축을 위해 중단되었다. 김희주는 이 해 가을 한성부우윤직을 사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sup>470)</sup> 8월에 소수서원 원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10월에 동주 김희주가 다시 형조참판에 임명되자, 서원에서는 중앙에 진출한 원장의 지위를 활용하여 조정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文宣王殿座圖와 회헌, 신제의 영정 개모를 도모하게 되었다. 1815년 11월 23일, 김희주가 조정에 품의하여 聖幀 개모가 결정되자 전 원장 成宗魯는 ‘먼저 居齋를 파하고 물자를 마련해 두었다가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고 하고, 전 원장 孫思百은 ‘질병으로 침거하는 중에 원중의 소식을 듣고서 나도 모르게 별떡 일어나서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居齋를 파하여 물자를 마련해 두고 일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정 개모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시행중이던 거재를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성정 개모를 위해 거재가 중단되자 거재 훈장이었던 成彦根과 金樂顏은 다시 성정 개모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都訓長 成彦根은 안동현감 金熙澤과 함께 改摹都監이 되고, 講所 訓長 金樂顏은 徐弘胤과 함께 改摹都廳을 맡아 성정 개모를 추진하였다. 이 때 김낙안과 함께 개모도감을 맡은 徐弘胤(1760~1826)은 영천의 달성 서씨이자 이상정 문인으로, 1794년과 1804년 별유사를 거쳐, 1822년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18세기부터 ‘서원을 설립한 본의는 강학에 있으며, 강학이 폐지되면 서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고 하며 居齋를 중시하던 소수서원에서, 聖幀 개모가 추진되자 거재를 즉시 중단할 만큼, 공자의 영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당시 성정 개모를 주관한 동주 金熙周는 影幀改摹日記의 서문에서 성현의 圖像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영정 개모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468)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乙亥三月巡題榜目」; 「乙亥八月日巡題榜目」.

469) 『紹修書院誌』, 「聖幀改摹日記」(梅鶴堂宗家 소장).

470) 『葛川集』, 권 3, 疏筭, 「辭右尹 摠管仍辨吳瑛誣嶺人疏」.

“성현이 어찌 圖像을 필요로 하겠는가. 사람이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는 데에는 한 결 같이 마음에 근본하지 않음이 없다. 그 마음을 얻은 뒤에 성현에 이르기를 구할 수 있고, 圖像은 단지 외면으로 근사한 것일 뿐이니 용모와 眉髮로 어찌 성현의 참 모습을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논어의 鄉黨 한 편은 공자 문인들이 성인을 묘사한 책이다. 朱夫子가 말하기를, ‘天命之性에서부터 道不可離까지가 모두 그 이치 속에 있다’ 했으니, 그렇다면 잘 관찰하는 자는 성현의 용모와 안색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구하는 것이 있으니, 도상이 학문과 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이 틀림없다. (…중략…)

소수서원의 도상은 회현 안선생이 중국에서 묘사하여 온 것으로, 공부자가 冕服 차림으로 근엄하게 자리에 앉아 있고 네 성인과 70명의 제자가 선후로 줄지어 시립하고 있으며 漢·唐·宋의 현인으로서 부자 사당에 배향된 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금에 살펴봄에 진상이 완전하니 실로 경건히 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 5백여 년이 되어 옛날 종이가 파열되고 진영의 채색이 바래, 고을의 여러 군자들과 논의하여 다시 묘사하기로 하였다. (…중략…)

아, 수천 년 뒤에 태어난 선비가 어찌 천고 성현의 성대한 덕과 빛의 만에 하나라도 알 수 있을까만, 지금에 이 진상을 가지고 살펴보면 가까이서 보고 느껴, 마치 杏壇의 絃歌 사이에서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고 濂洛 현인의 문하에서 지팡이와 신발을 받들고 청소하면서 모시고 치맛자락을 걷고 마루에 올라가 경서를 잡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하다. 궁벽한 고을의 晚學으로서 성현의 공부에 뜻을 두고서도 직접 모시고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모습을 상상하며 뜻을 흥기하는 것이 절로 이것을 통하여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군자에게 九容이 있고 우리의 도에는 三貴가 있으니, 성현의 용모와 안색에서 이 도가 발현되지 않음이 없으며 도가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니, 학자로서 그 도를 구하고 그 마음을 얻음에 있어서 어찌 이것을 도외시킬 수 있겠는가.”<sup>471)</sup>

공자가 冕服 차림으로 근엄하게 앉아 있고 네 성인과 70명의 제자가 선후로 줄지어 시립하고 있는 圖像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마루에 올라 경서를 펼쳐놓고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듯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상상하는 가운데 학문하는 자의 뜻이 도상을 통해 절로 흥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주 김희주는 거재를 즉시 중단할 정도로 聖幀의 개모가 절실한 이유를 다름 아닌, ‘공자의 영정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서 찾고 있었다.

이에 改摹都監 성언근은 통문을 작성하여 영남 70 고을에 보내 부조를 배정하고, 이듬 해 3월 동주 김희주가 화공 일행을 데리고 서원에 도착, 文宣王殿座圖부터 개모를 시작하여 5월에 회현과 신재의 영정까지 모두 개모를 마친 뒤, 1816년 5월 18일 마침내 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안 행사를 거행하였다. 김희주의 인척이자 박승임의 후손 朴時源은 서울에서 성정을 개모하러 낙향하는 김희주를 전송하면서, 수백 년 전 박승임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회현의 영정을 개모하였는데, 이번에 외손으로

471) 『葛川集』, 권 6, 「紹修書院影幀改摹日記序」.

김희주가 이를 다시 개모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유상을 새로 모사하는 일은 실로 斯文의 경사로서, 우리 夫子의 모습이 새로 근엄하게 모사된다면 부자의 도가 장차 우리 영남에서 다시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삼가 원하던대, 영공께서 개모하고 봉안하는 날 영남의 선비들과 논어 속 鄉黨 한 편을 강론하여, 성인의 화상을 우러러보는 선비들로 하여금 공자 문하의 제자들이 성인의 용모와 언동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되게 한다면 어찌 아름답고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제 사사roi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옛날 저의 嘯阜 선조께서 풍기군수로 재임하실 때 더욱이 소수서원에 정성을 쏟으셔서 호조에 글을 올려 강학 비용을 마련하셨고, 또 회헌선생의 영정이 낡고 손상되어 좌의정 안현에게 글을 올려 화공 李不害를 초빙하여 개모하고 後識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영공께서 저의 선조의 외손으로서 또한 선조가 남기신 뜻을 미루어 부자의 유상을 개모하게 되니, 참으로 때를 기다려 온 듯하고, 또한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닌 듯합니다. 제가 먼 곳에 머무르고 있어 영공의 뒤를 따라가 일을 돕지 못하니, 그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sup>472)</sup>

1818년의 通讀은 평소의 통독과 달리 향음주례 뒤에 행한 일회적인 통독이었다. 3월 3일에 洞主 李泰淳을 중심으로 향음주례를 행하고, 동주가 향음주례 뒤에는 응당 강학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이튿날 통독을 시행하였다. 삼월 삼짓날 향음주례에는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다음 날 통독에는 30~40명의 유생이 모여 丈席에 李野淳을 모시고, 이야순의 제안으로 퇴계가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할 때 관찰사에게 올린 ‘上沈方伯書’와 ‘西銘’을 통독하였다.<sup>473)</sup>

이 때 동주를 맡은 李泰淳(1759~1840)은 예안의 진성 이씨로 퇴계의 9대손이자, 이상정의 문인이다. 1783년 생원, 1801년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1817년 9월부터 소수서원 동주를 맡아 이 해 3월 향음주례를 행하고, 겨울에는 장서각을 이 건한 뒤 이듬해 장서각이 건기를 지었다. 관직에 있을 때 ‘敬은 聖學의 시종을 이루는 요체이고 百王의 單傳의 旨訣’이라고 하며 이상정이 지은 『敬齋箴集說』과 그의 문집 『大山集』을 간행하여 경연에 비치하고 강의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켰다.<sup>474)</sup> 통독에서 丈席에 오른 李野淳(1755~1831) 역시 퇴계의 9대손으로, 1778년 퇴계가 직접 그린 경재잡과 백록동규를 들고 이상정을 찾아가 문인이 되었으며, 이상정 사후에는 이상정의 문인 金宗德의 제자가 되었다. 이 해 통독에서 丈席을 맡고 1822년 원장을 역

472) 『逸圃集』, 권 3, 「送金侍郎公穆歸紹修書院改摸聖幀序」.

473) 『邁壘集』, 권 4, 「遊白雲洞記」.

474) 권오영, 「가학의 흐름, 학문 활동과 저술」, 『터를 안고 仁을 퍼다-퇴계가 굽어보는 하계마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5, 148쪽.

임하였다.

이 날 통독에는 李泰淳, 李野淳을 비롯하여 柳徽文, 徐弘胤, 金熙紹, 趙承洙, 徐活, 柳炳文, 徐成烈, 徐榦發, 金熙發, 李仁行, 李德培 등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이상정의 문인이거나 재전문인 등으로 이상정의 학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徐弘胤, 金熙紹는 대산 문인으로 고산급문록에 수록되었으며, 柳徽文, 趙承洙, 徐活, 柳炳文은 각각 柳長源, 南漢朝, 金宗德, 柳範休의 문인으로 모두 대산의 재전문인이었다. 徐榦發도 鄭宗魯의 문인으로 대산의 재전문인이자 대산 문인 徐宗胤의 아들이었으며, 徐成烈은 徐宗胤의 손자였다. 金熙發은 대산 문인 柳長源, 柳道源 형제의 처남, 李仁行은 대산 문인 柳範休에게 서신을 통해 많은 가르침을 받고 柳致明, 李永運 등 대산 문인들과 교유한 인물이었다. 즉, 이때의 향음주례와 통독은, 이상정의 학맥이 19세기 소수서원에 등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이 날 통독에서 서원 설립의 본의를 밝힌 퇴계의 上沈方伯書 및 우주의 원리와 가족공동체의 원리의 유비적 관계를 통해 理一分殊의 의미를 밝히고, 그 원리의 구현은 바로 仁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 張載의 西銘을 강론하면서, 장구를 표절하여 과거 급제나 피하는 당시 퇴폐한 선비의 기풍을 극복하고 퇴계가 上沈方伯書에 남긴 서원 설립의 본뜻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1826년에는 4월과 5월에 두 차례 순제를 시행하고,<sup>475)</sup> 11월에는 통독을 개설하였다. 가을 제향 때 洞主에 임명된 李家淳이 9월 보름날 분향례를 행한 뒤 講任(훈장) 宋相奎, 徐榦發 등과 당회를 열어 그 해 겨울에 통독을, 이듬해가 상식년이니 봄에는 거절을 열기로 결정하고, 11월 26일부터 5일간 통독을 개설하였다. 11월 19일에 송상규와 서간발이 입재하여 통문을 작성하고, 11월 21일 각 면에 통문을 보내 통독의 개설을 알린 뒤 26일부터 통독을 시작하였다. 동주 李家淳은 李仁行과 金熙紹를 초빙하여 講座에 오르기를 청했으나 이인행은 감기로, 김희소는 世德祠를 세우는 일로 여가가 없어 사양하여, 이때 통독은 동주와 두 훈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476)</sup>

동주 李家淳(1768~1844)은 예안의 진성 이씨로 퇴계의 9대손이자, 대산 문하 중 ‘潮門三老’로 일컬어지던 李宗洙의 문인으로, 1789년 생원, 1813년 문과에 합격하여 지평, 정언, 수찬, 응교 등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1837년 이후에는 거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순흥 와관촌으로 이거하여 후학을 교육하며 만년을 보냈다.<sup>477)</sup> 1826년과

475) 『講所雜錄』, 「旬製時雜錄」.

476) 같은 책, 「講學時雜錄」.

477) 『霞溪集』, 권 12, 附錄, 「行狀」.

1841년 두 차례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으며, 1828년의 文會 후 소백산유람에 참석하여 남긴 기행문이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sup>478)</sup> 講任 徐翰發(1774~1833)은 영천의 달성 서씨 徐翰廷의 11대손이자, 대산 문인 徐宗胤의 아들이다. 4세에 부친이 사망하자 徐昌載가 거두어 길렀는데, 서창재도 대산 문인이었다. 어릴 때는 成彦根과 대산 문인 黃龍漢, 자라서는 대산 문인 鄭宗魯에게 수학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고, 1814·1815·1824년 별유사, 1827년 居接에서도 講任을 맡았으며, 李仁行, 李秉運과 망년지교를 맺고, 李家淳, 姜樞, 權輔 등과 교류, 조카인 서성렬과는 평생의 학문적 지기였다.<sup>479)</sup> 宋相奎(1769년생)는 1817년 소수서원 별유사, 1827년 居接에서도 서간발과 함께 講任을 맡고, 1840년 원장을 지냈다.

이때 통독은 『講所雜錄』<sup>480)</sup>에 그 시행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相揖禮, 敬讀, 通讀을 행하고, 그 중 3일은 경독, 통독과 함께 서원에서 출제하여 詩賦 제술을 시행하였다. 경독은 동주 이가순이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을 직접 써서 명륜당 안 서쪽 벽에 걸고, 매일 백록동규, 경제잡, 숙흥야매잠을 차례로 경독하였다. 이 때 동주가 경제잡과 숙흥야매잠만 직접 쓴 것은, 백록동규는 예전부터 편역에 새겨 명륜당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두 잠은 그 때까지 편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제나 통독이 개설될 때마다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은 임시로 써서 사용하고 거제가 끝날 때 철거하여 버리곤 하였다. 이에 동주 이가순은 ‘이는 영구히 도모하는 데 흠이 된다’고 하며 비로소 두 잠을 편역에 새겨 백록동규와 함께 명륜당에 게시하였다. 이 때 정자의 四勿箴과 范蘭溪의 心箴도 아울러 새기면서 이가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본원의 學습은 매번 강회를 열 때마다 상음례를 행하고 강당에 차례대로 서서 백록동규, 경제잡, 숙흥야매잠을 차례로 敬讀하게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옛날부터 행해온 규례일 것이다. 그런데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은 미처 새겨 걸지 못해, 매번 강회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베껴 써서 경독한 뒤 철거하곤 하였으니, 이는 오래도록 도모하는 데 흠이 된다. 또 도산서원의 원규를 살펴보니, 정자의 四勿箴과 范蘭溪의 心箴도 함께 새겨 게시하였다. 생각건대, 이 네 개의 잠은 그 중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으니, 이에 함께 편역에 새겨 게시하여 學습의 미비함을 보완하고자 한다.”<sup>481)</sup>

이에 경제잡과 숙흥야매잠을 편역에 새겨 걸고, 도산서원의 원규를 참고하여 四勿

478) 『霞溪集』, 권 6, 雜著, 「西北紀行」.

479) 『榮州市史』,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296쪽.

480) 『講所雜錄』, 「講學時雜錄」.

481) 『霞溪集』, 권 8, 跋, 「題紹修學令後」.

箴과 心箴도 경독의 교재로 추가하고 있다. 四勿箴은 안희가 克己復禮의 조목을 묻자 공자가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이라고 대답한 논어의 구절을 보고,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으로서 마음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응하는 것이니, 밖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안연이 이 말을 실천한 것이 바로 성인의 경지에 나아가게 된 비결이니, 후세에 성인을 배우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가슴에 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sup>482)</sup>고 하며, 程伊川이 ‘視·聽·言·動’에 각각 해설을 붙여 잠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정이천은 이 잠에서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것은 몸의 검속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視箴에서는 ‘눈앞의 욕망을 통제하여 허명한 마음을 붙잡는 법’, 聽箴에서는 ‘외물의 자극에 화하지 않고 天性에 근본한 彝倫을 지키는 법’, 言箴에서는 ‘언행을 삼감으로써 마음을 보존하는 법’, 動箴에서는 ‘마음이 동하는 잠간 사이의 幾微를 살피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范蘭溪의 心箴은 아득한 우주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는 몸을 가진 인간이 三才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오직 ‘마음’ 때문인데, 그 마음이 形氣의 부림을 당하는 순간, 병이 들고 금수가 되기도 하는 마음의 묘한 이치를 설명하고, 誠과 敬을 통해 마음을 보존하는 법을 말하고 있다.<sup>483)</sup> 즉, 이때 소수서원에서 경독의 교재로 삼은 네 편의 잠은 모두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기 위해 몸을 검속하는 敬의 공부론’으로 귀결되는 心學의 핵심적 방법을 다룬 것들이었다.

통독에서는 주자서절요와 통감절요를 각 4편씩 읽고,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통독과 함께 詩賦 각 5수씩 출제하여 제술을 시행하고 방목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통독을 마치면서 동주 이가순은 ‘강독하는 사이에 과거 문제로 詩賦 각 다섯 개의 시제로 시험하였다. 오직 화려한 문장으로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워할 만하다’<sup>484)</sup>고 하여, 서원에서의 科業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과거공부 역시 성인의 학문을 다룬 사서삼경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道學의 범주에 속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에 있었다. 성인이 되는 학문의 요체는 다름 아닌 ‘마음을 다스리고 실천하는 심학’에 있었는데, 과거시험에서는 ‘마음’이 아닌 ‘문장’을 시험하였으므로, 과거공부는 자칫 마음의 수양과 실천은 도외시한 채, 걸

482) “四者身之用也 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所以養其中也 顏淵事斯語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 宜服膺而勿失也”(『二程集』, 권 9, 雜著, 「四箴並序」).

483) “茫茫堪輿 俯仰無垠 人於其間 眇然有身 是身之微 太倉稊米 參為三才 曰惟心耳 往古來今 孰無此心 心為形役 乃獸乃禽 惟口耳目 手足動靜 投閒抵隙 為厥心病 一心之微 衆欲攻之 其與存者 嗚呼幾希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古文集成』, 권 54, 「心箴」).

484) “與書院諸生謹依先師遺規 敬讀白鹿洞規敬齋箴夙興夜寐箴 講朱書節要 … 間試科體詩賦各五題 惟輕犯葩藻爭先之戒 爲可愧懼”(『講所雜錄』, 「講學時雜錄」, 「講會時酬唱并小序」).

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문장의 수식에만 치중하여 학문의 뜻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서원에서의 科業이 본의 아니게 유생들의 경쟁심을 조장한다는 데 있었다. 서원에서는 유생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과업을 준비시키고, 한편으로는 유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詩賦 제술을 행할 때마다 그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방목을 작성하고 때때로 시상을 베풀기도 하였는데, 이는 본의 아니게 성적으로 유생들을 서열화하는 결과가 되어, 유생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이가순이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범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서원에서의 과업이 유생들을 마음공부보다 문장의 수식에 치중하게 하고, 제술 방목에 들기 위해 서로를 경쟁상대로 여기게 한다면, 이는 18세기 이래 경독과 통독의 교육과정을 통해 敬의 공부론을 내면화함으로써 心學의 탐구와 실천을 표방했던 소수서원 강학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儒者로서의 본업인 ‘道學’과 현실적 요청에 의한 ‘科業’을 병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유생들로 하여금 과거공부를 하더라도 心術에 해를 끼치지 않고, 道學에 종사하면서도 科業이라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그 두 가지 공부를 조화롭게 실천해가도록 할 것인가’가 늘 최대의 난제였다. 즉, ‘강독하는 사이에 오직 화려한 문장으로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워할 만하다’고 한 위의 고백은, ‘科業과 道學의 갈등과 조화’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한, 19세기 소수서원의 지도자로서 동주 이가순이 지니고 있던 고민의 일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때 동주가 출제한 제술 試題와 방목에서 장원을 차지한 유생은 다음과 같다.

<표 19>. 1826년 通讀의 製述 試題와 壯元

날짜	詩壯元	詩題	賦壯元	賦題
11. 27	徐在愚	節要朱子書, 書자로 압운	柳 嘯	詩題와 동일
11. 28	徐在愚 徐秉烈 權載淸	貽書蔡西山磨崖刻河洛先天圖, 圖자로 압운	柳秉喆 徐雲烈	磨崖刻河洛先天圖
11. 29	徐在愚 徐秉烈	請備洞主員, 主자로 압운	柳秉喆 徐雲烈	詩題와 동일
	徐在愚 徐秉烈 權載淸 權炳孝	益張旗幟於山上爲疑兵, 幟자로 압운	金述鍊	詩題와 동일

	徐在愚 徐秉烈	獨歌離騷經一章, 經자로 압운	徐雲烈	詩題와 동일
--	------------	-----------------	-----	--------

11월 27일과 28일은 詩賦 각 한 수, 29일은 과제 전날로 특별히 3수씩 출제하였다. 대개 詩題와 賦題를 동일하게 출제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27일에는 이 날 통독에서 읽은 ‘주자서절요’를 試題로 출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시부에서 각각 장원을 차지한 유생은 대개 중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詩에서 다섯 번 모두 장원을 차지한 徐在愚는 당시 23세로, 대산 문인 徐宗胤의 증손이자 定齋 柳致明의 문인이기도 했다.

5일간의 통독에는 사친, 석교, 안동, 풍기, 영천, 영양 등에서 매일 9명 내지 26명의 유생이 참여, 동주와 훈장을 포함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마지막 과제일에는 지평 徐承烈이 운자를 내고 제생들과 수창시를 지어 서문과 함께 기록에 남기고 있다. 이 때 수창시를 남긴 사람은 동주 李家淳, 徐承烈, 李用中, 徐翰發, 柳燾, 徐成烈, 黃淵漢, 金鎭龜, 李仁浩, 安廷璜, 徐秉烈, 趙秉相 등 12명이다. 이 때 동주 李家淳이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sup>485)</sup>

백운동 죽계구곡에 옛날 분 남긴 가락 전해오고 천지에 외로운 陽氣 시월 음기를 꿰뚫었네 寶鑑은 천고의 법도를 비추고 氷壺는 한 근원의 마음 전하였네 백록서원 전통 이어 그 비결을 탐구하여 밤기운 받은 牛山 울창한 숲을 보리라 소혼대 위에서 하신 말씀 진중하게 간직하여 차례로 밟아 올라 높고 깊은 곳에 이르리라	雲溪九曲有遺音 天地孤陽透六陰 寶鑑照來千古轍 氷壺傳得一源心 芳塵鹿社探其訣 夜氣牛山見秀林 珍重消魂臺上語 好循階級到崇深
--	--

1827년은 상식년이자 9월에 증광시가 설행된 해로, 3월에는 거접을, 12월에는 거재를 개설하였다. 洞主 姜標과 講任 柳燾, 朴奎元이 12월 1일 당회를 열어 거재를 개설하기로 하고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한 뒤, 6일부터 원임들이 입재하기 시작하여 7일부터 17일까지 매일 경독, 통독, 제술을 병행하며 11일간 거재를 시행하였다. 이 때 거재에 대한 기록 역시 『講所雜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통독에서 이루어진 『中庸』 문답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講錄日記」<sup>486)</sup>를 작성하여 매우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485) 『講所雜錄』, 「講學時雜錄」, ‘講會時酬唱并小序’

486) 『講所雜錄』, 「講錄日記」.

12월 1일 당회를 마친 뒤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고, 관아에도 문서를 보내 거재 개설일을 보고한 뒤, 6일 동주와 훈장, 별임 등이 입재하여 7일부터 거재가 시작되었다. 거재가 시작되자 7일 아침에는 동주와 두 훈장이 관아에 들어가 부사에게 거재에 관한 일을 품의하고 돌아왔다. 순흥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처럼 거재의 개설 전부터 부사에게 보고하고 거재가 시작되자 거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부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날 저녁 석탄에서 ‘原任<sup>487)</sup>의 장례식 전에 거재를 설행하는 것은 미안하다’는 내용의 牌旨가 한 장 도착하였다. 즉, 전직 院任 중 한 사람이 상중에 있었는데,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서원에서 거재를 개설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서원에서는 거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중단하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이 때 그 결정의 준거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거재록’이었다. 원임들은 회의를 열어 과거에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찾아보기 위해 과거의 거재록을 살펴보다가 年前的 ‘居齋雜錄’에서 원임의 장례식을 마치기 전에 거재를 설행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原任의 본가에 회답을 전하고 결국 거재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sup>488)</sup>

이를 통해 ‘거재록’은, 거재를 운영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 결정이 필요한 순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공하는 일종의 판례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세기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거재록에 거재의 전 과정과 매일매일 있었던 일을 날짜별로 상세히 수록해둔 덕분이었다. 18세기부터 거재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의 체계는 ‘거재절목’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재의 시행 기록인 ‘거재록’에는 거재절목에 미처 다 담지 못한 현실의 다양한 변수와 상황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 논쟁의 단서를 피하기 위해 18세기부터 입원록과 별도로 처음 작성하기 시작한 거재록은, 이처럼 19세기에 실제 강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참고서로 쓰이고 있었다.

이후에는 매일 경독, 통독, 제술을 병행하였는데, 8일부터 10일까지는 큰 비와 눈이 내려 유생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相揖禮와 敬讀은 정식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선 모인 유생 몇 명과 함께 「同安縣諭學者」, 「白鹿講會書」, 「玉山講義」와 「滄洲精舍諭學者」 등 주자의 글 중 비교적 짧은 글 몇 편을 통독하거나, 주자와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수창시를 짓기도 하고, 시부 제술도 행하였으나 방목은 정식으로

487) ‘原任’은 ‘時任’에 상대되는 말로, ‘원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즉, 여기서는 전직 院任을 가리킨다.

488) 『講所雜錄』, ‘丁亥 12월’.

내지 않았다. 이후 12월 11일부터 비로소 유생들이 모여 정식으로 상읍례를 거행하고 경독과 통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7일간 통독에서는 중용 서문부터 시작해 1장부터 16장까지 강론이 이루어졌다. 매일 유생 한 사람을 시켜 돌아가면서 중용 한 장씩을 읽게 하고 각 장의 내용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은 뒤, 각 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갔다. 유생들은 단순한 어구의 의미부터 각 장의 내용 중 의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면 丈席이 대답하고, 때때로 丈席이 먼저 유생들에게 각 장의 章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講錄日記」에 상세히 수록된 이 때 중용 강회의 문답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좀 더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통독의 丈席은 동주 姜標이 맡고 있었다. 姜標(1772~1834)의 호는 松西, 안동의 진주 강씨로, 1798년 생원, 1807년 문과에 합격하여 정자, 전직, 지평, 이조정랑 등의 관직을 지냈다. 그는 젊어서 태백산 궁벽한 곳에 들어가 7, 8년간 혼자 詩書易禮와 성리서를 탐독하다가, 1811년 이상정의 문인 柳範休가 주관한 고산서당의 강회<sup>489)</sup>에 참석하고서 ‘내가 일찍이 貢學文만 익혔으나 俗學 외에 진정한 門路가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sup>490)</sup>고 하며, 이후 柳範休, 李秉運, 李秉遠, 柳致明 등 대산 문하들과 평생 교유하며 퇴계와 대산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1820년에는 李家淳을 찾아가 열흘간 학문에 대해 토론하고, 1823년에는 李家淳, 金熙周, 朴時源, 李用正 등과 함께 청량산 覺華寺에서 열린 도연서원의 거점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마치고 다시 도계서원과 삼계서원에 가서 심경과 근사록을 강론하였다.<sup>491)</sup> 1824년 10월에는 黃山寺에서 유치명, 유건휴, 유취문, 유정문, 유치호, 이병운, 이병원 등과 함께 열흘 동안 中庸을 강론하고,<sup>492)</sup> 겨울에는 鳳山書院 강회에 참석하여 제생들과 논변한 내용을 李野淳에게 질의하였으며, 이야순은 그에게 퇴계의 遺箴을 직접 써주기도 하였다.<sup>493)</sup> 또 1830년에는 사빈서원 강회에 참석하고, 1827·1828·1832년에는 소수서원 洞主가 되어 강회를 주도하는 등, 말년에는 관직에 거의 나가지 않고 여러 서원의 강회에 참석하여

489) 이 때 고산강회에서는 이상정의 문집에 있는 「率性之謂道說」, 「一性具四德說」, 「心無出入說」 등 세 편의 글에 대해 4일간 토론하였다(全丙哲,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講會와 性理說 講論」, 『東方漢文學』 38집, 2009, 43쪽).

490) “辛未壺谷柳公範休設講會於高山, 府君往聽講歸, 語人曰, 余早習貢學文未嘗說到名理是會, 李際可秉運 窩慎可秉遠所庵兄弟 柳公晦徵文好古窩 誠伯致明定齋 晦則鼎文壽靜齋 李忠立秉夏於山諸公, 迭相問難, 余聽之多日, 有省悟始知俗學之外, 自有真正門路, 自後與諸公, 交相往復, 而獲資益多矣”(『松西集』, 권 8, 「行狀」).

491) 『松西集』, 권 8, 「行狀」.

492) 권오영, 「유치명 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38쪽.

493) “嘗手書退陶遺箴以贈”(『松西集』, 권 7, 「祭李廣瀨野淳文」).

학문을 강론하고 후학을 교육하는 데 매진하였다.<sup>494)</sup> 그는 이상정의 직전 문인은 아니었으나, 이처럼 대산 문하들과의 교류를 통해 道學에 입문함으로써, 대산에게 계승된 퇴계학을 충실히 따르며 退溪集과 大山集, 朱子書를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는 退溪集과 大山集은 의리가 平實하여 마음의 병통을 다스리는 데에 매우 요긴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마음의 병통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未發과 已發의 幾微가 어느 시점 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朱子와 延平의 글에 나타난 未發, 已發에 대한 논의와 中庸의 본지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495)</sup> 그는 또한 中庸首章의 ‘不睹不聞’에 대해, ‘不睹不聞은 감각기관이 외면의 자극에 접촉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未發 시에는 이 마음이 湛然하여耳目이 보고 듣는 것이 精明하지만 특별히 萬事가 아직 싹트지 않아 보이고 들리는 聲色이 없음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sup>496)</sup> ‘不睹不聞을 思慮未萌’으로 파악한 대산의 중용 해석<sup>497)</sup>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1832년에 ‘從吾軒’이라는 서재를 짓고 朱子書 연구에 침잠한 끝에 『朱書筭疑』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1827년 통독에서 「玉山講義」등 주자의 글과 『中庸』을 강론한 것은 이와 같은 洞主 姜樞의 학문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 중 「同安縣諭學者」<sup>498)</sup>와 「滄洲精舍諭學者」<sup>499)</sup>는 주자가 동안현과 창주정사의 유생들에게 학문의 길과 방법을 제시한

494) 『松西集』, 권 8, 「行狀」.

495) 『松西集』, 권 4, 「答柳耳仲庚寅」.

496) “中庸所謂不觀不聞者, 非謂外面聲色之來, 合眼塞耳, 無所觀聞之謂也. 未發之時, 此心湛然淵然, 耳目見聞, 自當精明, 而特以萬事皆未萌芽, 泯然無可聞可見之聲色云爾”(『松西集』, 권 4, 「答柳耳仲庚寅」).

497) “살피보건대 마음의 본체는 적연히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이치를 포함하고 있다가 감발하여 통하게 되면 큰 작용이 유행한다. 적연히 발하지 않아 사물이 접촉하지 않고 생각이 싹트지 않으면 깨닫기 볼 수 있는 형체가 없고 아득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없으며, 발하게 되어 생각이 싹트고 기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신에게는 보이고 들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의미의 ‘不睹不聞’ 네 글자는, 마음이 발하지 않아 적연하여 아무런 소리와 형체가 없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며 애초 바깥에 소리와 형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마음이 맑으며 허명하고 洞徹하여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와 형체가 더욱 분명해져 어지럽지 않으니, 어찌 보고 듣는 것이 전혀 없는 때가 있겠는가. 이 대목은 극히 정밀하고 은미하여 말에 쉽게 착오가 생기니, 주자의 여러 말들을 가려내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강론해야 한다.”(“按此心之體 寂然不動而萬理含具 及感而遂通而大用流行 方其寂而未發也 事物未接 思慮未萌 則泯然而無形可睹 杳然而無聲可聞 至其將發也 思慮初萌 幾微始動 則己之所睹聞而他人之所不能睹聞也 然則此不睹不聞四字 當就此心未發寂然無聲形處說 初不干外面聲色之有無也 夫未發之時 此心湛然 虛明洞徹 凡聲色之入耳過目者 益精明而不亂 豈有全無睹聞之時哉 大抵此處極是精微 說得易差 故採摭朱子諸說 以與同志者講焉”, 『大山集』, 권 39, 雜著, 「中庸戒慎不睹恐懼不聞疑義」).

498) 이 글에서 주자는 과거공부에만 전념하는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옛 사람의 爲己之學을 진정으로 깨달아 공자가 말한 ‘欲罷而不能’의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유시하고 있다(『朱子大全』, 권 74, 「同安縣諭學者」).

499) 이 글에서 주자는 사서삼경과 程子, 張子의 여러 책을 반복, 숙독하고 心身上에 나아가 착실하게 실천하여 道에 들어간 뒤에야 비로소 스승을 구해야만 질정을 받고 오류를 고칠 수 있으며, 학문의 성취

글이며, 「玉山講義」는 주자가 65세 되던 해에 관직에서 해임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산 수령의 초청으로 옥산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중 특히 「玉山講義」는 仁義禮智의 관계, 性과 情, 體와 用, 未發과 已發 상에서의 仁義禮智의 존재 양상 및 爲己之學과 尊德性의 실천적 공부론의 강조 등 주자의 만년 이론을 매우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sup>500)</sup> 이상정과 그 문인들이 매우 중시하며 강회에서 자주 강론하곤 하였다. 그 중 공부론에 있어 「玉山講義」에 제시된 주자 만년 사상의 핵심은 ‘道問學보다 尊德性을 우선시’ 함으로써,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501)</sup> 이상정은 옥산강의를 읽고 그 핵심을 직접 도설로 만들어 「玉山講義圖」를 그렸으며,<sup>502)</sup> 이자순은 스승의 도설에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上圖에는 이상정의 도설을, 下圖에는 자신이 직접 그린 도설을 수록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기도 하였다.<sup>503)</sup> 또한 이상정의 외증손으로 이상정의 학문을 계승하여 19세기 안동유림의 宗匠으로 활동하던 柳致明도 1846년 고산서당에서 유생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옥산강의를 강론하였으며, 유치명의 문인 金興洛도 1891년 호계서원에서 옥산강의를 강론하였다. 유치명은 옥산강의 중에서도 ‘爲己’ 두 글자가 학자가 立心하는 가장 제일의 길이라고 하며, 이른바 ‘爲人’이라는 것은 功名과 利錄의 따위일 뿐 아니라 만일 이 학문에 종사하여 털끝만큼이라도 向外的 생각이 있다면 일신이 문득 빈 껍질이니, 지금 向外와 爲人의 마음을 버리고 오로지 ‘反己’에 힘써, 일상생활에서 이 ‘爲己’ 두 글자로 통렬하게 스스로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504)</sup> 이를 통해 옥산강의 중에서도 대산 문인들의 관심사는 주로 ‘학자가 立心하는 최선의 길로서의 爲己之學’, 즉 실천적 공부론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27년 소수서원의 거재에서 옥산강의를 통독한 것은, 洞主 姜樸이 속해 있던 이상정 문하의 이와 같은 학문적 분위기를 계승한 것이었다.

한편, 이 때 거재에서는 통독 외에 제술도 매일 시행하였다. 제술 시제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순흥부사가 출제하고, 나머지는 서원에서 출제하였으며, 매일 詩賦 1, 2 수씩 출제하여 방목을 내고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罷齋를 기념하여 특별히 詩賦疑 3 수를 출제하였다. 그런데 보통 파재일의 시제 출제는 순흥부사에게 부탁하던 평소의

를 바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朱子大全』, 권 74, 「滄洲精舍論學者」).

500) 『朱子大全』, 권 74, 「玉山講義」.

501) “學者於此 固當以尊德性爲主 然於道問學 亦不可不盡其力”(『朱子大全』, 권 74, 「玉山講義」).

502) 『大山集』, 권 39, 雜著, 「玉山講義圖」.

503) 『廣瀨集』, 권 7, 雜著, 「玉山講義圖」.

504)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17~331쪽.

관행과 달리, 이 날의 시제는 의도적으로 동주 강운이 직접 출제하고 있다. 16세기부터 소수서원의 거접이나 거재의 마지막 날에는 보통 ‘罷接禮’라고 하여, 終講을 기념하고 유생들의 공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술 시제의 출제를 지방관에게 부탁하는 관례가 있었다. 이에 과접일이나 과재일에 지방관은 시제의 출제와 함께 酒饌을 베풀기도 하고, 서원에 방문하여 유생들과 직접 경서를 강론하기도 하며, 詩賦 외에 疑義나 策을 추가로 출제하여 제술도 평소보다 큰 규모로 거행하고 지방관이 직접 考試하여 시상을 베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관의 참여는 그 자체로 매우 효과적이어서, 유생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지방관이 제술을 직접 주관하는 과재일에는 보통 평소의 2~3배에 달하는 많은 유생들이 몰려들곤 하였다. 그런데 유생들의 참여를 증대시키고 서원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서원에서도 권장해왔던 지방관의 제술 참여는, 언제부터인가 유생들의 경쟁을 과열시키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한 해 전 동주 李家淳도, 거재나 통독에서 제술을 병행하고 방목을 작성하여 유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결국 유생들에게 선후를 다투는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道學 공부에 누를 끼칠까 부끄럽고 두렵다고 하였는데, 부사가 주관하는 과재일의 제술 행사는 결과적으로 그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서원에서 제술을 행하고 일부를 선발하여 방목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경쟁은 어디까지나 道學을 공부하는 서원 유생들의 心術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선의의 경쟁’이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고 점점 ‘과열화’된다는 데 있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유생이 科業을 준비하고 있던 서원의 현실에서 제술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절충안은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과열화’를 막고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시키되 그 경쟁이 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있었다. 동주 강운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시험을 통해 시험의 폐해를 비판하게 하는’ 寓意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다. 이는 한편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사려 깊은 묘책이었다. 그는 과재일의 제술 시제를 부사에게 부탁하는 대신 자신이 직접 시제를 출제하기로 하고, ‘경쟁’, ‘義와 利’를 주제로 하여 ‘爭’자로 압운하는 시제를 출제함으로써, 유생들 스스로 경쟁의 폐해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sup>505)</sup> 이때 그가 출제한 시제는 다음과 같다.

505) “凡官題三首 各以長短 抽牲較藝 互有勝負 故其夜製 山長出詩賦題 皆有爭字 盖寓意也”(『講所雜錄』, ‘丁亥 12월 16일’).

詩題: ‘其爭也君子(그런 경쟁이 군자의 것이다), ‘爭’자로 압운

賦題: ‘月使之爭 殊非教養之道(달마다 경쟁하게 하니 이는 선비를 가르치고 기르는 도리가 전혀 아니다)’

疑題: ‘問子罕言利 程子曰 計利則害義 聖人不必言 而其所罕言者 何歟(묻는다. ‘공자는 리에 대하여 드물게 말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정자가 말하길 ‘이익을 따지면 의리를 해친다’고 하였다. 성인은 꼭 말을 하는 분이 아닌데, 드물게 말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sup>506)</sup>

詩題의 ‘其爭也君子’는 『論語』의 ‘군자는 경쟁하는 일이 없으나 반드시 활쏘기에서는 경쟁한다. 읍양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 술을 마시니, 그것이 군자의 경쟁이다’<sup>507)</sup>에서 인용한 것이며, 賦題의 ‘月使之爭 殊非教養之道’는 『小學』의 ‘학교는 禮義를 가장 우선시 하는 곳인데, 달마다 시험으로 경쟁하게 하니 이는 선비를 가르치고 기르는 도리가 아니다. 청컨대 시험을 과제로 바꿔 혹 이르지 못한 유생이 있거든 학궁에 불러 가르치게 하고, 다시는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유생들을 정해서는 안 된다’<sup>508)</sup>에서 인용한 것이다. 강운은 ‘군자의 경쟁과 소인의 경쟁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논어의 구절과 ‘학교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는 경쟁이 아니라 먼저 禮와 義를 익히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언급한 소학의 구절을 인용하여 시와 부에서 모두 ‘爭’자를 주제로 출제하고 있다. 즉, 당시 과열화된 경쟁에 사로 잡혀 있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깊이 성찰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유생들에게 제술시험으로 경쟁을 시키면서도 동시에 경쟁의 폐해에 대한 글을 직접 쓰게 하여,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유생들 스스로 글을 짓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기를 꾀한 고도의 전략이자 매우 우의적인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16세기 퇴계가 ‘서원에서든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땅히 내외본말·경중·원급의 순서를 알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科業과 道學을 병행하되, 科業이 서원 강학 본래의 목적인 道學에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두 가지 공부가 최대한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동주 강운은 科業으로 인해 유생들의 경쟁이 과열화되는 순간, 유생들 스스로 경쟁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성찰하게 함으로써, 과업을 통해 利를 추구하다가 義理를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시에 이때 거재에서 동주 강운이 유생들과 치열하게 강론했던, ‘未發

506) 『講所雜錄』, ‘丁亥 12월 17일’.

507)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論語』, 「八佾」).

508) “伊川先生看詳學制 大概以爲學校 禮義相先之地 而月使之爭 殊非教養之道 請改試爲課 有所未至 則學官召而教之 更不考定高下”(『小學』, 「善行」).

과 已發의 幾微를 살피 人心과 道心の 경계에서 人心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중용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寓意적 試題에 대해 유생들이 제출한 답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지 매우 궁금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해 거재의 제술에서 출제된 시제와 장원을 차지한 유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826년 통독 중 詩에서 다섯 번이나 장원을 차지했던 徐在愚는 이 해 거재에서도 역시 詩에서 다섯 차례나 장원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표 20>. 1827년 居齋의 製述 試題와 壯元

날짜	詩壯元	詩題	賦壯元	賦題
12. 8	無榜目	*	無榜目	其傑然者 乃爲干祿蹈利
12. 9	*	*	柳斗喆	·言未已 ·愀然如復見文王' 黃世鱗
12. 10	無榜目	一首句在無言處, 言자로 압운	無榜目	詩題와 동일
12. 11 <sup>509)</sup>	鄭光渠 權載清 朴進秀 柳日殷	·我文王之子 武王之弟 今王之叔父, 我자로 압운 ·其少時 及魏公子無忌爲客, 少자로 압운	鄭光渠 權載清 朴進秀 柳日殷	詩題와 동일
12. 12	無榜目	復得夫子之孫子思	無榜目	詩題와 동일
	徐在愚	不得已而之景丑氏, 己자로 압운	徐鳳烈 徐雲烈 鄭光渠	不遇故去 豈予所欲
12. 13	徐在愚	垂衣裳而天下治 盖取諸乾坤, 取자로 압운	洪鑿	詩題와 동일
	徐在愚	觀上顏色 時時直諫, 觀자로 압운	鄭光渠 柳箕喆	詩題와 동일
12. 14	徐在愚	賡載歌爲三百篇權輿	李象斗 徐雲烈 柳日殷 鄭昌周 鄭光渠 柳噉 柳秉喆	入德門
12. 15	無榜目	伐中門卒 衛青笑相者說封侯, 封자로 압운	無榜目	穎陰促騎 賈山上書
	徐在愚 徐秉烈	咏綿綿瓜瓞 比周人先小後大	權勉恒 金永周 徐雲烈 柳日殷	春秋教以禮樂 冬夏教以詩書
12. 17	無榜目	其爭也君子, 爭자로 압운	無榜目	月使之爭 殊非教養之道
	柳秉喆	*疑題: 問子罕言利 程子曰 計利則害義 聖人不必言 而其所罕言者 何歟		

11일 간 거재에는 본부 외에 풍정(봉화), 예천, 안동, 영천 등에서 매일 1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총 100명의 유생이 참석하였으며, 순흥향교 도유사 및 이 해 진사시에 입격한 예천의 金哲濬이 신은 차 방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해 봄 순제에서 원장을 겸임하기도 했던 순흥부사 金祖淵은 14일 서원에 시부 시제와 함께 예리를 보내 黃內 2근, 白餅 1동이를 보내 거재를 지원하고, 15일 오후에는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원임 및 유생 몇 명과 함께 광풍대-취한대-반계-영귀루를 둘러본 뒤 수창시를 짓고 저녁에 돌아갔다.

1832년에는 講會가 개설되었다. 柳致明의 연보<sup>510)</sup>에 따르면, 이 해 9월 소수서원에서 열린 강회에 유치명이 참석하였다. 柳致明(1777~1861)의 호는 定齋, 안동의 전주 유씨이자 이상정의 외증손으로, 20세까지 이상정의 문인이자 종증조부 柳長源 문하에서 柳健休, 柳徽文, 柳鼎文 등과 함께 수학하고, 21세에는 역시 대산 문하인 남한조의 문인이 되어 이상정의 학문을 전수받았다. 1805년 문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855년 장헌세자의 추존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당한 이후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 晚愚亭을 지어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며 만년을 보냈다. 그는 이상정의 학문을, 이상정이 거주하던 '蘇湖里'에서 따와 '湖學'으로 규정하며 영남의 퇴계학과 내에서도 독자적 학풍을 형성하고, 이상정의 학통을 계승하여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안동유림의 종장으로 활동하며 李震相, 金道和, 金興洛, 李敦禹, 權璉夏, 柳必永 등 많은 문인을 길러냈다.<sup>511)</sup> 1842년 2월에는 초산부사를 하다 귀향한 뒤<sup>512)</sup> 3월부터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1832년 講會 개설 당시 원장은 柳焘이 맡고 있었다. 柳焘(1770년생)은 1804·1812·1817년 별유사를 지내고,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재 등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도 꾸준히 참여하였으며, 유희문, 이병운, 유치명, 유정문, 조승수 등 이상정 학맥과 교유한 인물이다. 이와 같이 이상정 문인들과 밀접한 교유관계에 있던 柳焘이 원장으로 주관하고, 이상정 학문의 적통을 계승한 유치명이 참석한 것으로 볼 때, 이 해 강회 역시 대산 문하의 인물들이 주도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때의 강회에 대한 기록은 유치명 연보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849년 12월에는 通讀이 개설되었다. 이때의 통독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통독에 참여한 朴宗堧와 徐在愚가 남긴 시를 통해 당시 통독이 개설되었

509) 이 날은 시부 장원을 함께 기록하여 시장원과 부장원을 구별할 수 없어 동시에 수록하였다.

510) 『定齋集』, 附錄, 권 1, 「年譜」.

511) 권오영, 「유치명 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36~352쪽.

512) 『定齋集』, 附錄, 권 1, 「年譜」.

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朴宗堧는 이때 통독에 참여하여 지은 수창시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興州의 사우들이 소수서원에서 文會를 열었다. 이는 徐際應·洪士直이 일을 주관한 것이었는데, 친구들의 부름에 못 이겨 나도 가서 참석하였다. 아침마다 敬齋箴과 白鹿洞規를 경독하고 또 延平問答書를 강독하였다. 강독을 마치고는 詩賦 제목을 내었고, 3일째 되는 날 對策文으로 시험하고 그 이튿날 마쳤다. 상사 金宗得이 운자를 내어 먼저 시를 지었으므로 나도 즐림함을 잊고 뒤에 화답하였다.”<sup>513)</sup>

이를 통해 徐雲烈(徐際應)과 洪鑿(洪士直)의 주관 하에 개설된 3일간 통독에서 매일 경독, 통독, 제술을 병행하고, 통독에서는 延平問答書를 강독하였으며, 과제일에는 策文으로 제술하고 수창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徐在愚가 남긴 시의 서문에 따르면, 徐雲烈과 洪鑿은 당시 통독에서 講任을 맡고 있었고, 이때 통독은 洪鑿이 마련한 재정을 바탕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해 통독에 참여했던 徐在愚는 당시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근자에 들으니, 백운동서원의 학자금이 고갈되고 부채만 쌓여, 한 고을 사우들로서 애쓰지 않은 이가 없지만 강학을 계속할 자금이 없어 마침내 손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洪老雲 어른이 마침 강임을 맡아 백방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힘을 다하여 보조하여 본소에 내려오던 빚 3백여 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참으로 선비다운 일이다. 마침내 읍시 한 수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한다.”<sup>514)</sup>

당시 소수서원은 강학 재정이 고갈되었을 뿐 아니라 부채까지 쌓여 강학이 중단된 지 오래였는데, 講任 洪鑿이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강학을 비로소 재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9세기 중반 무렵 소수서원의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소수서원은 ‘아홉 달의 분향 비용과 묘직의 아침 식사비용까지 합하여 총 쌀 석 되의 예산밖에 배정하지 못할 만큼’,<sup>515)</sup>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다. 그나마도 洪鑿의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통독은 3일밖

513) “興州士友設文會于紹修書院 徐際應洪士直主其事 余爲諸勝勸速 亦往參焉 每朝讀敬齋箴白鹿洞規 又講延平問答書 講罷出詩賦題 第三日 以大對試 翌日罷會 金上舍宗得拈韻先成 余亦忘拙尾和”(『惺庵遺稿』, 「紹修書院次會中韻」).

514) “近聞雲院學廩空虛 債負堆積 一鄉士友孰不賢勞 而無麵飢餓 卒難著手 老雲洪丈適當講任 多般拮据 極力補助 本所由來債三百餘金 一并了勘 儘儒者事也 遂賦一律 以記其實”(『耘齋遺稿』, 권 10).

515) “自春至九月朔 焚香支費 以三升料分排 而廟直朝糧并入 其他傳掌錄尋眞錄 姑爲匿藏云 院廩之蕩竭前債之浩大 推此可想 但設立後三百餘年 目見似此光景 衣儒冠儒者 不必責人而所當自反處也”(『耘齋遺稿』, 권 9).

에 운영되지 못하였고, 이 해 통독을 끝으로 19세기 거재나 통독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당시 원장은 순흥부사 李允植이 겸임하고 있었다. 講任으로 강학 재정을 마련한 洪鑿(1804~1865)은 자가 士直, 호는 老雲, 영천 단산의 남양 홍씨로, 유치명의 문인이다. 1827년 거접과 거재, 1828년 문회, 1835년 백일장 등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고, 1842~1844년에는 소수서원 별유사를 역임하였다. 1848년 사마시에 입격하였으나 이후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유치명 문하에서 평생 학문에 종사하여 「太極圖說解」·「心統性情圖說解」·「東銘解」·「西銘解」 등을 지었으며, 이 해 통독에 훈장으로 참여하고 1861년에는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문집으로 老雲集 3책이 있다.<sup>516)</sup>

洪鑿과 함께 강임을 맡은 徐雲烈(1806~1866)은 영천의 달성 서씨로, 1826년 통독과 순제, 1827년 거접과 거재, 1828년 문회 등 20세 무렵부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고, 특히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재의 제술에서는 모두 세 차례나 賦 장원을 차지하였다. 1847~1850~1851년 별유사를 지내고 이 해 통독에 훈장으로 참여하였으며, 권연하가 행장을, 이돈우가 묘갈명을 짓는 등 유치명 문인들과 교류하고, 그의 아들 徐在正도 유치명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sup>517)</sup>

이 해 통독에 참여하여 시를 남긴 朴宗堧와 徐在愚 역시 유치명 문인이었다. 朴宗堧(1792~1864)는 영천의 반남 박씨로 16세기 풍기군수를 역임했던 朴承任의 후손이자 逸圃 朴時源의 아들이다. 유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주자와 퇴계가 쓴 敬에 대한 학설을 모아 유치명에게 보이자 유치명은 ‘敬彙’라고 題名하고 직접 발문을 써주었다. 1855년 생원시에 입격하였으며, 金興洛이 행장을 지었다.<sup>518)</sup>

徐在愚(1804~1879)는 영천의 달성 서씨, 대산 문인 徐宗胤의 증손이자 유치명의 문인이다. 1831년 진사시에 입격한 뒤 대과를 단념하고 유치명의 문인이 되었으며, 1855년 유치명이 유배 갈 때 배종하다가 유치명의 만류로 돌아왔다.<sup>519)</sup>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고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재의 제술에서는 詩 장원을 다섯 번 차지하였으며, 1841~1847~1850년 별유사를 거쳐 1862년 소수서원 원장을 지냈다.

또 과제일에 수창시의 운자를 낸 상사 金宗得은 金輝德을 가리킨다. 金輝德

516) 『榮州市史』,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599쪽 ; 『定齋門人錄』.

517) 같은 책, 299쪽.

518) 같은 책, 271쪽 ; 『定齋門人錄』.

519) 같은 책, 298쪽. 그러나 徐在愚는 定齋門人錄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788~1862)은 자가 宗得, 영천의 선성 김씨 金樂顏의 아들이다. 1815년 소수서원 동주였던 金熙周의 문인이자 대산의 제전문인이다.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 꾸준히 참여하고, 1825년 생원시에 입격, 1821·1827·1830년 별유사를 거쳐 1848년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1849년 통독은 주로 유치명 문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통독에서 강독한 ‘延平問答書’란 『延平答問』을 말한다. 『延平答問』은 주자가 스승 李侗을 처음 만난 뒤 7년간 주고받은 문답을 편집하여 간행한 것으로, 송대 1214년에 초간된 이래 명대까지 여러 차례 중간되고, 조선에서는 1518년 사은사로 북경에 다녀온 김안국 등이 이 책을 구해와 조정에 소개한 뒤, 1554년 퇴계의 제안으로 청주목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sup>520)</sup> 주자는 28세에 李侗을 처음 만나 二程 이래 북송유학의 학문전통과 공부론의 핵심을 전수받고, 李侗이 던져준 ‘회로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의 기상을 구하라(未發氣象體認)’는 평생의 화두는, 만년의 주자에게 中和舊說에서 中和新說로의 전회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다. 퇴계는 주자대전을 구하여 읽기 시작한 지 10년 만인 1553년에 비로소 『延平答問』을 처음 본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병중에 이 책의 앞뒤를 살펴보니 마치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같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것을 얻은 것과 같았다. 비록 그 내용의 범위는 쉽게 엿보지 못하겠지만, 吾學과 禪學은 동일한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 이르러서 알 수 있고, 본원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그 힘쓸 곳을 얻은 것 같다.”<sup>521)</sup>

즉, 퇴계는 주자대전을 탐독한 지 10년 만에 『延平答問』을 구해보고 비로소 주자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또 퇴계가 ‘본원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그 힘쓸 곳을 얻은 것 같다’고 한 것처럼, 『延平答問』에서 이동이 주자에게 강조한 가장 핵심적인 공부법은 바로 ‘涵養’ 공부에 있었다. 그리고 이동이 강조한 함양공부의 특징은 禪學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한 데 있었다. 퇴계는 이듬 해 간행된 『延平答問』의 발문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대개 회암부자가 연평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釋老의 사시를 드나들었는데, 뒤에 연평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학문이 비로소 平實 해져서 끝내는 千載道統의 전함을 얻었다. 이것

520) 이봉규, 「『延平答問』 논의를 통해 본 退溪學의 지평」, 『동방학지』 144, 2008, 177~185쪽.

521) “病中因竊窺其首末 如盲得視 如渴得飲 雖未易測其涯涘 而吾學與禪學 似同而實異之端 至是可知 而涵養本原 似若得其用力之地矣”(『退溪集』, 권 43, 跋, 「延平答問後語」).

은 회암이 여러 책을 절충하여 斯道를 천하에 크게 밝힌 것인데, 모두가 연평선생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그 주고받은 心法의 妙가 이 책에 모두 갖추어져 있다. 지금 그 말을 문득 읽어보면 平淡質慤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뜻은 精深浩博하여 범위를 엿볼 수 없다. 그 지극한 면을 추구해보면 가히 밝음은 日月과 맞먹고 심오함은 造化에 참여할 만하나, 그 用功처는 항상 日用수작, 동정어묵의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는 연평 선생의 ‘靜坐求中說’이 탁월하여 禪學에 빠지지 않았으며, 大本達道가 모두 관통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 周선생과 程선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1~2대를 전해오던 大義가 이미 무너졌으니, 연평선생이 아니었으면 그 누가 도통을 얻어 올바른 길로 되돌릴 수 있었겠는가. 성인의 온축된 인덕을 발휘하여 만세토록 무궁히 가르치는 분은 顏子인데, 연평선생이 거의 안자에 가깝다.”<sup>522)</sup>

연평의 心法은 밝기가 日月과 같고, 심오하기가 천지의 조화에 참여할 만하지만, 실제 그 用功처는 일상생활의 실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靜坐하여 中을 구하는’ 연평의 함양 공부법이 禪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오히려 禪學에 빠질 뻔한 주자를 儒學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523)</sup> 즉, 靜坐를 통해 未發 시의 涵養 공부를 강조한 연평 공부법의 특징은 다름 아닌 ‘일상에서의 실천’을 그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연평은 주자의 공부에 대해 ‘靜處에서의 공부가 動處에서 지속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주자에게 일상에서 공부를 착수해야 함’을 매우 강조하였다.<sup>524)</sup> 즉, 연평이 강조한 함양공부는 ‘動靜을 관통하는 공부법’이었으며, 함양공부와 일상의 실천은 곧 ‘삶 속에서 막히고 어긋나는 경우가 없이 타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融釋>과 <灑落>의 경지’<sup>525)</sup>를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이상정도 연평답문에 나타난 연평의 실천적 학문 경향을 매우 중시하여,

522) “夫晦菴夫子 未見先生之前 猶出入釋老之間 及後見先生 爲學始就平實 而卒得夫千載道統之傳 是則凡晦菴之折衷羣書 大明斯道於天下者 皆自先生發之 而其授受心法之妙 備載此書 今驟讀其言 平淡質慤 若無甚異 而其旨意精深浩博 不可涯涘 推其極也 可謂明竝日月 幽參造化 而其用功親切之處 常不離於日用 酬酢動靜語默之際 此先生靜坐求中之說 所以卓然不淪於禪學 而大本達道 靡不該貫者也 嗚呼 周程既往 一再傳而大義已乖 微先生 孰得而反之正乎 發聖人之蘊 教萬世無窮者顏子也 而先生庶幾近之”(『退溪集』, 권 43, 跋, 「延平答問跋」).

523) 주희는 처음 李侗을 만났을 때에 “천하의 리는 하나일 뿐이다”라는 말을 이용해 유교와 불교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는데, 李侗은 理一分殊를 가지고 주희로 하여금 철저히 佛學을 버리도록 이끌었다. 李侗의 견해에서 보면 고요히 앉아 만물이 일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경지에서는 유학과 禪學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지만, 구체화된 인륜의 일상생활의 分殊상에서는 비로소 유학과 이단의 구별이 명백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李侗은 이일과 분수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유자가 지녀야 할 기상’이라고 강조하였다(陳來, 이중란 외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295~298쪽).

524) “蓋尋常於靜處體認下工夫 卽於鬧處使不著 蓋不曾如此用功也 自非謝先生確實於日用處使下工夫 卽恐明道此語亦未必引得出來此語錄 所以極好玩索近方看見如此意思顯然 元晦於此更思看如何 唯於日用處使下工夫 或就事上便下工夫 庶幾漸可合爲己物 不然只是說也”(『延平答問』, 「辛巳八月七日書」).

525) 강신주, 「주희(朱熹)와 이통(李侗)-『연평답문(延平答問)』의 구성과 이통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21, 2005, 66~72쪽.

“근래 연평답문을 보았는데, 이 노인은 온통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를 하여 體와 用이 합치 되고 마음과 일이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건대 평소에 이런 뜻이 전혀 없 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가 귀결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늙어서 쓸모없는 저를 경계 삼아 여 기에 마음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sup>526)</sup>

라고 하며 스스로 자성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또한 문인들에게 항상 ‘일상의 실천 을 강조하여 말 뿐인 학문이 되지 않도록’ 주자에게 충고했던 연평의 글귀를 인용하 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공부를 강조하였다.<sup>527)</sup> 특히, ‘연평 선생의 한 마디 한 구절 은 오묘한 도와 정미한 의리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대의와 관계없는 단편적인 끊어진 말이라 하여 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528)</sup>라고 하며, 주자대전 등 여러 글에서 직접 연평의 말을 채록하여 연평답문 뒤에 덧붙이고 ‘續錄’이라 이름한 뒤 발문을 짓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19세기 소수서원의 통독 교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종의 공통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心學의 실제적 지침을 제시한 『朱子書節要』, 理一分殊의 취지와 仁의 실천을 강조한 「西銘」, 爲己之學을 강조한 「同安縣諭學者」, 스승을 구하기 전에 먼저 心身上의 착실한 실천 공부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 「滄洲精舍 諭學者」, 仁의 의미와 爲己之學 및 尊德性的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한 「玉山講義」, 未發 시 戒愼恐懼와 已發 시 愼獨 공부를 강조한 『中庸』, 涵養공부를 통해 일상에 서의 실천을 강조한 『延平答問』 등은 모두 ‘爲己之學의 공부론’, ‘마음공부를 통한 仁의 실천’과 ‘함양공부를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초점을 둔 것으로, 19세기 소 수서원 강학이 ‘실천적 학문’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실 천적 학문 경향은 동시에 이상정이 지향했던 학문, 이른바 ‘湖學’의 학문적 특징이기 도 했다. 즉,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주로 이상정과 유치명 문인들이 동주나 강 임을 맡아 강학을 주도함으로써, 강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湖學의 학풍이 계승되고 있 었음을 볼 수 있다.

1849년 이후 거재나 통독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1900년의 거재절 목<sup>529)</sup>이 한건 남아 있다. 1900년은 실제 거재의 시행 기록은 없지만 거재가 개설될

526) “近見延平答問 此老全就日用處下工夫 使體用合 心與事一 自顧平日全欠此意思 所以許多年無歸宿處 幸以老廢爲戒而試加意焉 如何”(『大山集』, 권 26, 書, 「答金道彥兄弟 丙申」).

527) 『大山集』, 권 9, 書, 「答崔汝浩」; 같은 책, 권 22, 書, 「答李學甫 辛未」; 같은 책, 권 27, 書, 「答權支國 癸未」; 권 29, 書, 「答申子長 庚寅」; 같은 책, 같은 곳, 「答金直甫 丁丑」 등.

528) “夫先生一言一句 莫非妙道精義之所寓 豈可以零碎斷爛非大義所係而不之取乎 少讀是書 輒隨手箚錄 得若干條 附于補錄之後 爲續錄云”(『大山集』, 권 45, 跋, 「延平答問續錄識」).

때마다 절목을 마련했던 18세기 관행으로 볼 때, 이때에도 절목에 의거하여 거재가 개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 거재절목은 金東鎭(1867~1952)이 작성하였다. 절목에서는 거재 유생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양식을 지참하고 소학 이상을 읽은 자에게 입원을 허락하였으며, 가난하여 양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삭망 강회 때 와서 강의를 듣도록 하였다. 즉, 거재 외에 매달 삭망 분향례 때에도 당일로 강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다. 독서 순서에 대해서는 ‘소학으로 터를 닦고, 대학으로 터 위에 재목을 세워야’ 하니 반드시 소학과 대학 두 책을 먼저 통한 뒤에 다른 책을 읽도록 하고 있다. 거재절목을 작성한 金東鎭(1867~1952)은 영천의 선성 김씨, 金興洛의 문인으로 이 해 소수서원 거재절목을 작성하고 1805년에는 별유사, 1927, 1944년에는 원장을 지냈다. 1908년에도 훈장으로 소수서원에서 강학하면서 자신의 공제비용은 직접 충당하고 가난한 생도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강학했다고 한다. 일제시기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파리장서사건에 서명한 137명의 유생 중 한 명이며, 이상정-유치명-김홍락으로 이어진 영남의 도학을 계승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sup>530)</sup> 이와 같이, 1900년에도 湖學의 학맥에 속한 인물이 여전히 소수서원 강학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세기 소수서원 거재와 통독의 개설 현황 및 통독 교재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19세기 居齋·通讀의 운영 현황

분류	개설 기간	참여 인원	통독교재	院任 및 訓長
通讀	1801. 12. 7 ~12. 22	*	朱子書節要	院長 權思浩 訓長 權思浩, 成彥根
	1808년 4월 (4일간 개설)	*	聖學十圖	洞主 柳範休 別任 李宗協, 黃周翰
居齋	1810. 11. 29 ~12. 22	총 110명	敬讀과 개별 讀書만 시행	洞主(訓長) 成宗魯 別任 金樂顏, 柳燾
	1813. 12. 7 ~12. 18	총 109명	敬讀과 개별 讀書만 시행	院長府使 柳季麟 訓長 前洞主 孫思百, 金熙發
	1815. 11월	*	*	洞主 金熙周 講所訓長 金樂顏 居齋都訓長 成彥根

529) 『貞山集』, 「紹修書院居齋節目」.

530) 『榮州市史』,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120쪽.

通讀	1818. 3월	30~40명	上沈方伯書 西銘	洞主 李泰淳 丈席(訓長) 李野淳
	1826. 11. 19 ~11. 30	총 53명	朱子書節要 通鑑節要	洞主 李家淳 訓長(講任) 宋相奎, 徐幹發
居齋	1827. 12. 7 ~12. 17	총 100명	白鹿講會序 同安縣諭學者 滄洲精舍諭學者 玉山講義 中庸	洞主(丈席) 姜樑 講任 柳燾, 朴奎元 別任 鄭光柱, 徐東烈
講會	1832. 9월	*	*	院長 柳焄(柳致明 참석)
通讀	1849. 12월	*	延平答問	院長府使 李允植 講任 徐雲烈, 洪壁
居齋	1900	*	*	金東鎭(거재절목 작성)

## V-3-2. 1827년 『中庸』 講會의 특징

1827년 거제에서 있었던 中庸 講會에 대한 문답은 「講錄日記」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강회에서의 주요 쟁점과 문답 방식, 유생들의 학문 수준, 洞主 姜樞의 역할과 학문적 특징 및 대산 학맥 내에서의 중용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중용 강회는 사후 대산 문하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柳徽文<sup>531)</sup>은 중용 강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후 강운에게 편지를 보내, 산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강회에 참석하지 못해 한스럽다고 하며 강회에서 있었던 강론과 토론 내용을 기록한 강회록을 구해보기를 청하고, 전해들은 바를 바탕으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견해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sup>532)</sup> 이를 통해 당시 대산 학맥 내에서 서원 강회가 지니고 있던 사회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즉, 서원 강회는 당시 대산 학맥 내의 학문적 분위기와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정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柳徽文은 당시 대산 문하들 사이에서 개진되던 다양한 학문적 해석과 변론 사이에서 강운이 이를 조정하고 하나로 수렴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sup>533)</sup> 따라서 이때 중용 강회에서 오간 문답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고, 토론이 어떤 방식으로 귀결되었으며, 강운은 동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 柳徽文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講錄日記」에 나타난 중용 서문과 1장부터 16장까지 각 장별 문답의 주요 내용과 쟁점, 동주 강운의 역할과 학문적 특징 및 대산 학맥 내에서의 중용 해석상의 견해 차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講錄日記」에 따르면, 문답에 직접 참여한 유생은 총 16명이다. 전체 참여 유생은 매일 10명에서 8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하였으니, 문답에 직접 참여한 유생은 20%도 안 되는 셈이다. 그 중 2명은 소과 입격자, 나머지는 모두 幼學이었으며, 徐翰發(54세)과 徐成烈(45세)을 제외하면 모두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유생들이었다. 당시 동주 강운의 나이는 56세였으니, 이때 강회는 학문 수준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대개 姜樞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답에 직접 참여한 유생 16명의 명단과 연령은 다음과 같다.

531) 柳徽文(1773~1832)의 본관은 전주, 자는 公晦, 호는 好古窩이며 柳長源의 문인이다. 南漢皓·趙承粹·柳棻·李秉運·李秉遠·柳健休·柳鼎文·柳致明 등과 교유하고, 고산서당을 비롯하여 여강서원, 구계서원 등에서 평생 후진을 교육하며 『好古窩集』·『周易經傳通編』·『啓蒙通解』·『啓蒙翼要』·『啓蒙攷疑』·『近思補錄』·『近思後編』·『近思集解刪補』·『家禮攷證』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532) 『好古窩集』, 권 5, 書, 「與姜擎厦」.

533) 『好古窩集』, 권 5, 書, 「與姜擎厦樞壬申」.

<표 22>. 1827년 中庸 講會 문답 참여 유생

성명	연령	과거	성명	연령	과거
柳彝喆	23세	幼學	鄭光根	32세	幼學
洪璧	24세	幼學	柳秉喆	33세	소과
徐在愚	24세	幼學	鄭光渠	33세	幼學
柳暎	25세	幼學	金述鍊	39세	幼學
權勉中	25세	幼學	徐成烈	45세	소과
李象斗	29세	幼學	徐翰發	54세	幼學
柳箕喆	31세	幼學	柳斗喆	미상	幼學
鄭昌周	31세	幼學	徐秉烈	미상	幼學

강회는 동주 강운이 丈席을 맡고, 매일 유생 한 사람을 시켜 중용 한 장씩을 읽게 한 뒤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따금 유생들 사이에 문답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유생들이 질문하고 丈席이 대답하였으며, 간혹 丈席이 각 장의 취지나 어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생들에게 먼저 발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특히, 丈席이 던진 발문을 통해서도 그가 중용의 핵심으로 파악한 대목과 그 해석상의 특징 등을 엿볼 수 있다. 각 장별로 문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11일 중용 서문>

12월 11일은 金述鍊이 중용 서문을 읽은 뒤에 토론이 이어졌다. 유생들은 자사가 중용을 지은 이유와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수하면서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의 세 마디를 더한 이유, 人心과 道心, 博文約禮의 의미, 中庸과 大學이 心性을 함께 다루지 않고 각각 心과 性만 언급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중 人心과 道心에 대한 문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丈席은 유생들에게 ‘憂와 慮’, ‘言과 說’, ‘考와 據’의 차이를 묻고 답을 들어본 뒤 조금 미진하자, ‘言은 立言이고 說은 推說이며, 중용에서 性·道·教를 말한 것은 立言이고 그 아래 10장은 推說이며, 費隱은 입언이고 그 아래 8장은 추설’이라고 하며, 중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아울러 중용의 구조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人心과 道心에 대해서는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 없는데, 인심이 形氣의 사사로운 데서 나왔다면 성인에게도 私心이 있다는 것인지’, ‘인심과 도심은 과연 두 가지 마음인지’, ‘두 가지가 方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인심이 도심에 섞여 있다는 것인지, 도심이 인심에 섞여 있다는 것인지’, ‘인심이 위태롭다고 할 때, 위태롭다는 것(危)은 무슨 뜻인지’ 등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丈席은 성인에게도

인심이 있으나 인심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人欲이 개입되는 순간 正邪의 구별이 생기게 되며, 인심이 위태로운 것은 私欲에 빠지기 쉽기 때문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인심과 도심은 본래 두 가지 마음이 아닌데, 이를 두 가지로 여기는 것은 ‘두 가지가 방촌 사이에 있다’는 문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방촌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이며, 섞여 있는 것은 ‘心’이 아니라 ‘念’이라고 하며 ‘心’과 ‘念’을 미발과 이발 시의 마음에 대응시켰다. 그는 ‘念’자를 파자하여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人+二+心)’으로 풀이함으로써, 心을 ‘본체로서의 心’과 ‘발한 뒤의 念’으로 구분하여 마음이 未發과 已發 사이에서 발하는 찰나에 邪正과公私로 갈라져 인심과 도심으로 구분되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다. 중용 서문의 문답 중 인심과 도심에 대한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기철이 물기를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 없는데, 인심이 형기의 사사로움 데서 나왔다면 성인도 사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니, 丈席이 답하기를 “이 ‘私’자는 ‘私欲’의 ‘私’자가 아니라 ‘私親’에서 ‘私’자의 뜻입니다. 사람의 형기란 제각기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성인이라고 어찌 형기의 사사로움이 없겠습니까. 아래 글 ‘人欲之私’에서 비로소 사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性命이란 공평한 것인데 ‘正’자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들었으니 이 ‘私’자가公私에서의 ‘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유기철이 물기를 “人心과 道心은 과연 두 가지 마음입니까?” 하니 丈席이 답하기를 “마음이란 하나입니다. 어찌 두 가지 마음이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만 하나의 마음이고 밖으로 나타날 때 마음이 形氣로부터 나오면 인심이고 性命에서부터 나오면 도심입니다. 이는 역시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밖으로 나타난 뒤에 인심이 그 바름을 얻은 것이 바로 도심입니다” 하였다.

유기철이 물기를 “두 가지가 方寸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인심이 도심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도심이 인심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까?” 하니 丈席이 답하기를 “이러한 설이 마침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문제인 듯합니다. 방촌이 또 하나의 마음이라면 세 가지 마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다만 이는 形氣의 사사로움과 性命의 바름 두 가지에 대하여 정밀하게 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촌 사이에 섞여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방촌 자체가 마음은 아니고 바로 이 마음의 성곽과 같은 경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섞여 있다는 것은 바로 念의 혼잡이지, 心의 혼잡이 아닙니다. ‘念’자는 人과 二와 心이 합해진 글자로서 바야흐로 발현된 것을 ‘念’이라고 하며, 이 즈음에 邪正과公私의 구분이 생겨납니다. 이로써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sup>534)</sup>

#### <12월 12일 중용 篇題와 首章>

12월 12일은 徐東烈이 중용 篇題를 읽은 뒤 문답을 진행하였다. 篇題에서는 정자는

534) 『講所雜錄』, 『講錄日記』. 이하 중용 문답에 대한 인용은 모두 강록일기에서 발췌한 것으로 각주는 생략한다.

未發로 中을 해석하였는데 주자는 未發과 已發을 겸하여 말한 이유, ‘退藏於密’에서 密자의 의미, ‘中은 正道라 하고 庸은 定理’라고 한 데서 道와 理의 차이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丈席은 정자가 ‘치우치지 않는 것(不偏)이 中’이라고 한 것이 바로 미발과 이발을 겸하여 말한 대목이며, 주자가 이에 더하여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는 것(不偏不倚)을 미발의 중, 과불급이 없는 것(無過不及)을 이발의 중’이라 한 것은 정자의 말에 비해 상세히 설명한 것이긴 하나 정자가 발명하지 못한 뜻을 발명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또한 道와 理의 차이에 대해서는 ‘道는 총괄하여 말한 것이고 理는 道 속의 찬란한 조리를 말한 것이며, 동서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正道라 하고 고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定理라고 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首章에서는 理氣설에서는 理를 먼저 말하고 氣를 뒤에 말하였는데, 중용 수장에서 ‘氣로써 형체를 이루고 理 또한 부여되었다’고 하여 氣를 먼저 말한 이유, ‘성과 道는 비록 같지만 氣稟이 간혹 다르다’는 것은 사람과 物을 겸하여 말한 것인지, 戒愼과 恐懼의 차이, 七情 중 회로애락만 거론한 이유, ‘내 마음이 바르면 天地의 마음이 바르고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지 않다’는 말의 의미 등에 대해 유생들이 질문하고, 장석은 유생들에게 ‘隱微한 것이 더 없이 드러나고 더 잘 보이는 이유’에 대해 발문을 던졌다. 장석은 수장에서 氣를 먼저 말하고 理를 뒤에 말한 것은, ‘人物로서 형체 없이 理를 부여받은 것은 없으니, 이는 품부의 측면에서 性を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선배 중에 혹 天 자를 理에, 陰陽五行을 氣에 귀속시킨 경우가 있으나, 天은 理와 氣를 통솔하는 것이며, 만약 天을 오로지 理에 귀속시키면 陰陽五行을 주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잘못된 해석임을 지적하였다.

‘不睹에 대해서는 戒愼이라 하고, 不聞에 대해서는 恐懼하라’고 하여 戒愼과 恐懼를 구분한 이유를 묻자, 장석은 ‘不睹와 不聞’은 하나의 때이고 ‘戒愼과 恐懼’는 하나의 공부이니 서로 호환하여 볼 수 있으나, 굳이 세분하자면 ‘睹는 내가 사물에 접촉하는 것’이므로 경계하고 조심하면 되지만, ‘聞은 사물이 다가와 나에게 감응하는 것’이므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으로는 미흡하니 문득 두려워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戒愼과 恐懼는 본래 하나의 공부이지만, 굳이 세분하면 未發과 已發의 공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柳徽文은 이 대목에서 강운이 戒愼과 恐懼를 不睹不聞에 한정하여 굳이 미발과 이발의 공부로 구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柳徽文은 戒愼恐懼가 기본적으로는 미발과 이발을 관통하는 統體 공부이면서, 謹獨에 상대하여 말할 때에는 미발 시의 靜中 공부만을 말한 것이며, 未發 시 存養 공부가 극처에 달하면, 已發 시의 모든 應事는 절로 분별이 있게 되고 표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미발 시 戒懼 공부는 이발 공부의 본원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戒懼 공부는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고요한 상태에 나아가 <한 순간>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至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 공부의 핵심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공부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희문은 강운에게 주자의 장구에 기록된 ‘約之以至’의 ‘至’字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중용 수장의 장구를 살펴보니 ‘自戒懼’ 三字는 上文의 統體 공부를 말한 것이고, ‘約之’ 二字는 돌이켜 未發上에 나아가 靜中 공부만을 말한 것이니, 그 아래 ‘精之’ 二字와 상대하여 말한 것입니다(精之의 공부도 또한 謹獨으로부터 應物上에 나아가 말한 것입니다). ‘至於’ 二字가 뜻하는 귀결점은 바로 ‘其守不失’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의 地位가 純熟處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말한 것입니다. 반드시 ‘其守不失’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致中이라 말할 수 있으니, 이는 곧 存養의 極處로서 단지 한 번 편벽되지 않고 한번 치우치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곧 이 지위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대가 諸公에게 ‘自戒懼라고 한 것은 上文의 統體 공부이다’라고 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約之以至’의 ‘至’字를 ‘趣靜’의 ‘趣’자로 이해한다면 마침내 ‘至靜에 이른다(至於至靜)’라는 말이 되니, 내가 말한 ‘純熟에 이른다(至於純熟)’의 ‘至’자와는 다른 뜻이 되어 버립니다. 주자가 기록하여 인용한 제설을 盛論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득 오래도록 하여 純熟處에 이르면 저절로 분별이 되어 바로 바탕과 표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득 戒懼를 오로지 不睹不聞에만 귀속시킨다면 반드시 不睹不聞과 至靜만을 가지고 淺深을 分別하게 되니, 살펴보건대 근래에 農巖도 또한 이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至於’자의 본지를 구해보면, 不睹不聞과 至靜의 淺深은 꼭 비교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여러 의문들이 필경 모두 ‘至於’자의 뜻을 ‘趣’로 귀결시켜 너무 성급히 여기는 것을 염려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 공부의 근요처이니 다시 연구하고 궁구하여 답장을 보내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sup>535)</sup>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된 구절은 “中과 和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얻고 만물이 생육될 것이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에 대해 주자가 해설한 “戒懼로부터 約하여 지극히 靜한 가운데에 편벽되고 치우친 바가 없어 그 지킴을 잃지 않는 데 이

535) 『竊觀首章章句 自戒懼三字 是因上文統體工夫 而言約之二字 乃反就未發上說箇靜中工夫 與下精之二字 相對精之之工亦自謹獨引就應物上說 至於二字語意歸宿重在 其守不失 是主工夫地位 至於純熟處說 須到得其守不失 方可謂致中 卽是存養極處 不可謂一番有此不偏倚時節便到此地位 向曰諸公以自戒懼云者 爲上文統體工夫者 與鄙見無異 但以約之以至之至字 作趣靜之趣字看 遂謂之至於至靜與 愚所謂至於純熟之至字 不同 盛論所引朱子諸說所記如何 便到及久久純熟 自別 正是至於底準的 但遽以自戒懼云者 專屬不睹聞 必以不睹聞與至靜 分別淺深 看近世農巖亦有如此說 然若看得至於字本旨 則不睹聞與至靜之淺深 不須較量 非敢以遇見爲必是 而第恐甲乙之論 畢竟皆看得至於字歸趣似短促 此是工夫緊要處 幸更加研窮而回教之如何” (『好古窩集』, 권 5, 書, 「與姜擎厦」).

르면, 그 中을 지극히 하여 天地가 제자리를 얻을 것이요, 勤獨으로부터 精히 하여 사물에 응하는 곳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 가는 곳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는 데 이르면, 그 和를 지극히 하여 萬物이 生育될 것이다(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無少偏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 自謹獨而精之 以至於應物之處無少差謬而無適不然則 則極其和而萬物育矣)”는 문장이었다. 그 중 쟁점은 ‘約之以至’의 ‘至’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至’ 자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따라 戒懼 공부의 강조점과 실천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록일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때 강회에서 강운은 ‘至’ 자의 의미를 ‘趣’자로 풀었던 것 같다. 이에 유희문은 ‘自戒懼를 戒懼와 慎獨, 未發과 已發을 관통하는 上文 統體 공부’라 본 것에는 동의하지만, ‘至’ 자의 의미를 ‘趣’자로 풀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희문은 自戒懼로 먼저 통체 공부를 말하고, ‘約之’와 ‘精之’ 이하는 서로 상대하여 ‘未發 시의 靜中公부’와 ‘已發 시의 應物공부’를 말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未發 시 靜中 공부’가 ‘致中’이 되기 위한 성패는 바로 ‘存養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바로 ‘其守不失’과 ‘純熟處’에서 찾았다. 그리하여 그는 장구의 ‘自戒懼而約之 以至於至靜之中無少偏而其守不失 則極其中而天地位矣’에서 ‘至於’의 귀결점이 ‘其守不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강운처럼 ‘至’ 자의 의미를 ‘趣’자로 이해하면 ‘至於’의 목적어를 ‘其守不失’이 아닌 ‘至靜之中’으로 보게 되어 계구공부를 문득 ‘고요한 상태에 나아가는 것’의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희문이 보기에 ‘至於’의 중점은 문득 한 번 ‘고요한 상태(至靜之中)’에 ‘나아가는(趣)’ 것이 아니라,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至靜之中의 상태를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는 경지(其守不失)’에 ‘이르는(至)’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계구공부의 목표는 미발 시 존양의 상태를 한 순간의 단절도 없이 오래오래 지속함으로써 공부의 지위가 ‘純熟處’에 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부가 純熟處, 즉 存養의 극처에 이르게 되면 이발 시에도 만사가 저절로 분별이 되어 물에 應하는 순간 곧 바탕과 표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계신공구는 謹獨에 상대하여 말하면 미발 시 존양공부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발 공부의 본원이 됨으로써, 결국 미발과 이발, 동정을 관통하는 ‘통체 공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至’자의 의미를 ‘趣’자로 보고, 계구공부를 不睹不聞에만 오로지 한정하여 해석하게 되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고요한 상태에 나아가 한 순간에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것’을 계구 공부로 여겨 不睹不聞과 至靜으로 공부의 淺深을 분별하게 됨으로써, 일상에서 존양공부의 지속성과 실천은 상대적으로 소홀시 되고,

한 번 존양하는 것을 통해 성급하게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폐단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단은 곧 일상에서 공부의 단절, 즉 ‘其守’와 ‘不失’의 단절을 뜻한다. 즉, 유희문은 미발 시의 戒懼 공부가 일상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지속성과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구에서 ‘至於’의 귀착점이 ‘其守不失’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戒懼 공부가 미발과 이발, 동정을 관통하는 統體 공부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희문의 해석은, ‘理와 氣를 분개설과 혼륜설의 입장’에서 동시에 설명한 대산의 사단칠정론과, ‘戒懼를 단독으로 말하면 動靜을 겸한 공부이고, 慎獨에 상대하여 말하면 靜의 공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統體공부로서의 戒慎恐懼의 의미를 강조한’ 대산의 중용 해석을 계승한 것이었다.<sup>536)</sup> 또한 ‘미발 시 存養의 상태를 어떻

536) “道라는 것은 하늘에서 근원하여 마음에 갖추어진 것으로서 일용 사물의 사이에 흠어져 있으면서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고 한 부분도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가 그것을 본받을 적에 그 戒愼하고 恐懼하는 뜻이 잠시도 쉬는 법이 없으며, 평상시의 동작하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때에 이르기까지 또한 감히 그 경외하는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못하니, 대개 극도로 말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일 뿐입니다. 慎獨이라고 말한 것은 또 저 생각이 움직이는 곳이 선악의 분계이고 만사의 근본이 되므로 전체적으로 戒懼하는 중에 약간 더 점검하고 성찰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계구하는 중의 절도이므로, 본래 대비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독은 오로지 動한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고, 계구는 곧 靜한 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쌍으로 관련짓고 대비시켜 말을 하여 동정의 공부로 나눈 것입니다. 그 義例는 이를테면 元이 四德을 통솔 하면서도 때때로 靜과 대가 되고, 仁이 四常을 포함하면서도 때때로 義와 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개 統體로 말하더라도 그것이 兩端의 공부가 되는 것에 무리가 없고, 대비시켜 말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도리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통체인 측면에서 말했을 때는 ‘계구는 전체 공부이다’ 하고, 또 ‘계구는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다’ 하였던 것이며, 대비시키는 측면에서 말했을 때는 ‘계구는 靜할 때의 공부이다’ 하고, 또 ‘계구는 아직 말하지 않았을 때에 함양하는 것이다’ 하였던 것입니다. - 모두 주자의 설입니다. - 그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뜻이 각각 같지 않은 것이며 애초에 ‘睹聞’ 두 글자의 유무에 따라 그 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닙니다.”(“道也者 原於天而具於心 散諸日用事物之間 無一息間斷 無一隙空闕 故君子之體之也 其戒愼恐懼之意 無須與之或息 自平常動作之處 以至不睹不聞之時 亦不敢弛其敬畏之心 蓋極言之以至此耳 慎獨云者 又見夫一念動處是善惡分界 萬事根本 故於全體戒懼之中 略加提省檢察之工 蓋只是戒懼中節度 本不可以對待 然慎獨 是專言動處 而戒懼却兼包靜時 故雙關對說 以分動靜之工 其義例 如元統四德而有時而與貞對 仁包四常而有時而與義對 蓋統體而言 而不害其爲兩端工夫對待爲說而又只是一項道理也 故以統體者言則曰 戒懼是全體工夫 又曰 戒懼是普說 以對待者言則曰 戒懼是靜工夫 又曰 戒懼是涵養於未發之前 並朱子說 隨其所指 意各不同 初不以睹聞二字之有無而異其用也”, 『大山集』, 권 11, 書, 「答金退甫」);

“계구는 動靜을 겸하고 幽明을 일관하는 공부이며, 慎獨은 전체적인 공부 중에 약간 더 눈을 뜬 것입니다. 혹은 계구와 신독이 상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만 보고 공부를 動과 靜으로 구분하니, 이는 일상에서 단지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과 더없이 드러나고 나타남의 측면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고, 사물을 응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떨쳐 내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현의 학문이 어찌 이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대개 주자 이전에는 계구와 신독이 다른 공부임을 알지 못하여 연결 지어 동일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자가 처음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서로 體用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 또 말하기를 ‘계구는 전체적인 공부이며, 謹獨은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계구’ 2자가 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단지 신독과 상대적이지만 하다면, 주자가 어찌 ‘나눌 수 있는 가운데에서 또 나눌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겠습니까” (“戒懼 是兼動靜貫幽明工夫 慎獨 是全體工夫中 略更開眼處 或者徒見戒懼謹獨之對待立說 遂分作動靜工夫 則是日用之間 只就不睹聞莫顯見處 揀取做工夫 應事接物處 都掉了莫管矣 聖賢學問 豈如是偏枯哉 蓋

게 하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戒懼 공부의 핵심으로 본 유취문의 문제의식은 한편, '喜怒哀樂이 아직 발하지 않았을 때의 氣象을 體認하는 것이 어떻게 일상의 실천 공부와 연결되는가'를 다룬 延平答問의 핵심적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장석은 유생들에게 '은미한 것이 더없이 드러나고 잘 보이는 이유'에 대한 발문을 던졌다. 이에 유돈이 '이는 幾 자를 통해 봐야 하며, 은미하면서 필경 형체가 드러남에 이르니 이것이 바로 드러나고 보인다는 뜻'이라고 대답하자, 장석은 '幾'자의 뜻은 잘 이해하였으나, '필경'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해석임을 지적하며, 비록 매우 은미하더라도 그 기미가 이미 발동하였으므로 분명하게 보이고 밝게 드러나는 것이 이때보다 앞서는 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때 기미를 살피는 것이 후일 남들에게 보이고 드러날 때를 염려해서라면 이는 爲人之學이니, 군자의 謹篤 공부는 爲人之學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내 마음이 바르면 天地의 마음이 바르고 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지 않다'는 것은 천지가 제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내 마음의 바름에 달려 있음을 말한 것으로, 이는 善惡이 감응하여 통하는 이치를 극단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首章의 戒愼恐懼와 謹獨에 대한 문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두철이 물기를 “不睹에 대하여는 꼭 경계하고 조심하라 하고 不聞에 대하여는 꼭 두려워하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길, “不睹와 不聞은 하나의 때를 말한 것이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의 공부이니 호환하여 보는 것도 안될 것이 없습니다. 세분하여 본다면 戒愼은 약간 경계를 가하는 뜻이고, 恐懼는 깨치고 반성하는 뜻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물에 접촉하는 것을 睹라 하니, 눈으로 접하면 다만 조금 경계하고 조심하면 되고 두려워하면 이미 지나칩니다. 사물이 다가와서 나에게 감응하는 것을 聞이라 하니, 귀에 들리면 문득 척연히 두려워해야 하며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혼란한 색이 들어오면 스스로 경계할 뿐이고 빠른 소리가 귀에 들리면 문득 두려움이 생기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장석이 말하기를 “은미한 것이 더없이 드러나고 더 잘 보인다는 뜻에 대하여 말씀해보십시오” 하니 유돈이 답하기를 “비록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기미가 이미 발동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응당 '幾'자를 통해 봐야 합니다. 필경 은미하면서 형체가 드러남에 이르니 이것이 바로 드러나고 보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기를 “'幾'자의 뜻에 대하여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필경이라고 한 것은 미진한 듯합니다. 비록 매우 은미하더라도 그 기미가 이미 발동하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고 밝게 드러나는 것이 이때보다 앞서는 때

---

朱子以前 不知戒懼愼獨之異工 遂賺作一般看 故朱子始分析兩段 互爲體用 然其意亦曰戒懼是統體工夫 謹獨又其中最緊切處云爾 若戒懼二字 全不干動上些子事而只與愼獨相對 則朱子何以曰可分中又見不可分處, 같은 책, 권 40, 雜著, 「中庸大學疑義辨」).

가 없습니다. 章句 속의 ‘밝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에서 ‘此’ 자가 바로 은미한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어찌 훗날 필경 드러나는 것을 기다릴 따름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보면 혹시 소인이 몰래 不善을 행하다가 필경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小註의 諸家の 설에서 이미 상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군자의 謹獨 공부만약 훗날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하는 것이라면 이는 爲人之學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12월 13일 중용 2장~5장>

2장에서 5장까지는 君子와 時中の 문제, 논어에 ‘能’자가 없고 중용에 ‘能’자가 있는 이유, 過不及과 道の 관계 등을 주제로 문답이 이어졌다. 홍전이 過不及과 道の 관계에 대해 묻자 장석은 이를 知行의 문제로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홍전이 묻기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過不及은 바로 도가 밝아지지 못한 이유이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過不及은 바로 도가 행해지지 못한 이유이다”라고 한 것에서 상호적으로 말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길 “知行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구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세밀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12월 14일 중용 6장~8장>

중용 6장에서는 善의 中道에 관한 문제, 7장에서는 ‘皆不得爲知’에서 ‘皆’의 의미, 8장에서는 仁을 언급하지 않고 仁에 해당시킨 이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유돈이 ‘善에도 中道와 中道 아닌 것이 있느냐’고 묻자 장석은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유돈이 묻기를 “兩端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그 中道를 쓴다는 것은 善의 양단을 잡아서 그 중도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에도 중도가 있고 중도 아닌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른바 양단 운운한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길 “善에도 중도와 중도 아닌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구 속에서 이른바 ‘大小厚薄’과 같은 것입니다. 대개 순입금은 평범한 말 중에서도 그 악을 숨겨주고 선을 선양하였습니다. 그 말로서 선한 것도 꼭 말마다 모두 중도에 맞는 것은 아니고 자연히 대소후박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큰 것이 중도에 맞으면 큰 것을 쓰고, 작은 것이 중도에 맞으면 작은 것을 쓰며 후박 또한 그러합니다. 이는 대개 善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설의 극치를 취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설 속에 또 어찌 양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7장에서는 장석이 먼저 ‘皆不得爲知’에서 ‘皆’의 의미에 대해 발문을 던졌다. 장석은

‘皆’자는 ‘가릴 수는 있지만 지키지 못한다(能擇不能守)’를 가리키는 것이며, 擇은 지혜, 守는 행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 행하지 못하였으면 지혜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고, 지키지 못했다면 가리고서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行은 知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12월 15일 중용 9장~11장>

중용 9장에서는 知仁勇과 中庸의 관계, 10장에서는 ‘強’자의 의미와 體用의 문제, 백이와 유하혜를 군자로 볼 수 있는지, 11장에서는 聖人과 君子의 중용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장석은 10장에서 ‘強’에 대해 ‘관대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가르쳐주고 무도한 행위에 보복하지 않는 것 역시 強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문을 던지고, 백이와 유하혜도 군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時中の 군자는 아니지만 淸과 和에서는 실로 덕을 완성한 군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답하였다.

서성렬이 말하기를 “자료가 強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먼저 ‘南方의 強을 말함인가?’라고 하신 것은 자료가 용맹을 좋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기를 “그런 듯합니다” 하였다. 장석이 말하길 “관대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가르쳐주고 무도한 행위에 보복하지 않는 것 역시 強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 김술련이 답하기를 “자기가 지키는 바를 잃지 않고 남을 이기는 것이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장석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남방은 陽이고 북방은 陰입니다. 양은 부드러움을 활용함으로 강함을 본체로 하니 이는 역시 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였다.

서병렬이 물기를 “조화하되 흐르지 않는 것을 유하혜에 귀속시키고 중도에 서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백이에게 귀속시켰는데 백이와 유하혜도 덕을 완성한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장석이 말하기를 “백이와 유하혜가 비록 時中の 군자는 아니지만 和에 해당하는 성인이고 淸에 해당하는 성인이니 淸과 和에서는 실로 덕을 완성한 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장석이 또 말하길 “다른 곳에서는 모두 의리와 용맹을 가지고 혈기의 용맹과 상대적으로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특히 德義의 용맹을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봅니까” 하니 홍전이 답하기를 “흐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德이고 궁할 때의 뜻을 변치 않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義입니다” 하니 장석이 “웁습니다. 이 장의 勇을 舜의 지혜와 안연의 仁과 상대적으로 거론하여 덕성과 의리를 겸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12월 17일 중용 12장~16장>

이 날은 거재의 마지막 날로 중용 12장에서 16장까지 통독하였다. 12장에서는 費와 隱의 문제, 14장에서는 小人과 君子의 현재적 적용, 16장에서는 ‘귀신의 덕’에서 덕의 의미와 ‘體物’에서 體의 의미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費隱에 대해서는 이상두가 ‘費를 먼저 말하고 隱을 뒤에 말한 이유’를 묻고, 장석은 천지에 費隱의 이치 아

닌 것이 없는데 유독 鳶飛魚躍으로 말한 이유에 대해 발문을 던졌다. 費隱을 언급한 순서에 대해 장석은 ‘이는 用을 인하여 體를 나타낸 것으로 道의 용이 모두 費이고 그 所以然의 體는 숨겨져서 볼 수 없는 것이니, 費 속에 은이 있는 것이고 費 밖에 별도로 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선후로 구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費는 용의 넓음이요, 隱은 體의 은미함이고, 용을 말하면 체는 그 안에 있고 넓음에 이르면 은미함은 벗어날 수 없으며, 隱은 理의 所以然으로 볼 수 없는 것’<sup>537)</sup>이라고 한 대산의 費隱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장석이 천지에 費隱의 이치 아닌 것이 없는데 유독 鳶飛魚躍으로 말한 이유를 묻자 홍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장석이 말하기를 “천지에 가득차 있는 것으로서 費隱의 이치 아닌 것이 없는데 여기서 유독 솔개와 물고기로 말한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니 홍전이 대답하기를 “솔개와 물고기는 매우 미천한 것입니다. 지극히 미천한 것을 거론함으로써 천하의 사물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하니 장석이 말하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개 상하를 극한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솔개는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고 물고기가 연못 깊은 곳에 뛰오르니 상하를 살피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날고 뛰는 것으로서 솔개와 물고기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경 旱麓篇 주석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였다.

14장에서 장석은 ‘소인이 험한 것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는 것’을 과거시험에 얽매여 득실을 가지고 마음속에 누를 끼치는 일에 비유하며 科業의 폐해를 비판하고 위기 지학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이때 중용 강회에서 강독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체득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장석이 말하기를 “‘소인은 험한 것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고 군자는 평이한 곳에 서서 천명을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시대의 과거시험과 같은 것이 모두 험한 것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는 것이니, 다만 자신의 본분으로서 할 바를 다하여야 하고 득실을 가지고 흥중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이한 곳에 처하고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에 어느 정도 근사하게 될 것입니다. 講讀을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마땅히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였다.

16장에서는 ‘귀신의 덕’에서 덕의 의미와 ‘體物’에서 體의 의미, 귀신은 어떻게 천하의 사람을 부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장석은 ‘귀신은 사물의 본체

537) “費者用之廣 隱者體之微也 言用而體在其中 卽廣而微不能外 不必別贊隱字然後可見也 且既曰隱 則是理之所以然而不可見處 若可形容說 亦非復隱矣”(『大山集』, 권 40, 雜著, 「中庸大學疑義辨」).

가 되어 사물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니, 비록 듣고 볼 수 있는 형체와 소리가 없지만 사람이 자연히 두려워하고 공경하여 받드는 것은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장의 글 뜻은 심오하여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자신도 李秉遠, 柳致明 등과 논쟁한 바 있으나 아직 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유생들이 그 논쟁에 대해 말해달라고 청하자, '나는 이 장을 理를 위주로 한 설이라고 보았으나, 제공들은 氣를 빌려 理를 밝힌 설이라고 하였는데 그 견해가 더 낫다고 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대목에 대해 들은 柳徽文도 나중에 강운에게 보낸 편지에서 '鬼神章 아래에서 말하는 費隱은 앞의 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理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氣 一邊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朱子の 本旨에 어긋날 수 있다'<sup>538)</sup>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유희문과 강운은 귀신 장에 대해 '理를 위주로', 이병원과 유치명은 '氣를 빌려 理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며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귀신장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대산의 중용 해석에 모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대산은 鳶飛魚躍장과 귀신장은 모두 氣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道體의 유행, 즉 理를 밝힌 것이지만, 理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가 있는 것을 통해 인식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두 입장의 해석이 모두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다음과 같이 남기고 있다.

“子思가 솔개와 물고기를 인용한 것은 氣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道體의 유행에 묘가 있지 않는 곳이 없음을 밝힌 것일 뿐이니, 그 의미는 공자가 시냇가에서 탄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귀신의 屈伸과 왕래는 비록 氣이지만, 굴신하고 왕래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되도록 하니, 이것이 理가 아니겠는가? 대개 理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체가 있는 것을 통하여 인식해야 한다. 만약 '氣를 버리고 별도로 이른바 理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道가 아니다.”<sup>539)</sup>

이와 같이 19세기 대산 문하에서는 한편으로 이상정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산 학맥 내에서도 다양한 학문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주 강운은 중용 강회에서 未發과 已發 사이에서 마음의 幾微를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謹篤 공부조차 남들에게 보이고 드러날 때를 위해 하는 '爲人之學'이 아닌 '爲己之學'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7장의 '能擇不能守'에 대한 해석에서는 '行

538) 『好古窩集』, 권 5, 書, 「與姜擎厦」.

539) “子思之引鳶魚 却不在氣上 特以明夫道體流行無所不在之妙 其意與夫子川上之歎 一串貫來也 鬼神之屈伸來往 雖是氣也 而其所以屈伸來往 必有一箇什麼物事 使得他如此非理乎 蓋理無形體 故必就有形物上體認出來 若曰舍氣而別有所謂理 則非吾所謂道也”(『大山集』, 권 40, 雜著, 「中庸大學疑義辨」).

이 知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며, 14장에서는 '소인이 험한 것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는 것'을 과거시험에 얽매어 득실을 가지고 마음속에 누를 끼치는 일에 비유하여 科業의 폐해를 비판하고, 강회에서 강론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체득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강회를 통해 위기지학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戒愼恐懼에 대한 해석에서 유희문은 '미발 시의 계구공부를 통한 존양의 상태를 일상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其守不失'과 '純熟處'의 경지를 강조함으로써, 愼獨에 상대되는 戒懼의 의미와 함께 미발과 이발, 동정을 관통하는 統體 공부로서 戒愼恐懼를 해석한 대산의 중용 해석을 계승하고 있었다. 戒愼恐懼에 대한 유희문의 문제의식은 한편, '未發 時의 氣象을 體認하는 것이 어떻게 일상의 실천 공부와 연결되는가'를 다룬 延平答問의 핵심적 문제의식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즉,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주자서절요, 옥산강의, 중용, 연평답문 등에 대한 강론을 통해 '心學의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지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탐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의 텍스트와 탐구 주제는 곧 이상정의 학문, 즉 湖學의 心學的 경향과 실천적 학풍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었다.

## V-4.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과 1828년 소백산 유람

### V-4-1.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19세기 소수서원에서는 해마다 계절별로 科業과 道學을 병행함으로써, 대다수가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이라는 서원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업 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1801년·1815년·1826년·1827년에는 거재·통독과 함께 거접·백일장·순제를 계절별로 개설하고, 그 외에는 주로 上式年이나 과거가 설행된 해에 백일장과 순제를 집중적으로 개설하였다. 전체 거접 1회, 백일장 11회, 순제 4회가 개설되었는데, 그 중 10회가 모두 上式年이나 과거가 있던 해에 개설되고 있다. 1801년·1815년·1827년·1860년·1872년은 상식년이었고, 1815년은 상식년인 동시에 10월에 정식문과가 설행된 해로 거재와 함께 순제가 두 차례나 개설되었으며, 거접과 거재를 개설한 1827년도 상식년인 동시에 9월에 증광시가 있었다. 1835년과 1882년은 모두 9월에 증광시, 1858년은 4월과 9월에 정식문과, 1873년은 8월에 정식문과가 설행된 해였다. 그 중 거접이 1회 밖에 개설되지 못한 것은 물론 재정난 때문이었고, 단 한차례 개설된 거접의 운영 기간도 고작 6일에 그치고 있다.

19세기 거접·백일장·순제의 試題 출제와 考試에는 대개 순흥부사가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1815년 3월의 순제에는 부사 柳季麟이 고시에 참여하고, 1826년 두 차례의 순제와 1827년 거접은 부사 金祖淵이 출제와 고시를 모두 전담하고 있다. 부사 柳季麟과 金祖淵은 서원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를 가진 지방관으로 각각 1813년과 1827년에 원장을 겸임하였으며, 서원에서는 겸원장의 재임 전후에도 백일장이나 순제가 개설될 때마다 이들에게 시제의 출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1801년 백일장에 대한 기록은 『雜錄』<sup>540)</sup>, 1807·1835·1840·1858·1859·1860·1872·1873·1882년 백일장은 「入院錄」 5에,<sup>541)</sup> 1815년 3월과 8월의 순제는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sup>542)</sup> 1826년 순제<sup>543)</sup>와 1827년 거접<sup>544)</sup>, 1828년 文會(백일장)<sup>545)</sup>에

540) 『雜錄』; 『紹修書院誌』, 「年表」.

541) 『紹修書院誌』, 「入院錄」 5.

542)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乙亥三月巡題榜目」; 같은 책, 「乙亥八月日巡題榜目」.

543) 『講所雜錄』, 「旬製時雜錄」.

544) 『講所雜錄』, 「居接時雜錄」.

545) 『講所雜錄』,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

대한 기록은 『講所雜錄』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는 방목만 남아 있어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지만,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순제, 거접, 문회는 『講所雜錄』에 개설 배경과 운영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특히, 1828년에는 문회를 마친 뒤 그 날이 퇴계가 소백산에 들어간 날짜와 일치한다고 하여 퇴계의 고사를 따라 원입과 유생 27명이 9일에 걸쳐 소백산을 유람한 뒤 유람 중에 지은 수창시, 서발문 등을 모아 유람록<sup>546)</sup>을 남겼다. 이때 유람에도 동주 강운을 비롯하여 李泰淳, 李家淳, 李秉運, 柳鼎文 등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李秉運은 대산의 손자이자 김종덕의 문인으로, 문회를 마친 뒤 강운의 뒤를 이어 소수서원 동주에 임명되었다. 이때의 유람은 가는 곳마다 자연과 풍광, 도를 함께 논하며 수창시를 지어 기록에 남기고, 마지막에는 산사에서 대산 문인 黃龍漢의 문집을 강독하는 등 ‘藏修와 遊息’, ‘詩書禮樂’을 아우르는 서원 교육의 한 전범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19세기에 개설된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현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19세기 居接·白日場巡題의 운영 현황

강학형태	연도	날짜	방목/참여인원	제술과목	出題/考官	科擧
白日場	1801	7월	*	*	*	上式年
白日場	1807	9. 9	방목 120명	*	*	*
巡題	1815	3월	방목 51명	詩賦	考官: 府使 柳季麟 院長 朴搥 別有司 柳輝, 孫鎭駟	·上式年 ·10월 정시문과
旬題	1815	8월	방목 52명	詩賦	考官: 進士 成彦根·生員 李雲燮· 院長 金赫鍊·別任 徐幹發, 朴春教.	·上式年 ·10월 정시문과
旬製	1826	4월	시권 400/ 방목 150	詩賦 각 2수	府使 金祖淵이 出題·考官	*
旬製	1826	5월	시권 175/ 방목 75	詩賦 각 2수	府使 金祖淵이 出題·考官	*
居接	1827	3. 14~ 3. 19	매일 방목 69~102명	매일 詩賦 각 1수	院長府使 金祖淵이 出題·考官 (18, 19일은 徐承烈이 출제) 講任 宋相奎, 徐幹發	·上式年 ·9월 증광시
文會 (白日場)	1828	4. 22	방목 214명	詩·賦·古風 각 1수	洞主 姜樸	*
白日場	1835	9. 1	방목 118명	*	*	9월 증광시
白日場	1840	3. 7	방목 143명	*	*	*

546) 『講所雜錄』, 「小白遊山錄」.

白日場	1858	3. 1	방목 168명	*	*	4월·9월 정시문과
白日場	1859	9. 1	방목 53명	*	*	*
白日場	1860	9. 6	방목 25명	*	*	上式年
白日場	1872	3	방목 200명	*	*	上式年
白日場	1873	3. 19	방목 68명	*	*	8월 정시문과
白日場	1882	8	방목 362명	*	*	·9월 증광시 ·12월 별시

1815년 3월의 巡題에는 詩와 賦를 출제하여 賦 41명, 詩 10명, 총 51명의 방목을 작성하였으며, 방목에는 성적이나 등수에 대한 기록 없이 명단만 수록하고 있다. 考官으로는 순흥부사 柳季麟, 원장 朴搥, 별유사 柳輝, 孫鎮駟 등 부사와 소수서원의 원임이 함께 참여하였다. 1813년 겸원장으로서 거재를 개설했던 순흥부사 유계린은, 이때 원장의 임기가 끝난 뒤였으나 순흥부사로 考官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815년 8월의 旬題에서도 詩와 賦를 출제하여 총 52명의 방목을 작성하였다. 이때 방목은 등수별로 작성하여 1등은 3명(부 2명, 시 1명), 2등은 13명(부 10명, 시 3명), 3등은 36명(부 32명, 시 4명)을 선발하였다. 이 때 賦에서는 權載龍, 徐祖郁이, 詩에서는 徐庚烈이 1등으로 선발되었다. 考官으로는 進士 成彦根, 生員 李雲燮, 원장 金赫鍊, 별임 徐榦發과 朴春教 등 5인이 참여하고 있다.

1826년에는 4월과 5월에 순제가 연이어 개설되었다. 3월 향사 때 당회를 열어 ‘흥년으로 인해 전례와 같이 文會를 베풀 수 없으나, 어진 부사가 부임하여 먼저 본원을 방문하였으니 마땅히 旬製를 출제하도록 청하여 학문을 권장하는 뜻을 간략하게나마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순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순제의 개설 과정에 대해 講任 徐榦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년에 나와 斯文 宋相奎가 講任을 맡았었는데, 가을 결실이 형편없어 들어오는 곡식이 크게 줄어 거재와 거접의 개설을 일절 중단하게 되어 마음속으로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지금 우리 고을 부사 延安 金祖淵이 부임하여 초기부터 학문을 권장하고 병폐를 척결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고, 한 번 시행하자 온 순흥 고을이 모두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였다. 이에 많은 선비들이 기대에 부풀어 文教가 행해지기를 바라고, 먼저 비근한 예로 旬製를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비록 고을의 업무가 바빠 여가를 내기가 어려웠으나 오히려 두터운 은혜로 손수 詩

賦 각 두 시제를 출제하여 보내주었고 보내준 글도 뜻이 간절하였다. 두 차례 賞을 내림에 있어서는 장려한 뜻이 융숭하여 매우 특별한 배려를 하였으니, 선비들을 이끌고 진작하여 文風이 일신되니 참으로 아름답고 성대하다.

부사께서 재차 명륜당에 올라 연화봉과 죽계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르기를 ‘文藝는 말단적인 것이다. 마땅히 마을 수재들과 더불어 책을 읽도 뜻을 토론하면서 光風霽月의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학문에 침잠하고 사색하다면 실로 더없이 좋은 일이다. 누차 생각한 바이지만 한번 기회를 만들어 여러분들 뒤에서 독서하는 소리를 실컷 접하고 직접 서원의 교육을 보게 된다면 어찌 文字를 가지고 한 차례 노는 것에 그칠 뿐이겠는가’ 하였다. 황송하고 감격한 나머지 간략하게 그 전말을 기록하여 서원의 故事로 남겨둔다.”<sup>547)</sup>

이를 통해 당시 서원의 재정 상태와 부사 김조연의 지방 교육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예는 말단’이라는 언급을 통해 그의 교육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이 때 순제는 당초 부사에게 출제를 맡겨 열흘에 한번 씩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부사가 업무로 바빠 4월과 5월 각 한 차례씩만 시행되었다. 3월 4일 훈장이 직접 관아에 찾아가 ‘서원의 文會에는 옛날부터 관에서 출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부응하지 않으시면 안됩니다’<sup>548)</sup>라고 하며 부사에게 詩賦 시제의 출제를 청하였다. 순흥부사 金祖淵은 4월 4일 詩賦 각 2수씩 출제하여 서원에 보내며, 바쁜 업무로 인해 앞으로는 열흘마다 서원에서 직접 출제하기를 당부하였다. 4월 25일에는 시부를 합하여 총 400여 장의 시권을 거두고 부사에게 보내 考試를 부탁하여, 부에서 99명, 시에서 51명을 뽑아 총 150명의 방목을 작성하였다. 이 때 부사가 출제한 시제는 다음과 같다.

賦

環滁皆山 (醉翁亭記)

道也者 不可須臾離 (中庸)

詩

右庶子韓愈執酌而言 (送殷員外序), 言자로 압운

聖人之於民 亦類也 (孟子), 民자로 압운

이후 원임들은 부사에게 계속 牒呈을 올려 열흘에 한 번씩 시제 출제를 청하고, 부사는 바쁜 업무로 이를 고사하며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졌다. 서원에서는 ‘모든 선비들이 한 결 같이 관에서 출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sup>549)</sup>, ‘관에서 애당초 출제하였다

547) 『講所雜錄』, 「講所雜錄識」.

548) 같은 책, 「旬製時雜錄」.

가 곧 그만두는 것은 선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기는 일입니다<sup>550)</sup>고 하며 시제의 출제를 청하고, 부사는 ‘시제를 써보내는 것은 열흘마다 번번이 할 수 없습니다<sup>551)</sup>, ‘앞으로 권과는 오직 서원에서 결정하여 할 일이라 여깁니다<sup>552)</sup>고 하며 계속 사양하고 있다. 부사가 끝내 시제 출제를 고사하자 서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순제를 중단하고 유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대신 백일장을 설행하기를 관에 청하였으나, 관에서는 흉년으로 어려운 때에 문회를 여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날씨가 서늘해지기를 기다려 적당한 때로 물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백일장 설행 계획도 중단되자 서원에서는 다시 순제를 재개하기 위해 서너 차례 관에 고한 끝에 비로소 허락을 받아 5월 14일 결국 관에서 詩賦 2수씩 시제를 보내왔다. 이 때 부사가 출제한 시제는 다음과 같다.

賦

悠然見南山 (陶詩)

名教中 自有樂地 (晉記)

詩

春在枝頭已十分 (鶴林玉露), 분자로 압운

誦左太冲振衣濯足之句 歎不減目送飛鴻語 (世說), 鴻자로 압운

시제 출제 후 5월 25일까지 시권을 제출하도록 한 뒤, 부사가 고시하여 28일 방목을 작성하였다. 이 때 부사는 고시한 시권과 함께 부채 2자루와 연초 2근을 보내 성적 우수자에게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賦에서 총 103편, 詩에서 총 72편의 방목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4품 이상만 뽑아 부 45명, 시 30명 총 75명에게 시상하였다. 6월 1일 詩賦 각 장원에게는 부채 1자루와 연초 1근을, 이하 1, 2등에게는 白紙 1속을, 3등에게는 白紙 각 15장씩 시상하였다.<sup>553)</sup> 이처럼 1826년에는 순제나 백일장의 개설부터 부사에게 청하여 허락을 구하고, 시제의 출제와 고시 등 순제의 전 과정을 전적으로 지방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던 순홍

549) 같은 책, 「丙戌 4월 26일 牒呈」.

550) 같은 책, 「丙戌 4월 27일 牒呈」.

551) 같은 책, 「丙戌 4월 26일 牒呈」.

552) 같은 책, 「丙戌 4월 27일 牒呈」.

553) 처음에 부사가 詩賦 각 장원에게 시상하려고 부채 2자루와 연초 2근을 보냈으나 부의 장원으로 11 분짜리 동점자 2인이 나와 부사가 다시 장원의 상품으로 香草와 백지(부채 대신)를 추가로 보내고, 또 서원에서 試官에게 답례로 보낸 백지 2속을 다시 서원에 돌려보내 佳作를 추가로 뽑아 상품으로 쓰게 하였다(같은 책, 「丙戌 6월 초1일 牒呈」).

부사에게조차 서원의 순제 운영을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순흥부사 김조연은 이듬해에 원장에 임명되자 거접을 개설하고 날마다 入院하여 시제 출제와 고시를 담당하게 된다.

1827년 3월에는 거접이 개설되었다. 1827년 2월에 산장 李家淳이 서원에 들어와 거접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邦慶으로 상경하는 바람에 단자를 올리고 체임하였다. 이에 2월 28일 당회를 열어 부사 金祖淵을 추천하여 산장으로 삼고 3월 14일부터 거접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3월 14일 개접하여 3월 19일까지 6일간 거접이 개설되었으며, 겸원장 김조연이 날마다 입원하여 詩賦 한 수씩 시제를 출제하고, 매일 시권을 고시하여 방목을 작성하였다. 또한 3월 15일과 17일에는 부사가 酒饌을 마련하여 원임과 거접 유생들을 대접하였다. 제술 시권은 날마다 午時 혹은 巳時로 시각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4일에는 詩賦 총 69명, 15일에는 70명, 16일에는 84명, 17일에는 74명, 18일에는 102명, 19일에는 84명을 뽑아 방목을 작성하였다. 18일과 19일에는 부사가 臥丹倉 분급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鄉試官 전 지평 徐承烈이 대신 시제를 출제하고, 훈장 서간발, 진사 황연한, 서성렬, 김휘덕이 考官을 맡아 시권을 고시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講任을 체직하고 다음 강임으로 유침, 박규원을 천망하여 선출한 뒤, 부사가 부재중이라 파접례는 행하지 못하고 파접하였다. 이 해 거접의 제술 시제와 장원을 차지한 유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24>. 1827년 居接의 製述 試題와 壯元

날짜	詩壯元	詩題	賦壯元	賦題
3. 14	黃夢鳳	天以唐 克肖其德 聖子神孫 繼繼承承 於千萬年 儆戒不怠, 承자로 압운	洪鑿	功業方就 名聞方昭 四方鄉風而從 (출전 綱目)
3. 15	金斗炯	喜怒憂悲無聊不平 必於草書焉發之, 書자로 압운	金五奎 徐雲烈	生憎柳絮白於錦
3. 16	徐秉烈 黃萬駒 黃完金	對汪貢舉語一女子三古字之夢, 古자로 압운(출전 鶴林玉露)	徐雲烈 權德夏 柳軫喆 金華銖 權永夏	此肘不離案三十年
3. 17	徐在愚	有桑八百株 薄田十五頃, 頃자로 압운	金輝得 崔雲倬	早似荊卿 晚似魯連
3. 18	黃鱗八	臨水對山 驗太極圖中眞動靜, 靜자로 압운	金五奎 柳日獻 柳軫喆	文命敷于四海 祇承于帝

3. 19	黃鱗八 黃鐵駒 黃中璣 徐庚烈	對曰 天上奎宿 是本朝學士蘇軾, 士자로 압운	金秀民 徐膺烈	獨抱瑤琴過玉溪
-------	--------------------------	----------------------------	------------	---------

## V-4-2. 1828년 文會와 소백산 유람

1828년 4월 22일에는 洞主 姜樸이 文會를 열어 詩, 賦, 古風 각 한 수씩 출제하여 제술을 시행하고 총 214명의 방목을 작성하였다.<sup>554)</sup> 詩題로는 ‘東留無報 而徒失西遊之便’(押遊), 賦題로는 ‘詩社高人試下一轉語看’을 출제하였으며, 詩에서는 黃鱗八, 賦에서는 金鸞奎, 古風에서는 柳益吉이 장원을 차지하였다.<sup>555)</sup> 문회를 마친 뒤에는 대산의 손자이자 金宗德의 문인인 李秉運<sup>556)</sup>을 강운에 이어 동주로 추대하여 뽑고, 강운이 퇴계의 고사를 따라 소백산 유람을 제안하여 李泰淳, 李秉運, 李家淳 등 27명이 9일간 소백산을 유람한 뒤 「小白遊山錄」<sup>557)</sup>을 작성하였다.

이때 ‘퇴계의 고사’란 퇴계가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1549년에 소백산을 유람한 일을 말한다. 강운은 ‘우리들은 이미 늙었습니다. 다행히 죽계 洞天에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죽계의 근원인 소백산은 집밖의 텃밭처럼 가까워 발만 내밀면 다다를 곳에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월일이 遊山錄의 날짜와 똑같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sup>558)</sup>라고 하며, 이날 문회를 연 날짜가 우연히 퇴계가 소백산에 들어간 날과 일치한다고 하여 소백산 유람을 제안하였다. 이에 일행은 ‘山水는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즐기는 것이다. 공자가 泰山에 오르고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며 탄식하였고, 회옹은 衡嶽을 보면서 무이구곡을 읊었다. 고금의 성현이 반드시 산수에서 취하였으니, 이와 같이 산수가 성현의 즐거움을 감발시킨 까닭이 무엇이겠는가?’<sup>559)</sup>라고 하며, 퇴계의 유산록에 기록된 명승지를 따라 4월 23일부터 유람을 시작하였다.

퇴계는 1549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백산을 유람한 뒤 유람록을 남겼다. 그는 4월 22일 소수서원에 이르러 유생들을 만나고 하룻밤을 유숙한 뒤 다음 날 문인 閔蓍元, 閔應祺 부자와 함께 죽계에서 출발하여 <초암-청운대(백운대)<sup>560)</sup>-철암-명경암

554) 같은 책,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

555) 古風의 試題는 기록되지 않았다.

556) 李秉運(1766~1841)의 자는 際可, 호는 俛齋, 안동의 韓山 이씨로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자 손자이다. 어려서는 조부 이상정에게 수학하고, 1781년부터 대산 문인 金宗德에게 나아가 수학하였다. 1797년 음직으로 海陵참봉에 제수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함창현감, 청안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俛齋集』이 있다.

557) 『講所雜錄』, 「小白遊山錄」.

558) 같은 책, 「小白同遊序」. 여기서 ‘遊山錄’은 퇴계의 「遊小白山錄」을 말한다.

559) 같은 책, 「小白遊山追序」.

560) 퇴계에 앞서 주세붕도 소백산을 유람한 뒤 遊山錄을 남겼는데, ‘백운대’라는 이름은 이때 주세붕이 지은 것이다. 그런데 퇴계는 ‘백운동’과 ‘백운암’이라는 명칭이 이미 있으니 혼동된다고 하며 백운대를 ‘청운대’로 고쳤다. 백운대 외에 ‘광풍대, 제월대, 백설봉’ 등도 주세붕이 이때 유람에서 붙인 이름이다 (『退溪集』 권 41, 雜著, 「遊小白山錄」).

-광풍대>를 거쳐 석륵사에서 유숙하고, 24일에는 <석륵봉-자개봉-국망봉-중백운암-제월대>에 오른 뒤 다시 내려와 석륵사에서 유숙하였으며, 25일에는 <환희봉-자하대-상가타암-금강대-화엄대-중가타암-죽암폭포-금당암-하가타암-관음굴>을 유람한 뒤 관음굴에서 유숙, 26일 하산하여 <박달재-비류암-옥금동>을 거쳐 郡으로 돌아왔다. 퇴계는 이르는 곳마다 직접 목격한 산세와 풍광을 상세히 묘사하고, 주세봉이 남긴 유산록을 참고하여 봉우리, 암자, 대의 이름을 일일이 확인하며, 주세봉의 발길이 닿지 않아 미처 명명하지 못한 소백산 서쪽 골짜기의 절경에는 직접 이름을 붙이고 그 이유를 기록하는 등, 유람의 전 과정을 유람록에 매우 상세히 기록하였다. 국망봉에 이르러서는 나무를 보고 ‘앙상하고 높아 괴로움을 견뎌서 모두 힘써 싸우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깊은 숲속 큰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크게 달랐다. 거처에 따라 氣像이 변하고, 길러짐에 따라 體가 변함은 식물과 사람이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며, 고랭한 기운과 매서운 바람으로 가지와 줄기가 굵고 왜소해진 국망봉 꼭대기의 나무를 보며, 사람에게나 식물에게나 환경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느낀 바를 술회하고 있다.<sup>561)</sup> 또 말미에서는 유산록을 기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처음 周景遊의 遊山錄을 백운서원의 有司 김중문에게서 얻었는데 석륵사에 가보니, 이 유산록을 현판에 써서 벽에 걸어 놓고 있었다. 나는 그 시와 글의 웅장하고 빼어남을 좋아하여 가는 곳마다 퍼서 읊으니, 마치 흥안 백발의 늙은이와 함께 서로 얘기하고 酬唱하는 것 같아서, 이 때문에 흥이 나서 취미를 얻은 것이 참으로 많았다. 산을 유람하는 사람은 참으로 기록이 없을 수 없고, 기록이 있는 것은 산을 유람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가 느낀 것이 또 있으니, 문사로서 周景遊보다 먼저 와서 유람한 자로 山人들이 일컫는 바로는 오직 湖陰 鄭先生과 태수 林霽光뿐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술한 것을 찾아보면 임 태수는 일언반구도 찾을 것이 없고, 호음의 시는 겨우 초암사에서 읊은 절구 한 수가 보일 뿐이다. 또 그 밖의 것을 찾아보면 석륵사의 승려가 黃錦溪의 시를 가지고 있고, 명경암 벽에 黃愚叟의 시가 있을 뿐이며, 더 이상은 보이는 것이 없다. 아, 영남은 곧 사대부에게 冀北같은 지역이다. 영주와 풍기 사이에 큰학자와 선비들이 잇달아 나와서 찬란하였으니, 이 산에 와서 유람한 사람이 고금을 통하여 얼마나 많았겠으며, 기술하여 전할 만한 것이 어찌 여기에 그치지겠는가. 생각건대, 죽계의 여러 安氏들은 이 산 밑에서 精氣를 타고 나서 이름이 중원에게까지 떨쳤으니, 틀림없이 이 산에서 노닐고 이 산에서 즐기고 이 산에서 읊고 노래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산에는 벼랑에 새긴 것도 없고 선비들이 입으로 외는 것도 없어서, 자취가 없어 찾을 수가 없다.

대개 우리나라 풍속이 산림의 고아함을 좋아하지 않고, 일을 좋아하여 傳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명성을 드높이 세운 여러 안씨들과 큰 산으로 유명한 이 지역의 이 산처럼 빼어

561) 『退溪集』 권 41, 雜著, 「遊小白山錄」.

난 곳에 대해서도 마침내 전할 만한 문헌이 이와 같이 없으니, 다른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물며 산 언덕이 적막하고 고요하여 천년 동안 참다운 隱者가 없으니, 참다운 은자가 없으면 참다운 鑑賞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공문서 속에서 몸을 빼어 임시로 산어귀를 거니는 우리 같은 무리야 어찌 이 산에 가치를 실어주겠는가. 우선 본 것을 차례로 엮고 지은 것을 기록하니, 뒤에 보는 자가 이 글에 대한 느낌이 또한 나의 주경유에 대한 느낌과 같을지 모르겠다.”<sup>562)</sup>

퇴계가 기록한 대로, 1828년 유람에 나선 일행들은 퇴계의 유산록을 바탕으로 유산록에 기록된 명승지를 찾아 기록과 일일이 비교해가며 소백산을 탐방하였다. 4월 23일에는 죽계구곡을 거슬러 올라가 초암사에서 묵고, 24일에는 화개봉, 석림봉, 국망봉을 차례로 올랐다가 내려와 석륵암에서 묵으며 운자를 내어 각각 오언절구와 오언율시로 수창시를 주고받았다. 이튿날에는 석륵암을 떠나 퇴계가 이르렀던 서쪽 골짜기의 가타암 舊址를 찾아보려고 하였으나 잡초가 우거져 갈 수 없었다. 이에 셋길로 박달재를 거쳐 비로사에 도착하였는데 비를 만나 비로암에서 하루 유숙하였다. 26일에는 옥금동으로 내려와 퇴계를 제향한 옥양서원과 황준량이 공부하던 금양정사를 둘러보고 회야골에 도착하였다. 회야골에서 하루 묵은 뒤 27일에는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있는 회방폭포를 탐방하고 회방사에 도착하였다. 특히 이 날 탐방한 회방폭포는 퇴계의 유산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소백산을 유람하고 회방폭포를 보지 않는 것은 마치 妓房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나오는 것과 같다’<sup>563)</sup>고 할 만큼, 동남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승지였다. 28일에는 회야골 진사 黃伯修가 黃龍漢(1744~1818)의 문집인 貞窩集을 가지고 와서 강운, 이가순, 서간발, 유정문에게 교감을 청하여 회방사에서 4일간 유숙하며 다함께 정와집을 강독한 뒤 9일간의 유람을 마쳤다.<sup>564)</sup> 이때 유산록의 서문을 쓴 서간발은 당시의 유람과 퇴계의 유산록에 기록된 내용을 비교하며 유람의 소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앞뒤로 9일이 걸려 소백산 유람이 이로써 끝을 맺었다. 함께 유람한 사람들은 누가 낮고 못하고를 논할 것도 없이 모두 같은 풍류객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擎厦(姜樑)가 강건하면서도 疏宕하였다. 언덕 하나 돌 하나라도 아름답고 기이한 곳을 만나면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서 험한 것을 꺼리지 않았다. 간혹 평평한 곳이 드러나면 시를 읊으며 유유자저거하니 참으로 산수에 대하여 높은 아취를 가진 풍류의 盟主였다. (...) 이번에서 쪽으로 폭포가 있는 곳까지 찾아갔는데, 폭포는 바로 (퇴계선생의) 유산록에는 기록되지 않

562) 같은 책, 같은 글.

563) 『講所雜錄』, 「小白遊山錄」, ‘李秀德評’.

564) 『講所雜錄』, 「小白遊山錄」 및 「小白同遊序」.

은 곳이다. (...) 폭포는 마땅히 동남지방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에 속하는데 유독 선생의 발자취와 기록에서 빠져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산수가 큰 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역시 운수가 있는 것인가. 어쨌든 깊은 감회가 있는 곳이다.

산중의 명승지로서 초암과 옥금동은 모두 安謹齋의 죽계별곡에 실려 있어 세상에 전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지 않은데도 산에는 刻石도 없고 선비들이 읊은 시문도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생께서 유람하실 때에 탄식하신 바이다. 더욱이 지금 백세가 지난 뒤에 遺韻이 점점 멀어지고 土風이 쓸린 듯이 사라져 나무를 묻는 자가 없다. 사찰에 있어서도 곳곳마다 폐허가 되었고 스님들도 새와 짐승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니 어찌 옛날 퇴계선생이 유람하실 때 스님 宗釋가 따라다니며 古事를 이야기하였던 것을 바랄 수 있겠는가.

(퇴계선생의) 유산록에 기록된 것과 비교해보면, 전후 산행에서 실제 심방한 곳은 국망봉, 화개봉, 석류봉 등의 산봉우리와 석류암, 가타암, 산대암 같은 곳에 불과하고, 관음굴과 죽곡폭포, 금강대와 화엄대 등 여러 곳은 단지 지팡이로 가리킬 수 있는 곳에 있었고, 석류암 아래에 이른바 철암, 명경암, 묘적암이라는 곳도 초암 위에 있었으나 까마득하여 어느 곳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결국 직접 찾아가서 본 것이 백분의 일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우리들의 평생 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산은 늙지 않고 찾아오는 이는 무궁하리니, 누구라도 참으로 이 산 속 명승지를 찾아 유산록 속에 있는 기이한 이야기와 장관을 모두 밝게 된다면 이 또한 이 소백산의 행운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행운이 되지 않겠는가.”<sup>565)</sup>

또한 당시 별임을 맡았던 서성렬은 국망봉, 석류암, 희방폭포 등 곳곳에서 주고받은 수창시를 모아 책으로 만들기를 제안하고 유산록의 발문을 지었다. 이들은 ‘소백기행’과 ‘희방폭포’를 주제로 장편의 聯詩를 짓기도 하였으며, 명승지에서 뿐 아니라 희방사에서 강독할 때에도 문집에서 운자를 내어 수창시를 지었다. 그 중 ‘小白紀行 聯句’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월 백운동	四月白雲洞(이태순)
온화한 바람 맑은 경치에	風和景又明
幽人是 한가한 날 많아	幽人多暇日(이병운)
흥겨운 유람에 영걸들 다 모였네	勝事集群英(이가순)
(...) 스님 바리에 고사리 국 먹고	禪鉢蕨芽羹
걸음마다 괴로움 이기니	寸寸躋攀苦(강운)
올라갈수록 조망이 펼쳐지네	迢迢眺望平
어느새 정상에 오르니	居然已絕頂(서간발)
어디가 瑤京인지	何處是瑤京
지척에 호흡 통하고	咫尺通呼吸(이치형)
어슴푸레 피리소리 들리는 듯하네	依稀聞篳篥
태산에 올랐던 성인을 생각하며	緬懷聖登泰(강태중)

565) 같은 책, 「小白同遊序」.

다시 비껴가는 구름 바라보네  
 땅은 치솟았다 패이고  
 온 하늘엔 경위가 늘어서니  
 웅장하도다, 조화의 힘이여

復睹雲開衡  
 大地分窪突(이치정)  
 彌天列緯經  
 壯哉造化力(유정문)<sup>566)</sup>

이들은 시에서 유람의 여정, 풍광 뿐 아니라 성인의 경지와 조화의 道를 함께 논하고 있다. 즉, 이때 소백산 유람은 ‘자연의 조화를 통해 이치를 발견하며, 산의 어둠과 물의 지혜를 통해 義理를 편안히 여기고 事理에 통달한 현자의 도덕을 본받기 위한’ 배움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서성렬은 ‘제공들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소백산 정상까지 오르며, 깊은 계곡과 虎豹의 험한 길을 뚫고 다니면서도 그만두지 않은 것은, 더불어 道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 해 소백산 유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각건대, 제공들이 지팡이를 짚고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깊은 계곡을 찾아다니며 덩굴을 잡고서 오르고 虎豹가 다니는 길을 뚫고 다니면서 그만두지 않은 것이 어찌 다리 힘을 다 쏟아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뽐내려 한 것이겠는가. 여기에는 반드시 즐기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대개 산이 重厚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어진 자가 義理를 편안히 여기는 것과 같고,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事理에 통달한 것과 같다.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 하나의 이치가 무궁하면서 壽와 樂이 갖추어진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노선생께서 쓰신 유산록 한 부는 바로 저 산수의 그림자이니, 어질고 지혜로운 자가 즐기는 것이 천년 후세에도 묵묵히 일치하는 점이 있어, 이 영남의 후학들로 하여금 餘韻을 집하고 자취를 찾게 하였고, 산을 오르고 물을 거슬러가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다. 바다를 본 자에게 물을 말하기 어렵다는 탄식을 하면서 높은 산을 우러르듯이 선생을 흠모하는 마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칠 수 없는데, 이 산수가 도움이 없지 않았으니, 이 유람을 어찌 한 차례 놀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가.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道이다.”<sup>567)</sup>

즉, 이때 소백산 유람은 遊息의 과정이자 동시에 서원 강학의 목표였던 ‘道를 발견하고 체인’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이었다. 또한 유람의 마지막 4일간 회방사에서 이병운, 이가순, 강운, 유정문 등 湖學의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대산의 문인이었던 黃龍漢<sup>568)</sup>의 정와집을 강독, 교감하고 있는 것을 통해 19세기 소수서원이 대산 학맥의

566) 같은 책, 「小白遊山錄」.

567) 같은 책, 같은 글.

568) 黃龍漢(1744~1818)의 본관은 창원, 호는 斗谷生, 貞窩, 풍기 회야골 출신이다. 이상정의 문인이 되어 이상정은 그에게 ‘敬字要訓’을 내려주었으며, 30대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평생 주자, 퇴계 글의 연

계승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때 유람에 참석한 27명은 姜 樞, 李泰淳, 李秉運, 李寅極, 姜彬, 李家淳, 金鎭運, 柳燾, 朴奎元, 黃秀漢, 琴錫斗, 李仁浩, 徐成烈, 鄭光柱, 徐榦發, 李致馨, 金養休, 姜泰重, 金樂周, 李衡相, 李彦秀, 李致楨, 柳宜喆, 柳鼎文, 徐東烈, 金驪書, 李秀德 등이다.

---

구에 매진하였다. 柳長源, 南漢朝, 李獻淳 등과 교유하였으며, 유치명은 그의 사후 ‘근세에 貞窩 황모와 같이 학문이 정밀하고 견식이 분명한 이가 없다. 늘 찾아가 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한스럽다’고 하였다. 鄭琢의 『藥圃集』을 교감하고, 權文海의 『草澗集』을 편찬하였으며, 柳友潛의 묘갈문을 썼다.

## V-5. 李象靖 학맥의 등장 배경과 湖學의 계승

이 절에서는 李象靖 학맥이 19세기 소수서원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상정의 문인들이 19세기 소수서원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정 문인의 일부는 이미 18세기부터 소수서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순흥이나 영천 등 인접지역에 세거하면서 대대로 소수서원에서 활동해온 집안 출신으로, 역시 소수서원에서 활동하다가 18세기에 대산 문인이 된 인물들이었다.<sup>569)</sup>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은 영천의 달성 서씨, 창녕 성씨, 성주 배씨, 선성 김씨, 안동 권씨, 그리고 순흥부 외의 지역으로는 안동의 진성 이씨 등이 있었다. 안동의 진성 이씨 李宗洙만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소수서원 인근 지역 출신으로 대산 문인이 되기 이전부터 본래 소수서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즉, 18세기 소수서원에서 활동한 대산 문인들은 대개 본부 출신이었고, 예안이나 안동 거주자는 거의 없었다. 특히 대산 문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달성 서씨는 徐翰廷(1407~1490)의 후손으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꾸준히 원장을 역임하며 소수서원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한 집안이다. 달성 서씨 중 대산 문인은 徐昌載, 徐昌鏡,<sup>570)</sup> 徐宗胤,<sup>571)</sup> 徐弘胤<sup>572)</sup> 등 4명이나 되고, 그 외에도 徐翰發<sup>573)</sup>은 대산의 재전 문인(정종로 문인), 徐在愚<sup>574)</sup>는 유치명 문인<sup>575)</sup>이었으며, 徐宗胤의 손자이자 徐在愚의 아버지인 徐成烈은 대산이나 유치명의 직전 문인은 아니었으나 대산 학맥과 평생 교류하며 학문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 중 특히 1766년 별유사로 거재와 거접을 개설하고, 1780년 거재에서 훈장을 맡았던 徐昌載(1726~1781)는 37세에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대산 문인이 되어 대산과

569) 이하 이상정 문인은 고산급문록에 수록된 인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大山全書』3, 「高山及門錄」).

570) 徐昌鏡(1726~1799)은 1759년 별유사, 1794~1797년 원장에 임명되었으나 행공하지 않았다.

571) 徐宗胤(1740~1777)은 1760~1761·1763~1766년 거재, 1765년 백일장, 1766년 거접에 참여하였다.

572) 徐弘胤(1760~1826)은 서창경의 아들, 1790~1793년 거재에 참석하고 1794~1804년 별유사, 1822년 원장을 역임하였다.

573) 徐翰發(1774~1833)은 서종윤의 아들, 4세에 생부가 졸하여 서창재가 길렀다. 대산 문인 정종로의 문인으로, 李仁行, 李秉運, 李家淳, 姜標, 權補 등과 교류하였다. 1796년 백일장, 1801년 통독, 1810~1813·1827년 거재, 1818년 향음주례와 통독, 1828년 소백산 유람에 참여하였으며, 1826년 통독에서 講任을 맡았다.

574) 徐在愚(1804~1879)는 서종윤의 증손, 서성렬의 아들로 1831년 진사시에 입격. 1841~1847·1850년 별유사, 1862년 원장을 역임하고, 1826~1849년 통독과 1827년 거재에 참여하였다. 유치명의 문인이었으나 문인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575) 이하 유치명 문인은 「定齋先生門人錄」에 수록된 인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全州柳氏水谷派之文獻叢刊』, 安東水柳文獻刊行會, 1983).

많은 토론을 주고받으며 각별한 사제관계를 맺었다. 특히 중용과 심경에 대해 많은 문답을 주고받았으며,<sup>576)</sup> 1770년에는 소수서원 향음주례에 이상정을 초대하기도 하고,<sup>577)</sup> 소수서원 출신으로 서창재보다 늦게 대산 문인이 된 權益禧, 權益章 형제에게 대산은 서창재를 학문의 선배로 소개해주기도 하였으며,<sup>578)</sup> 서창재 사후에는 직접 행장을 지어 다음과 같이 서창재를 평하고 있다.

“유학의 도가 세속의 관습과 다르며, 이 학문이 겸손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을 추구하여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았다.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두렵다고 하여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고, 성인을 배울 수 있다면 조금 성취했다고 하여 안주하지 않았으며, 매일 부지런히 탐구하기를 열병에 걸렸을지라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기에 힘썼다. 만일 공에게 더 많은 壽를 누리게 하여 그의 힘을 끝까지 다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의 성취를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애석하게도 공은 여러 해 동안 고질을 앓아 철저히 진력하지 못하였고, 중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 크게 성취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공을 세상에 내고서 또 갑자기 거둔 것은 그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리석은 나도 공이 교유하는 사람들 중에 끼여 있어서, 간혹 공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 내가 멋대로 평론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나에게 미혹된 일이 있어 고맙게도 공이 가르쳐 준 일도 있었다. 앞으로 백년을 더 살 것처럼 길이 변치 않을 기약을 다짐하였지만, 나를 버리고 먼저 떠나 나로 하여금 저무는 길에 혼자 서서 황망히 돌아갈 곳이 없게 하리라고 그 누가 알았겠는가”<sup>579)</sup>

李宗洙(1722~1797)는 안동의 진성 이씨 李漢의 9대손으로, 1789년 통독에서 일기 유사를 맡았으며, 1790년 거재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대산 문인 중에서도 金宗德, 柳長源과 함께 ‘湖門三老’로 일컬어지는 고제였으며, 19세에 대산 문하에 나아가 40여 년 동안 학문에 전념하여 위기지학에 힘쓸 뿐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저서로 『朱語類輯』·『感興詩諸家註解』·『家禮輯遺』·『后山集』·『九經蠡酌』·『學習』·『退溪先生詩筭錄』·『退陶書節要筭疑』 등이 있다. 그 중 『退陶書節要筭疑』는 이상정이 퇴계의 『朱子書節要』를 본받아 퇴계의 서간 중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려 다시 『退溪先生書節要』를 편찬하였는데, 이종수가 그 중 故事와 名物의 유래와 출처 등에 대해 다시 주석을 덧붙인 것이다. 이종수 사후 金道和 등이 抄出하여 簡編을 정하여 교정, 완성하였다. 즉, 『退陶書節要筭疑』는 퇴계에서 이상정, 이종수로 이어지는 대산 학맥의 학통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576) 『大山集』, 권 27, 書, 「答徐尙甫 甲午」; 「答徐尙甫 庚子」 등.

577) 『梧山集』, 권 2, 「上大山先生 庚寅」. 그러나 이때 소수서원의 향음주례는 향교 이건 문제로 취소되어 대산은 소수서원에 방문하지 못했다.

578) 『大山集』, 권 37, 書, 「答權休伯益禧 文伯益章」.

579) 『大山集』, 권 52, 行狀, 「梧山處士徐公行狀」.

成彦極(1730~1786)은 영천의 창녕 성씨 成安義(1561~1629)의 6대손으로, 이 집안도 17세기부터 원장을 역임하며 19세기까지 대대로 소수서원에서 활동한 집안이다. 成彦極은 1753년 소과에 입격, 1755·1756·1767·1769·1770년 별유사, 1766년 소수서원 거제에 참석하고, 1767년 순제와 백일장 및 1778년 순제에는 별유사이자 考官으로, 1770년 백일장에도 考官으로 참여하였으며, 1781년에는 대산 문인 중 최초로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대산 문하에 나갔을 때 대산은 그를 보고 ‘입지가 순실하고 말마다 이치가 당연하니 우리들 중에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그 밖에 裴是袵(1730~1794)은 영천의 성주 배씨 裴應璫의 후손으로 1749·1761년 거제에 참여, 金世鍊(1733~1790)은 영천의 선성 김씨로 1788년 9월 원장으로 양사청을 복설하고, 1789년 통독에서 통독절목을 작성, 도훈장을 맡았으며, 權益禧, 權益章은 안동 권씨로 1780년과 1790년 거제에 참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소수서원에서 활동한 대산 문인들은 대개 본부 출신으로, 유생으로서 강학에 참여하거나 원임의 일부로 활동했을 뿐, 湖學의 학문적 영향 아래 강학의 성격을 좌우하거나 원장 직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강학에서 원임이나 훈장으로 활동한 인물은 서창재, 이종수, 성언극, 김세련 4명 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유생으로 강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안동의 호계서원과 고산정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柳範休, 李野淳, 李泰淳, 李家淳, 姜樛, 李秉運, 柳鼎文 등 안동과 예안 출신의 대산 문인들이 소수서원에 진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18세기 후반 대산 문인으로 원장을 맡고 있던 金世鍊에 의해 마련되었다. 金世鍊은 1788년 9월, 당회를 거쳐 이전까지 부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원장의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完議를 작성하였다.

“본소는 우리 동방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이니, 온 나라 유림으로서 누구인들 존중하고 흠모하지 않겠는가. 院任을 도내로 확대하여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일찍이 선배들의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지내오고 있다. 서원의 여러 가지 제도가 모두 그 옛날 규례를 잃어버렸고 본소를 존경하는 體貌도 전만 못하다. 이는 단지 한 고을이 수치스럽게 여기고 한탄할 일일 뿐만 아니라 도내 유림이 함께 안타깝게 여길 바가 아니겠는가.

이에 가을 향사 때에 堂中에서 두루 자문하고 널리 도모하여 옛날의 논의를 확고하게 정하여 鄕先生 및 院任 각 덕에 아뢰니 모두 똑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체임될 때를 기다려 原任이 같이 모여 도산서원의 사례에 의거하여 도내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되 鄕中과 도내에서 돌아가면서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을 정한다.”<sup>580)</sup>

580) 『雜錄』, 「戊申 9월 초9일 完議」.

이때 원장 김세련 외 31명이 연명으로 완의를 작성하였는데, 31명 중에는 이종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재정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원장의 거주지를 도내로 확대함으로써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선임하여 서원 운영을 좀 더 원활히 도모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완의는 안동과 예안에 거주하던 대신 문인들을 소수서원 원장으로 추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여, 이들이 동주로서 19세기 소수서원의 강학을 주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특정한 학파적 성향을 띄지 않았던 소수서원이 19세기에는 湖學의 학맥을 잇는 학파적 성향을 처음으로 갖게 되면서, 강학을 통해 호학의 학문적 특징이 계승, 전파되고 있었다. 이종수 역시 완의 작성 직후 원임에 임명되어 1789년부터 1791년까지 별유사를 역임하고 있다. 완의 작성 이후 본부 외에 거주하는 대신 학맥으로 소수서원 원장을 역임한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25>. 戊申 完議 이후 다음 거주 대신 학맥 중 원장에 임명된 인물

성명	원장 임명연도	사승관계	성명	원장 임명연도	사승관계
權思潤	1794	李象靖 문인	李秉運	1828	李象靖·金宗德 문인
權訪	1795-1803		柳致明	1842	柳長源·南漢朝 문인
金垓	1802		琴詩述	1850	李野淳 문인
李埴	1807	李象靖 문인·조카	金禹銖	1857	柳致明 문인
柳範休	1808	李象靖 문인	成赫壽	1867	
李周禎	1809		權泳夏	1867~1879 사이	
金熙周	1815		權璉夏	1883-1886	
李泰淳	1817		金興洛	1883~1885 사이	
李野淳	1822		權世淵	1887~1892 사이	
金熙紹	1824	李宗洙 문인	柳必永	1919	金興洛 문인
李家淳	1826-1841		李晚燾	1902	
姜樞	1827-1832	유범휴의 고산강회 참석 후 대산학 계승	李中轍	1913	
			柳淵楫	1924	
鄭必奎	1824	金宗德 문인	柳淵龜	1927	

그 중 1808년에는 안동 유림의 종장으로 19세기 초 이상정 학통을 주도하던 柳範休가 동주로서 통독을 개최하고, 1815년에는 역시 안동 출신 김희주가 동주를 맡아 거재를 개설, 1818년에는 예안의 이태순이 동주, 이야순이 장식으로 향음주례와 통독을 시행하였으며, 1826년에는 예안의 이가순이 동주로 통독을, 1827년에는 안동의 강운이 동주로 거재를, 1828년에는 강운이 문회를 개설하고 후임 원장으로 대산의 손

자 이병운을 선출한 뒤, 이태순, 이가순, 유정문 등과 함께 소백산을 유람하고, 대산 문인 황용한의 문집을 교정하였으며, 1832년 강회에는 유치명이 참석하고, 1849년에는 유치명 문인 홍전이 강임으로 통독을, 1900년에는 유치명의 재전 문인 김동진이 절목을 작성하여 거재를 운영하는 등 19세기 소수서원 강학은 대개 호학의 핵심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강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인 『朱子書節要』, 聖學과 心學의 요체를 다룬 퇴계의 『聖學十圖』,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한 것으로 이상정과 유치명이 매우 중시했던 주자의 「玉山講義」와 『延平答問』, 未發과 已發, 動靜을 관통하는 通體 공부로서 이상정이 강조했던 戒愼恐懼의 의미를 다룬 『中庸』 등을 강론하며, 19세기 소수서원은 강학을 통해 心學과 일상의 실천을 강조한 湖學의 학문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湖學의 영향은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병호시비의 와중에서 소수서원이 호론의 입장에 서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864년 5월에는 임천서원 청액소를 위한 도회를 소수서원에서 개최하고,<sup>581)</sup> 대원군의 휘철령으로 호계서원이 휘철된 이후 1877년 8월 호계서원의 복설을 위한 상소 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호계서원을 대신하여 소수서원이 소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sup>582)</sup> 강학을 통한 호학의 계승은 19세기 후반 병호시비의 와중에서 호론의 정치사회적 입장까지 계승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581) 권오영, 「유치명 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61~362쪽.

582) 권오영, 같은 글, 같은 책, 377쪽.

## VI. 요약 및 결론: 朝鮮時代 紹修書院 講學의 교육학적 해석

이상에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이념과 실제 및 그 변화 양상, 시기별 강학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II장에서는 제도적으로는 남송의 백록동서원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관학의 보조 기구로서 科業을 충실히 수행했던 북송 서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주세붕의 서원관을 검토하고, 그의 서원관은 實事적인 입장에서 주자학을 이해한 그의 독특한 주자학적 해석 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주세붕의 서원관은 소수서원의 운영 실제와 강학의 성격 규정에 영향을 미쳐, 17세기까지 소수서원은 과거 입격자 중심으로 유생을 선발하고 科業을 목표로 한 居接 위주의 강학을 시행하고 있었다.

III장에서는 17세기 居接의 운영 실제와 科業 위주의 강학방식에 대한 비판, 罷格 논쟁을 통해 소수서원의 강학 이념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이후 ‘科業’이 아닌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서원 강학 이념이 점차 확산되면서, 17세기 초 소수서원에서도 주세붕이 규정했던 과거 입격자 위주의 入院 자격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1719년 과거 입격자 위주의 입원 규정을 개정하는 ‘罷格’으로 확정된 이 논쟁은, 이후 18세기 강학의 성격이 ‘科業’에서 ‘道學’으로 변모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설립 초기 ‘관학의 보조 기구로서 科業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되던 서원이, ‘科業이 아닌 道學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립되기까지 무려 2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걸린 것이다.

이 논쟁은 기존 연구에서 ‘鄉權’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서원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시 유자들의 치열한 고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 고민의 실체는 바로 서원을 ‘퇴화된 관학을 대신하여 과거공부를 충실히 수행하는 학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과거 준비 기관으로 전락한 관학의 폐해를 넘어 선비의 본업인 道學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도장으로 만들 것인가’의 갈등이었다. 본래 ‘修己治人’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유학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결코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이 논쟁에서 罷格을 주장한 풍기군수 李垞의 우려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유학에서 ‘德行은 근본이고 文藝는 말단’인데, 科業에 치우친 공부는 자칫 덕행을 등한시하고 화려한 문장의 수식에만 마음을 뺏겨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科業의 폐해를 지적하고 서원 교육의 본령은 科業이 아닌 道學

에 있음을 천명한 주자와 퇴계의 서원 강학 이념을 계승한 것이었다. 지난한 논쟁 끝에 결국 18세기 초 이 논쟁이 罷格으로 확정된 것은, ‘德行은 근본이고 文藝는 말단’이라는 李堧의 논리가 관철된 것이며, 주자와 퇴계가 천명했던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18세기 초에 이르러 비로소 정착, 공유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 논쟁을 통해 조선 서원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서원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이 미처 확립되지 못했던 16세기 조선의 현실에서, 약 2세기에 걸쳐 지속된 이 지난한 논쟁은, 어쩌면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이 겪어야만 했던 필연적인 통과례였을지도 모른다.

IV장에서는 17세기 과도기를 거쳐 18세기에 ‘道學을 講明하는 곳’으로서의 서원 강학 이념이 정착되고, 나아가 ‘心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구’로 道學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居齋의 교육과정과 운영 실제, 敬讀 및 通讀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명하였다. 1719년의 罷格 확정 이후,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은 ‘道學의 탐구와 실천’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科業을 목표로 한 居接’에서 ‘道學을 목표로 한 居齋’로 강학의 형태와 내용이 뚜렷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道學의 핵심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道學을 목적으로 한 18세기 居齋의 특징은 心學을 지향하며 心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구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居齋에서는 心學의 이론적 체계를 다룬 『心經』과 『近思錄』, 그리고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朱子書節要』를 매일 通讀함으로써 心學의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고, 매일의 시공간에서 敬을 유지하기 위한 공부법을 상세히 제시한 「敬齋箴」과 「夙興夜寐箴」을 날마다 敬讀함으로써 敬의 공부론을 내면화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18세기 소수서원 강학이 지향했던 心學, 즉 ‘마음공부’는 늘 의관을 정제하고 곳곳이 앉아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경전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딱딱하고 지루한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원의 교육과정은 ‘敬’을 유지하기 위한 몸과 마음의 엄격한 검속을 중시하는 동시에, 자율과 소통, 여가와 유식, 시짓기와 놀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었다. 通讀을 하다 문득 비가 내리거나 눈이 훑날리는 날에는 잠시 강독을 중단하고 흥취에 젖어 다함께 수창시를 짓기도 하고, 유생들에게는 독서를 통한 ‘藏修’의 과정 뿐 아니라 공부를 하는 여가에 틈틈이 정자와 누각에서 산보하고 시를 읊는 ‘遊息’의 과정 역시 늘 강조하곤 하였다. 이는 정자와 누각에 깃든 자연을 통해 느끼는 흥취가 ‘독서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경전 속의 이치’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풍기군수 주세붕이 지은 景濂亭과 퇴계가 지은 翠寒臺, 17세기 풍기군수 이준이 조성한 濯淸池와 仰高臺 등은, ‘藏修’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性情을 닦고 기르는 ‘遊息’의 교육적 의미를 잘 보여주는, 소수서원의 유식 공간이자 동시에 교육 공간이었다.

또한 18세기 居齋의 마지막 절차는 언제나 ‘酬唱詩’로 마무리되었다. 居齋에서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평가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강학에서 느낀 소회와 교육적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권면하면서 스승과 학생이 함께 하는 ‘시 짓기’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서원교육의 목표와 합의를 보여주는 매우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한 유생들에게 선행의 본보기로서 ‘老儒’를 예우하고, 개별적인 ‘藏修’의 과정 외에 ‘공동학습으로서의 通讀’을 통해 ‘麗澤觀善’을 추구함으로써, 18세기 居齋에서는 群居講學을 통한 ‘麗澤’의 실현과 ‘소통’을 중요한 강학 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특히 通讀은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 자율적인 토론과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교육과정이었다. 즉, 心學을 지향했던 18세기 居齋의 교육과정은 敬의 공부론을 통한 몸과 마음의 엄격한 검속 뿐 아니라, ‘藏修와 遊息’, ‘詩書禮樂’을 동시에 아우르는 교육과정이었다.

V장에서는 19세기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관리를 원장에 임명하거나 兼院長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강학을 지속하고자 했던 소수서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1827년 중용 강회의 강론 내용을 통해 19세기 강학에서 湖學의 학풍이 계승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9세기에는 이전까지 뚜렷한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을 띄지 않았던 소수서원에 大山 李象靖과 定齋 柳致明의 문인들, 이른바 湖學의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여 洞主를 맡아 강학을 주도함으로써, 학파적 특징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수서원에 학맥이나 학파적 성향이 19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16, 17세기부터 특정 스승이나 학파의 학설을 계승, 전파하기 위해 서원을 설립하고 특정 학맥을 중심으로 강학을 전개해가던 여타 서원의 모습과는 차별화되는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상과 특징을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강학의 내용에 있어서도 心學의 실제적 지침서인 『朱子書節要』, 聖學과 心學의 요체를 다룬 퇴계의 『聖學十圖』, 이상정이 직접 圖說까지 그리고 유치명이 ‘爲己之學과 尊德性의 실천적 공부론’을 강조한 글로 중시했던 주자의 「玉山講義」, 일상에서의 心學의 실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룬 글로서 이상정이 문인들에게 늘 강조하며 직접 속록과 발문까지 지었던 『延平答問』, 未發과 已發, 動靜을 관통하는 通體 공부로서 이상정이 강조했던 戒愼恐懼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다룬 『中庸』 등을 강론하

며, 19세기 소수서원은 강학을 통해 心學과 일상의 실천을 강조한 湖學의 학문적 특징을 계승하고 있었다.

즉, 18세기 강학이 ‘心學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19세기 강학은 그 ‘心學의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일상의 현실에서 지속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곧 심학 공부를 통해 습득한 ‘마음의 원리와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면 일상의 덕성과 결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위한 공부론’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식과 덕성의 결합은 곧 ‘관계’를 통해 구현된다고 믿었다. 그 관계는 ‘五倫’으로 표현되는 인간관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 ‘텍스트(경전)와 나의 관계’, 자연과 타자를 포함한 ‘세계와 나의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 ‘관계의 어그러짐’은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뜻할 뿐 아니라, 곧 ‘존재의 소외’를 뜻하는 것이었다. 즉, 18세기 이래 소수서원 강학에서 강조한 心學의 탐구와 敬의 공부론, 藏修遊息 및 詩書禮樂을 아우르는 교육과정, 麗澤觀善의 강학 이념 등은 모두 결국 ‘몸과 마음’, ‘세계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식과 덕성이 괴리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순간 존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자가 얘기했던,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로서의 ‘豁然貫通’, 주자의 스승 李侗이 『延平答問』에서 강조했던 ‘融釋과 灑落’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었다.

한편, 18세기 이래 강학의 목적으로 ‘道學’을 표방하면서도 소수서원에서는 科業을 한 번도 폐한 적이 없었다. 강학의 본령은 道學에 두면서, 대다수가 과거에 응시할 유생들이라는 서원의 현실을 반영하여 18세기 이래 居齋에서도 부차적으로 科業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科業과 道學의 병행은 필연적으로 ‘지식과 덕성이 괴리될’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는 17세기 풍기군수 李堧이 罷格을 주장할 때 우려했던 바와 같이, 道學의 요체는 다름 아닌 ‘덕성의 함양’에 있었는데, 과거시험에서는 ‘덕성’이 아닌 ‘문장’을 시험하였으므로, 과거공부는 자칫 덕성의 함양과 실천은 도외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문장의 수식에만 치중하여 학문의 뜻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원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과업을 준비시키고, 한편으로는 유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술을 행할 때마다 일부를 선발하여 성적순으로 방목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본의 아니게 성적으로 유생들을 서열화하는 결과가 되어, 유생들 사이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과거공부 역시 성인의 학문을 다룬 四書三經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道學의 범주에 속하지만, 과거공부

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생들로 하여금 결국 등수와 합격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낳고, 이는 결국 공부에 있어 학습자의 존재를 소외시킨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서원에서는 儒者로서의 본업인 ‘道學’과 현실적 요청에 의한 ‘科業’을 병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유생들로 하여금 과거공부를 하더라도 지식과 덕성이 괴리되지 않고, 道學에 종사하면서도 科業이라는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음으로써, 그 두 가지 공부를 조화롭게 실천해가도록 할 것인가’가 늘 당면 과제였다. 1826년 통독에서 ‘강독하는 사이에 오직 화려한 문장으로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워할 만하다’고 한 李家淳의 고백은, ‘어떻게 하면 지식과 덕성을 괴리시키지 않고 科業과 道學을 조화롭게 병행해갈 것인가’에 대한, 19세기 소수서원의 지도자로서 洞主 李家淳이 지니고 있던 고민의 일단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선의의 경쟁에 머물러야 할 서원에서의 科業이 점차 유생들의 경쟁을 과열화시키고, 동시에 대부분이 科業을 준비하는 유생으로 제술을 완전히 폐지할 수도 없었던 서원의 현실에서, 1827년 동주 姜禔은 제술을 행하되 유생들 스스로 경쟁심에 사로잡힌 스스로의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試題를 출제하여 ‘시험을 통해 시험의 폐해를 비판하게 하는’ 寓意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생들의 과열화된 경쟁을 조절하고 科業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19세기 소수서원에서는 科業과 道學을 병행하되, 두 가지 공부를 최대한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科業으로 인한 경쟁의 과열화를 막고 지식과 덕성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전통과 의미가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보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한국 공교육의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그 진단과 처방은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의 하나가 바로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것이다. 학교는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목표로 교과교육, 지식교육만 주입식으로 행할 뿐, 사람 만드는 인성교육은 등한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부재는 한국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이면서,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 역시 ‘인성교육의 강화’로 귀결되곤 한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부재가 입시 경쟁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면,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이와 같은 생각에는 ‘입시교육’을 곧 ‘지식교육’ 혹은 ‘교과교육’과 동일시하고, 이는 주입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성교육’이란 ‘지식교육’과는 별도의 내용과 방식으

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통념이 깔려 있다. 이는 마치, 애초에 교육이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차원으로 존재했던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규범적 차원에서 ‘교육’이라는 개념은 이미 ‘올바른 인성의 함양’이라는 의미를 그 자체로 함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매치기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전수하는 사람의 경우,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일지라도 그를 ‘기술자’라고 할지언정 ‘교육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를 해치는 지식이나 기술의 맹목적인 주입은 이미 교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이미 지식과 인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즉, 모든 교육은 이미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지식교육 혹은 교과교육과 별도로 존재하는 인성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그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을 맺지 못할 때, 그것은 이미 실패한 교육이다. 따라서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은 등한시 한다’는 우리 공교육에 대한 흔한 비판은, ‘지식교육에는 성공하고 인성교육에는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과 인성이 서로 관련을 맺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결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이 지식과 인성의 관련을 맺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그 두 가지의 관련성을 논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교육에서 그 둘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각 시대나 사회가 생산하는 ‘지식의 성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와 비교할 때, 현대 교육에서 특히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마치 대립구도처럼 인식되는 것은, 두 시대의 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지식의 성격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선의 지식체계는 지식과 덕성이 결합된 매우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마음의 수양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이 이치를 찾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인간의 윤리 문제와 함께 연동되도록 고안되어 있었으며, 유학에서 격물궁부는 외부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적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sup>583)</sup>였다. 즉, 조선시대에는 교육이 대상으로 하는 지식의 성격상, 모든 교육은 도덕교육이었으며, 지식교육과 덕성교육은 원칙상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교육이 다루는 지식(교과)은 근본적으로 서구의 근대 분과학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서구의 근대학문은 주객의 합일을 표방하는 전통시대 유학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달리, 자연세계와 인간세계, 주체와 객체

583) 정순우, 『공부의 발견』, 2007, 현암사, 35~43쪽.

가 철저히 구별되는 이원론적이며 분석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이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별화·특수화·전문화된 근대 분과학문의 지식체계에서 교과와 인성, 객관적 지식과 마음의 수양의 관련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식과 인성의 관련이라는 교육의 근본 과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 말했듯, 올바른 인격 형성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기술의 맹목적 주입은 이미 교육이 아니므로, 현대 교육에서도 지식과 인성의 관련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지식과 덕성이 결합된 조선시대 교육의 현실은 어땠을까?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실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지식체계는 원리상으로는 지식과 덕성이 결합된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그들의 결합은 동시에 교육이 성취해야 할 과업이기도 했다. 修己治人과 內聖外王을 이상으로 하는 유학 교육에서 지식의 습득은 덕의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지식과 덕성을 동시에 갖춘 자만이 진정한 통치자로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기치인의 이상은 현실에서 ‘과거’라는 관리 선발제도에 묶여 실현되기가 쉽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의 완성’보다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공부는 점차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낳게 되고, 참다운 선비가 해야 할 ‘道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科學’이라 불리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지식의 성격이 지금과 전혀 달랐던 조선시대 역시, 道學과 科學의 갈등과 긴장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한편, 여전히 현실 교육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업의 하나였다.

이처럼 각 시대마다 교육이 다루는 지식의 내용과 성격, 교육제도를 뒷받침하는 사회구조는 계속 변화해왔지만, 전통과 근대,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면 지식과 덕성의 결합,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시대를 관통하는 교육의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의 전통은 이 화두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과 덕성의 결합’이라는 화두는 바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에서 줄기차게 탐구한 문제였다. 18세기 이래 소수서원에서 공부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 옥산강의, 중용, 연평답문 등은 모두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이들은 ‘지식과 덕성의 결합’은 결국 ‘관계’를 통해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오류으로 표현되는 인간관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 텍스트와 나의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 세계와 나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18세기부터 소수서원 강학에서 줄기차게 탐구해온 ‘心學’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일상에서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있

었다. 도립해서 말하면, 이들은 일상의 현실에서 맺는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이는 곧 마음공부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마음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일처리와 대인관계는 일어나는 그 순간 즉시, 저절로 순리에 맞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 소수서원에서 강론한 『中庸』에서 ‘戒愼恐懼’의 의미이자 『延平答問』의 핵심적인 주제였다. 관계의 실패는 곧 지식과 덕성의 괴리를 뜻하고, 이는 곧 존재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수서원에서 科業을 병행하면서도 한편, 끊임없이 과거공부의 폐해를 염려했던 이유는 바로,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과거공부는 텍스트와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공부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학습자의 존재를 공부에서 소외시킨다는 점에 있었다. 텍스트와 내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공부는 학습자를 소외시키지만, 텍스트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그 공부는 학습자를 변화시킨다. 즉, ‘지식과 덕성의 결합’은 관계를 통해 완성되지만, 동시에 ‘올바른 관계 맺음’은 그 자체로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에서는 心學 공부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몸과 마음의 관계’, ‘텍스트와 나의 관계’, ‘타자와의 관계’, ‘자연과 나의 관계’에 끊임없이 비추어 봄으로써,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피하고 있었다. 藏修로서의 개별독서와 敬의 공부론을 바탕으로 한 敬讀, 心學의 이론과 실재를 탐구하기 위한 通讀의 교육과정 및 자연에서 性情을 닦고 기르는 餘暇와 遊息의 과정, 麗澤觀善의 강학 이념 등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모든 강학 이념과 교육과정은, 결국 ‘올바른 관계를 통해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피하고자 한 교육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소수서원의 강학 전통은 지식과 덕성의 결합을 가능케 한 조선시대 유학교육의 한 원형으로서의 모습과, 지식과 덕성의 결합이 한편 해결해야 할 과업이기도 했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관계를 통한 지식과 덕성의 결합’이라는 이상적 상태는 비단 조선시대 서원 교육에서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대나 제도, 지식의 성격을 막론하고 그것이 교육이라 불리는 한, 모든 교육은 지식과 인성의 관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텍스트가 학습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지식은 학습자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후의 ‘나’는 교육을 받기 이전의 ‘나’와는 이미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교육만 하고 인성교육을 등한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인성이 관련을 맺지 못한다는 것, 즉, 지식이 학습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

의 전통과 의미는 현대 한국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최근 ‘관계를 통해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경기도의 일부 혁신학교의 운영 사례는, 현대 교육에서도 관계의 변화를 통해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즉, ‘어떻게 하면 지식과 덕성의 결합,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의 통합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교육의 오랜 화두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결국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 參考文獻

### 1. 연대기·관찬사료

『國朝寶鑑』

『己丑錄』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 2. 經書·子書類

『古文集成』

『近思錄』

『論語』

『小學』

『心經附註』

『延平答問』

『二程集』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年譜』

『中庸章句』

『晦庵集』

### 3. 서원지·읍지·지지류

『大東野乘』

-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  
 『紹修書院誌』, 紹修書院, 영남문헌연구소 편, 2007.  
 『榮州市史』,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梓鄉誌』  
 『全羅南道靈光郡地圖邑誌』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竹溪志』  
 『增補文獻備考』

#### 4. 조선시대 문집류

- 『艮翁集』  
 『葛庵集』  
 『葛川集』  
 『廣瀨集』  
 『錦溪集』  
 『南溪集』  
 『南厓集』  
 『訥隱集』  
 『丹谷集』  
 『大山全書』  
 『大山集』  
 『陶菴集』  
 『東溟集』  
 『邁埜集』  
 『明齋遺稿』  
 『木齋集』  
 『武陵雜稿』  
 『撫松軒集』

『文泉集』  
『澗湖集』  
『白隱集』  
『四留齋集』  
『士小節』  
『山澤齋集』  
『惺庵遺稿』  
『性齋集』  
『嘯臯集』  
『松西集』  
『松巖集』  
『息庵集』  
『新野集』  
『鵝溪遺藁』  
『梧山集』  
『愚伏集』  
『牛川集』  
『耘齋遺稿』  
『栗谷全書』  
『逸圃集』  
『貞山集』  
『定齋集』  
『操省堂先生文集』  
『蒼石集』  
『靑莊館全書』  
『退溪續集』  
『退溪集』  
『八松集』  
『霞溪集』  
『寒岡先生言行錄』  
『寒岡續集』

『寒岡集續集』  
『玄洲集』  
『好古窩集』  
『壺谷集』  
『弘齋全書』  
『黃岡先生實記』  
『晦軒先生實記』

## 5. 일기·고문서류

「童蒙定課」, 강원대학교박물관.  
「定齋先生門人錄」, 『全州柳氏水谷派之文獻叢刊』, 安東水柳文獻刊行會, 1983.  
『柯亭講錄』, 강원대학교박물관.  
『講所雜錄』, 소수서원.  
『居齋錄』, 국사편찬위원회.  
『居齋雜錄』, 국사편찬위원회.  
『古文書集成』 20 병산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紹修書院謄錄』, 국사편찬위원회.  
『雲院雜錄』, 소수서원.  
『雜錄』, 소수서원.  
『長潭講錄』, 강원대학교박물관.  
『虎溪講錄』, 장서각.

## 6. 단행본

권오영, 『영남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권오영, 『조선 성리학의 의미와 양상』, 일지사, 2011.  
김경용, 『科擧制度와 韓國 近代教育의 再認識』, 교육과학사, 2003.

- 김경용, 『장서각 수집 교육·과거관련 고문서 해제』, 민속원, 2008.
- 榮州市, 『國譯 紹修書院 雜錄』, 2005.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 이수환, 『朝鮮後記 書院研究』, 일조각, 2001.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丁淳睦, 『中國書院制度』, 문음사, 1990.
- 丁淳睦,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 정순우 외, 『龍山書院』, 집문당, 2005.
- 정순우, 『공부의 발견』, 현암사, 2007.
- 정순우, 『서당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 朱漢民, 『湖相學派와 嶽麓書院』, 學古房, 2011.
- 陳來, 이종란 외 옮김, 『주희의 철학』, 예문서원, 2002.
- 陳雯怡, 『由官學到書院』, 聯經, 2004.

## 7. 학위논문

- 김대식, 「조선조 서원강학활동의 성격-會講과 講會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대식, 「화서학과의 문인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김동석, 「朝鮮時代 試券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창욱, 「16세기 初期書院의 講學活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해용, 「學規를 통해 본 조선시대 서원교육과정의 변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종배, 「朝鮮時代 學校儀禮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서동수, 「17세기 遯巖書院의 講學活動과 정치·사회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宋楊燮, 「朝鮮時代 書院教育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李智恩, 「17~18세기 경상도 士族의 科擧 體驗- 『溪巖日錄』 과 『淸臺日記』 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장극봉, 「소수서원의 교육사적 의미」,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순우, 「18世紀 書堂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崔彩基, 「退溪 李滉의 『朱子書節要』 編纂과 그 刊行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8. 연구논문

- 강신주, 「주희(朱熹)와 이통(李侗)- 『연평답문(延平答問)]의 구성과 이통의 철학적 사유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21, 2005.
- 高錫奎, 「朝鮮 書院·祠宇에 대한 연구의 추이와 그 성격」, 『外大史學』 1, 1987.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 권오영, 「가학의 흐름, 학문 활동과 저술」, 『터를 안고 仁을 펴다-퇴계가 굽어보는 하계마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5.
- 권오영, 「조선조 『심경』 강론과 그 사상사적 의미」, 『심경-주자학의 마음 혼련 매뉴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09.
- 금장태, 「白鹿洞規圖 와 退溪의 書院교육론」, 『退溪學』 11권 1호, 안동대학교, 2000.
- 김경용, 「19세기말 更張期 朝鮮의 教育改革과 官學院錄」, 『교육사학연구』 18집 1호, 교육사학회, 2008.
- 김경용, 「龍山書院의 居接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집, 교육사학회, 2006.
- 김경용, 「이현영의 흥학활동 기록과 달성향교강회록」,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6
- 김경용, 「朝鮮朝末期 新設學校節目과 官學院節目」, 『교육사학연구』 17집 2호, 교육사학회, 2007.
-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21집 1호, 교육사학회,

2011.

김대식, 「華西門人の 性格과 閩塾書社の 地位」, 교육사학회, 2005.08.

김대용, 「조선후기 교육의 변화와 향촌사회」, 『대구사학』 64권 1호, 2001.

金武鎭, 「조선시대 성주의 교육체제」, 『한국학논집』 2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7.

金武鎭, 「朝鮮後期 敎化體制의 整備와 面訓長制의 性格」, 『역사교육』 58, 1995.

김문기, 「書院 敎育과 愼齋 주세붕」, 『국어교육연구』 38, 국어교육학회, 2005.

渡部學, 「亦樂書齋再再論-陶山書院의 敎育의 機能 追究-」, 『退溪學報』 4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74.

渡部學, 「韓國의 書院과 初等敎育의 發展-陶山書院의 近世敎育에 있어서의 原型性에 대하여-」, 『退溪學報』 2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74.

문태순, 「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의 성격 연구」, 『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20권 1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04.

閔丙河, 「朝鮮時代의 書院敎育」, 『大東文化研究』 17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3.

朴洋子, 「李退溪의 書院觀」, 『退溪學報』 83권 1호, 퇴계학연구원, 1994.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_특히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8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韓國書院學報』 1호, 韓國書院學會, 2011.

박종배, 「병산서원 교육 관계 자료 검토」, 『교육사학연구』 18집 2호, 교육사학회, 2008.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집 2호, 교육사학회, 2009.

박종배,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敎育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송준식, 「한강(寒岡) 정구(鄭述)의 사회敎育사상」, 『南冥學研究論叢』 8권, 남명학연구원, 2000.

申鐵淳, 「書院 敎育의 形成 背景과 實際」, 『敎育學研究』 5권 2호, 한국교육학회, 1967.

- 柳鐸一,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過와 朴光前의 位置」, 『退溪學과 韓國文化』 32집, 2003.
-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 『歷史教育』 92집, 歷史教育硏究會, 2004.
- 李峒丘, 「金元行의 實心 강조와 石室書院에서의 教育활동」,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 이경구, 「영조~순조 연간 호락논쟁의 전개」, 『韓國學報』 24권 4호, 일지사, 1998.
- 李範稷, 「조선전기 서원의 교육기능」, 『한국사론 8-조선전기 서원과 향약』, 국사편찬위원회, 1980.
- 이봉규, 「『延平答問』 논의를 통해 본 退溪學의 지평」, 『동방학지』 144, 2008
- 李完裁, 「心經附註 解題」, 조대봉·김종석 공역, 『완역 心經附註』, 以文出版社, 1991.
- 李泰鎭,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78.
- 李海濬, 「朝鮮後期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韓國史論』 21, 국사편찬위원회, 1991.
- 全丙哲, 「大山學派의 高山精舍 講會와 性理說 講論」, 『東方漢文學』 38집, 2009.
- 全在康, 「白雲洞書院의 創建과 周世鵬의 敎學 精神」, 『東方漢文學』 15권 1호, 동방한문학회, 1998.
- 정낙찬, 「주희의 서원 교육 방법론」, 『교육철학』 24, 한국교육철학회, 2004.
- 정낙찬, 「한중초기서원 교육비교」, 『비교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 정만조,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1975.
- 정만조, 「朝鮮朝 書院의 政治·社會的 役割」, 『韓國史學』,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정만조, 「朝鮮後期の 鄉村敎學振興論에 대한 檢討」, 『韓國學論叢』 10, 國民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88.
- 정만조, 「最近의 書院研究 動向에 관한 檢討」, 『韓國學論叢』 18, 國民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95.

- 정만조,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 정만조, 「退溪學派의 書院(教育)論」, 『南冥學研究』 9권,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9.
- 丁淳睦, 「書院文化의 傳承과 學統意識」, 『民族文化論叢』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丁淳睦, 「周世鵬·安玆의 書院振興策-紹修書院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 丁淳睦, 「朱晦菴과 李退溪의 書院教育論比較」, 『人文研究』 8집 2호, 1987.
- 정순우, 「개화기 서구근대교육의 수용과정과 그 성격」, 『정신문화연구』 15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정순우, 「고문서를 통해 본 촌락사회와 교육의 변동과정 연구」, 『정신문화연구』 22권 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순우, 「고문서를 통해서 본 경남지역 서원과 향교의 특성」, 『경남문화연구』 2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0.
- 정순우, 「심학과 이기, 정확을 둘러싼 논쟁들-퇴계의 강학활동과 도산강회」,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정순우,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집,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정순우, 「조선전기 영남지역 평민층에 대한 교화와 교육」, 『정신문화연구』 2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정순우, 「朝鮮後期 ‘營建日記’에 나타난 學校의 性格」, 『정신문화연구』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정순우, 「조선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신문화연구』 통권 5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정순우, 「韓國 初期 書院의 教育史的 意義」, 『한국학논총』 29권,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정순우, 「한말 유학교육에 나타나는 위정척사학파의 개혁논리」, 『종교교육학연구』 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채휘균, 「조선시대 초기서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교육철학』 20, 한국교육철학회, 2003.
- 최광만, 「17세기 地方教育政策의 性格-『課試謄錄』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

구』 18권 1호, 교육사학회, 2008.

최광만, 「19세기 강학활동 사례연구-「계재강의」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2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13.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권 1호, 교육사학회, 2012.

최성환, 「조선후기 이재의 학문과 한천정사의 문인교육」, 『歷史教育』 77집, 歷史教育, 2001.

崔完基, 「朝鮮朝 書院의 敎學機能 一考」, 『史學研究』 25호, 한국사학회, 1975.

황금중, 「조선시대 교육의 성리학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과제」, 『한국교육사학』 29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7.

## 【中文摘要】

### 朝鲜时代绍修书院讲学研究

韩国学中央研究院 韩国学大学院

教育学专业

金紫云

本研究以朝鲜时代的绍修书院为对象，意在探索绍修书院的讲学理念，实况及变化面貌，探究16至19世纪各时期讲学的特征和意义，并说明其教育学的意义。众所周知，朝鲜最初的书院是朝鲜中期由周世鹏以‘南宋朱子白鹿洞书院的掌故’为依据而创建的白云洞书院。但是确立于宋代的中国书院制度，其在北宋与南宋两时期性质各有所不同。地方官学发展以前，北宋的书院担当着官学替补的功能，与科举制度密切相关。庆历年间，在历经了三次大规模的兴学运动之后，官学急剧发展，而北宋书院或废止，或被纳入官学体系之中，逐渐走上了衰退之路。

处于停滞状态的宋代书院再次走上复兴之路是由于南宋的朱熹。朱子在任期间，批判了当时官学教学仅局限于科举考试范围的现状，而与吕祖谦，张栻等一起主导了白鹿洞书院，岳麓书院，石鼓书院等书院的复兴运动。此时朱子以张载和二程所提倡的‘正学’作为书院教育理想，赋予了南宋书院以‘新的私学精神’。以朱子为中心的这场南宋书院复兴运动，诞生了所谓‘探求张载伊洛之学问的书院’，即‘理学书院’。他们探求理学的目的就在于对‘道’的领悟及实践。此时书院的教育目标也不再是‘文章学或备考科举’，而是变为‘通过对理学的探究而到达对道德领悟及实践’。因此，与囿于科举之学的北宋书院不同，因朱子而诞生的理学书院，成为了自由讲论理学和道学的学术及教育基地。更重要的是，理学书院的出现和其学术氛围对之后学派的形成和学术发展起到了莫大的影响。而其中心即在于书院之‘讲学’。因朱子而诞生的南宋理学书院突破了科举的束缚，以‘道学和义理之学’为目标，使‘自由的学说传播’及‘以师说的继承为中心的学派的形成’成为可能，这些便是通过各书院

文人们的‘讲学’来实现的。这在性质上与以文章学和科举为目的北宋书院完全不同。

根据南宋朱子所创建的书院的模型，朝鲜的书院开始讲论道学，并通过讲学来继承、传播师说，由此逐渐成为各学派形成的大本营，此种状况始于17世纪以后。在此之前，岭南地区自退溪死后的16世纪末开始，已有退溪门人开始在陶山·易东·庐江·伊山等书院中祭享退溪，并通过讲学以继承先师的学说。退溪门人死后，亦由其后门人建立书院，供奉先师牌位，进行讲学活动，由此，17世纪左右，岭南地区的退溪学开始分化为以金诚一，柳成龙，郑述等为首的各系。17世纪之后，随着紫云·绍贤·遯岩·华阳洞·考岩等书院的建立，以书院为中心，形成了自栗谷李珥始，由金长生，宋时烈继承延续的畿湖学派的性理说和礼说的分化和发展，而18世纪石室书院的讲学，则为当时湖洛论争中首尔地区洛论的思想根基确立奠定了基础。

然而朝鲜最初的书院白云洞书院的讲学，到17世纪为止仍与‘讲论道学，传承师说’的书院形象相去甚远。这是受白云洞书院的创建者周世鹏的书院观的影响所致。虽说周世鹏模仿南宋朱子白鹿洞书院之制度建立白云洞书院，但事实上他对书院的认识仍然是基于北宋时期的书院认识，而不是南宋。周世鹏的这种书院是依据北宋的模型，将书院看作‘科业准备层次上的官学辅助机构’，这对于创立初期白云洞书院讲学的性质和方式都产生了质的影响，而且这种影响一直持续到了17世纪初期。那么，既然他依据的是北宋的模式，为何又要从朱子白鹿洞书院的掌故中寻找白云洞书院的创立根据呢？他所模仿的‘朱子白鹿洞书院的掌故’具体是指什么，他未曾遵循的朱子的标准又是什么呢？本文Ⅱ章当中对这个问题给予了回答，并由此探讨了周世鹏建立白云洞书院时所构想的教育的性质，以及他的书院观。他的书院观不仅与其对宋代书院制度的理解方式，更与其对朱子学的理解方式，及他的趋向性都有密切的关联。同时，Ⅱ章还考察了周世鹏的书院观对16世纪绍修书院的讲学所产生的实际影响，以及当时的讲学的具体形成状况，揭示了16世纪绍修书院讲学的性质和意义，成果和限制。

南宋朱熹确立的书院观被朝鲜社会所理解是始于周世鹏之后的退溪。正如同朱子之复兴南宋书院，退溪赴任丰基郡守，通过向朝廷申请白云洞书院赐额，成功地奠定书院获得国家承认和支援的制度基础。同时，对于官学受科举和利禄之风浸染，仅将学问看作是通过对科举和获取利禄的手段的诸多弊端进行了指责，他强调书院立意只在‘讲明道学’，书院讲究学问的方法在于古人的为己之学。他继承朱子的书院观，为将其植根于朝鲜社会而付出了诸多努力，然而欲冲破科举束缚，确立旨在实践真正的为己之学的道学书院却相当不易。他在任丰基郡守期间，每闲暇时即往白云洞书院讲论‘道学’，力图刷新偏重科业的书院学风，使诸生领悟道学真谛，但到17世纪前期为止，绍修书院的讲学重心依然是科学，而非

道学。

对此种讲学方式的批判始于17世纪前半期左右。17世纪，绍修书院的运营者对于当时绍修书院偏重科举的讲学方式表现出深深的担忧和批判，为将绍修书院改变成为书院原本意义上的讲明道学的讲学空间而倾注了巨大的努力。其中之一便是围绕着创立初期周世鹏所定的以科举入格者为中心的入院资格而展开的‘罢格论争’。自17世纪初开始的这场论争当中，站在‘罢格论’的立场上的退溪门人指出应改正以科举入格者为中心的入院规定，主张罢格，阐明了儒学教育的本质和书院存在的意义所在。历经一番曲折，到18世纪初，这场论争终以罢格收尾，正是以此论争为决定性契机，17世纪前半期为止以‘科业为主’而运营的绍修书院讲学，到了18世纪之后，其性质变为‘以道学为中心’。Ⅲ章考察了17世纪上半期为止，科业为主的绍修书院讲学的运营实况，并研究了退溪门人掀起的对科业为中心的讲学方式的批判，以及罢格论证中主张罢格者的主张。由此来展示由朱子和退溪所阐明的‘讲明道学之处’的书院讲学理念，于17世纪以后在绍修书院的确立过程。

18世纪，由于书院的暴增，‘书院本是为儒生讲学而设，但今书院无讲学之实，仅以祭享为是，冒占土地良丁，招致社会弊端’等批判日益深化，朝廷实施了书院的叠设禁止、不许赐额、毁损等各种控制政策。因而，地方官们苦于构建恢复乡村的教育职能的方案，各个书院亦在能力范围之内，开设讲学，为维持书院教育职能而竭尽所能。绍修书院作为最初的赐额书院自然不属于朝廷的直接控制对象，但书院设立的对18世纪绍修书院经济基础的弱化产生了直接的影响。经济基础的弱化随即导致了讲学运营方式的直接变化，作为讲学运营上的应变之策，18世纪开始出现了像‘三冬居斋’、‘轮番居斋’等前所未有的方式。

除了书院的暴增之外，影响18世纪绍修书院讲学的重要事件就是始于17世纪的‘罢格论争’。1719年此论争最终以罢格的确定收场，同时绍修书院讲学性质由17世纪以来以‘科业’为中心明确地变为‘道学’为主。这也使得讲学形态由17世纪为止以科业为目的的‘居接’变为18世纪的体现道学目的的‘居斋’形态。居斋标榜的目的是‘道学的探求和实践’，试图通过‘个别读书·敬读·通读’等教育课程来实现此目的。而且，18世纪初开始标榜为居斋目的的‘道学’在进入18世纪下半期后，进一步具体化为对‘心学理论和实践’的探究。即，在17世纪，朱子和退溪所阐明的‘讲明道学之处’的书院讲学理念虽得到了共享和扩散，但其未曾反映到实际讲学之中，因此如果说17世纪是这样一个过渡期的话，那么18世纪就可以说是书院具体的讲学形态和方式产生变化，书院讲学理念的固定化时期。Ⅳ章通过对居斋的教育课程和运行状况、敬读及通读教材的分析，说明了经过17世纪的过渡期后，18世纪作为‘讲明道学之处’的书院，其讲学理念的确定，及心学的探求和实践的道学具体化的过程。并对18世纪后半期居斋的心学特征，以及以科业为内容的白日场及旬制活跃的背景进行了探讨。

18世纪，讲学财政枯竭，地方官的全面支持亦不复存在，绍修书院将四时居接变为三冬居斋，并采用轮番居斋的方式来减缩居斋人数和时间，依据院任的关心和能力，虽不稳定但仍勉强维持讲学。进入18世纪中期，绍修书院设置运营养士厅，以确保讲学财政基础的稳定。但养士厅也是历经反复的中断和复设，最终废止于18世纪后期。而在19世纪，绍修书院的财政困难加剧，甚至到了连‘三冬居斋’也难以开设的地步。因此绍修书院将院长居住地的地区限制范围扩大到道内，任命前职·现职官吏为院长，同时还采用了顺兴府使兼任院长的兼院长制度，借助地方官的支援以维持讲学。

19世纪讲学的另一个变化是，每年根据季节将科业与道学并行，并作为惯例固定下来。这一点反映了19世纪的书院学生‘大多数是科举应试的儒生’的这一现实状况。即是说，在19世纪，考虑到将要应试科举的大多数书院儒生的情况，书院每年按照季节同时开设以科业和道学为目的教育课程，对儒生们的科举应试采取较为现实和积极地应对政策。

另外，19世纪绍修书院最大的变化是开始显现出最初的学派性特征，而之前一直到18世纪为止，绍修书院都未曾出现过分明的学脉和学派性趋向。19世纪，大山李象靖和定斋柳致明的门人们，也即是湖学的核心人物，担任洞主并主导着书院的讲学。在讲学内容方面，主要包括心学指南书『朱子书节要』，阐释圣学和心学要谛的退溪『圣学十图』，李象靖和柳致明极为重视的强调实践性工夫论的朱子「玉山讲义」、「延平答问」，以及贯通未发和已发，动静的通体工夫，阐述李象靖所注重的戒慎恐惧之意义的『中庸』等等，19世纪的绍修书院通过这样的讲学继承着湖学注重心学与日常实践学术特征。绍修书院直至19世纪才显现出学脉和学派性趋向，这一点有别于16、17世纪其他书院为继承、传播特定先师，特定学派的学说而建，并以特定学脉为中心开展讲学活动的状况，是体现绍修书院讲学的变化和特征之所在。

V章考察了19世纪陷于财政困境中的绍修书院，授院长之职于前职·在职官员或采用兼院长制度以维持讲学的状况，并通过其教育课程的变化和1827年中庸讲会的讲论内容，分析了19世纪讲学中湖学学风的继承过程。1828年文会之后，书院以李泰淳，李秉运，李家淳，姜耘，柳鼎文等湖学核心人物为中心，组织了一次历时9天的少白山游览活动，本章对这次游览的过程和意义也进行了探讨。这次的游览，不仅是一个游息的过程，也是以‘道的发现和体认’为目标的书院教育课程中的一环。在游览的最后4天，以李秉运，李家淳，姜耘，柳鼎文为首的学者们还在山寺中讲读、校检了大山门人黄龙汉的文集，这对19世纪绍修书院大山学脉的传承也起到了一定作用。另外，主要出身于安东和礼安，原本以高山书堂和虎溪书院为活动舞台的湖学核心人物们，他们是在怎样的背景和契机下在19世纪登场绍修书院的呢？本章的最后一节主要探讨了这一问题。

最后，VI章对朝鲜时代绍修书院讲学的教育学意义进行了分析。首先，在当时，对于‘书院这个地方究竟应进行什么样的学习’这样有关书院本质的问题尚未明确，可以说，作为朝鲜最初的书院，绍修书院所必经的讲学变化的过程，也就是朝鲜书院本质得以确立的过程。18世纪以来，绍修书院的教育课程倡导道学和心学，它既是以敬工夫论来体现的对身心的严格检束，也是囊括‘藏修，游息，诗书礼乐’在内的教育课程。另外，这种教育课程其终极目标在于，建立‘身与心’，‘世界与我’之间的一种正确的联系，从而使知识与德性不相背离，并使之融入于日常生活中的每一瞬间。也就是说，绍修书院讲学所追求的‘知识与德性相结合的工夫论’最终是通过这样的‘联系’来实现的，而所有的教育都是以‘知识与德性的结合’或‘知识与人性的统合’为前提的。如今韩国公教育的根本问题，不是偏重应试教育，只注重知识教育而忽视人性教育的问题，而是在于不能成功地以知识与人性相关联的方式来实施，即是说，在于知识与学习者不能形成‘真正的联系’的问题。从这一点来看，朝鲜时代谋求‘通过联系的建立来实现知识与德性的结合’的绍修书院讲学传统，对现代公教育启示颇多。

\* 关键词：书院 讲学，绍修书院，道学，为己之学，科学，科业，讲会，居斋，居接，旬制，白日场，敬读，通读，藏修，游息，罢格，复格，丽泽之力，心学，湖学，心经，近思录，朱子书节要，中庸，玉山讲义，延平答问